

연구보고 2014-33

한국아동패널 2014

최윤경 배운진 송신영 임준범 이예진 김소아 김신경

차 례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24
4. 연구동향	28
II. 7차년도(2014) 패널 연구 사업 보고	40
1. 7차년도 조사·연구의 특징	40
2. 7차년도 조사 진행 절차	49
3.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52
4. 자료 확산 및 연구 심화	55
III. 6차년도(2013) 조사결과 기초 분석	57
1. 6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57
2. 패널 영유아가구의 특성 전반	58
3. 아동 특성	61
4. 부모 특성	112
5. 가구 특성	153
6.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174
7. 지역사회 특성	188
8. 육아 정책 특성	204
IV. 1~6차년도 주요 데이터 추이 분석	218
1. 가정환경(HOME)	218
2. 아동의 언어발달: 어휘력 검사(REVT) 결과	221
3. 부모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	224
4.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227

5.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231
6. 소결 및 정책 제언	233
V. 정책적 시사점	235
1. 만 5세 한국아동의 성장발달 현황	235
2. 만 5세 한국아동의 양육환경 진단	236
3. 육아지원정책 설계에 주는 시사점	238
참고문헌	241
Abstract	246
부록	249
부록 1. 가중치 작성 및 추정	251
부록 2. 6차년도(2013) 질문지	259
부록 3. 7차년도(2014) 조사 안내문	316

표 차례

〈표 I-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5
〈표 I-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17
〈표 I-2-3〉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19
〈표 I-2-4〉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21
〈표 I-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21
〈표 I-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22
〈표 I-2-7〉 차수별 육아 정책 특성 변인	23
〈표 I-4-1〉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28
〈표 I-4-2〉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연구자	28
〈표 I-4-3〉 활용 발간물 발표 연도	29
〈표 I-4-4〉 활용 연구의 유형 및 분석 유형	29
〈표 I-4-5〉 활용 발간물 주 연구 내용	29
〈표 I-4-6〉 EPPE 조사 내용	33
〈표 I-4-7〉 SECCYD의 단계별 연구 참여자	34
〈표 I-4-8〉 GUiNZ의 목표	36
〈표 II-1-1〉 권역별 원 표본 수	40
〈표 II-1-2〉 7차년도 본조사 질문지 구성	41
〈표 II-1-3〉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43
〈표 II-1-4〉 7차년도 아동 대상 조사 구성	44
〈표 II-1-5〉 기관 교사 대상 조사의 유형과 내용	45
〈표 II-2-1〉 2014년 조사원 교육 일정	51
〈표 II-2-2〉 2014년 조사원 교육 일정 및 내용	51
〈표 II-2-3〉 질문지별 조사 일정	52
〈표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53
〈표 II-3-2〉 한국아동패널 2013년 조사별 성공률	54
〈표 II-3-3〉 한국아동패널 2014년 관찰 지역별 성공률	54
〈표 II-4-1〉 2014 제 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진행	55
〈표 III-2-1〉 한국아동패널 영유아(가구)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59

〈표 III-3-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61
〈표 III-3- 2〉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62
〈표 III-3- 3〉	아동의 입원 치료	62
〈표 III-3- 4〉	아동의 입원 이유(중복응답)	63
〈표 III-3- 5〉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63
〈표 III-3- 6〉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율(중복응답)	64
〈표 III-3- 7〉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시기	64
〈표 III-3- 8〉	출생 후 천명/천식 발생률/진단율, 발생/초진 시기	65
〈표 III-3- 9〉	최근 1년 천명/천식 증상 여부 및 발생 횟수	65
〈표 III-3-10〉	최근 1년 천명/천식 미발생 시 이전 발생 시기	66
〈표 III-3-11〉	출생 후 천명/천식 발생 빈도 및 의사 확인 여부	66
〈표 III-3-12〉	최근 1년 천명/천식 치료 및 약물 사용 횟수	66
〈표 III-3-13〉	사용한 천식 약물(중복응답)	67
〈표 III-3-14〉	출생 이후 현재까지 천명/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67
〈표 III-3-15〉	생후 24개월 내 모세기관지염 진단률 및 발병 시기	68
〈표 III-3-16〉	(감기, 독감 외)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	69
〈표 III-3-17〉	알레르기비염 진단율 및 치료율	70
〈표 III-3-18〉	피부발진 발생률 및 발병 시기	70
〈표 III-3-19〉	아토피피부염 진단율 및 치료율	71
〈표 III-3-20〉	알레르기 증상 및 진단 여부	71
〈표 III-3-21〉	알레르기 증상	71
〈표 III-3-22〉	알레르기 발생 의심 음식	72
〈표 III-3-23〉	출생 후 12개월 내 약제 사용	72
〈표 III-3-24〉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및 착용 시기	73
〈표 III-3-25〉	아동의 체중 및 신장	73
〈표 III-3-26〉	아동의 대소근육 발달	74
〈표 III-3-27〉	아동의 우세 손	75
〈표 III-3-28〉	아동의 인지발달	76
〈표 III-3-29〉	아동의 지능 발달	77
〈표 III-3-30〉	아동의 동작성 지능	78

〈표 III-3-31〉	아동의 언어성 지능	79
〈표 III-3-32〉	아동의 언어 발달	80
〈표 III-3-33〉	아동의 어휘력 발달	82
〈표 III-3-34〉	아동의 어휘력 발달 정상성 기준	83
〈표 III-3-35〉	아동의 수용 어휘력 등가연령	85
〈표 III-3-36〉	아동의 표현 어휘력 등가연령	85
〈표 III-3-37〉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86
〈표 III-3-38〉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87
〈표 III-3-39〉	아동이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87
〈표 III-3-40〉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88
〈표 III-3-41〉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90
〈표 III-3-42〉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	91
〈표 III-3-43〉	아동의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 수면 및 기타 문제 ..	91
〈표 III-3-44〉	아동의 문제행동: DSM방식 척도	92
〈표 III-3-45〉	아동의 자아개념	93
〈표 III-3-46〉	아동의 가정에서의 식습관	95
〈표 III-3-47〉	아동의 기관에서의 식습관: 편식, 식사량 및 속도	96
〈표 III-3-48〉	아동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	97
〈표 III-3-49〉	아동의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98
〈표 III-3-50〉	아동의 가정에서의 간식 횟수	98
〈표 III-3-51〉	아동의 외식 또는 배달음식 섭취 횟수	98
〈표 III-3-52〉	아동의 수면 시간	99
〈표 III-3-53〉	아동의 숙면 여부	100
〈표 III-3-54〉	아동의 가정에서의 낮잠	100
〈표 III-3-55〉	아동의 기관에서의 낮잠	101
〈표 III-3-56〉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및 사교육 시간	102
〈표 III-3-57〉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 및 주간 이용 일	103
〈표 III-3-58〉	아동의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104
〈표 III-3-59〉	아동의 시청각 기기·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 과 주간 이용 일	105
〈표 III-3-60〉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컴퓨터(인터넷)	106

〈표 III-3-61〉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개인 게임기	107
〈표 III-3-62〉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휴대폰	108
〈표 III-3-63〉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TV 시청	109
〈표 III-4-1〉	부모의 연령 및 학력	113
〈표 III-4-2〉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113
〈표 III-4-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이유	114
〈표 III-4-4〉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114
〈표 III-4-5〉	부모의 음주 실태	115
〈표 III-4-6〉	흡연	115
〈표 III-4-7〉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116
〈표 III-4-8〉	부모의 직장 변동 여부	116
〈표 III-4-9〉	부모의 종사상 지위	117
〈표 III-4-10〉	부모의 직업군	117
〈표 III-4-11〉	어머니 평균 근무일 및 시간	118
〈표 III-4-12〉	어머니 1일 평균 근로시간	118
〈표 III-4-13〉	부모의 우울	119
〈표 III-4-14〉	부모의 우울	121
〈표 III-4-15〉	부모의 자아존중감	122
〈표 III-4-16〉	후속출산 계획 여부	123
〈표 III-4-17〉	후속출산 비계획 이유	124
〈표 III-4-18〉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124
〈표 III-4-19〉	이상 자녀수	125
〈표 III-4-20〉	자녀 기대성별	125
〈표 III-4-21〉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구성	126
〈표 III-4-22〉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127
〈표 III-4-23〉	부모의 도구적 자녀가치	128
〈표 III-4-24〉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미래기대	129
〈표 III-4-25〉	자녀의 미래기대: 아버지	129
〈표 III-4-26〉	자녀의 미래기대: 아버지	130
〈표 III-4-27〉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132
〈표 III-4-28〉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132

〈표 III-4-2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33
〈표 III-4-30〉	모-자녀 상호작용: 전체	134
〈표 III-4-31〉	모-자녀 상호작용: 출생순위별	135
〈표 III-4-32〉	모-자녀 상호작용: 취업여부별	136
〈표 III-4-33〉	모-자녀 상호작용: 학력별	137
〈표 III-4-34〉	부모의 양육 부담	138
〈표 III-4-35〉	사회적 지원 인원	140
〈표 III-4-36〉	사회적 지원 정도	141
〈표 III-4-37〉	사회적 지원	141
〈표 III-4-38〉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수	143
〈표 III-4-39〉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143
〈표 III-4-40〉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	144
〈표 III-4-4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144
〈표 III-4-4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이유	145
〈표 III-4-43〉	육아지원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145
〈표 III-4-44〉	육아지원 기관 등/하원 수단	146
〈표 III-4-45〉	육아지원 기관 등/하원 시 동반자	146
〈표 III-4-46〉	육아지원 기관 등/하원 시간	146
〈표 III-4-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147
〈표 III-4-48〉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148
〈표 III-4-49〉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 기관 생활 관심 정도	149
〈표 III-4-50〉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빈도	150
〈표 III-4-51〉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율	151
〈표 III-4-52〉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내용(중복응답)	152
〈표 III-4-53〉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여부	152
〈표 III-5- 1〉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154
〈표 III-5- 2〉	3대 질환 가족력	154
〈표 III-5- 3〉	집안 습기로 인한 얼룩 여부 - 생후1년, 현재 시점	155
〈표 III-5- 4〉	공간별 습기로 인한 얼룩 - 생후1년, 현재 시점	156
〈표 III-5- 5〉	집안 내 곰팡이 - 생후1년, 현재 시점	156
〈표 III-5- 6〉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 - 임신~생후1년 기간	157

〈표 III-5- 7〉 애완견 키우기 - 생후 1년, 현재 시점	157
〈표 III-5- 8〉 고양이 키우기 - 생후 1년	158
〈표 III-5- 9〉 아동의 흡연 노출 - 현재	158
〈표 III-5-10〉 아동의 흡연 노출 - 생후 12개월	159
〈표 III-5-11〉 모의 흡연 노출 - 임신 중	160
〈표 III-5-12〉 월평균 소득	160
〈표 III-5-13〉 월평균 지출	161
〈표 III-5-14〉 가구 자산	161
〈표 III-5-15〉 부채 여부	161
〈표 III-5-16〉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162
〈표 III-5-17〉 사회보장 지원	162
〈표 III-5-18〉 HOME: 가정환경 문항 수 및 중위수	162
〈표 III-5-19〉 HOME: 영역별 비교	163
〈표 III-5-20〉 HOME: 가정환경 총점	164
〈표 III-5-21〉 HOME: 학습자료	165
〈표 III-5-22〉 HOME: 언어자극	165
〈표 III-5-23〉 HOME: 물리적 환경	166
〈표 III-5-24〉 HOME: 반응성	167
〈표 III-5-25〉 HOME: 학습자극	168
〈표 III-5-26〉 HOME: 모방학습	169
〈표 III-5-27〉 HOME: 다양성	170
〈표 III-5-28〉 HOME: 수용성	170
〈표 III-5-29〉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172
〈표 III-5-30〉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173
〈표 III-6- 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174
〈표 III-6- 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175
〈표 III-6- 3〉 기관 평가 여부	176
〈표 III-6- 4〉 육아지원기관의 규모	176
〈표 III-6- 5〉 육아지원기관의 연령 구성	177
〈표 III-6- 6〉 학급 규모	178
〈표 III-6- 7〉 학급 규모에 대한 교사의 인식	178

〈표 III-6- 8〉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특성	179
〈표 III-6- 9〉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크기 적절성	180
〈표 III-6-10〉 교사의 성별 및 연령	180
〈표 III-6-11〉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및 경력	181
〈표 III-6-12〉 교사의 최종학력	182
〈표 III-6-13〉 교사의 전공	182
〈표 III-6-14〉 교사 근무시간	183
〈표 III-6-15〉 교사의 교수 특성	183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184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185
〈표 III-6-17〉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및 시간	185
〈표 III-6-18〉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	186
〈표 III-7- 1〉 거주 유형	188
〈표 III-7- 2〉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189
〈표 III-7- 3〉 보육·교육 기관 충분성(전체)	189
〈표 III-7- 4〉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190
〈표 III-7- 5〉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191
〈표 III-7- 6〉 사교육기관 충분성	192
〈표 III-7- 7〉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193
〈표 III-7- 8〉 놀이터 이용 편리성 및 평균 이용 일	193
〈표 III-7- 9〉 공원 이용 편리성	194
〈표 III-7-10〉 산책로 이용 편리성	195
〈표 I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전체)	196
〈표 III-7-12〉 박물관 이용 편리성	196
〈표 III-7-13〉 미술관 이용 편리성	197
〈표 III-7-14〉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이용 편리성	198
〈표 III-7-15〉 영화관 이용 편리성	199
〈표 III-7-16〉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	200
〈표 III-7-17〉 도서관 이용 편리성	201
〈표 III-7-18〉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 - 치안, 안전사고	203
〈표 III-8- 1〉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1	205

〈표 III-8- 2〉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2	207
〈표 III-8- 3〉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208
〈표 III-8- 4〉 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208
〈표 III-8- 5〉 육아지원제도 지원 정책 개선방안	209
〈표 III-8- 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211
〈표 III-8- 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212
〈표 III-8- 8〉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213
〈표 III-8- 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전체	214
〈표 III-8- 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소득별	215
〈표 III-8-10〉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216
〈표 IV-1- 1〉 가정환경의 질	218
〈표 IV-1- 2〉 어머니 최종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	220
〈표 IV-2- 1〉 표현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221
〈표 IV-2- 2〉 수용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223
〈표 IV-3- 1〉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	224
〈표 IV-3- 2〉 어머니의 우울	225
〈표 IV-3- 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225
〈표 IV-3- 4〉 양육스트레스	227
〈표 IV-4- 1〉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및 자녀에 대한 지출	228
〈표 IV-4- 2〉 출생순위에 따른 월평균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지출	228
〈표 IV-4- 3〉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지출 ...	230
〈표 IV-5- 1〉 주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231
〈표 IV-5- 2〉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시간	232
〈표 IV-5- 3〉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시간	232

그림 차례

[그림 II-1-1]	패널조사의 구성	41
[그림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53
[그림 III-3-1]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 등가연령	84
[그림 III-3-2]	아동의 생활시간	99
[그림 III-3-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106
[그림 IV-1-1]	가정환경의 질	219
[그림 IV-1-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	220
[그림 IV-2-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휘력 발달	222
[그림 IV-3-1]	부모의 취업률	224
[그림 IV-3-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	226
[그림 IV-3-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226
[그림 IV-3-4]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227
[그림 IV-4-1]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전체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비율	229
[그림 IV-4-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전체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230
[그림 IV-5-1]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	231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연도별 아동패널 응답가구 분포	253
〈부록 표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255
〈부록 표 3〉 6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3년 자료 기준) ..	255
〈부록 표 4〉 6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3년 자료 기준) ..	257
〈부록 표 5〉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수 및 가중치 적용	258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 후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임.
- 2008년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해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현재 7년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 육아환경에 대한 정보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음.
- 2014년에는 만 6세아에 적합한 조사를 수행하여 취학 전 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육아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2013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과 주요 변인의 추이를 분석함. 또한 방법론적·경제학적·건강생리학적 접근과 적용 및 영유아기 발달과 출산, 취업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¹⁾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우리사회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육아지원의 정책과 기관 및 부모, 가정의 제 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한국아동패널
- 인간발달의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한 아동패널 모형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아동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의 제 분야를 포괄하여 다층적으로 조사함.

1)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 연구」는 별도 발간함(최윤경 편, 2014).

□ 한국아동패널 2014

- 6차년도 일반조사 및 2차 심층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 문헌 고찰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한 7차년도 조사계획 수립. 패널 아동, 부모, 기관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및 아동 수행검사 실시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 및 5차년도 조사데이터 공개
- 패널 유지 및 데이터 생성과 보정 등의 지속적 관리
- 0~5세 패널 자료 종단분석을 통한 변화 추이와 아동발달과 가정환경, 육아 지원 서비스 간 관계 연구, 학술적·정책적 시사점 도출

2. 7차년도(2014) 패널 연구 사업보고

가. 7차년도 조사 개요

- 7차년도 조사는 CAPI 방문 면접 조사, 아동 수행 검사,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웹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대상은 아동,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육아지원기관 및 반일제 이상 학원 교사임.



- 아동수행 검사는 REVT, 발화 검사를 실시하였음.

- 7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발달 도구는 인지 영역의 학습준비도, 학업 능력,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언어 영역의 REVT, 조음발화 검사, 주관적 행복감, 양육효능감, 부모 공동양육,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문항이며, 신체운동 발달의 항목을 보강하였음.

나.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 총 패널 2,150명 중 1,620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7.5%, 전체 패널 대비 75.3%임.

3. 6차년도(2013) 조사결과 분석

가. 6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 만 5세 패널 아동/가구 대상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조사 참여자는 아동 기준 1,662명, 심층조사 참여자는 414명임.
 - 한국아동패널 연구모형을 토대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만 5세 연령에 적합한 발달 영역에 해당되는 도구를 사용하였음.
 - 자아개념: Joseph(1992)의 자아개념 검사(JPPSST: 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 인지기능: 심층조사 대상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 언어발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여 수용어휘력은 전체, 표현 어휘력은 심층조사 대상만 실시
 - 알레르기 질환: 서울아산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 관련 국제 비교 문항 추가

나. 패널 영유아가구의 특성 전반

- 패널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징 및 대표성 검토
 - 일반조사: 2012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와 비교할 때, 평균 소득 433만원, 아버지 학력을 기준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72.9%, 어머니 취업

를 42.8%(휴직 포함)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의 분포가 다소 높고 모 취업률에 있어서는 근소하게 낮으나, 대표성에 무리가 없는 수준임.

- 심층조사: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어, 대표성에 제한이 있음.

다. 아동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6차년도 조사 참여 아동은 총 1,662명이며, 평균 월령 62.61개월(표준편차 1.31개월)로 만5.2세임.
- 성별은 남아 856명, 여아 806명, 출생순위는 첫째 49.8%, 둘째 39.1%, 셋째 이상은 11.1%임.

☐ 건강 특성

- 조사시점 당시 지난 한 달 간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이 절반가량이었고, 생후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아동이 전체 아동 중 1/3 이상이며,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받은 아동은 1/5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 중 2.3%의 아동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처음 안경을 착용한 시기는 평균 만 4.30세이고 도시지역일수록 안경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음.

☐ 신체 발달

- 아동의 평균 체중은 19.25kg, 평균 신장은 110.20cm임.
- 두발 자전거 타기(대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0%, 젓가락 사용하기(소근육 운동)를 할 수 있다는 응답은 53.8%이었으며, 아동의 80% 이상이 오른손을 우세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인지 발달: 전반적인 인지영역 평가 점수 및 아동의 지능점수는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언어 발달: 전반적인 언어영역 평가 점수는 평균 수준이었으며,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을 포함한 언어 발달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사회·정서 발달

- 약 86%이상의 아동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관과 담임교사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남아(73.8%)가 놀이영역 중 쌓기영역을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아는 미술영역(52.6%)과 역할놀이영역(31.9%)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아동의 놀이상호작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또한 임상·준임상 판단 기준보다 낮은 양호한 수준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 일과 및 생활시간

- 밤잠을 제외하고 하루 중 가장 긴 시간하는 활동은 보육·교육기관 이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실내놀이, TV시청 등 미디어를 사용한 놀이, 기본생활, 바깥놀이 및 외출, 가정에서 낮잠, 사교육 활동, 기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활동 순으로 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남.
- 미디어 이용은 TV 시청과 휴대폰 사용이 컴퓨터/게임기의 이용률 상승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함.

라. 부모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평균 연령은 36.09세, 아버지는 38.56세이며, 98%이상 유배우 초혼 상태임.

□ 직업 특성

- 어머니는 미취업/미학업 상태가 58%, 취업 중 38.7%임.
- 취업모의 상용직 비율은 낮고 임시직 비율은 높으며, 직업군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직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직업군에 고루 펼쳐져 있는 것에 비해 어머니에게서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음.

□ 정신 건강

-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은 낮으나, 어머니의 20.5%, 아버지의 16%가 경도·중증도 우울 증상을 보임. 중도 우울은 어머니의 7%, 아버지 4%가 해당되어 우울 증상이 보고됨.

□ 부모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 대체로 남아에게 돈을 잘 벌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여아에 비해 높고, 여아에게는 취미나 여가를 중시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음.
 - －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이타심과 사회적 명성에 대해 첫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둘째, 셋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보다 낮음.

□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특성

- 패널 가구에서는 패널 아동의 발달 및 또래와의 어울림을 위해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지원 기관의 선택 기준은 거리의 근접성과 프로그램 내용 및 교사의 질을 중점으로 고려함.
- 유아의 54.5%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36.2%), 반일제 이 상 학원(3.6%)의 순으로 나타남.
- 어머니가 취업모일 경우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1시간 가량 일찍 등원하여 2시간 가량 늦게 하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이용비용은 평균 12만원에서 32만원까지 이용기관에 따른 편차가 큼. 가구 특성과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와 육아 지원 기관 이용의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마. 가구 특성

-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23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3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을 알아본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아버지 26.8%, 어머니 32.6%, 형제자매 32.0%), 아토피 피부염(6.9%, 7.4%, 19.8%), 천식(3.8%, 4.6%, 7.0%)의 순으로 발병률이 높았으며, 부모에 비하여 형제자매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음.

□ 가계경제 요소

-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433만원,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88만원임.
-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은 월평균 388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은 125만원이었음.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은 223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91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162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33만원으로 나타났음.
- 패널 가구의 60.4%는 부채가 있었으며, 부채액은 평균 8,088만원, 월 약 52만원을 상환하고 있었음.

□ 가정환경점사의 전체 평균은 55점 만점 기준 49.44점이었음. 하위영역별로 학습자료의 평균은 9.03점(11점 만점), 언어자극은 6.79점(7점 만점), 물리적 환경은 6.75점(7점 만점), 반응성 5.97점(7점 만점), 학습자극 4.79점(5점 만점), 모방학습 4.33점(5점 만점), 다양성 8.16점(9점 만점), 수용성 3.64점(4점 만점)이었음.

-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은 어머니는 각각 3.96점, 3.60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버지는 각각 4.04점, 3.72점으로 지각하여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가족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바.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 기관 특성

-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사립 개인 유치원이 70.6%, 민간 어린이집이 58.7%, 영어 학원이 39.6%로 응답됨.
- 교사 1인당 평균 16.2명을 담당하며, 이는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이 평균 16.2명이라는 응답과 유사한 수치였음.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아동이 이용하는 교실 내 휴식 공간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21.6%였고, 실외 놀이 공간이 없는 경우 7.3%,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이 없는 경우 10.7%였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휴식 및 실외 놀이 공간이 없는 경

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사 특성

-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0대가 59.7%로 가장 많았음. 교사의 연령은 유치원 교사일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교사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교사는 하루 평균 10.1시간을 근무하며, 주말 근무는 월 평균 1회 5.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함.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유치원(10.42시간), 어린이집(9.86시간), 반일제 이상 학원(8.73시간)의 순으로 나타남.
- 교사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3.84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 4.25점으로 높게 인식함.

☐ 특별활동 특성

- 패널 아동은 87.5%가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98.5%가 기관 외 특별활동 즉 사교육을 이용함.
- 이용 종류는 기관 내에서는 영어(19.4%), 체육(18.7%) 활동이 주를 이룬 반면, 기관 외 특별활동에서는 국어(23.2%), 미술(15.8%), 수학(15.8%)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특별활동 이용 시간은 기관 내에서는 주당 평균 7.66회, 198.57분을 이용하는 반면, 기관 외 특별활동은 주당 평균 2.92회, 20.48분으로 응답됨.
- 기관 외 특별활동은 평균 10만 3천원 가량 지불함.

사. 지역사회 특성

- ☐ 거주 지역 유형은 일반아파트 지역 72%, 일반주택 지역 21%로, 전체 패널 아동의 93%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이사는 출산 후 1회 이사가 38%, 이사를 한 적 없음이 26.8%로 나타남.

☐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은 5점 척도 기준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2.64점, 민간 육아지원기관이 3.08점임.

- 공공여가시설의 이용 편리성은 5점 척도 기준 놀이터 3.27점, 공원 3.02점, 산책로 3.06점이었음. 이용일수는 월평균 놀이터 10.10일, 공원 3.87일, 산책로 3.67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됨.
-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은 5점 척도 기준 박물관 1.07점, 미술관 2.06점, 음악회 및 연극 등의 공연시설 1.09점, 영화관 2.91점, 장난감 대여센터 1.03점, 도서관 3.09점으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용일수는 1개월 기준 박물관 0.29일, 미술관 0.15일, 공연시설 0.38일, 영화관 0.56일, 장난감 대여센터 0.10일, 도서관 1.69일로 이용 편리성과 관련이 있음.
- 지역사회 안전성은 5점 척도 기준 치안 측면이 3.33점, 안전사고가 3.16점으로 보통 수준의 안전성을 보임.

아. 육아정책 특성

- ☐ 육아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93.6%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예방접종 87.2%, 영유아 건강검진 86.2%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및 장애아 보육·교육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은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음.
- 육아지원제도 수혜를 받은 경우 '도움된다'는 인식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 수혜자들이 선택한 추후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은 '지원비 증액'과 '서비스 질 향상'임.
- ☐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성의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 보육·교육 정책
 - 만 0~5세 양육수당, 만 3~4세 누리과정,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90%이상 정책을 알고 있었음.
 - 세 가지 보육·교육 정책에 대해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 인식은 가구 소득이 적을 경우 더 많았음.

-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을 할 경우 후속 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어머니의 경우 51.0%~55.1%, 아버지의 경우 57.5%~59.3%로 아버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모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시 출산 의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응답됨.

4. 1~6차년도(2008~2012) 주요 데이터 추이 분석

가.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

-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2011~2013년 모두 양호한 가정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 중 '반응성'과 '모방학습' 영역은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임.
-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높은 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됨.
-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학습자극'에서는 점차 편차가 줄어들었으나, '반응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나. 유아기 어휘력 발달

- 유아의 수용 어휘력은 표현 어휘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에 분포되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유아의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정상발달 혹은 그 이상의 기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음.

다. 부모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

- 영유아기 어머니의 과반 수 이상은 미취학/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소폭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어머니의 우울은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영아기에는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우울 성향을 보였으나, 유아기가 되면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보통 수준을 다소 밑도는 정도로 지속되었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라.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가구 지출은 출생 초기 지출 비용 이후 잠시 주춤하였다가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증가하였음.
- 패널 아동이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가구 전체의 지출 대비 자녀들에 대한 총 지출 금액은 30%이상을 차지함.
- 가구 총 지출과 자녀에 대한 총 지출 금액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음.

마.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만 2세와 3세 시기에 급격한 상승을 보임.
-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으로는 생애 초기에는 개인대리양육을 선호하는 반면, 만 2세에는 어린이집을, 보육·교육 기관의 만 3세반에 소속될 수 있는 2012년 조사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하며 2013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서서히 증가하는 만 2세 시기부터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하여 약 1시간가량 더 이용함.

5. 정책적 시사점

- ☐ 아동의 성장발달 전반에 걸쳐 여아의 발달수준이 남아에 비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성별 격차가 생애초기부터 지속됨.

- 여성의 우수한 인적역량이 지속되어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가정 균형과 노동시장 고용률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남아의 역량을 발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남성 교사의 우선 채용, 아버지 양육참여의 지원 등의 제도적 고려가 필요함.
- 모 학력과 가구소득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양육과정과 자원의 차이가 양육환경 전반과 아동의 성장발달 곡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사회경제적 자원과 자녀양육에의 사회적 지원 부족이 이후 생애성장의 누적된 격차로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육아지원설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별적 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모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과 투자, 구체적 양육과정의 차이가 이후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유의한 차이를 낳고 있음.
 - 취업모의 돌봄 및 보·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시간과 이용 우선순위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취업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고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확충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부모교육과 지원 등 두 트랙의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규모 또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육아 인프라와 부모의 양육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출생순위 효과도 아동의 성장발달에 유의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것이 선천적인 효과인지, 혹은 자녀의 출생순위 또는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과정과 비용 투자 효과의 차이가 낳은 결과인지, 후속 연구를 통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만 5세 아동의 1/4~1/5이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등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및 진단율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영유아가구의 양육의 어려움과 의료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됨. 가정환경의 물리적 특성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에서부터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영향인자를 찾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한국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부터 어떠한 삶의 궤적을 보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자료이다. 초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육아지원의 확대가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영유아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양육과정은 어떠한지, 특히 생애초기 보육·교육의 영향력과 효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되는지 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크다.

2008년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 패널 조사로 시작된 한국아동패널은 2014년으로 7년차 조사를 맞는다. 그 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미취업모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보다 크다는 보고(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1)가 있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줄고 여아선호의 증가로 변화하는 점(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0), 부모 중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도구적·정서적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의 제 심리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결혼만족도 또한 더 큰 것(김은설·정영혜, 2012)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만 3세의 어휘력 검사에 의한 언어발달에서 약 20-30%의 유아가 정상발달의 범주에 못 미치며 남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는 분포가 발표된 바 있으며(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 2012; 송요현, 2012), 도남희 등은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만 4세 유아가 평균 9.9시간을 자고, 6.9시간 동안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6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협조 및 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엄지민, 2013). 한편, 어머니의 출산 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보여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마다 어머니의

취업확률이 1.2배 상승하나, 비정규직 취업률의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마다 어머니의 취업확률은 0.83배 감소함을 보고한 바 있다(도남희 외, 2013). 이로써 한국의 변화하는 육아환경과 가치 및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지속되는 패널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연구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결과와 답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영유아의 생애초기 성장·발달은 어떠한 경로와 궤적을 그리는지, 그리고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경험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문제는 아동패널 연구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할 주제이다. 따라서 2014년 아동패널 연구는, 첫째, 그 간 축적된 데이터가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해 어떠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지 별도의 종단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4 심층 분석 연구」 보고서 별도 발간). 구체적으로 생애초기 보육·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언어·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전주어 보고, 이용 기관에서의 교사 특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아동패널 연구는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외에, 지속적인 데이터의 생산과 이에 대한 기초분석이 요구된다. 취학직전 만 6세아에 해당하는 2014년 7년차 조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기 이전, 그 간의 가정환경과 보육·교육의 비모성 양육의 경험이 갖는 발달적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기이므로,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이하는 발달시기에 맞는 변인을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동의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성, 주관적 행복감을 기존 변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학업적 능력 평가와 어휘력 검사의 수행을 실시하였다.

2014년 아동패널 연구는 만 6세아에 적합한 조사의 수행을 통해 취학 전 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육아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2013년 만 5세 시점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간 축적된 5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보급·확산하였으며,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시사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영유아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하며, 육아지원의 정책과 기관 및 부모, 가정의 제 환경이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에 유의한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한국아동패널은 2020년까지의 연구계획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연구내용과 2014년 각 해년도의 연구내용을 갖는다. 전체로서의 아동패널 연구는 인간발달의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 하여 조사 영역을 조직하였다(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 이에 근거하여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아동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 환경의 제 분야를 포괄하여 다층적으로 조사한다(장명림 외, 2006, 66p 참조).

〈표 1-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9세 (초3)	12세 (초6)	심층조사	주요 연구 활동
1차년도 (2008년)												1차년도 조사 실시
2차년도 (2009년)											1차	2차년도 조사 실시
3차년도 (2010년)											부가조사 ^{주)}	3차년도 조사 실시 1차 국내 학술대회
4차년도 (2011년)												4차년도 조사 실시 2차 국제 학술대회
5차년도 (2012년)												5차년도 조사 실시 3차 국내 학술대회
6차년도 (2013년)											2차	6차년도 조사 실시 4차 국제 학술대회
7차년도 (2014년)												7차년도 조사 실시 5차 국내 학술대회
8차년도 (2015년)											3차	
9차년도 (2017년)												
10차년도 (2020년)												

주: 한국아동패널2010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가구 1,000사례 대상으로 부가 조사를 실시, 횡단자료를 구축함.

「한국아동패널 2014」 연구는 패널 연구(2008~2020)의 모형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본 보고서에는 2013년도에 완료된 6차년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을 담고, 만 6세가 되는 2014년도 7차 조사를 설계, 수행하여 종단데이터의 생산을 지속하였다. 만 6세가 되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에 실시한 6년차 일반조사 결과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만 5세아의 발달결과와 이와 관련된 부모특성 및 가정환경, 기관·교사 변인,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수혜 등 생태학적 제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만 5세 시점 변인의 전반적인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3년에 실시한 415명 아동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하여²⁾, 아동의 표현어휘력과 지능(동작성·언어성 지능)에 대해 데이터를 점검하고,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전체 패널 아동 대상 수용어휘력 검사결과와, 415명 대상 표현어휘력 및 지능검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을 통해 부모에게 보고하였다.

셋째, 2014년도에 실시할 7차년도 조사의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립 외, 2006)에서 제시한 조사 영역 및 변인을 토대로 하되, 만6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논의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발달검사 및 조사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사내용이 설계될 수 있도록 변인들의 유지 및 보완, 추가, 삭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차수별 조사 내용은 <표 I-2-2>, <표 I-2-3>과 같으며, 7차년도까지의 조사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패널 조사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변인과 항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되, 조사 대상이 만 6세 즉, 2015년 초등학교 입학 앞둔 연령임을 고려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아동이 학령기로 접어들기 이전, 즉 학교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 시기이므로 인지와 언어 발달을 위주로 전반적인 발달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준비도 및 학업적 능력을, 사회정서발달의 주요 지표인 사회적 유능성을 추가하였다. 또한 학령 전후로 중요하고 변화의 폭이

2) 패널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는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뉜다.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서 아동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9세와 12세 때에 실시 예정이다. 일반조사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와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는 검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검사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 및 변인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과 검사들은 매년 보완 및 추가되고 있다. '심층조사'는 주로 아동 대상 발달검사로 일반조사의 전수조사를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발달수행검사 또는 심층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7차년도 주요 아동 변인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와 언어 발달의 경우, 취학 전·후 아동연령에 따라 척도가 바뀌게 되므로 동일척도에 의한 만 6-7세 발달결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척도 대신 교사 및 주양육자(어머니) 평가에 의한 언어와 수리의 학업적 능력(Academic ability: language/literacy and math thinking)에 대한 평정으로 보강하였다.

언어발달의 경우, 만 3세와 5세에 이루어진 어휘력 검사를 만 6세 7차년도 조사에서 수행하여 종단추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만 6세아의 구술언어 측정을 위해 조음과 발화, 읽기여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 대한 상세 소개는 II장 참조).

〈표 1-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인구 학적 특성	성별	○	○	○	○	-	-	-
	연령(월령)	○	○	○	○	-	-	-
	출생순위	○	○	○	○	○	○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	○	○
건강 특성	재태 기간	○	-	-	-	-	-	-
	출산: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	-	-	-	-	-	-
	병력(상해포함): 여부, 횟수	-	○	○	○	○	○	○
	입원: 여부, 횟수, 기간, 이유	○	○	○	○	○	○	○
	통원치료: 여부, 횟수	-	○	○	○	○	○	○
	예방접종	○	○	○	○	○	-	-
	장애 진단 여부 및 급수	-	○	○	○	○	○	○
	안경 착용: 여부, 시기	-	-	-	-	-	○	○
신체 발달	키, 체중	○	○	○	○	○	○	○
	허리둘레	-	-	-	-	-	-	○
	우세 손	-	-	-	-	-	○	○
	대/소근육 운동 발달	○	○	○	-	-	○	○
인지 발달	문제해결	○	○	○	-	-	-	-
	인지 발달(지각, 기억, 상징적 사고/표상, 논리적 추론, 문제해결, 공간개념, 분류, 정보수집 및 조작, 분류, 서열화, 수리적 책략 사용, 패턴 만들기)	-	-	-	-	○	○	-
	창의성발달: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	-	-	-	○	-	-
	지능: 언어성, 동작성	-	-	-	-	-	○	-
	학습 준비도, 학업 능력	-	-	-	-	-	-	○

(표 I-2-2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언어 발달	의사소통	○	○	○	-	-	-	-
	언어발달	○	○	○	-	-	-	-
	표현어휘력	-	-	-	○	-	○	○
	수용어휘력	-	-	-	○	-	○	○
	언어 발달(지시문, 부정표현, 의문사, 질문 반응, 수식어, 위치 부사어, 글자 인식, 간접 표현)	-	-	-	-	○	○	-
사회 · 정서 발달	기질: 활동성, 사회성, (부정적) 정서성	○	○	○	○	○	-	-
	애착	-	○	-	-	-	-	-
	개인-사회성	○	○	○	-	-	-	-
	사회 발달	○	○	○	-	-	-	-
	놀이, 사회적 활동	-	○	○	○	○	-	-
	사회적 유능감	-	-	-	-	-	-	○
	일상 스트레스	-	-	-	-	-	-	○
	주관적 행복감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선호하는 놀이 영역	-	-	-	○	○	○	○
	또래 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방해, 단절	-	-	-	○	○	○	○
	문제 행동	-	-	-	-	○	○	○
	기관 선호도	-	-	-	○	○	○	○
	교사 선호도	-	-	-	○	○	○	○
	자아개념	-	-	-	-	-	○	-
기타	전반적 발달	-	-	-	-	-	-	○
일상 생활	식습관 관련	모유수유: 여부, 기간, 중단 이유	○	○	○	○	-	-
		수유 및 식습관 특성	○	○	○	-	-	-
		식습관: 규칙성, 양, 편식, 속도, 자립도	-	-	-	-	○	○
		아침식사 횟수	-	-	-	-	○	○
		간식: 가정, 기관	-	-	-	-	○	○
		외식 횟수	-	-	-	-	○	○
		가족과의 식사	-	-	-	-	-	○
	수면 관련	수면 습관 특성	○	○	○	-	-	-
		잠잠: 시간, 숙면 여부	-	-	○	○	○	○
		낮잠: 여부, 시간	-	-	○	○	○	○
	일과 관련	배변/씻기 습관 특성	○	○	○	-	-	-
		일과 활동 시간	-	-	○	○	○	○
		미디어 이용: 시작, 시간, 정도	-	-	-	-	○	○

부모특성에서는, 한국의 아동패널 연구 뿐 아니라 영국의 1999-2000년 출생아 대상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MCS)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협조와 참여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모 공동양육(coparenting)의 문항을 보강하였으며, 양육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였다.

〈표 1-2-3〉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인구학적 특성	연령	○	○	○	○	○	○	○
	국적, 귀화여부, 귀화 전 국적	○	○	○	○	○	○	-
	결혼 상태 및 기간	○	○	○	○	○	○	○
	최종학력	○	○	○	○	○	○	○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	○	○	○
건강 특성	1·2급 장애 유무	○	○	○	○	○	○	○
	만성질환 유무	○	○	○	○	○	-	-
	희귀 난치성 질환 유무	○	○	○	○	○	-	-
	음주: 횟수, 음주 양, 과음 횟수	○	○	○	○	○	○	○
	흡연	○	○	○	○	○	○	○
직업 특성	취업/학업 상태	○	○	○	○	○	○	○
	미취업 이유, 취업 이유	○	○	○	○	○	-	-
	경력 단절 이유, 경력 단절 시기, 향후 취/학업 계획	○	○	○	○	○	-	-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이유	-	-	-	-	○	-	-
	직장 변동 여부, 이유	○	○	○	○	○	○	○
	직업 군, 종사상 지위, 직장의 종사자 수	○	○	○	○	○	○	○
	근무 일 수,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40시간 미만 근로 이유	○	○	○	○	○	○	○
	직업 만족도	○	○	○	○	-	-	○
개인 특성	하루 일과 활동 시간	-	-	-	-	○	-	-
	우울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자아효능감	○	○	○	○	○	-	-
	성격	-	○	-	-	-	-	-
	행복감	-	-	-	-	-	-	○
	일상 스트레스	-	-	-	-	-	-	○
	성역할 가치	-	-	-	-	-	-	○
부부 특성	결혼 만족도	○	○	○	○	○	-	○
	부부 갈등	○	○	○	○	○	-	○

(표 I-2-3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부모됨	임신 계획 여부		○	-	-	-	-	-	-
	임신 관련 느낌, 출산 관련 느낌		○	-	-	-	-	-	-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미계획 사유		○	○	○	○	○	○	○
	계획 자녀 수, 계획 시기		○	○	○	○	○	○	○
	이상 자녀 수, 성별, 기대 성별구성		○	○	○	○	○	○	○
	신념: 부모의 책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	○	○	-	○	-	-
	자녀 가치		○	○	○	○	-	○	-
	자녀의 미래 기대		○	○	○	○	-	○	-
양육 특성	양육 행동		○	○	○	○	○	○	○
	양육 스트레스		○	○	○	○	○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	○	-	-
	양육 시간		-	-	-	○	○	-	-
	양육 지식		○	○	○	-	-	-	-
	양육 분담		-	-	-	-	-	○	○
	양육 효능감		-	-	-	-	-	-	○
	부모 공동양육		-	-	-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	-	-	-	-	○	○
지원 특성	사회적지지 인원, 관계		-	-	-	-	-	○	○
	사회적지지: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여가적		○	○	○	○	○	○	○
육아 지원 서비스	참여	기관 생활 관심 정도	-	-	-	○	○	○	○
		육아지원 기관 방문 횟수	-	-	-	○	○	○	○
		부모 참여 행사 참여	-	-	-	○	○	○	○
	이용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	○	○	○	○	○	○
		서비스 이용 여부	○	○	○	○	○	○	○
		서비스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	○	○	○	○	○	○
		서비스 이용 빈도, 이용 시작 시기	○	○	○	○	○	○	○
		등·하원 시간, 수단, 동반자	-	-	-	○	○	○	○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	-	○	○	○	○
		기관 변경 여부, 변경 이유	-	-	-	○	○	-	-
		이용 비용, 비용 부담도	-	-	-	○	○	○	○
		전반적 만족도	-	-	-	○	○	-	○
		기관 선호도	-	-	-	-	-	-	○
		교사 선호도	-	-	-	-	-	-	○
		추가 서비스 이용 이유	-	-	○	○	○	○	○

그 밖에 육아정책변인에 최근의 정책변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아동의 발달변인을 유아기-초등 저학년 연계를 위해 보강하고, 특히 어머니와 교사에 의한 아동발달에 대한 평정을 동일 문항으로 하여 다중응답자의 결과를 담고자 하였다.

〈표 1-2-4〉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	○	○	○	○	○	○
	구성원 특성: 관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학업 상태, 학력, 장애 유무,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	○	○	○	○	-	-
가계경제요소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어머니의 근로 소득	○	○	○	○	○	○	○
	가구 지출: 소비성, 비소비성, 자녀에 대한 지출	○	○	○	○	○	○	○
	부동산, 금융자산	○	○	○	○	○	○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여부	○	○	○	○	○	○	○
역사적 특성	가족생활 사건: 규범적, 비규범적	○	○	○	○	○	-	-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질	-	-	-	○	○	○	○
	가족 상호작용	-	-	-	-	-	○	○
건강 특성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	-	-	-	-	○	○

〈표 1-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기관 특성	기관 유형, 시설 유형	○	○	○	○	○	○	○
	평가 여부	○	○	○	○	○	○	○
	학급 수, 재원 아동 수	-	-	-	○	○	○	○
학급 특성	연령 구성	-	-	-	○	○	○	○
	학급 규모	-	-	-	○	○	○	○
	교실 환경	-	-	-	○	○	○	○
	아동의 휴식 공간	-	-	-	○	○	○	○
	실외 놀이 공간	-	-	-	○	○	○	○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	-	-	-	-	○	○
	규모 적절성(교실, 일상생활 공간)	-	-	-	-	-	○	○

(표 I-2-5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자격, 학력, 전공		-	-	-	○	○	○	○
	경력, 근무시간, 아동의 담임 기간		-	-	-	○	○	○	○
	교수 효능감		-	-	-	○	○	○	○
	아동과의 상호작용		-	-	-	○	○	○	○
	일상 스트레스		-	-	-	-	-	-	○
특별 활동 특성	기 관 내	특별활동 유무, 종류	-	-	-	○	○	○	○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	-	-	○	○	○	○
		이용 비용	-	-	-	○	○	○	-
	기 관 외	특별활동 유무, 종류, 추가 이용 이유	○	○	○	○	○	○	○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	○	○	○	○	○	○
		이용 비용	○	○	○	○	○	○	○
대리 양육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자녀양육 경험		○	○	○	○	○	-	-
	이용 기간, 이용 횟수, 이용 시간		○	○	○	○	○	-	-
	이용 비용		○	○	○	○	○	-	-
	비용 부담도		○	○	○	○	○	-	-
	전반적 만족도		○	○	○	○	○	-	-
비급여 양육 도우미	비급여 양육 도우미 이용 여부		-	-	-	○	○	○	-
	비급여 양육 도우미 수, 아동과의 관계		-	-	-	○	○	○	-
일시 보육	이용 횟수, 시간		-	-	-	-	-	○	○
	지난 1년간 이용 수		-	-	-	-	-	○	○

〈표 I-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반 적 특성	현 거주지		○	○	○	○	○	○	○
	이사 횟수		-	-	-	-	-	○	○
물리 적 특성	거주 지역		○	○	○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사교육 기관		○	○	○	○	○	○	○
	시설 이용 편리성		○	○	○	○	○	○	○
	양육 적절성		○	○	○	○	○	-	-
	치안 안정성, 안전사고 안정성		○	○	○	○	○	○	○

〈표 1-2-7〉 차수별 육아 정책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가 지원	수혜 경험 여부, 지원 유형	○	○	○	○	○	○	○
	지원 만족도	○	○	○	○	○	○	○
	지원 여부, 지원 내역, 지원 정도,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보육·교육 무상 이용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	-	-	○	○	○	○
	양육 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적정 금액	-	-	-	○	○	○	○
	향후 개선 방안	-	-	-	-	-	○	-
직장에서 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이용 여부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미이용 이유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이용 만족도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양육 도움도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의 후속출산 도움 정도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	○	○	○	○	○	○
보육·교육 정책	보육·교육 정책 인식 여부	-	-	-	○	○	○	○
	보육·교육 정책 필요성 인식	-	○	○	○	○	○	○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	○	○	○	○	○	○
	보육·교육 정책 지원여부, 지원내역	-	-	-	-	-	○	○
	보육·교육 정책 도움 정도	-	-	-	-	-	○	○

넷째, 5차년도 자료 클리닝을 완료하고 일반 공개를 진행한다. 2012년에 조사가 완료된 5차년도 자료의 클리닝을 1차적으로 마친 뒤 이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에디팅을 완료한 후 2014년 12월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

다섯째, 패널 유지와 데이터 생성과 보정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 가족들에게 브로슈어, 연말 연하장 등을 발송하고, 이사 및 연락처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정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SNS

문자와 이사 축하선물 발송 등을 통해 패널을 추적·관리한다. 아동 수행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및 우편 발송하고, 천식, 알레르기 등 건강관련 문진 결과에 따른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참조내용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패널 관리 노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한국 아동패널 참여자 및 탈락자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서 패널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섯째, 별도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8~2013년 6년 간 0~5세 패널 아동의 발달 요인을 분석하여 종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아동발달과 가정환경, 육아지원서비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주제를 발굴,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아동의 발달 추이, 영아기의 가정환경과 발달간의 관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기관에서의 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환경의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사업으로써, 그리고 연구로써 아동패널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패널조사 자체의 수행을 위한 조사의 설계와 설문문의 구성, 조사원 교육과 예비조사, 초기데이터 점검 등의 과정이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

가. 7차년도 일반조사

1) 문헌고찰

한국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그 간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한국 영유아가구의 고유한 특성과 연구결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의 신생아 패널 및 코호트 연구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세계적인 패널 연구의 경향과 연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만 6세아 대상 척도 선정을 위해 관련 심리발달 검사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총 6회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7차년도(만 6세) 조사의 설계와 방향, 척도의 선정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취학 직전 7세아에게 필요한 주요 변인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취학전후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 만 3세에 실시된 어휘력 검사의 지속과 구술언어능력의 파악을 보완하는 검사도구의 적용 및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유아의 발달에 주요한 과제로 자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형성되고 변화가 큰 시기임을 고려하여 척도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예비조사의 수행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총 3회에 걸쳐 서울아산병원 연구협력진 등과 건강·생리검사의 진행과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원내·외 연구진 회의와 아동패널 운영위원회, 조사팀과의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과정과 연구방향의 설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아동검사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과 데이터 점검, 검사결과 점수화 등 조사수행과 데이터 산출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참조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3) 설문조사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 및 실제 조사 수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타당도 점검을 위한 전문가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 표현 및 순서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원 지침서를 작성하고 실사 문항 구성을 완료하였다.

가) 패널 본조사

- 조사 대상: 패널 약 2,150 가구의 주양육자(주로 어머니)
- 조사 내용
 - 패널 특성조사: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특성, 지역사회, 육아정책 수혜 및 인지 등
 - 가정환경(HOME)
 - 아동행동평가(CBCL), 건강관련 질문지
- 조사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설문지(CAPI) 이용 대인면접, 관찰, 지필식 질문지

나) 부모조사

- 조사 대상: 약 2,150명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 조사 내용: 양육태도, 심리적 특성, 직업 특성, 자녀 가치관 등
- 조사 방법: 우편용 질문지

다) 기관 교사조사

- 조사 대상: 패널 아동이 재원 중인 보육·교육기관의 담임교사
- 조사 내용: 아동의 언어·인지·사회성 발달평정, 물리적 환경, 상호작용, 교사효능감, 부모참여, 또래관계, 기관서비스 질 평가 등
- 조사 방법: web 조사 또는 우편용 질문지

4) 아동 수행검사

본 조사에 앞서 아동의 수행 검사 진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응답 스케일 조정, 자아존중감 검사의 CAPI 구현, 조음 검사 프로그램 개발, 표현 어휘력 검사 보조 도구 제작 등 원활한 아동 수행검사 진행을 위한 조사원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 보조도구 제작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내용: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조음 검사, 표현 어휘력 검사
- 조사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설문지(CAPI, 조음 검사 프로그램) 이용 대인면접, 수행 검사

나. 계량분석

아동패널 6차년도 일반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1~6차년도 종단자료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한다.

1) 6차년도 자료의 횡단 분석

- 만 5세 한국아동의 발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지역사회 및 정책 관련 특성 등

2) 1-6차년도 자료의 종단 분석

- 영유아의 기본적인 발달결과에 대한 성장모형 분석, 영유아기 보육·교

육 효과 분석, 기관특성 및 교사변인이 미치는 영향, 후속출산의도 및 취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도탈락집단 및 아동패널 집단의 특성 분석 외

3) 가중치 추정 및 심층 분석을 위한 외부 공동연구진 구성

다. 학술대회 개최

조사 수행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2014년에는 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 공개 및 제 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 공개와 연구의 확산을 위한 데이터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을 제작, 배포하고 데이터를 학술대회 연구용으로 제한하여 배포하였다.

패널 연구의 심화를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분석 전문가를 초빙한 위탁연구 결과를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하였으며, 6편의 주제발표와 17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³⁾

라. 패널 및 데이터 관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국내·외에 소개하고 패널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종단연구에서 중요한 패널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 발달결과 공지 및 통보, 건강관련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고,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여 아동패널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자료의 인적사항 등이 이전 응답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가 변형,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3) 제 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4년 9월 16일(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학술대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발간물-세미나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4_03.jsp)

4. 연구동향

가. 국내 패널 연구 동향: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및 연구 현황

그 동안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국내 연구의 실적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1) 자료 사용 현황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제 5회 학술대회를 거쳐 2015년 1월 초에 5차년도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데이터 사용 신청 건수는 2014년 11월 10일 기준으로 437건이었으며, 승인된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물 중 113건은 총 5회에 걸친 한국아동패널 학술 대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70건의 학회 발표, 11건의 학술 논문 발표에 의해 활용되었다.

〈표 1-4-1〉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단위: 건 / 기준일: 2014년 11월 10일

데이터 신청	데이터 활용 발간물					
	연구보고서	학술 대회	학회 발표	학술 논문	브리프 및 세미나 등	계
437	13	113	70	11	6	213

주: 한국아동패널에서 확인된 자료 활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 외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학술대회 및 연구보고서 등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자료 활용을 제외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물을 발간한 연구자는 총 131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67.9%가 강사 또는 교수진이었으며, 22.1%가 학생, 6.9%가 연구원, 3.1%가 기타 교육·보육 관련자에 의해 활용되었다.

〈표 1-4-2〉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연구자

단위: %, 명

교수/강사	학생	연구원	기타	계(수)
67.9	22.1	6.9	3.1	100.0(131)

주: 공동연구진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된 학회 및 학술 논문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매년 20건 이상의 논문 발표를 통해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4-3〉 활용 발간물 발표 연도

				단위: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2	25	21	2	70

발표된 학회·학술논문 자료의 연구유형은 횡단연구 94.3%, 종단연구 6.7%로 다수의 연구가 횡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표된 발간물의 32.9%는 회귀 분석 등을 활용한 영향력 분석이었으며, 변인에 따른 차이나 상관을 살펴보는 연구 혹은 매개 모형이나 구조 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각각 31.8%였다. 이 외에 3.5%가량이 의사 나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 등의 통계기법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1-4-4〉 활용 연구의 유형 및 분석 유형

연구 유형			분석 유형				단위: %, 건
횡단 연구	종단 연구	계	차이/상관 분석	영향력 분석	모형 분석	기타	계
94.3	6.7	100.0(70)	31.8	32.9	31.8	3.5	100.0(85)

주: 연구 문제에 따라 중복으로 계산함.

2) 주요 연구 내용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회 및 학술 논문의 주 연구 내용을 종속 변수를 중심으로 크게 아동, 부모, 육아지원 서비스 및 육아 정책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 현재까지 발표된 대다수의 연구가 '부모'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된다.

〈표 1-4-5〉 활용 발간물 주 연구 내용

아동	부모				육아지원 서비스	육아 정책	계
	양육 관련	부부 관련	개인 관련	후속 출산			
12	20	9	2	18	5	4	70

첫째, 아동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의 기질 및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동의 기질과 발달 특성은 자녀 출산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동 그리고 부부 관계 등의 부모 요인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주현, 김진경(2011)과 이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출생 후에도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산후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양육 협조가 많이 제공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자주 나타날수록 아동의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은설·도남희, 2012). 박진아, 신유림, 이미라(2013)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영아를 결정하는 변인으로써 영아의 신생아 시기 입원 치료일, 어머니의 취업/학업 여부, 출산 후 아기와의 접촉 여부 및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들고 있다. 4개월에는 영아 자신의 특성보다는 부모의 양육 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같은 부모 특성이 영아 발달에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고, 8개월 이후부터는 기질과 같은 영아 특성이 부모 특성과 함께 영아 발달을 예측한다는 박수연(2013)의 연구를 고려할 때, 아동의 발달에 부모 요인이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 관련 연구는 크게 양육, 부부, 부모 개인, 후속 출산 관련 특성에 관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부모의 양육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며, 이와 관련된 아동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기질, 발달 수준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 및 취/학업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 특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양육 지식, 양육 행동 등의 양육 관련 특성, 자녀 가치 및 모유 수유와 같은 부모됨 특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변인들은 함께 고려되는 변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예측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양육 행동을 예견하는 간접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권미경(2011), 손수민(2012) 등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미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다소 높아 미취업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자기 효능감, 부모됨의 태도에 있어 더 긍정적이고, 양육 지식 수준이 높고,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 양육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부 특성과 관련하여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간되었다. 그중,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 요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가구 소득 등의 가구 요인, 어머니의 우울 및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 자녀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주로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으로 가장 많이 관련 된 것은 우울감 변인이다.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전·후 우울의 변화를 살펴 본 신나리(2011)의 연구에 의하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할 경우 산후 우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모유수유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임을 시사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유형화 한 최효식, 연은모, 윤영과 홍윤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는 심리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으로 행복한 집단', '안정된 집단', '불안정한 집단', '불행한 집단'의 네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하위 집단은 부부 갈등, 사회적 지원 등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출산 관련하여서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경제적 수준, 부모가 갖는 부모됨의 태도, 자녀 가치, 부부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후속 출산 여부를 논의하였다.

셋째, 육아지원 서비스 관련 연구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영아기 아동은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환경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주·한선아·강민정, 2011). 이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 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최상설·홍경준, 2012). 또한 영아기에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 보호와 양질의 교육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백은주 외, 2012), 육아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이용 형태는 가구의 형태, 가구 소득,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 정책 관련 연구로써 김혜금(2012)은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하여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윤재석과 이완정(2012)은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질문지를 토대로, 출산 전·후의 영아기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이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정책이 집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나 직장 과 개별 가정 차원의 정책관련 문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국제 패널 연구 동향

국외에서도 생애 초기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추적하는 신생아패널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여전히 크다. 그 간 이루어진 연구의 최근 동향과 후발 패널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EPPE) Project⁴⁾

EPPE 프로젝트는 아동기 초기의 인지, 사회성 및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유럽 최초의 종단 연구이다. EPPE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은 생애 초기에 제공하는 다양한 보육·유아교육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을 조사하고, 이것이 이후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97년 당시 3세 아동 중 여러 형태의 보육·교육을 받거나 받지 않는 3,000여명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관련된 인구학적 배경, 아동의 가정환경 및 보육·교육 상황 등을 그들이 7세가 될 때까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I-46>과 같다.

4) <http://www.adls.ac.uk/find-administrative-data/linked-administrative-data/effective-pre-school-primary-and-secondary-education> 2014.06.20에 인출.

〈표 1-4-6〉 EPPE 조사 내용

영역	변수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 및 가정환경	가정 내 사용 언어,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및 사회적 지위, 직업, 가정소득, 가정 내 교육환경, 복지혜택 수급여부, 3세 이전 아동의 보육환경
기관 특성	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의 질, 교육시간, 학생 배경의 다양성, 공립/사립
지역 사회 특성	지역 사회의 경제, 건강, 교육적 수준, 인구
인지 및 학업능력발달	언어·독해·수리적 능력, 학업성취, 특수교육
사회적 행동 발달	자제력, 반사회성/사회성, 주의집중력

자료: 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 Taggart.(2004), 정광호(2008)에서 재 인용.

자료의 수집을 위해 조사 기관의 종류를 세분하여(local authority day nurseries, integrated centres, playgroups, private day nurseries, nursery schools, nursery classes) 각 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이들과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아 교육 경험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낸 아동을 대상으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방법은 아동 검사, 기관의 교사를 통한 조사, 관찰, 부모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EPPE 프로젝트는 7세까지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연령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The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3-11 Project(EPPE)라는 이름으로 동일 아동이 11세가 될 때까지 조사하였다. 이는 기관에서의 보육·교육을 비롯한 생애 초기 학습 경험이 갖는 발달적 결과에 대한 중단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EPPSE 3-14 Project에서는 4년간의 조사(2011년도까지)로 아동이 14세까지, EPPSE 16+ Project는 의무교육 기간 내내 그리고 16세 이후에 아동이 경험하는 교육, 훈련, 취업을 다루고자 하였다. 생애초기의 공식적 비공식적 보육과 교육의 경험이 미치는 생애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감을 알 수 있다.

2)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⁵⁾

미국의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NICHHD)에서 실시한 SECCYD의

5)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Pages/seccyd.aspx> 2014.06.20 인출.

주된 목적은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언어 및 신체 발달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보육 경험을 조사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비모성(non-maternal) 보육 경험의 다양성, 안정성,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후 비모성 보육의 경험과 아동발달 간에 나타나는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과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이 아동이 속한 가정의 서로 다른 환경(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아동, 부유하고 가난한 가정의 아동, 부모의 민감한 양육 여부 등)에 따라서는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며, 가족 특성(예: 부모의 정서적 민감성,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심리적 적응, 부모의 사고방식과 신념)과 맥락적 영향들(예: 부모의 질, 가정환경, 학교/사회적 구조 및 인구 변동과 초기 보육 효과와의 관계)이 보육을 경험하거나 하지 않은 아동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표 I-4-7〉 SECCYD의 단계별 연구 참여자

구분	조사 시기	아동 연령/학년	대상 수
1	1991-1994년	0-3세	1,364명
2	1995-1999년	4세-1학년	1,226명
3	2000-2004년	2-6학년	1,061명
4	2005-2007년	7-9학년	1,009명

SECCYD는 1991년에 1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시점에서의 아동 연령에 기초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의 조사 시기,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 및 대상 수는 <표 I-4-7>과 같다. 또한 SECCYD는 보육 및 가정 환경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계된 복잡하고 세밀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다. 조사 내용으로는 보육 경험, 보육자 및 보육환경의 특성, 유치원 및 학교 특성, 부모 특성, 가정환경의 질,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다룬다. 조사 방법으로는 숙련된 관찰자를 통한 관찰, 면담, 질문지 조사, 검사 등을 사용한다.

퀴글레이(Maria Quigley) 교수는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에서 4개월 이상 모유를 먹고 자란 아동은 5세가 되었을 때 산만함과 집착, 거짓말이나 절도 등의 행동장애가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송정현, 2011.05.12). 또한 MCS 연구진은 아침을 먹지 않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아침을 먹지 않는 아동의 경우 5명 중 1명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아의 17%, 남아의 13.5%가 과체중이었고 여아의 6%, 남아의 5%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서유정, 2008.10.17).

4) Growing Up in New Zealand(GUiNZ)⁷⁾

GUiNZ는 뉴질랜드 아동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GUiNZ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초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 I-4-8>에서 나타나듯이 구체적인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I-4-8〉 GUiNZ의 목표

구분	목표
1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세대간, 가족 및 개인적 등 여러 수준에 걸쳐 있는 영향의 주요인과 경로와 경로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뉴질랜드 아동들에 대한 발달 궤적을 그린다.
2	인종을 포함하여 하위집단 간 비교, 하위집단 내 비교 및 국제 비교를 위해 주요 영역에 대한 횡단적 결과를 기술한다.
3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의 영향에 걸쳐 탄력성과 최적 발달을 위한 요인 및 궤적에 초점을 둔다.
4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최적화된 생애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달의 결정적 시기 및 영향의 수준을 밝힌다.

GUiNZ는 Auckland, Counties Manukau 및 Waikato 구역에 거주하며 출산 예정인 어머니들이 등록하여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사이에 태어난 6,846명의 아동들이 코호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이 21세 될 때까지 계속된다. 연구

7) <http://www.growingup.co.nz/index.shtml> 2014.06.20에 인출.

대상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아동의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초산 어머니와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어머니, 젊은 어머니와 노산 어머니, 자녀가 한 명 있는 어머니와 자녀가 많은 어머니들이 모두 등록하였고,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시골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여러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 아동이 출생하기 전인 임신 28주~35주 사이와 생후 9개월에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CAPI)로 부모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매 12-18개월에 한 번씩 동일 집단의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면접원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참여자들과 아동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 면접 사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화 면접을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 가족, 가문과 지역공동체 생활, 교육, 심리 발달, 이웃과 환경,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가족의 인구학적 정보, 부모됨, 교육과 취업, 학습 환경, 건강, 식이와 운동, 주거 환경, 재정 상태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GUiNZ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UiNZ는 아동의 삶의 어떤 한 영역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아동의 가족이나 친족, 이웃, 건강과 안녕, 교육, 아동 발달 및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다. 둘째, GUiNZ는 뉴질랜드에서 아동의 출생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아동 출생 전에 면접을 실시한 첫 번째 종단 연구이다. 이처럼 출생 전부터 아버지들을 전향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뉴질랜드 맥락에서 독특한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에서 뉴질랜드 아동들과 가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유럽, Māori, Pasifika, 아시아 및 다른 인종 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였다. 넷째, GUiNZ는 연구 설계 단계부터 다학문간 접근방법 및 생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실제화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용이하도록 모든 단계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팀워크를 형성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5) 시사점

국제패널 연구동향을 토대로 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CS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사례와 같이 장기적으로 구축한 패널 자료를 종단적 접근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생애 초기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연구로서 활발한 종단적 접근의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추이를 탐색하고, 아동의 초기 경험이나 환경이 이후 아동의 적응 및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제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패널 및 코호트 연구에서 조사 기간이 출생 혹은 유아기부터 아동기를 넘어서 성인기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성인기까지 조사 시기의 연장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 및 방법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의 심화 및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할수록 보육·교육 기관 및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강화하고, 형제자매 및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므로 이들을 일부 문항의 응답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조사 내용에서의 확대를 시도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주요 발달영역에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나 CAPI를 통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비록 아동기 초기에는 주양육자가 보고하는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나,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찰이나 아동 면담 및 검사 실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후로는 패널 아동이 학령기에 진입하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보고 형식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넷째, GUiNZ는 정책 입안자들과 강한 연계를 가짐으로써 그리고 MCS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 자료 수집 및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용이하게 진행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이미 올해 7차시까지 실시되었으나 앞으로 유관 부처로부터 패널 아동 개인 혹은 기관, 지역사회와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정책 연구자들 및 입안자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연구를 계획하고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가 구축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인적자원의 생애발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국의 신생아 패널 연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변인의 추가가 눈에 띄며, 새로 시작되는 패널 연구의 경우 표집단계에서부터 설계가 각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설계되며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Ⅱ. 7차년도(2014) 패널 연구 사업 보고

1. 7차년도 조사·연구의 특징

가. 7차년도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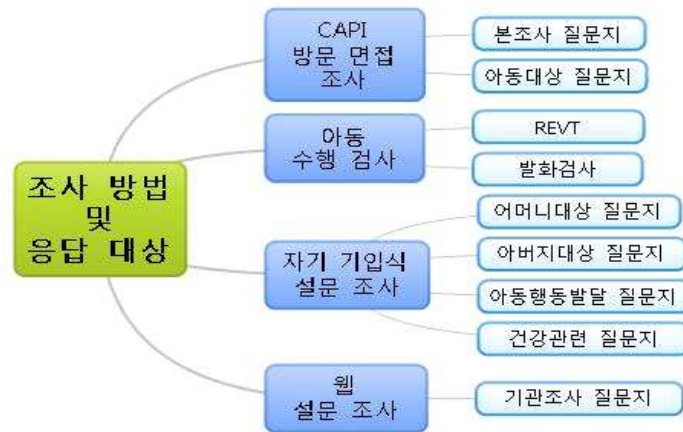
조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였던 5개 권역 2,150명의 패널 가구를 중심으로 하며, 이중 6차년도 조사까지 완료한 약 1,700가구를 우선 접촉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가구조사 수행 이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담당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접촉하여 참여 수락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각 지역별로 분포 된 패널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권역별 원 표본 수

			단위: 가구, %
권역	지역	사례 수	비율
서울/경인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019	47.4
충청/강원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280	13.0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46	11.4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73	17.3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232	10.8
계		2,150	100.0

2) 조사 방법 및 내용

아동패널의 조사는 4가지 형태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아동발달 검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s) 방식 조사, 지필식(PAPI: Paper and Pencil Personal Interviews) 조사, 그리고 CAWI(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s) 조사이다.



[그림 II-1-1] 패널조사의 구성

가) 본조사

본조사는 아동패널 가구를 방문하여 주 양육자와 CAPI 방식으로 면대 면 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 질문지에는 첫째, 가구의 인구학적 정보와 같은 종단 데이터 연결 문항, 둘째, 가구 경제 관련, 어머니의 직업 정보, 아동의 건강 등의 민감 정보 관련 문항, 셋째, 아동의 하루일과,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 등의 세부 사항으로 연결되는 문항, 넷째, 국가 및 직장에서의 정책 관련 문항 등이 포함된다.

〈표 II-1-2〉 7차년도 본조사 질문지 구성

조사 영역		주요변인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출생순위 ○출생순위 변동 사유
	건강 특성	○병력(상해포함): 여부, 횟수 ○입원: 여부, 횟수, 기간, 이유 ○통원치료: 여부, 횟수 ○장애 진단 여부 및 급수 ○안경 착용: 여부, 시기

(표 II-1-2 계속)

조사 영역		주요변인
아동 특성	신체 발달	○소근육 운동 발달 ○대근육 운동 발달
	일상생활	○식습관: 규칙성, 양, 편식, 속도, 자립도 ○아침 식사 횟수 ○간식: 가정, 기관 ○외식 횟수 ○가족과의 식사 ○밤잠: 시간, 숙면 여부 ○낮잠: 여부, 시간 ○일과 활동 시간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시간, 정도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결혼 상태 및 기간 ○최종학력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건강 특성	○1·2급 장애 유무
	직업 특성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이유 ○직업 군, 종사장 지위, 직장의 종사자 수 ○근무일수, 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40시간미만 근로 이유 ○직업 만족도
	지원 특성	○사회적지지 인원, 관계 ○사회적지지: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여가적
	육아지원 서비스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서비스 이용 빈도, 이용 시작 시기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이용비용, 비용 부담도 ○전반적 만족도 ○추가 서비스 이용 이유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가구 특성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어머니의 근로 소득 ○가구 지출: 소비성, 비소비성, 자녀에 대한 지출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여부
	가정 환경	○가정환경의 질

(표 II-1-2 계속)

조사 영역		주요변인
육아지원 서비스	특별활동 특성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비용 ○기관 외 특별활동 유무, 종류, 추가 이용 이유 ○기관 외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일시 보육	○이용 횟수, 시간 ○지난 1년간 이용 수
지역 사회 특성	일반적 특성	○현 거주지
육아정책 특성	국가 지원	○수혜 경험 여부, 지원 유형 ○지원의 도움 정도, 지원 여부, 지원 내역 ○보육·교육 무상 이용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양육 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적정 금액
	직장에서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의 후속출산 도움 정도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보육·교육 정책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보육·교육 정책 지원여부, 지원내역 ○보육·교육 정책 도움 정도

나) 부모 설문

부모 설문은 아동패널 가구를 방문하기 전 우편으로 발송 된 질문지를 각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수기로 작성하여 본조사 진행일에 조사원에 의해 수거(또는 우편수거)하는 지필식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부모 설문에는 첫째, 부모의 음주 및 흡연과 같은 건강 관련 문항, 둘째,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 문항, 셋째,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 넷째, 부부 간 갈등 및 결혼 만족도와 같은 부부 특성, 다섯째, 후속 출산과 관련된 부모됨 문항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공동양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표 II-1-3〉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및 기본생활습관 ○일과활동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근로특성(취업모/미취업모)

(표 II-1-3 계속)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가족 특성	○일반적 특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 ○가족 상호작용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보육·교육 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교육 이용		
	지역사회 특성	○가용 육아지원기관	○양육적절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사회보장지원 ○돌봄 및 발달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환경 (EC-HOME)	○학습자료 ○반응성 ○다양성	○언어자극 ○학습 자극 ○수용성	○물리적 환경 ○모방 학습
어머니· 아버지 대상 조사 (PAPI)	부모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특성	○자녀양육 참여 ○양육스타일	○부모 공동양육 ○양육스트레스	○자녀기대 ○양육효능감
어머니 대상 조사 (PAPI)	아동 특성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문제행동 (CBCL)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다) 아동 대상 조사

아동 대상 조사는 본 조사 진행을 위한 가구방문 일에 진행된다. 7차년도 아동의 발달검사는 신체 치수 측정 후 주 양육자와 분리되어 조사원과 CAPI에 탑재된 문항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고, 이어 REVT 표현 어휘력 검사, 조음/발화 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조음발화 검사 과정은 데이터 생성 및 모니터링을 위해 녹음파일로 저장된다.

〈표 II-1-4〉 7차년도 아동 대상 조사 구성

조사 영역	주요변인		
신체발달	○키	○체중	○허리둘레
사회·정서 발달	○행복감	○자아존중감	
언어발달	○표현어휘력	○조음/발화	

라) 아동행동 발달 설문

아동의 행동 발달에 대한 설문 응답은 아동 대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양육자(대체로 어머니)에 의해 진행된다.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조사원과 수행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양육자는 아동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유능감과 같은 사회·정서 발달과 교사 설문과 마찬가지로 학업능력 및 학습준비도와 같은 인지·언어 발달에 대한 문항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다.

마) 가정환경 검사

패널 가구의 가정환경 검사(HOME)는 본 조사 진행을 위한 가구방문 일에 진행된다. 본 조사 진행 이후 가정환경에 대한 대상자 응답식의 질문을 진행하고, 이후 응답자의 양해를 구해 조사원의 관찰에 의한 관찰식 조사를 진행한다.

바) 육아지원기관 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담임교사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환경,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와 기관의 원장 및 교사로부터 교사의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교사는 설문이 장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교사 대상 조사는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동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남희 외, 2013, 29p 참조함), 2014년 주양육자 조사에 추가된 학업능력과 학습준비도,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척도가 교사 대상 설문에도 반영되었다.

〈표 II-1-5〉 기관 교사 대상 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교사 일반조사 (Web방식)	교사 특성	○교사 자격 및 경력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수 효능감
	아동 특성	○사회적 유능감 ○행복감 ○또래와의 상호작용 ○활동영역 ○학습 준비도 ○일상 스트레스 ○선호하는 놀이 영역 ○기관에서의 일과(식습관, 낮잠 등) ○학업 능력
	기관 특성	○학급형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표 II-1-5 계속)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교사	○기관 생활 관심 정도	○부모 참여 행사 참여
일반조사	○등·하원 시간, 수단, 동반자	
(Web방식)	○아동의 기관 선호도	○아동의 교사 선호도

사) 건강 관련 질문지

건강 관련 질문지는 아동의 행동 발달에 대한 설문 응답 후 아동 대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로 출생 이후 가정의 의식주 환경(리모델링, 환기), 물리적 환경 구성(습기, 곰팡이 등)과 아동이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설문을 구성한 자기기입식 질문지이다.

3) 2014년 새로 추가된 도구

2014년 만 6세아 발달 측정을 위해 새로 추가된 주요 발달도구는 인지 영역의 학습준비도, 학업 능력, 사회적 기술(또는 사회적 유능성), 자아존중감, 언어 영역의 REVT(표현 어휘력), 조음/발화 검사, 주관적 행복감, 양육효능감, 부모 공동양육,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문항이며, 신체운동 발달의 항목을 보강하였다.

첫째,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는 Murphey와 Burns(2002)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사회정서 발달(예: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예: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의사소통(예: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예: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습 준비도는 아동이 다니는 기관의 교사와 주 양육자에 의해 응답되도록 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업능력’(Academic Skills)은 NICHD의 척도 자료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 및 문해 능력(예: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13문항과 수리적 사고(예: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를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를 토대로 언어 및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3개 문항(4, 5, 9번)과 수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1개 문항(23번)의 예시 설명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대체하였으며, 언어 및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1개 문항(10번)에 대해서

는 상위수준의 문항(예: ‘대한민국’, ‘유치원’, ‘좋아한다’, ‘웃는다’와 같은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아직 하지 않음(1점)’, ‘하기 시작함(2점)’, ‘어느 정도 해냄(3점)’, ‘잘하는 편임(4점)’, ‘능숙함(5점)’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문항에서 제시된 기술이나 지식 및 행동이 교실 상황에 소개된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다. 기관 교사 대상 예비조사를 통해 각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아동의 대근육, 소근육 운동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미와 신희선(2006)의 아동발달 검사(K-CDI: Korean-Child Development Inventory)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근육 운동 측정을 위해 K-CDI의 대근육 운동 측정 문항 중 4~5세에 해당되는 2문항과(예: 뛰다가 길에 있는 낮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5~6세에 해당되는 3문항(예: 혼자서 그네를 탄다)을 사용하였다. 문항 중, ‘보조 바퀴가 있는(또는 없는) 두발자전거를 탄다.’는 ‘보조 바퀴가 있는 두발자전거를 탄다.’와 ‘보조 바퀴가 없는 두발자전거를 탄다.’의 두 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대근육 운동 측정 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근육 운동은, 아동발달 검사(K-CDI)에서 소근육 운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4~5세에 해당되는 4문항과(예: 9조각 이상의 퍼즐을 맞춘다), 5~6세에 해당되는 1문항(예: 선을 벗어나지 않고 색칠한다)을 사용하였다. 위의 11문항 외에 기존 6차년도에 소근육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한 문항(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아동의 대·소근육 발달을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중 택하는 양자택일 방식이다.

넷째, 사회적 기술(또는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사회적 기술척도(K-SSRS: 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를 서미옥(2004)이 한국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문항이 담긴 교사 사용과 부모용으로 나뉘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교사 평정용 문항의 일부 표현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료’와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각각 ‘또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동료의 압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는 문항은 ‘동료의 압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예: 그림 그리기 시간에 또래가 “넌 이 크레파스는 쓰지 마.”라고 말하는 상황에 적절히 반응한다.’로 예시를 보완하였다. 교사 평정용 문항과 부모 평정용 문항은 각각 21문항, 32문항으로 3점 Likert 척도이며, 교사용은 협력성, 자기통

제, 주장성, 부모용은 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 책임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의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남아 및 여아 두 가지 형태의 그림 카드가 제시되는 방식이다.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거친 뒤, 원 도구의 그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러스트 전공자에게 그림의 일부 수정을 의뢰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또래 수용(Peer Acceptance), 어머니의 수용(Maternal Acceptance)의 네 가지 하위 범위로 나뉜다.

여섯째,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행복감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행복감을 제시하는 문항만 제시되었던 원 도구에, 아동의 응답을 돕기 위해 행복감의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정 카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일곱째, ‘성역할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설과 최혜선(2008)의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6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 척도로,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원 도구의 문항 3번(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과, 4번(여성인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을 기반으로 문항 5번(아버지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과, 6번을(여성인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추가하였다.

여덟째, ‘부모 공동양육’(Coparenting)을 측정하기 위해 Mchale(1997)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이며, 총 16문항 중 11문항은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며(예: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나머지 5문항은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아동과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예: 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 ‘엄마 아빠가~’, 하나의 가족단위’ 우리 가족이~’로 합쳐 말한다).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에 동일 문항이 제시되었다.

아홉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미연(2005)이 사용한 Gibaud-Wallston와 Wandersman(1978)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측정 도구는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부모 유능감(예: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부모로서의 불안감(예: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기타 문항(예: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다.

조음/발화 능력 검사는 만 6세 아동의 조음/발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 선별검사 척도개발자에 의해 고안된 녹음프로그램(김수진·유하진, 2014; 한유진·최민실·김수진, 2014)을 활용한다. 2개 과제 총 6개 문장에 대한 아동의 발음을 녹음파일로 저장하는 형태이다. 이는 유치원 아동의 이름대기 속도와 음운인식이 5학년 때 읽기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종단연구(Kirby, Parrila, Pfeiffer, 2003) 결과에 근거하여 패널 아동의 음운 능력을 아동검사에 반영하였다.

2. 7차년도 조사 진행 절차⁸⁾

가.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

7차년도 질문지 구성을 위해 패널 아동의 발달 연령에 따른 특성, 6차년도 질문지 오류 분석, 1~6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CAPI 구현방식 및 종단 자료 구축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7차년도 CAPI(주 양육자용, 아동용),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육아지원기관용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질문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확정 및 검사 도구 선정을 완료하였다.

CAPI 구축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질문의 형식 및 구현 형태를 결정하고, 문항 간 횡단 및 종단 로직을 결정하여 면접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6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 종단 데이터를 CAPI

8) 한국아동패널 2013 보고서 39~44p (도남희 외, 2013) 참조함.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관련 문항 간 로직 연결 및 확인 문항 구현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응답자의 응답 편이성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축된 CAPI 프로그램은 세 차례의 디버깅 과정 및 두 차례의 예비조사와 사전교육 자료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전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립하였다. 연이어서 기존의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웹 질문지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문항 간 로직을 구성하였다.

7차년도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진에 의해 7차년도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만 6세 아동의 성별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아동 수행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과정은 영상 촬영을 통해 재검토 및 조사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와 원장 총 3인과 아동의 부모에 의한 예비조사 및 설문지 검토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원 교육

한국아동패널은 연구의 특성상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개별검사 수행 및 웹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방법의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조사 결과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해에도 신뢰로운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시작에 앞서 전 지역별 면접 조사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 및 구성 설명, CAPI 활용, 아동 신체 측정용 도구(줄자, 체중계) 이용, 아동 발달검사, CBCL 1.5-5 및 EC-HOME 검사 실시, 건강 관련 질문지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서울, 대전, 대구의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 관련 윤리 교육과 조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표 II-2-1>과 <표 II-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1〉 2014년 조사원 교육 일정

차수	일 시	장소	교육 대상자
제1차	2014. 6. 12(목)	서울	서울 지역 (신규) 조사원 12명
제2차	2014. 6. 30(월)	서울	서울 지역 조사원 32명
제3차	2014. 7. 1(화)	광주/대전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지역 조사원 37명

주: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신규 조사원 배치로 2차에 걸쳐 조사원 교육을 추가 실시함.

〈표 II-2-2〉 2014년 조사원 교육 일정 및 내용

시 간	내용	세부내용
9:30 - 10:00	○7차년도 조사 소개	
10:00 - 10:30	○HOME, CBCL 질문지 교육	○HOME, CBCL 조사 주의사항
10:30 - 11:00	○CAPI 질문지 교육	○서면교육
11:00 - 11:30	○CAPI 서면실습 + 질의응답	○질문지 흐름/내용, 주의사항 확인
11:30 - 12:00	○아동대상 질문지 교육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20	○노트북 사용 교육	○조사회사
13:20 - 14:00	○CAPI 노트북 실습, 질의응답	
14:00 - 14:35	○아동대상 질문지 CAPI 실습	
14:40 - 15:00	○녹음 관련 교육 및 실습	
15:00 - 17:30	○REVT/조음발화 검사 교육, 실습	○언어검사 수행 강의 및 실습 (척도/프로그램 개발자 2인 초빙)
17:30 - 18:30	○조사원 대상 윤리교육	○검사 실시 시 주의사항 전달
	○질의응답 및 마무리	○조사원으로서의 자세, IRB강화 등

다. 조사 일정과 진행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는 예년과 동일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었다. 면접 조사 시작 시점 2주 전에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질문지 및 한국아동패널 조사 안내문⁹⁾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관련 기사 등을 동봉하여 패널 가구의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일 후 질문지 수령 여부 및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원이 패널 아동의 주 양육자와 개별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조사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CBCL과 건강관련 질문지의 경우 아동이 패널 조사원과 개별 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중

9) 조사 안내문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에 주양육자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면접 조사는 2014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10일에 완료하였다. 각 조사별 일정은 다음 <표 II-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3〉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 방법	조사 시작일	조사 완료일
어머니, 아버지 대상	우편 발송 및 수거	6월 12일	12월 10일
CAPI(주양육자용) 수행검사(아동용), CBCL, HOME, 알리지 질환 질문지	가정 방문 및 면접	7월 1일	12월 10일
육아지원기관용	Web 조사	7월 8일	12월 26일

라. 중간 점검 실시

7차년도 조사에서는 실사가 약 10%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점검한 후, 조사원별 피드백을 지역 슈퍼바이저를 통해 전달하였다.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오류는 전화 조사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걸쳐 정정하도록 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 실시하는 REVT 어휘력 검사와 조음/발화검사의 진행 과정을 초기에 점검하기 위해, 최초 데이터 건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활용하여 조사원별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간담회는 12월 중순에 세 지역(서울, 대전, 대구)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원 간담회에서는 조사 진행시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조사원을 격려하고, 조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상의 오류와 실수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2015년 조사 진행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3.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가. 연차별 표본 유지율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유지율은 <표 II-3-1> 및 [그림 II-3-1]과 같다. 2014년에 실시한 7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1,620가구로 전체 2,150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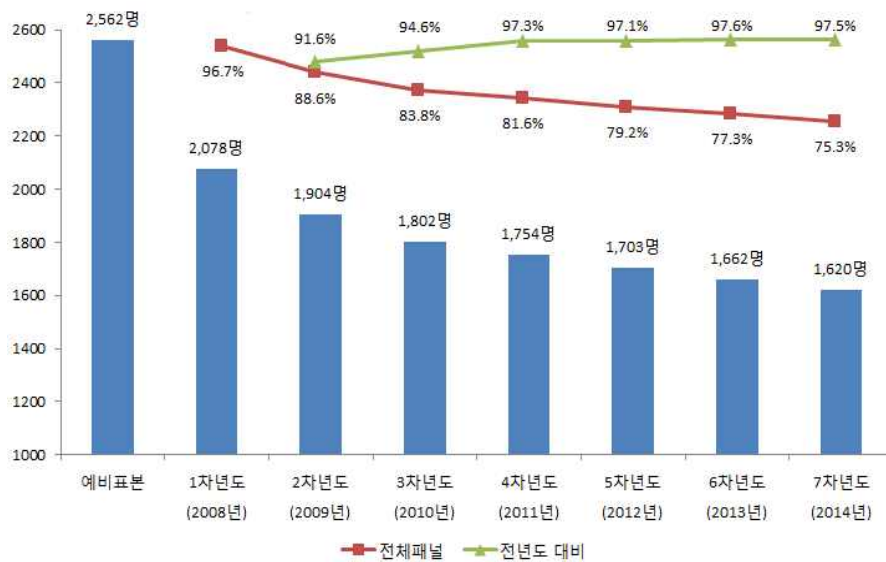
75.3%의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2013년에 실시한 6차년도 조사 대상의 9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단위: 가구, %

패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병원구축 기준 가구 수	1,219	437	316	293	297	2,562
2008년 참여 가구 수	992	349	240	271	226	2,078
2009년 참여 가구 수	879	320	221	271	213	1,904
2010년 참여 가구 수	838	309	213	246	196	1,802
2011년 참여 가구 수	809	299	216	239	191	1,754
2012년 참여 가구 수	784	291	199	234	195	1,703
2013년 참여 가구 수	759	287	198	222	196	1,662
2014년 참여 가구 수						1,620
2014년 전년 대비 성공률						97.5%
2014년 전체 패널 기준 성공률						75.3%

주: 성공 패널의 지역 기준은 각 연도의 실제 거주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부산, 울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대전(대전, 충청, 강원), 광주(광주, 전라,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그림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마모율을 살펴보면, 7개 년도에 걸쳐 총 2,150가구 중 평균적으로 3.6%의 패널 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년 대비 패널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90%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주 대상이 영·유아기 아동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아동패널이 총 2,150가구로 시작한 소규모 패널 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패널 대비 탈락률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에 활용된 6차년도 데이터의 조사별 성공률은 <표 II-3-2>와 같다. 전체 조사 성공률의 기준이 되는 CAPI 면접 조사는 1,662명으로 조사 완료된 바 있다.

<표 II-3-2> 한국아동패널 2013년 조사별 성공률

구분	단위: 명, %						
	CAPI (주양육자용)	CAPI (아동용)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HOME	CBCL 1.5-5	육아지원 기관
참여자 수	1,662 ¹⁾	1,650	1,614	1,543	1,660	1,651	1,215
성공률	100.0	99.3	97.1	92.8	99.9	99.3	73.5 ²⁾

주: 1) 응답자의 요청으로 2건은 PAPI로 진행 함.

2) 조사별 성공률은 CAPI(주양육자용)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지원 기관의 성공률은 육아 지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52명을 기준으로 함.

나. 7차년도 조사 성공률

2014년 지역별 성공률은 <표 II-3-3>과 같다. 2014년 12월 10일 종료한 7차 한국아동패널 조사 성공은 전체 2,150가구의 패널 중 1,620가구로, 75.3%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차년도인 예년 대비 97.5%에 해당한다.

<표 II-3-3> 한국아동패널 2014년 관할 지역별 성공률

구분	단위: 건(%) / 기준일: 2014년 12월 1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총합계
참여자 (성공률)	737 (72.3)	282 (77.3)	188 (80.3)	189 (78.8)	202 (77.4)	22 (71.0)	1,620 (75.3)
총 패널	1,019	365	234	240	261	31	2,150

주: 조사별 성공률은 CAPI(주양육자용)을 기준으로 함.

4. 자료 확산 및 연구 심화

2014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7차년도에는 기존 자료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시도하였다. 첫째는 학술대회의 개최이며, 둘째는 자료 활용 현황 파악, 셋째는 중단 심층 분석의 실시, 넷째는 다학제간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관점의 모색이다.

가. 학술대회 결과

제 5회 패널 학술대회는 2014년 9월 19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총 23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제 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과 확산」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영역별 주제는 다음 <표 II-4-1>과 같다.

〈표 II-4-1〉 2014 제 5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진행

구분	주제
주제 발표	1. 아동패널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과 적용 2. 아동패널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과 확산
Session 1.	1주제. 어머니의 취업 및 가계경제와 육아 2주제. 후속출산 및 자녀가치 3주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
Session 2.	4주제. 아동발달 I. 양육환경과 교사의 중재적 효과 5주제. 아동발달 II. 영유아의 기질 및 문제행동 6주제.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발표

나. 중단자료의 활용과 분석

5년간 축적되어온 중단 데이터를 고급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단분석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또한, 축적되어온 패널 데이터를 통한 중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다학제간 연구와 협력 연구의 모색

국내·외적으로 패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OECD Start Strong III에 한국아동패널의 대한 소개가 게재된 바 있으며 종단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KDI와 국회 예산처에도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도남희 외, 2013 재인용). 아동패널 데이터를 통한 다학제간 연구의 참여와 관점의 모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과제수행을 통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국제협력연구를 수행하였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연구역량 강화 사업).

라. 조사데이터 모니터링 강화 및 패널 대상 정보제공/홍보 강화

조사 자료의 축적 및 아동 대상 검사의 수행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 데이터의 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조사원별로 수합된 초기 데이터가 타당하게 진행된 결과인지 녹음파일과 결과지 일부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진과 슈퍼바이저의 조사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강하였다.

또한 아동의 취학 전·후 학업준비 또는 사교육 등으로 인해 아동패널 연구 참여를 이탈 또는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패널 관리의 일환으로 패널 가구 및 아동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상향조정하고,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과 연구 성과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Ⅲ. 6차년도(2013) 조사결과 기초 분석

1. 6차년도 조사¹⁰⁾의 특징 및 개요

6차년도 조사는 패널 전체아동에 대한 일반조사와 일부 참여자에 대한 심층 조사의 2개 형태로 진행되었다. 만 5세 시점 6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에 앞서, 2013년 조사와 연구의 특징을 간략히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패널 조사(도남희 외, 2013)는 아동의 만 5세 연령을 고려하여 발달의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반영하였다. 대뇌성숙에 따른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의 발달이 완숙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아동의 인지발달과 자아개념 및 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만 5세 시기는 인지능력의 발달로 사회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므로 Joseph(1992)이 제작한 JPPSST(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Test)로 자아개념 검사를 전체 패널 아동 대상 검사수행을 통해 실시하였다. '심층조사(N=489)'를 통해서도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K-WPPSI)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측정하였다.

만 5세는 언어능력도 향상되어, 말소리 습득에 있어 목록의 확장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타이밍의 정교화, 운율, 다음절 낱말의 정확한 산출 등이 숙달되고 말소리가 쓰기(읽기와 철자법)로 전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한층 성숙된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였다. 수용어휘력 검사는 전체 아동 대상인 '일반조사'에서 실시하고, 제한된 대상의 '심층조사'에서는 표현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¹¹⁾.

아동패널 조사의 질문지 내용 중 신체발달 영역은 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되는데, 6차년도 조사에서는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두위, 모유수유 등의 문항은 삭제하고, 신장, 체중,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등의 문항은 지속하였다. 그 밖에 우세 손, 안경 착용 여부, 대소근육 발달 등의 문항

10) 6차년도 데이터 가중치 산출은 부록 1 참조.

11) 2013년에 수행된 2차 심층조사는 「한국아동패널 2013 보고서」(도남희 외, 2013, 47-51p) 참조.

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아산병원 소아과와 협의 하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증가 추세인 알레르기 질환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2. 패널 영유아가구의 특성 전반¹²⁾

한국아동패널의 영유아와 부모,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가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패널 아동이 한국의 영유아와 영유아 가구 및 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국 각 지역별 가구조사로 수행된 2012년 보육실태자료(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운경·유해미·손창균 외, 2012)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한국아동패널 2013년 자료를 비교하였다(표 III-2-1 참조). 현재 한국 영유아가구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떠한지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나, 매 3년 주기 전국 단위 지역별 확률표집을 통해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영유아가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보육실태의 전국 영유아가구와 한국아동패널의 전국 일반조사 가구의 특성에는 가구형태와 가족규모, 부모연령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7차년도 패널조사가 만6세 유아인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특이점 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에서 아동패널 참여 가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의 분포가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아동패널 참여 가구가 근소하게 낮았으나, 학업 중을 미취업으로 분류하는 등 기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진행된 한국아동패널의 만 6세 영유아 가구와 아동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3년 일반조사와 달리 2차 심층조사는 일부 표본에 대한 유의표집의 설계 및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대표성이 제한된 표집특성을 갖는다. 2013년 아동패널 심층조사는 2009년도에 실시된 제1차 심층조사 참여 가구인 206 가구(전체 패널의 약 10%에 해당)와 비교하여, 약 13% 표본이 추가되어 전체 23%에 해당하는 489명이 참여를 수락한 가운데 최종 수집된 자료는 전국 415명이었다.

12) 비교자료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중 '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함. 단,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 가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영유아가구 '전체' 자료와 비교함.

〈표 III-2-1〉 한국아동패널 영유아(가구)의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실태	아동패널	2차심층
가구형태 특성			
부부+자녀	88.0	89.7	91.5
조부모+부부+자녀	12.0	7.9	7.7
부부+자녀+친척	-	0.7	0.5
조부모+부부+자녀+친척	-	1.3	0.2
기타	0.1	0.4	-
계(수)	100.0(1,601)	100.0(1,662)	100.0(414)
가구원 수			
2명	0.5	0.1	0.2
3명	17.1	12.3	14.0
4명	57.8	58.9	60.4
5명	17.7	21.5	19.8
6명 이상	6.9	7.1	5.5
계(수)	100.0(1,601)	100.0(1,662)	100.0(414)
평균(표준편차)	4.15(0.86)	4.26(0.86)	4.18(0.78)
지역 규모			
대도시	38.8	41.7	54.6 ↑
중소도시	40.5	40.5	33.1
읍/면	20.7	17.8	12.3 ↓
계(수)	100.0(1,601)	100.0(1,662)	100.0(441)
어머니 연령			
29세 이하	13.6	2.7	1.7
30~34세	40.2	31.1	28.3
35~39세	34.0	49.9	55.1
40~44세	10.9	14.7	13.5
45세 이상	1.2	1.6	1.4
계(수)	100.0(2,503)	100.0(1,649)	100.0(414)
평균(표준편차)	34.2(4.6)	36.1(3.6)	36.3(3.3)
아버지 학력			
무	-	-	-
초	0.7	-	-
중	1.4	0.5	0.7
고	30.4 ↑	26.6	23.3
3년제 대학	16.6	19.6 ↑	18.0 ↑
4년제 대학	43.0	42.8	45.6
대학원 이상	7.8	10.5 ↑	12.4 ↑
무응답	-	-	-
계(수)	100.0(2,470)	100.0(1,636)	100.0(414)

(표 III-2-1 계속)

구분	보육실태	아동패널	2차심층
어머니 취업상태 ¹⁾			
취업(근로)	46.4	41.0	40.1
휴직중	0.5	1.8	1.7
미취업	52.4	55.7	57.2
부재, 모름	0.8	1.4	1.0
계(수)	100.0(933)	100.0(1,662)	100.0(414)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급여 대상	3.3	1.4 ↓	4.9 ↑
비급여	96.7	98.6	95.2
계(수)	100.0(1,662)	100.0(1,601)	100.0(414)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3.1 ↑	1.2	1.5
150~199만원	7.1 ↑	2.3	1.5
200~249만원	10.8 ↑	6.6	5.1
250~299만원	14.2 ↑	9.0	9.7
300~349만원	15.0	15.3	14.6
350~399만원	8.6	23.6 ↑	23.5 ↑
400~499만원	17.0 ↑	6.8	7.0
500~599만원	10.8	17.5 ↑	19.2 ↑
600~699만원	6.4	7.1	6.6
700만원 이상	7.0	10.6 ↑	11.4 ↑
계(수)	100.0(1,599)	100.0(1,653)	100.0(412)
평균(표준편차)	391.3(218.2)	433.0(214.5)	443.2(220.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2,3)}			
어린이집	30.0	38.3	58.7 ↑
유치원	59.2	57.9	37.9
반일제 이상	10.8 ↑	3.8	3.4
계(수)	100.0(1,662)	100.0(1,654)	100.0(414)

- 주: 1) 아동패널의 '학업중'은 '미취업'으로 분류하였음. 어머니 외의 사람이 응답한 경우에는 취업상태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부재, 모름'으로 분류함.
- 2) 보육실태의 경우 만 5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기 및 보습학원, 지역아동센터·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시간제보육 등'은 '반일제 이상'으로 재분류함.
- 3) 아동패널의 경우 기관조사 참여 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기관조사에 불참한 경우 이용시간이 긴 경우를 주 이용 기관으로 분류하여 반영함.

3. 아동 특성¹³⁾

가. 인구학적 특성

2013년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662명이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62.61개월($SD=1.31$)¹⁴⁾로 평균 만 5.2세에 해당하고 전체 아동의 월령은 59~66개월 범위에 속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856명, 여아 80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남아가 조금 더 많았고,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49.8%, 39.1%로 대다수인 가운데 셋째 이상은 11.1%로 나타났다.

〈표 III-3-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성별			월령		
남아	51.5	(856)	59개월	0.0	(1)
여아	48.5	(806)	60개월	3.7	(60)
출생순위			61개월	17.4	(267)
첫째아	49.8	(772)	62개월	26.1	(418)
둘째아	39.1	(697)	63개월	29.6	(500)
셋째아	9.9	(173)	64개월	14.7	(260)
넷째아	1.0	(17)	65개월	6.9	(122)
다섯째아 이상	0.2	(3)	66개월	1.6	(34)
계	100.0	(1,662)	계	100.0	(1,662)

나. 건강 특성

1) 병력

아동의 건강 특성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병력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 및 입원 경험과 주요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등을 조사하였다.

13) 비율(%)과 평균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사례수(명)와 차이검증 통계치는 가독성과 이해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로 제시함.

14) 가중치 미적용 시 평균 월령은 62.68개월($SD=1.33$)임.

가) 치료 및 입원

지난 1년간 아동이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16.2%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료 횟수는 평균 1.44회 정도였다. 아동 성별을 포함하여 주요 하위특성¹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단위: %, 번(명)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3.8	16.2	100.0(1,662)	1.44	1.37	(248)
아동 성별						
남	81.4	18.6	100.0(856)	1.38	0.69	(140)
여	86.4	13.6	100.0(806)	1.53	1.97	(108)
$\chi^2(df)/t$	2.86(1)			-1.03		

아동의 입원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9.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원 여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입원일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길게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아동의 입원 치료

단위: %, 번, 일(명)

구분	입원 여부			입원 횟수		입원일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0.9	9.1	100.0(1,662)	1.13	0.60	7.32	16.08	(156)
아동 성별								
남	90.6	9.4	100.0(856)	1.13	0.44	9.63	21.71	(82)
여	91.2	8.8	100.0(806)	1.14	0.74	4.72	2.51	(74)
$\chi^2(df)/t$	0.08(1)			0.10		2.30*		

* $p < .05$.

한편 입원 이유로는 수술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렴, 장염, 골절 등의 이유로 응답되었다. 입원 이유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는 수술을 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은 반면 여아는 폐렴으로 입원한 경

15)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이용기관 유형, 모 취업여부, 모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의 7개 변인을 주요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으로 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음. 유의한 결과 위주로 표를 제시함.

우가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3-4〉 아동의 입원 이유(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폐렴	골절	장염	수술	기타
전체	32.6	2.2	29.3	34.8	1.1
아동 성별					
남	25.5	0.0	25.5	46.8	2.1
여	40.0	4.4	33.3	22.2	0.0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아동의 통원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52.0%)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료 횟수는 월 평균 2.33회 정도였다. 폐렴 아동이 첫째아인 경우가 둘째, 셋째아인 경우보다 병원을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자녀가 병원 치료 횟수가 더 많았다. 낮 시간 어머니와 병원을 다녀오기 쉬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3-5〉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구분	단위: %, 번(명)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8.0	52.0	100.0(1,662)	2.33	2.04	(1,662)
아동 성별						
남	46.0	54.0	100.0(856)	2.38	1.93	(457)
여	50.2	49.8	100.0(806)	2.26	2.15	(394)
$\chi^2(df)/t$		3.19(1)			0.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44.2	55.8	100.0(772)	2.03	0.01	(429)
둘째	52.0	48.0	100.0(697)	2.16	0.01	(332)
셋째 이상	51.1	48.9	100.0(193)	1.58	0.01	(90)
$\chi^2(df)/F$		10.78(2)**			0.35	
모 취업여부						
취업	49.7	50.3	100.0(720)	2.14	1.63	(364)
미취업	46.8	53.2	100.0(918)	2.45	2.25	(476)
$\chi^2(df)/t$		0.32(1)			-2.44*	

* $p < .05$, ** $p < .01$.

나) 최근 1년 주요 질환 진단율

지난 1년 간 선천성 심장질환, 천식 등의 9가지 질환 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99.0%)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1%에 해당하는 소수의 아동이 아토피피부염,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6〉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율(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진단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만성 중이염	만성 요로감염	계(수)
전체	99.0	0.0	0.1	0.6	0.3	0.0	0.0	100.0(12,888)
아동 성별								
남	98.7	0.0	0.1	0.6	0.4	0.1	0.0	100.0(5,136)
여	99.3	0.0	0.1	0.5	0.1	0.0	0.0	100.0(4,836)
모 취업여부								
취업	99.3	0.0	0.1	0.4	0.2	0.0	0.0	100.0(4,320)
미취업	98.8	0.0	0.1	0.7	0.3	0.1	0.0	100.0(5,508)

주: 사례수가 적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질환을 진단 받은 시기는 천식의 경우 43.0개월($SD=13.86$), 아토피피부염 47.4개월($SD=5.94$), 만성 부비동염 52.1개월($SD=7.24$), 만성 중이염 51.3개월($SD=6.90$)이었다¹⁶⁾. 진단 시기를 조사한 결과, 만성 부비동염과 만성 중이염의 경우가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7〉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시기

단위: 개월(명)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43.04	13.86	(9)	47.39	5.94	(55)	52.12	7.24	(26)	51.27	6.90	(6)

주: '선천성심장질환', '만성 요로감염'은 사례수가 각각 2명, 1명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16) 선천성심장질환, 만성 요로감염은 사례수가 각각 2명, 1명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과 진단율¹⁷⁾

아동의 건강 특성 중 최근 1년 진단율이 가장 높은 알레르기 질환(천명/천식, 기관지 질환 및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증상 전반)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 발생 여부, 의사의 진단, 발병 시기, 약제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가) 천명/천식

출생 후 지금까지 천명/천식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비율은 6.4%이었으며, 천명/천식 증상의 최초 발생 시점은 생후 12개월 이전이 49.8%로 가장 많았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초진 시점은 생후 25~36개월이 31.4%로 가장 많았다. 생후 12개월 이내 천명/천식 증상을 경험한 폐널 아동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어머니 응답 결과 조사되었다.

〈표 III-3-8〉 출생 후 천명/천식 발생률/진단율, 발생/초진 시기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단위: %(명)				계(수)
				생후 12 개월 이전	생후 13 ~24개월	생후 25 ~36개월	생후 37 개월 이후	
증상여부/발생시기	15.5	84.5	100.0(1,591)	49.8	19.4	14.5	16.3	100.0(236)
진단여부/초진시기	6.4	93.6	100.0(1,572)	18.1	23.5	31.4	27.1	100.0(105)

최근 12개월 이내에 천명/천식 증상이 나타난 아동은 3.3%이었으며, 발생 횟수는 1회 34.1%, 2회 27.1%, 4~6회 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9〉 최근 1년 천명/천식 증상 여부 및 발생 횟수

구분	증상 여부			발생 횟수					계(수)
	예	아니오	계(수)	1회	2회	3회	4~6회	7회 이상	
전체	3.3	96.7	100.0(1,583)	34.1	27.1	14.2	16.8	7.7	100.0(63)
아동 성별									
남	4.5	95.5	100.0(813)	27.1	29.4	16.5	20.1	6.7	100.0(42)
여	2.0	98.0	100.0(770)	50.4	21.7	8.9	9.1	10.0	100.0(21)
$\chi^2(df)$	5.03(1)*			-					

* $p < .05$.

17) 알레르기 질환 관련 문항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공하였음. 관련 연구는 2014 한국아동폐널 학술대회 자료집과 육아정책연구소 Brief 11월호 참조.

한편 최근 12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생후 12개월 이전이 55.2%로 가장 많았다. 천명/천식의 생후 12개월 이내 증상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10〉 최근 1년 천명/천식 미발생 시 이전 발생 시기

단위: %(명)

생후 12개월 이전	생후 13~24 개월	생후 25~26 개월	생후 37~48 개월	생후 49~60 개월 사이	계(수)
55.2	13.5	11.3	10.1	9.8	100.0(533)

천명/천식 증상을 경험한 아동 231명을 대상으로 출생 후 지금까지 나타난 천명/천식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7회 이상 22.8%, 2회 26.4%, 1회 1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상 발생에 대한 의사 확인 여부(진단율)는 13.6%이었다. 마찬가지로 남아의 생후 천명/천식 발생 빈도와 이에 대한 의사 진단율이 여아에 비해 높았다.

〈표 III-3-11〉 출생 후 천명/천식 발생 빈도 및 의사 확인 여부

단위: %(명)

구분	천명/천식 발생 빈도						의사 확인 여부		
	1회	2회	3회	4~6회	7회 이상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18.5	26.4	17.3	15.0	22.8	100.0(231)	13.6	86.4	100(156)
아동 성별									
남	18.9	21.9	17.6	12.1	29.4	100.0(140)	16.7	83.3	100(815)
여	17.7	33.5	16.8	19.6	12.3	100.0(91)	10.3	89.7	100(771)
$\chi^2(df)$	8.76(4)						11.71(1)**		

** $p < .01$.

최근 12개월 이내에 천명/천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2.4%이었으며, 약물 사용 횟수는 <표 III-3-12>와 같다.

〈표 III-3-12〉 최근 1년 천명/천식 치료 및 약물 사용 횟수

단위: %(명)

치료 여부			약물 사용 횟수					
예	아니오	계(수)	매일 사용	1주일에 1회 이상	1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미만	계(수)
2.4	97.6	100.0(1,561)	10.5	10.2	15.0	31.8	32.5	100.0(47)

천식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은 기관지 확장제(42.8%), 싱글레어/오논(36.7%), 스테로이드제(8.7%)로 나타났다.

〈표 III-3-13〉 사용한 천식 약물(중복응답)

단위: %(명)					
모름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제	싱글레어/오논	기타	(수)
7.7	42.8	8.7	36.7	4.1	100.0(82)

천명/천식 증상을 경험한 아동 231명을 대상으로 출생 후 지금까지 천명/천식 증상으로 인해 아동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0.0%가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31.8%는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12개월 이내보다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천명/천식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경험이 더 많았다.

〈표 III-3-14〉 출생 이후 현재까지 천명/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단위: %(명)			
구분	출생이후 현재까지	생후 12개월 이내	최근 12개월 이내
응급실 방문			
없음	80.0	87.1	94.4
1회	9.6	7.7	4.0
2회	6.0	2.1	0.3
3~5회	3.3	2.5	1.0
6회 이상	1.1	0.6	0.3
계(수)	100.0(232)	100.0(200)	100.0(197)
입원			
없음	68.2	68.2	94.3
1회	14.6	14.6	3.7
2회	9.2	9.2	1.7
3~5회	7.2	7.2	0.0
6회 이상	0.9	0.9	0.4
계(수)	100.0(225)	100.0(225)	100.0(190)

나) 기관지 질환 및 알레르기 비염

출생 24개월 내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0.1%이었으며, 최초 발생 시기는 12개월 이전이 49.5%로 가장 많았다. 여아(17.0%)보다 남아(23.1%)에게서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어머

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단율이 높았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전에 모세기관지염이 발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3-15〉 생후 24개월 내 모세기관지염 진단률 및 발병 시기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			최초 발병 시기					
	예	아니오	계(수)	생후 6개월 이전	생후 7~12 개월	생후 13~18 개월	생후 19~24 개월	24개월 이후	계(수)
전체	20.1	79.9	100.0(1,580)	14.4	35.1	25.1	24.7	0.7	100.0(1,662)
아동 성별									
남	23.1	76.9	100.0(809)	16.8	34.9	25.4	21.8	1.1	100.0(856)
여	17.0	83.0	100.0(771)	10.9	35.6	24.6	28.9	0.0	100.0(806)
$\chi^2(df)$	8.98(1)**			5.59(6)*					
모 학력									
고졸이하	15.1	84.9	100.0(466)	23.6	31.0	14.9	30.5	0.0	100.0(487)
전문대졸	20.6	79.4	100.0(418)	14.8	34.1	36.3	14.8	0.0	100.0(439)
대졸이상	23.2	76.8	100.0(679)	9.0	38.0	23.8	27.7	1.3	100.0(716)
$\chi^2(df)$	7.96(2)*			22.87(12)*					
지역 규모									
대도시	21.1	78.9	100.0(662)	10.9	34.5	27.5	27.1	0.0	100.0(693)
중소도시	20.0	80.0	100.0(649)	15.8	34.6	25.2	22.7	1.7	100.0(673)
읍면지역	18.0	82.0	100.0(269)	20.7	38.5	17.7	23.0	0.0	100.0(296)
$\chi^2(df)$	3.40(2)			21.85(12)*					

* $p < .05$, ** $p < .01$.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 외의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중 54.0%의 아동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아(51.9%)보다 남아(56.0%)에게서 더 많이 응답되었다. 최근 1년 이내에도 약 50% 아동이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눈 가려움을 동반한 경우는 38.6%였다.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의 경험은 아동출생순위가 높을수록(첫째아일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아동의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이 많았으나,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16〉 (감기, 독감 외)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

단위: %(명)

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눈 가려움증 동반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0	46.0	100(156)	50.0	50.0	100(155)	38.6	61.4	100(155)
아동 성별									
남	56.0	44.0	100(813)	52.1	47.9	100(811)	40.5	59.5	100(813)
여	51.9	48.1	100(773)	47.7	52.3	100(774)	36.7	63.3	100(772)
$\chi^2(df)$	5.03(1)*			4.80(1)*			1.62(1)		
아동 출생순위									
첫째	60.3	39.7	100(738)	56.4	43.6	100(736)	41.5	58.5	100(737)
둘째	48.6	51.4	100(663)	44.4	55.6	100(663)	37.4	62.6	100(662)
셋째 이상	45.0	55.0	100(185)	41.3	58.7	100(186)	30.6	69.4	100(186)
$\chi^2(df)$	27.98(2)***			32.30(2)***			11.87(2)**		
모 학력									
고졸이하	48.5	51.5	100(467)	45.9	54.1	100(465)	35.2	64.8	100(465)
전문대졸	56.3	43.7	100(421)	52.4	47.6	100(419)	39.9	60.1	100(420)
대졸이상	57.0	43.0	100(681)	51.6	48.4	100(684)	40.8	59.2	100(683)
$\chi^2(df)$	9.77(2)**			8.01(2)*			4.69(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7.5	42.5	100(514)	53.2	46.8	100(512)	40.8	59.2	100(514)
301~499만원	52.9	47.1	100(511)	51.3	48.7	100(510)	38.6	61.4	100(509)
500만원 이상	52.0	48.0	100(553)	45.8	54.2	100(555)	36.8	63.2	100(554)
$\chi^2(df)$	3.11(2)			4.37(2)			0.72(2)		
지역 규모									
대도시	55.3	44.7	100(664)	52.8	47.2	100(665)	41.9	58.1	100(665)
중소도시	53.3	46.7	100(651)	47.2	52.8	100(650)	36.9	63.1	100(651)
읍면지역	52.7	47.3	100(271)	49.4	50.6	100(270)	34.7	65.3	100(269)
$\chi^2(df)$	0.07(2)			0.40(2)			2.45(2)		

* $p < .05$, ** $p < .01$, *** $p < .001$.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아동은 전체 아동 중 36.6%이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29.7%였다. 천식, 모세기관지염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비염도 남아(39.7%)가 여아(33.3%)보다 진단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어머니가 미취업상태 일 경우, 패널 아동이 첫째아일수록 진단율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표 III-3-17〉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및 치료율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			치료 여부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전체	36.6	63.4	100.0(1,582)	29.7	70.3	100.0(1,582)
아동 성별						
남	39.7	60.3	100.0(810)	32.4	67.6	100.0(810)
여	33.3	66.7	100.0(772)	26.8	73.2	100.0(771)
$\chi^2(df)$	8.33(1)**			7.93(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3.0	57.0	100.0(737)	34.2	65.8	100.0(736)
둘째	32.7	67.3	100.0(659)	27.0	73.0	100.0(660)
셋째 이상	22.0	78.0	100.0(186)	18.9	81.1	100.0(186)
$\chi^2(df)$	38.74(2)***			22.85(2)***		
모 취업여부						
취업	32.3	67.7	100.0(674)	24.9	75.1	100.0(675)
미취업	40.0	60.0	100.0(887)	33.1	66.9	100.0(886)
$\chi^2(df)$	7.34(1)**			9.43(1)**		

** $p < .01$, *** $p < .001$.

다) 아토피피부염

대표적인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부 발진이 6개월 이상 발생한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19.0%이었으며, 최초 발병 시기는 생후 6개월 이전이 32.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동은 24.0%이었으며, 그 외에는 생후 49~60개월에 마지막으로 발병하였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만 5세 아동의 약 1/4~1/5이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3-18〉 피부발진 발생률 및 발병 시기

단위: %(명)

구분	발생 여부			발병 시기							
	예	아니오	계(수)	생후 6개월 이전	생후 7~12 개월	생후 13~18 개월	생후 19~24 개월	생후 25~36 개월	생후 37~48 개월	생후 49~60 개월	계(수)
6개월 이상 발생여부/ 최초 발병 시기	19.0	81.0	100.0 (1,584)	32.1	22.9	16.5	12.1		16.4		100.0 (341)
최근 12개월 이내 발생 여부/ 마지막 발병 시기	24.0	76.0	100.0 (1,575)		16.4		8.8	8.9	11.8	54.1	100.0 (359)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받은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6.5%이며, 초진 시기는 생후 12개월 이전이 48.5%로 절반에 가까웠다. 한편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1.4%이었다. 높은 수준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율(26.5%)을 보이며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10%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19〉 아토피피부염 진단율 및 치료율

단위: %(명)

진단 여부			초진 시기						치료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생후 12개월 이전	생후 13~24 개월	생후 25~36 개월	생후 37개월 이후	계(수)		예	아니오	계(수)
26.5	73.5	100.0(1,587)	48.5	24.5	14.7	12.3	100.0(412)		11.4	88.6	100.0(1,573)

라) 기타 알레르기 증상

그 밖의 알레르기 증상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눈병을 진단 받은 경우는 전체 아동 중 22.9%였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 아동은 17.4%,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은 아동 5.5%로 나타났다.

〈표 III-3-20〉 알레르기 증상 및 진단 여부

단위: %(명)

알레르기성 눈병 진단			식품 알레르기 증상			식품 알레르기 진단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22.9	77.1	100.0(1,575)	17.4	82.6	100.0(1,586)	5.5	94.5	100.0(1,579)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두드러기, 발진, 습진, 가려움증 등의 피부증상이 나타난다는 응답이 8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증상으로는 위장관 증상 8.1%, 호흡기 증상 6.3% 등이 있었다.

〈표 III-3-21〉 알레르기 증상

단위: %(명)

피부 증상	위장관 증상	호흡기 증상	기타	계(수)
82.9	8.1	6.3	2.6	100.0(278)

알레르기 발생 의심 음식으로는 계란(13.3%), 갑각류(11.5%), 우유(10.2%), 과일(9.1%), 채소(6.8%), 견과류(6.5%), 땅콩(5.4%), 기타(22.5%) 등의 순이었다.

〈표 III-3-22〉 알레르기 발생 의심 음식

단위: %(명)													
계란	우유	콩	땅콩	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개	견과류	갑각류	과일	채소	기타
13.3	10.2	4.7	5.4	1.5	2.5	2.8	2.7	0.3	6.5	11.5	9.1	6.8	22.5
													(275)

3) 약제 사용

아동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진통제/해열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항생제 치료 60.7%, 진통제/해열제 복용 68.9%로 나타났다. 남아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약제 사용률이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3-23〉 출생 후 12개월 내 약제 사용

구분	3일 이상 항생제 치료					3일 이상 진통제/해열제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39.3	31.6	15.9	13.2	(1,577)	31.1	36.8	16.6	15.5	(1,578)
아동 성별										
남	36.5	32.7	16.5	14.3	(808)	27.8	38.1	15.8	18.4	(810)
여	42.3	30.4	15.3	12.0	(769)	34.6	35.3	17.6	12.5	(768)
$\chi^2(df)$	6.50(3)					15.23(3)**				
모 학력										
고졸이하	44.6	30.5	11.7	13.2	(464)	31.7	38.7	16.2	13.4	(465)
전문대졸	39.8	28.5	16.2	15.5	(419)	35.4	31.0	13.7	20.0	(419)
대졸이상	35.6	34.4	18.3	11.6	(677)	27.8	39.2	18.8	14.1	(677)
$\chi^2(df)$	20.82(6)**					16.87(6)*				

* $p < .05$, ** $p < .01$.

4) 안경 착용

조사 시점 안경을 착용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3%이었으며, 처음 안경을 착용한 시기는 평균 만4.30세($SD=0.79$)이었다. 안경 착용 여부에 대해 지역 규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일수록 안경을 착

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아의 안경 착용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24〉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및 착용 시기

단위: %, 세(명)

구분	안경 착용 여부			안경 착용 시기		
	안경 낀	끼지 않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	97.7	100.0(1,662)	4.30	0.79	(41)
아동 성별						
남	1.7	98.3	100.0(856)	3.95	0.96	(16)
여	2.9	97.1	100.0(806)	4.52	0.57	(25)
$\chi^2(df)/t$		2.62(1)			-1.26	
지역 규모						
대도시	1.9	98.1	100.0(693)	4.51	0.68	(15)
중소도시	3.5	96.5	100.0(673)	4.19	0.84	(24)
읍면지역	0.4	99.6	100.0(296)	4.37	0.48	(2)
$\chi^2(df)/F$		7.59(2)*			0.71	

* $p < .05$.

다. 신체 발달

아동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는 체중 및 신장, 대소근육 발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우세 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아동의 체중 및 신장을 살펴보면, 만 5세 패널 아동의 평균 체중은 19.25kg, 평균 신장은 110.20cm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신장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5〉 아동의 체중 및 신장

단위: 개월(명)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19.25	2.68	11.0	34.5	(1,656)	110.20	4.69	97.0	143.5	(1,654)
아동 성별										
남	19.53	2.65	13.0	33.0	(853)	110.63	4.74	97.0	140.3	(852)
여	18.96	2.67	11.0	34.5	(803)	109.75	4.58	98.0	143.5	(802)
t			4.68***					4.60***		

(표 III-3-25 계속)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9.23	2.78	13.0	33.0	(534)	109.76 ^a	4.73	97.0	140.3	(533)
301~499만원	19.12	2.72	11.0	34.2	(532)	110.07 ^{ab}	4.53	98.0	128.0	(532)
500만원 이상	19.41	2.55	13.0	34.5	(581)	110.69 ^b	4.75	97.0	143.5	(580)
<i>F</i>			1.39					3.99 ^c		

* $p < .05$, *** $p < .001$.

아동의 신장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보다 5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커 소득수준이 많을수록 아동의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5 참조).

아동의 대소근육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근육 발달은 두발 자전거 타기의 대근육 운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근육 운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두발 자전거 타기(대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 15.0%, 젓가락 사용하기(소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 53.8%로, 만 5세 아동의 경우 대근육보다 소근육 발달 상황이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두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다(대근육 운동)는 응답이 더 많았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소근육 운동)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두발 자전거 타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아동에게서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III-3-26〉 아동의 대소근육 발달

단위: %(명)

구분	두발 자전거 타기(대근육 운동)			일반 젓가락 사용(소근육 운동)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계(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계(수)
전체	15.0	85.0	100.0(1,658)	53.8	46.2	100.0(1,662)
아동 성별						
남	16.4	83.6	100.0(854)	42.5	57.5	100.0(856)
여	13.5	86.5	100.0(804)	65.8	34.2	100.0(806)
$\chi^2(df)$		4.11(1) [*]			71.56(1) ^{***}	
지역 규모						
대도시	12.1	87.9	100.0(690)	53.2	46.8	100.0(693)
중소도시	17.1	82.9	100.0(672)	54.6	45.4	100.0(673)
읍면지역	17.0	83.0	100.0(296)	53.6	46.4	100.0(296)
$\chi^2(df)$		10.79(2) ^{**}			0.16(2)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80%이상이 오른손을 우세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왼손 약 7%, 양손 약 5%로 양손 사용 비율도 일정비율로 응답되었다. 식사하기나 물건집기에서 여아의 오른손 사용 비율이 남아보다 높았다.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오른손 우세 사용이 더 많은 점도 흥미롭다.

〈표 III-3-27〉 아동의 우세 손

단위: %(명)

구분	크레파스 또는 연필 사용			식사하기			물건 집기			계(수)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전체	88.2	7.4	4.5	88.5	6.7	4.8	82.1	6.9	11.0	1000(1,662)
아동 성별										
남	87.9	7.4	4.6	87.0	7.2	5.8	80.9	6.7	12.4	1000(856)
여	88.4	7.3	4.3	90.2	6.0	3.8	83.3	7.2	9.4	1000(806)
$\chi^2(df)$	2.55(2)			11.28(2)**			6.93(2)*			
아동 출생순위										
첫째	86.3	7.7	6.0	87.3	6.4	6.3	81.0	6.9	12.1	1000(772)
둘째	88.6	7.9	3.6	88.8	7.3	3.8	81.6	7.4	11.0	1000(697)
셋째 이상	95.0	4.1	0.9	92.9	5.5	1.6	89.0	5.5	5.5	1000(193)
$\chi^2(df)$	10.12(4)*			7.64(4)			6.24(4)			

* $p < .05$, ** $p < .01$.

라. 인지발달

만 5세인 패널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평가」(이중숙 외, 2008)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가 아동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영역 점수와 지능검사 수행점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이용기관유형,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 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인지발달

인지발달 수준 평가 결과 전체 아동의 평균 점수는 105.04점이었다.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남아보다 여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질 때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첫째아일수록, 만일제 이상 학원

을 다니는 경우, 취업모의 자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 5세 아동의 인지발달 평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추후 지속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표 III-3-28〉 아동의 인지발달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전체	105.04	13.50	(1,215)	-
아동 성별				
남	102.68	14.38	(631)	-6.09***
여	107.67	11.91	(584)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5.49	13.17	(562)	2.15
둘째	104.94	13.52	(516)	
셋째 이상	103.32	14.74	(13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04.60	13.08	(695)	0.60
어린이집	105.39	14.20	(468)	
반일제 이상	107.51	12.09	(52)	
모 취업여부				
취업	105.87	13.26	(535)	1.16
미취업	104.43	13.73	(662)	
모 학력				
고졸이하	104.41 ^{ab}	14.07	(340)	3.72*
전문대졸	103.89 ^a	13.88	(328)	
대졸이상	106.16 ^b	12.90	(53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04.04	14.00	(376)	1.36
301~499만원	104.62	12.45	(401)	
500만원 이상	106.23	13.92	(431)	
지역 규모				
대도시	104.45	13.63	(528)	0.11
중소도시	105.20	13.27	(479)	
읍면지역	106.17	13.61	(208)	

* $p < .05$, *** $p < .001$.

2) 지능발달

웹슬러 지능검사(K-WPPSI: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도구를 사용하여 패널 아동의 지능발달을 측정한 결과, 심층 조사에

참여한 전체 패널 아동의 지능점수는 평균 107.86점($SD=18.45$)으로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작성 지능점수(55.64점)가 언어성 지능점수(52.1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능 점수에서 뿐만 아니라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성 지능의 경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즉 첫째아일수록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전체 지능 점수 및 언어성 지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 가구 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아동의 전체 지능점수가 다소 낮았다.

〈표 III-3-29〉 아동의 지능 발달

단위: 점(명)

구분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전체 지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5.64	10.38	52.18	11.78	107.86	18.45	(414)
아동 성별							
남	54.78	11.43	50.60	12.38	105.56	20.15	(236)
여	56.70	8.80	54.12	10.68	110.69	15.66	(177)
<i>t</i>	-1.48		-2.18*		-2.11*		
아동 출생순위							
첫째	54.93	10.66	54.01 ^a	11.82	108.98	19.25	(213)
둘째	56.86	9.44	50.65 ^b	10.84	107.46	16.69	(164)
셋째 이상	54.73	11.89	47.66 ^b	13.19	102.79	19.74	(36)
<i>F</i>	1.35		7.25**		2.25		
모 학력							
고졸이하	55.35	9.21	49.44 ^a	10.60	104.58 ^a	16.40	(96)
전문대졸	56.40	10.49	52.44 ^a	11.34	108.87 ^{ab}	17.23	(116)
대졸이상	55.38	10.79	53.30 ^a	12.24	108.82 ^b	19.69	(203)
<i>F</i>	0.59		5.28**		3.27*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5.49	11.46	50.46	11.61	105.81	19.82	(125)
301~499만원	56.25	10.04	53.33	11.60	109.65	18.17	(133)
500만원 이상	55.31	9.59	52.62	11.94	108.09	17.26	(153)
<i>F</i>	0.52		2.58		2.00		

주: 2013년도에 실시된 2차 심층조사 데이터(N=415)를 활용함.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동작성 지능의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 평균 도형(13.80)의 점수가 가장 높고 편차도 컸다. 그 다음으로 모양맞추기(11.61)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로 과제(9.65)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동작성 지능 중 도형 과제는 여아가, 토막짜기 과제는 남아가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졸 학력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토막짜기 과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동작성 지능 과제 점수의 편차가 전반적으로 컸으며, 토막짜기/빠진곳 찾기 과제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 아동의 동작성 지능 편차가 크고, 일부 과제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임이 특징적이다.

〈표 III-3-30〉 아동의 동작성 지능

단위: 점(명)

구분	모양 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 곳 찾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61	2.70	13.80	4.87	10.64	3.26	9.65	3.50	10.83	2.97
아동 성별										
남	11.58	2.92	12.87	5.19	10.96	3.47	9.55	3.77	10.84	2.98
여	11.65	2.41	14.94	4.18	10.25	2.94	9.79	3.13	10.81	2.95
<i>t</i>	0.00		-3.58***		2.22*		-0.24		-1.04	
모 학력										
고졸이하	11.67	2.74	14.26	4.88	9.68 ^a	3.48	9.63	3.80	10.97	2.79
전문대졸	11.68	2.94	13.53	4.84	11.42 ^b	3.16	9.68	3.18	11.28	2.72
대졸이상	11.52	2.57	13.72	4.88	10.67 ^{ab}	3.14	9.68	3.53	10.55	3.14
<i>F</i>	0.06		0.04		5.20**		0.17		2.2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1.49	2.82 ↑	13.72	5.29 ↑	10.96	3.73 ↑	9.62	3.84 ↑	11.11	3.00 ↑
301~499만원	11.90	2.79	13.63	4.77	10.70	3.03	10.05	3.31	10.71	3.02
500만원 이상	11.48	2.51	14.02	4.57	10.34	2.99	9.35	3.31	10.71	2.87
<i>F</i>	0.52		0.07		0.68		0.68		0.28	

주: 2013년도에 실시된 2차 심층조사 데이터(N=415)를 활용함.

* $p < .05$, ** $p < .01$, *** $p < .001$.

언어성 지능의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과제 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이해(10.96) 점수가 가장 높고 편차도 컸으며, 산수(9.34)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언어성 지능 중에서 상식, 어휘, 공통성 과제에서 여아가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아일수록 상식과 공통성 과제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인지/지능 발달에서 출생순위 효과가 존재함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작성 지능의 토막짜기 과제와 마찬가지로) 언어성 지능의 상식, 산수, 공통성 과제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상식 과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아동의 언어성 지능 과제 전반의 점수가 높았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3-31〉 아동의 언어성 지능

구분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전체	10.55	2.75	10.96	4.20	9.34	3.03	10.59	3.38	10.77	3.49
아동 성별										
남	10.19	2.84	10.87	5.06	9.20	3.30	10.18	3.42	10.25	3.65
여	11.00	2.57	11.08	2.79	9.53	2.65	11.09	3.27	11.40	3.17
<i>t</i>	-2.65**		0.55		-0.72		-2.34*		-2.60*	
아동 출생순위										
첫째	11.06 ^a	2.71	11.08	2.93	9.56	2.96	10.90	3.48	11.20 ^a	3.58
둘째	10.13 ^b	2.58	10.98	5.65	9.11	3.05	10.31	3.02	10.47	3.28
셋째 이상	9.21 ^b	2.93	10.13	3.26	9.04	3.30	9.88	3.98	9.41 ^b	3.36
<i>F</i>	10.47**		0.98		2.12		2.36		4.95**	
학원/기관 유형										
유치원	10.67	2.88	10.97	2.94	9.46	2.99	10.59	3.35	10.98	3.35
어린이집	10.27	2.50	10.89	5.67	9.12	3.03	10.48	3.43	10.35	3.67
반일제 이상	11.68	2.66	11.82	2.44	9.95	3.55	11.91	3.09	12.02	3.31
<i>F</i>	2.01		0.44		1.42		0.49		0.52	
모 취업여부										
취업	10.57	2.82	10.83	3.16	9.21	3.04	10.42	3.40	10.80	3.42
미취업	10.50	2.69	11.08	4.80	9.38	2.97	10.71	3.33	10.71	3.51
<i>t</i>	0.16		-0.96		-0.60		-0.59		0.33	
모 학력										
고졸이하	9.67 ^a	2.35	10.87	7.17	8.41 ^a	2.79	10.44	2.68	10.14 ^a	3.59
전문대졸	10.45 ^{ab}	2.82	10.89	2.79	9.47 ^{ab}	3.20	10.55	3.61	11.17 ^a	3.18
대졸이상	10.99 ^b	2.77	11.07	3.01	9.69 ^b	2.97	10.69	3.53	10.86 ^a	3.56
<i>F</i>	6.47**		0.06		6.80**		1.09		3.17*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9.98 ^a	2.47	10.67	2.95	9.03	3.10	10.40	3.29	10.12	3.68
301~499만원	10.74 ^a	2.80	11.15	2.63	9.38	2.95	11.07	3.21	11.03	3.26
500만원 이상	10.87 ^a	2.87	11.05	5.87	9.58	3.02	10.33	3.56	11.08	3.45
<i>F</i>	3.32*		1.37		1.37		2.04		2.48	

단위: 점(명)

(표 III-3-31 계속)

구분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10.61	2.68	10.97	5.00	9.23	2.99	10.73	3.45	10.66	3.44
중소도시	10.53	2.72	10.70	2.80	9.74	3.11	10.32	3.28	11.03	3.44
읍면지역	10.31	3.14	11.72	3.10	8.78	2.89	10.67	3.27	10.53	3.85
<i>F</i>	0.29		0.58		1.33		0.08		1.22	

주: 2013년도에 실시된 2차 심층조사 데이터(N=415)를 활용함.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마. 언어 발달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평가」(이종숙 외, 2008)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가 아동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교사가 평정한 언어발달 측정 점수와 REVT(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검사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점수로 산출하였다.

1) 언어 발달

패널 아동의 담임 교(강)사가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언어 발달을 평정한 결과, 전체 아동의 평균 점수는 100.00점이었다. 하위특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 발달 을 보였으며,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 아동의 언어발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정되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언어발달 평정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II-3-32〉 아동의 언어 발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점(명)
				<i>t/F</i>
전체	100.00	16.32	(1,215)	-

(표 III-3-3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아동 성별				
남	97.61	17.18	(631)	-5.00***
여	102.65	14.85	(584)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1.35 ^a	15.01	(562)	7.14**
둘째	99.21	17.05	(516)	
셋째 이상	96.69 ^b	18.51	(13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9.52	16.05	(695)	1.57
어린이집	100.26	16.83	(468)	
반일제 이상	103.60	14.52	(52)	
모 취업여부				
취업	100.10	15.70	(535)	-0.67
미취업	99.72	16.89	(662)	
모 학력				
고졸이하	99.55 ^{ab}	16.52	(340)	3.66*
전문대졸	98.28 ^a	16.64	(328)	
대졸이상	101.19 ^b	16.04	(53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99.10	17.60	(376)	0.93
301~499만원	99.96	15.42	(401)	
500만원 이상	100.80	15.92	(431)	
지역 규모				
대도시	98.58 ^a	17.00	(528)	3.06*
중소도시	101.12 ^b	15.03	(479)	
읍면지역	101.01	17.11	(208)	

* $p < .05$, ** $p < .01$, *** $p < .001$.

2) 어휘력 발달

아동의 어휘력 발달 수준은 평균 점수, 발달 정상성 기준 및 등가 연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수용어휘력 점수는 58.56점($SD=9.72$)이었으며, 성별, 어머니 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어휘력 점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출생순위 효과도 확인되어 첫째아일수록 수용어휘력 점수가 높았으며, 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 수용어휘력 점수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 아동의 수용어휘력 점수가 미취업모 아동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제한된 표집 특성의 심층조사 대상자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가 각 57.74점($SD=9.66$), 67.48점($SD=10.79$)로 표현어휘력 점수가 수용어휘력 점수에 비해 높고 편차도 다소 컸다. 수용 및 표현 어휘력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표현어휘력의 경우 가구소득이 301~499만원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III-3-33〉 아동의 어휘력 발달

구분	수용 어휘력(전체)			수용 어휘력(심층 대상자)			표현 어휘력(심층 대상자)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58.56	9.72	(1,651)	57.74	9.66	(412)	67.48	10.79	(415)
아동 성별									
남	57.23	10.33	(849)	56.02	10.57	(236)	66.07	10.65	(237)
여	59.95	8.82	(802)	59.88	7.90	(176)	69.21	10.72	(177)
<i>t</i>		-5.51***			-4.12***			-2.04*	
아동 출생순위									
첫째	58.89	9.56	(768)	58.04	9.69	(213)	69.31 ^a	10.80	(214)
둘째	58.57	9.80	(694)	57.25	9.99	(164)	66.25 ^b	9.59	(164)
셋째 이상	57.01	10.03	(189)	58.08	7.75	(35)	61.61 ^b	12.63	(36)
<i>F</i>		1.77			0.58			6.52**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59.18 ^a	9.23	(951)	58.21	8.98	(243)	67.39	11.15	(243)
어린이집	57.59 ^b	10.25	(628)	56.79	10.72	(155)	67.55	10.33	(157)
반일제 이상	59.51	9.89	(64)	60.64	6.75	(14)	68.16	9.48	(14)
<i>F</i>		5.03**			1.74			0.03	
모 취업여부									
취업	59.17	9.36	(716)	58.23	8.84	(172)	67.13	10.18	(173)
미취업	58.05	10.02	(911)	57.26	10.15	(236)	67.60	11.22	(237)
<i>t</i>		1.60			0.59			0.05	
모 학력									
고졸이하	56.54 ^a	10.55	(486)	55.48 ^a	11.30	(93)	65.74 ^a	8.67	(93)
전문대졸	58.24 ^b	9.29	(438)	58.72 ^{ab}	9.08	(115)	66.29 ^{ab}	11.94	(116)
대졸이상	59.98 ^b	9.25	(708)	58.23 ^b	9.10	(203)	68.75 ^b	10.88	(203)
<i>F</i>		16.17***			3.50*			4.07*	

단위: 점(명)

(표 III-3-33 계속)

구분	수용 어휘력(전체)			수용 어휘력(심층 대상자)			표현 어휘력(심층 대상자)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7.75 ^a	9.53	(533)	56.95	9.80	(125)	65.23 ^a	10.29	(126)
301~499만원	58.22 ^{ab}	10.17	(532)	58.48	9.36	(133)	69.25 ^b	10.41	(133)
500만원 이상	59.57 ^b	9.42	(577)	57.76	9.77	(151)	67.86 ^{ab}	11.22	(153)
<i>F</i>		5.79 [*]			1.13			4.97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정상성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만 5세 전체 아동의 수용어휘력의 경우 정상 발달 87.8%, 유의요망 7.8%, 발달의심 4.4%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비율이 여아에서, 첫째아일수록, 유치원/반일제 학원 이용 아동에게서, 취업모,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층조사 대상 아동의 경우, 전체아동 대상 일반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수용어휘력 점수 분포에서 유의요망과 의심의 비율이 좀 더 많았다. 심층조사의 표집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수용어휘력 발달 기준에서도 아동 성별 및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현어휘력 검사는 심층조사 대상 아동에게만 실시하였는데, 정상 발달 88.7%, 유의요망 6.9%, 의심 4.3%로 유사한 분포로 나타났다.

〈표 III-3-34〉 아동의 어휘력 발달 정상성 기준

구분	수용 어휘력(전체)				수용 어휘력(심층 대상자)				표현 어휘력(심층 대상자)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전체	87.8	7.8	4.4	1000(1651)	86.4	8.8	4.8	1000(412)	88.7	6.9	4.3	1000(415)
아동 성별												
남	84.5	9.6	5.9	1000(849)	82.5	10.4	7.1	1000(236)	86.6	9.1	4.4	1000(237)
여	91.3	5.9	2.7	1000(802)	91.2	6.8	2.0	1000(176)	91.4	4.3	4.3	1000(177)
$\chi^2(df)$				16.83(2) ^{***}				6.35(2) [*]				3.10(2)
아동 출생순위												
첫째	88.9	6.7	4.3	1000(768)	86.4	8.4	5.2	1000(213)	91.7	4.9	3.4	1000(214)
둘째	87.4	8.9	3.7	1000(694)	86.7	7.9	5.4	1000(164)	87.2	10.4	2.5	1000(164)
셋째 이상	84.3	8.9	6.8	1000(189)	85.4	14.6	0.0	1000(35)	77.1	4.8	18.1	1000(36)
$\chi^2(df)$				2.55(4)				4.04(4)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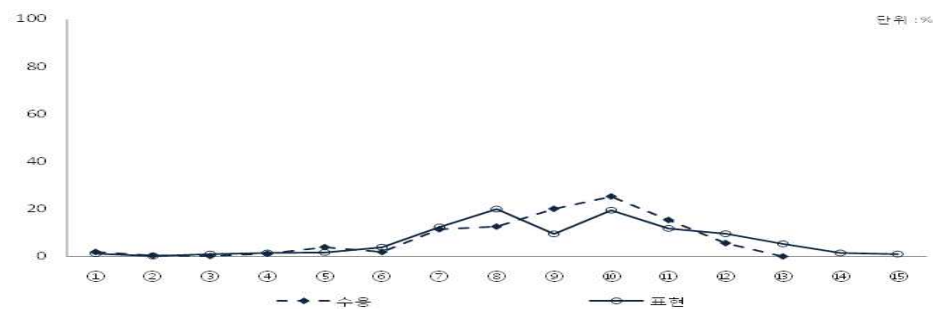
(표 III-3-34 계속)

구분	수용 어휘력(전체)				수용 어휘력(심층 대상자)				표현 어휘력(심층 대상자)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육아환경 유형												
유치원	90.1	6.4	3.6	100(95)	88.6	8.5	2.9	100(243)	88.7	6.4	4.9	100(243)
어린이집	84.5	10.0	5.4	100(62)	82.0	9.9	8.1	100(155)	88.6	7.6	3.8	100(157)
반일제 이상	91.3	4.6	4.1	100(64)	100.0	0.0	0.0	100(14)	90.7	9.3	0.0	100(14)
$\chi^2(df)$	-				3.22(4)				-			
모 취업여부												
취업	89.2	6.8	4.0	100(76)	86.7	7.7	5.7	100(172)	86.4	9.3	4.3	100(173)
미취업	86.5	8.7	4.8	100(91)	86.0	9.6	4.4	100(236)	90.0	5.5	4.4	100(237)
$\chi^2(df)$	3.55(2)				3.63(2)				1.95(2)			
모 학력												
고졸이하	83.4	10.0	6.6	100(48)	77.0	14.7	8.3	100(93)	90.5	7.3	2.2	100(93)
전문대졸	87.1	8.6	4.3	100(48)	88.0	6.0	6.0	100(115)	85.6	6.7	7.7	100(116)
대졸이상	90.8	6.0	3.1	100(78)	89.3	7.8	2.9	100(203)	89.3	7.0	3.6	100(203)
$\chi^2(df)$	13.77(4)**				11.42(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6.5	8.7	4.8	100(53)	82.7	12.7	4.6	100(126)	85.4	8.5	6.1	100(126)
301~499만원	86.8	8.7	4.5	100(53)	91.2	4.2	4.6	100(133)	92.4	4.2	3.4	100(133)
500만원 이상	89.7	6.3	4.0	100(57)	85.4	9.4	5.2	100(151)	88.2	8.0	3.8	100(153)
$\chi^2(df)$	5.04(4)				5.91(4)				3.57(4)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5$, ** $p < .01$, *** $p < .001$.

수용·표현 어휘력의 증가연령을 살펴보면, 2개 조사결과 모두 정상분포의 중모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표현어휘력의 경우 상위점수의 분포가 많아 좀 더 넓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III-3-1]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증가연령

수용어휘력 수준은 2세 6개월 미만에서 7세 11개월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약 70%이상의 아동이 4세 6개월~6세 11개월에 해당된다. 조사시점 만 5세 연령범위에 포함된 아동은 전체 아동 중 33.0%, 심층조사 참여 아동 중 32.7%로 나타났다. 수용어휘력 수준이 만 5세 연령을 넘어선 비율은 전체 아동 48.7%, 심층조사 참여 아동 46.3%, 수용어휘력 수준이 만 5세 연령에 못 미치는 비율은 각 18.3%, 21.0%로 나타났다.

〈표 III-3-35〉 아동의 수용 어휘력 등가연령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수용 어휘력	전체	1.7	0.4	0.2	1.4	2.9	3.1	8.6	11.4	21.6	24.4	15.6	8.6	0.1	1000(1651)
	심층 조사대상	1.9	0.4	0.2	1.2	3.9	1.9	11.5	12.6	20.1	25.3	15.4	5.6	0.0	1000(412)

주: ① 2세 6개월 미만, ② 2세 6~8개월, ③ 2세 9~11개월, ④ 3세 0~5개월, ⑤ 3세 6~11개월, ⑥ 4세 0~5개월, ⑦ 4세 6~11개월, ⑧ 5세 0~5개월, ⑨ 5세 6~11개월, ⑩ 6세 0~5개월, ⑪ 6세 6~11개월, ⑫ 7세 0~5개월, ⑬ 7세 6~11개월

아동의 표현어휘력 수준은 2세 6개월에서 9세 5개월까지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5세 0개월~7세 11개월 사이에 약 80%이상의 아동이 해당된다. 표현어휘력 수준은 심층조사 대상 아동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수용어휘력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심층조사의 표집특성이 다른 점과, 수용어휘력 검사 당시 아동의 평균 월령은 59~66개월인데 비해 심층조사 표현어휘력 검사 시점은 62~67개월로 조사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아동의 월령 차이도 반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심층조사 시점 표현어휘력이 만 5세 연령범위에 포함된 아동은 심층조사 참여 아동 중 32.4%로 전체아동 수용어휘력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표현어휘력 수준이 만 5세 연령을 넘어선 비율은 58.2%, 표현어휘력 수준이 만 5세 연령에 못 미치는 비율은 9.5%로 적게 나타났다.

〈표 III-3-36〉 아동의 표현 어휘력 등가연령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수)
심층 조사대상	1.2	0.2	1.0	1.5	1.7	3.9	12.4	20.0	9.5	19.5	11.8	9.6	5.3	1.5	1.0	100.0(415)

주: 1) 2013년도에 실시된 2차 심층조사 데이터(N=415)를 활용함.

2) ① 2세 6~8개월, ② 2세 9~11개월, ③ 3세 0~5개월, ④ 3세 6~11개월, ⑤ 4세 0~5개월, ⑥ 4세 6~11개월, ⑦ 5세 0~5개월, ⑧ 5세 6~11개월, ⑨ 6세 0~5개월, ⑩ 6세 6~11개월, ⑪ 7세 0~5개월, ⑫ 7세 6~11개월, ⑬ 8세 0~5개월, ⑭ 8세 6~11개월, ⑮ 9세 0~5개월

바.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주 이용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기관 선호도와 교사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영역,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PIPPS,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의 3개 하위영역,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그리고 자아개념(JPPST, Joseph, 1979)에 대해 분석하였다.

1) 기관 및 교사 선호도

아동이 자신이 다니는 기관과 담임교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교사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의 '기관' 선호도에 대한 5점 척도 결과, 평균점수가 어머니 4.13점, 교사 4.15점으로 모두 높은 수준의 기관선호도를 응답하였다. 아동의 어머니 중 57.5%는 자녀가 기관을 대체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5%는 매우 선호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약 86%이상의 아동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관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7〉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1.0	12.7	57.5	28.5	1000(1606)	4.13(0.68)
아동 성별							
어머니 남	0.1	1.6	14.5	58.3	25.6	1000(825)	4.08(0.68)
여	0.4	0.4	10.9	56.6	31.7	1000(781)	4.19(0.66)
$\chi^2(df)/t$			16.04(4)**				-3.80***
전체	0.0	0.5	9.4	64.7	25.5	1000(1215)	4.15(0.59)
아동 성별							
교사 남	0.0	0.5	9.7	67.0	22.8	1000(631)	4.12(0.57)
여	0.0	0.5	9.0	62.1	28.4	1000(584)	4.18(0.60)
$\chi^2(df)/t$			-				-1.46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교사' 선호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교사의 응답 모두에서 아동이 교사를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85%이상이었으며, 기관 선호도와 유

사하게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를 더 좋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8〉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1.0	13.1	52.4	33.5	100.0(1,606)	4.18(0.69)
아동 성별							
어머니							
남	0.0	1.0	14.8	55.0	29.2	100.0(825)	4.12(0.68)
여	0.1	1.0	11.2	49.6	38.1	100.0(781)	4.24(0.70)
	$\chi^2(df)/t$ 17.88(4)**						-3.86***
교사							
남	0.0	0.1	14.1	59.9	26.0	100.0(631)	4.12(0.62)
여	0.0	0.0	7.1	56.8	36.1	100.0(584)	4.29(0.59)
	$\chi^2(df)/t$ -						-5.09***

** $p < .01$, *** $p < .001$.

2) 놀이 선호 영역 및 상호작용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 영역(1순위)을 살펴보면, 아동은 쌓기 영역(41.2%)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 영역(30.9%), 역할놀이 영역(16.9%)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 쌓기 영역을 73.8%가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아는 5.0%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의 여아는 미술 영역(52.6%)과 역할놀이 영역(31.9%)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9〉 아동이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단위: %(명)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작	역할	음률	컴퓨터	기타	해당 없음	계(수)
전체	3.7	30.9	41.2	2.8	3.7	16.9	0.4	0.1	0.2	0.2	100.0(1,215)
아동 성별											
1순위											
남아	2.2	11.3	73.8	3.4	5.2	3.4	0.6	0.1	0.1	0.0	100.0(631)
여아	5.4	52.6	5.0	2.1	2.0	31.9	0.1	0.0	0.4	0.4	100.0(584)

(표 III-3-39 계속)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작	역할	음률	컴퓨터	기타	해당 없음	계(수)
전체	6.8	22.0	11.5	9.3	19.2	28.3	2.1	0.0	0.9	0.0	100.0(1,212)
2순위 아동 성별											
남아	4.6	19.0	13.8	14.6	29.7	15.7	1.4	0.0	1.2	0.0	100.0(631)
여아	9.2	25.3	9.0	3.3	7.4	42.2	3.0	0.0	0.6	0.0	100.0(581)

2순위로 선호하는 놀이 영역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있어, 남아는 조작, 미술, 역할놀이, 수/과학, 쌓기 영역 등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여아는 역할놀이 및 미술 영역을 다수가 선호하였다(표 III-3-39 참조).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행동은 또래 놀이 상호작용 척도(PIPPS)를 이용하여 교사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4점 평균점수가 놀이 방해 1.93점(SD=0.45), 놀이상호작용 3.07점(SD=0.40), 놀이단절 1.57점(SD=0.47)으로 놀이상호작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보다 놀이방해 행동이 다소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놀이방해 행동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둘째 혹은 셋째 이상의 아동들에 비해 첫째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놀이방해 행동이 좀 더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둘째아가 다른 출생순위 아동에 비해 놀이단절 행동을 적게 하였다. 한편 어머니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0〉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구분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93	0.45	(1,215)	3.07	0.40	(1,215)	1.57	0.47	(1,215)
아동 성별									
남	2.05	0.45	(631)	3.01	0.41	(631)	1.59	0.47	(631)
여	1.80	0.41	(584)	3.15	0.38	(584)	1.55	0.46	(584)
<i>t</i>		9.33 ^{***}			-5.79 ^{***}			1.61	

단위: 점(명)

(표 III-3-40 계속)

구분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출생순위									
첫째	1.97 ^a	0.45	(562)	3.06	0.41	(562)	1.59 ^a	0.47	(562)
둘째	1.90 ^b	0.45	(516)	3.08	0.40	(516)	1.55 ^a	0.46	(516)
셋째 이상	1.87 ^{ab}	0.44	(137)	3.11	0.38	(137)	1.59 ^a	0.49	(137)
<i>F</i>		4.70 ^{**}			0.55			3.02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88 ^a	0.43	(695)	3.08	0.38	(695)	1.57	0.46	(695)
어린이집	2.02 ^b	0.46	(468)	3.06	0.43	(468)	1.59	0.47	(468)
반일제 이상	1.85 ^a	0.46	(52)	3.15	0.39	(52)	1.48	0.48	(52)
<i>F</i>		14.97 ^{***}			0.61			2.20	
모 학력									
고졸이하	2.00 ^a	0.47	(340)	3.09	0.38	(340)	1.58	0.46	(340)
전문대졸	1.94	0.46	(328)	3.06	0.41	(328)	1.60	0.48	(328)
대졸이상	1.88 ^b	0.43	(535)	3.07	0.41	(535)	1.56	0.47	(535)
<i>F</i>		6.88 ^{**}			0.22			0.05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CBCL1.5-5(오경자·김영아, 2009)를 사용하여 주양육자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뿐만 아니라 7개의 문제행동증후군 및 기타문제 척도 점수와 5개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방식 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에는 Achenbach와 Rescorla(2000) 및 오경자와 김영아(2009)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라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은 22.44점(SD=16.40), 내재화 문제행동은 7.54점(SD=6.33), 외현화 문제행동은 6.53점(SD=5.60)으로 만 5세 아동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좀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기준점(총점:44점, 내재화:15점, 외현화:15점)에 비해 낮은 양호한 수준이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 총점과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이 첫째아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ی 나타났다.

〈표 III-3-41〉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단위: 점(명)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2.44	16.40	(1,651)	7.54	6.33	(1,651)	6.53	5.60	(1,651)
아동 성별									
남	23.83	16.86	(849)	7.71	6.24	(849)	7.31	5.99	(849)
여	20.97	15.77	(802)	7.36	6.42	(802)	5.69	5.03	(802)
<i>t</i>		2.86**			.84			4.96***	
아동 출생순위									
첫째	25.10 ^a	17.49	(767)	8.57 ^a	6.77	(767)	7.17 ^a	5.91	(767)
둘째	20.42 ^b	15.17	(692)	6.73 ^b	5.80	(692)	6.07 ^b	5.38	(692)
셋째 이상	17.62 ^c	13.09	(192)	5.79 ^b	5.18	(192)	5.22 ^c	4.48	(192)
<i>F</i>		25.26***			23.49***			15.87***	
모 취업여부									
취업	20.37	15.63	(713)	6.81	6.10	(713)	5.90	5.27	(713)
미취업	24.04	16.89	(914)	8.11	6.49	(914)	7.02	5.83	(914)
<i>t</i>		-3.58***			-3.30**			-3.3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3.80 ^a	17.16	(532)	8.06 ^a	6.88	(532)	7.06 ^a	5.70	(532)
301~499만원	23.58 ^a	16.67	(531)	8.05 ^a	6.44	(531)	6.79 ^{ab}	5.66	(531)
500만원 이상	20.14 ^b	15.22	(579)	6.61 ^b	5.59	(579)	5.80 ^b	5.41	(579)
<i>F</i>		5.77**			6.42**			5.54**	

** $p < .01$, *** $p < .001$.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점수 중에서 내재화 문제에 해당하는 4가지 요인인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에 있어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점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첫째아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표 III-3-42〉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90	2.18	(1,651)	2.65	2.21	(1,651)	1.47	1.66	(1,651)	1.51	1.71	(1,651)
아동 성별												
남	1.93	2.19	(849)	2.69	2.18	(849)	1.50	1.67	(849)	1.58	1.68	(849)
여	1.87	2.18	(802)	2.61	2.23	(802)	1.43	1.65	(802)	1.44	1.73	(802)
<i>t</i>		.02			.86			.29			1.72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5 ^a	2.33	(767)	3.04 ^a	2.34	(767)	1.67 ^a	1.72	(767)	1.71 ^a	1.86	(767)
둘째	1.72 ^b	2.07	(692)	2.36 ^b	2.03	(692)	1.32 ^{ab}	1.63	(692)	1.33 ^b	1.50	(692)
셋째 이상	1.46 ^b	1.71	(192)	1.98 ^c	1.82	(192)	1.08 ^b	1.35	(192)	1.27 ^b	1.57	(192)
<i>F</i>		14.24 ^{***}			32.67 ^{***}			9.90 ^{***}			8.02 ^{***}	
모 취업여부												
취업	1.67	2.11	(713)	2.42	2.16	(713)	1.32	1.66	(713)	1.39	1.66	(713)
미취업	2.08	2.22	(914)	2.83	2.24	(914)	1.59	1.66	(914)	1.61	1.74	(914)
<i>t</i>		-3.30 ^{**}			-2.65 ^{**}			-2.71 ^{**}			-2.02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7 ^a	2.35	(532)	2.73 ^a	2.30	(532)	1.66 ^a	1.84	(532)	1.59 ^a	1.76	(532)
301~499만원	2.02 ^a	2.20	(531)	2.91 ^{ab}	2.28	(531)	1.48 ^{ab}	1.57	(531)	1.64 ^a	1.80	(531)
500만원 이상	1.65 ^a	1.99	(579)	2.34 ^b	2.01	(579)	1.27 ^b	1.54	(579)	1.34 ^b	1.55	(579)
<i>F</i>		3.08 [*]			4.61 [*]			5.64 ^{**}			5.38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2가지 하위요인인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과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아가 여아보다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및 기타문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문제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이고,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이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수면 및 기타 문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3〉 아동의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 수면 및 기타 문제

단위: 점(명)

구분	수면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기타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79	1.73	(1,651)	1.16	1.42	(1,651)	5.37	4.65	(1,651)	6.58	4.72	(1,651)

(표 III-3-43 계속)

구분	수면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기타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성별												
남	1.83	1.74	(849)	1.36	1.53	(849)	5.95	4.94	(849)	6.98	4.94	(849)
여	1.76	1.73	(802)	.94	1.26	(802)	4.75	4.24	(802)	6.15	4.44	(802)
<i>t</i>		.55			5.44***			4.31***			2.73**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1 ^a	1.91	(767)	1.39 ^a	1.55	(767)	5.78 ^a	4.81	(767)	7.24 ^a	4.97	(767)
둘째	1.54 ^b	1.52	(692)	.96 ^b	1.27	(692)	5.11 ^a	4.59	(692)	6.08 ^b	4.42	(692)
셋째 이상	1.28 ^b	1.27	(192)	.81 ^b	1.11	(192)	4.42 ^b	3.85	(192)	5.33 ^c	4.04	(192)
<i>F</i>		27.49***			18.57***			12.43***			18.54***	
모 취업여부												
취업	1.60	1.66	(713)	.99	1.32	(713)	4.92	4.42	(713)	6.05	4.54	(713)
미취업	1.93	1.77	(914)	1.27	1.47	(914)	5.75	4.80	(914)	6.98	4.83	(914)
<i>t</i>		-3.80***			-3.44**			-2.96**			-2.7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89	1.79	(532)	1.33 ^a	1.47	(532)	5.73 ^a	4.74	(532)	6.79 ^a	4.83	(532)
301~499만원	1.78	1.66	(531)	1.22 ^a	1.44	(531)	5.57 ^{ab}	4.63	(531)	6.96 ^a	4.85	(531)
500만원 이상	1.70	1.74	(579)	.93 ^b	1.31	(579)	4.87 ^b	4.55	(579)	6.03 ^a	4.45	(579)
<i>F</i>		.98			11.26***			3.32*			3.37*	

* $p < .05$, ** $p < .01$, *** $p < .001$.

DSM방식 척도에 해당하는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및 반항행동문제 점수를 분석한 결과, 남아는 여아보다 ADHD 및 반항행동문제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남아에게서 높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DSM방식 척도 점수 모두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3-44〉 아동의 문제행동: DSM방식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86	1.88	(1661)	2.96	2.58	(1661)	2.61	2.61	(1661)	2.45	2.15	(1661)	1.60	1.70	(1661)

단위: 점(명)

(표 III-3-44 계속)

구분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성별										
남	1.91	1.87 (849)	3.03	2.61 (849)	2.66	2.59 (849)	2.71	2.25 (849)	1.79	1.76 (849)
여	1.82	1.89 (802)	2.87	2.54 (802)	2.55	2.62 (802)	2.16	2.00 (802)	1.41	1.61 (802)
<i>t</i>	.54		1.12		1.06		4.88**		4.04**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0 ^a	2.01 (767)	3.43 ^a	2.78 (767)	2.97 ^a	2.85 (767)	2.76 ^a	2.24 (767)	1.69 ^a	1.77 (767)
둘째	1.70 ^b	1.77 (692)	2.53 ^b	2.27 (692)	2.28 ^b	2.30 (692)	2.20 ^b	2.05 (692)	1.57 ^b	1.67 (692)
셋째 이상	1.38 ^b	1.45 (192)	2.34 ^b	2.25 (192)	2.12 ^b	2.22 (192)	1.91 ^b	1.82 (192)	1.35 ^b	1.43 (192)
<i>F</i>	11.95**		34.46**		16.92**		18.56**		6.74**	
모 취업여부										
취업	1.62	1.77 (713)	2.69	2.48 (713)	2.36	2.46 (713)	2.24	2.10 (713)	1.46	1.65 (713)
미취업	2.05	1.95 (914)	3.16	2.63 (914)	2.80	2.71 (914)	2.59	2.18 (914)	1.73	1.73 (914)
<i>t</i>	-3.52**		-3.37**		-2.48*		-2.77*		-2.5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3 ^a	2.00 (532)	3.05 ^a	2.63 (532)	2.80 ^a	2.75 (532)	2.58 ^a	2.12 (532)	1.78 ^a	1.74 (532)
301~499만원	2.00 ^a	1.95 (531)	3.17 ^a	2.62 (531)	2.77 ^b	2.72 (531)	2.58 ^a	2.21 (531)	1.66 ^b	1.67 (531)
500만원 이상	1.59 ^b	1.67 (579)	2.69 ^a	2.48 (579)	2.28 ^b	2.34 (579)	2.19 ^b	2.10 (579)	1.40 ^b	1.67 (579)
<i>F</i>	6.47**		3.06*		4.45*		5.62**		4.88**	

* $p < .05$, ** $p < .01$, *** $p < .001$.

4)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은 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Test(JPPSST; Joseph, 1992)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인 중요성, 덕목, 일반적 평가, 유능성 및 영향력의 평균 점수가 약 52~54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는 남아보다 중요성 및 덕목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패널 아동이 첫째일 경우에는 낮은 형제순위였던 아동보다 유능성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5〉 아동의 자아개념

구분	중요성		덕목		일반적 평가		유능성		영향력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52.67	4.87 (1,668)	52.92	5.19 (1,667)	53.25	5.50 (1,667)	53.26	5.13 (1,668)	52.74	4.79 (1,668)

단위: 점(명)

(표 III-3-45 계속)

구분	중요성		덕목		일반적 평가		유능성		영향력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성별										
남	8.07	2.27 (854)	1.67	0.72 (854)	5.34	1.18 (854)	7.56	2.44 (854)	3.05	1.22 (854)
여	8.46	2.29 (804)	1.80	0.57 (803)	5.42	1.03 (803)	7.45	2.42 (804)	3.05	1.24 (804)
<i>t</i>	-2.75 ^{**}		-4.06 ^{***}		-1.18		1.23		0.55	
아동 출생순위										
첫째	8.38	2.19 (771)	1.74	0.65 (770)	5.42	1.06 (770)	7.66 ^a	2.45 (771)	3.09	1.19 (771)
둘째	8.19	2.31 (696)	1.71	0.68 (696)	5.35	1.17 (696)	7.33 ^b	2.41 (696)	3.05	1.23 (696)
셋째 이상	7.97	2.58 (191)	1.79	0.57 (191)	5.32	1.10 (191)	7.41 ^{ab}	2.40 (191)	2.88	1.37 (191)
<i>F</i>	2.39		0.96		1.14		5.74 ^{**}		2.40	

** $p < .01$, *** $p < .001$.

사. 일과 및 생활시간

만 5세 아동 일과 전반과 생활시간 조사를 위해, 식습관(가정, 기관) 및 식생활, 생활시간(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사교육시간, 놀이 및 기본생활,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식습관 및 식생활

아동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식사시간 규칙성, 식사량, 편식(고른 섭취), 식사속도 및 자립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식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과의 (아침)식사, 간식, 외식 및 배달음식 섭취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가) 가정에서의 식습관

아동의 가정에서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식사시간 규칙성, 식사량, 편식(고른 섭취)정도, 식사속도 및 자립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먼저 식사시간이 규칙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72.2%였으며(3.85/5점), 4.1%의 아동은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정한 식사량으로 식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65.6%로 나타났다(3.69점). 식사속도(2.77점)에 있어서는 보통의 속도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빠르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3.4%로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식사시간 규칙성, 식사량의 일정성 및 식사 속도에

있어 성별, 어머니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6〉 아동의 가정에서의 식습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식사시간 규칙성	전체	0.2	3.9	23.7	55.3	16.9	100.0(1,613)	3.85(0.75)
식사량 일정성	전체	0.1	6.8	27.6	55.0	10.6	100.0(1,612)	3.69(0.75)
식사 속도	전체	5.7	27.7	51.7	13.5	1.3	100.0(1,613)	2.77(.80)
고른 섭취	전체	2.4	19.7	36.1	32.6	9.3	100.0(1,613)	3.27(0.96)
	아동 성별							
	남	2.6	21.7	36.8	31.2	7.7	100.0(828)	3.20(0.95)
	여	2.1	17.6	35.4	34.0	10.9	100.0(785)	3.34(0.96)
	$\chi^2(df)/t$	6.73(4)						-2.3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	22.2	38.2	28.1	8.4	100.0(520)	3.17(0.97) ^a
	301~499만원	1.6	20.5	34.8	33.5	9.6	100.0(520)	3.29(0.95) ^{ab}
자립 정도	500만원 이상	2.1	16.8	35.6	35.9	9.7	100.0(565)	3.34(0.94) ^b
	$\chi^2(df)/F$	10.74(8)						3.30*
	전체	0.7	8.8	33.2	37.1	20.2	100.0(1,611)	3.67(0.92)
	아동 성별							
	남	1.2	10.8	34.4	36.3	17.3	100.0(828)	3.58(0.94)
	여	0.1	6.6	32.0	38.0	23.2	100.0(783)	3.78(0.88)
	$\chi^2(df)/t$	23.96(4)**						-4.5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6	7.5	28.9	38.8	24.2	100.0(519)	3.79(0.92) ^a
	301~499만원	0.3	7.6	37.2	35.8	19.1	100.0(519)	3.66(0.88) ^{ab}
	500만원 이상	1.2	11.0	33.6	36.7	17.4	100.0(565)	3.58(0.94) ^b
	$\chi^2(df)/F$	-						9.37***

주: 편식은 점수가 낮을수록 편식이 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른 섭취를 하는 것을 의미함;
식사속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름을 의미함.

* $p < .05$, *** $p < .001$.

한편 ‘고른 섭취를 한다’ 41.9%, ‘하지 않는다’ 22.1%로 편식을 하는 비율이 22.1%로 응답되었다. 아동이 도움 없이 스스로 식사하는 자립정도에 대해서는 57.3%가 그렇다(3.67점)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어,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편식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 시 자립정도는 남아보다 여아의 점수가 높았고,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즉 셋째아일수록,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도움 없이 식사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편식과 아동 스스로 식사 자립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나) 기관에서의 식습관

아동의 기관에서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편식(고른 섭취) 정도, 식사량 및 식사속도에 교사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고른 섭취 3.39점, 식사량 많음 3.04점, 식사속도 빠름 2.79점으로 가정(3.27점, 3.69점, 2.77점)과 비교하여 식사량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먼저 편식 정도의 응답은 가구 소득에 따른 분포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이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58.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많았다. 이는 가정에서의 식습관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식사량과 식사속도는 성차가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식사량이 많고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정의 아동이 미취업모 가정의 아동보다 식사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7〉 아동의 기관에서의 식습관: 편식, 식사량 및 속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	20.0	21.1	42.1	12.7	100.0(1,215) 3.39(1.07)
가구 소득							
고른 섭취	300만원 이하	3.8	21.8	21.9	41.2	11.2	100.0(376) 3.34(1.06)
	301~499만원	5.8	17.8	23.4	42.2	10.7	100.0(401) 3.34(1.07)
	500만원 이상	2.6	20.1	18.5	43.0	15.8	100.0(431) 3.49(1.06)
$\chi^2(df)/F$				16.36(8)*			2.99
전체		2.9	14.4	60.9	19.8	2.0	100.0(1,215) 3.04(.73)
아동 성별							
식사량 (많음)	남	2.6	13.2	60.3	21.5	2.5	100.0(631) 3.08(.74)
	여	3.3	15.8	61.4	17.9	1.6	100.0(584) 2.99(.73)
$\chi^2(df)/t$				8.15(4)			2.57*

(표 III-3-47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여부							
식사량	취업	2.2	11.3	59.4	25.9	1.1	100.0(535) 3.12(.70)
(많음)	미취업	3.4	16.9	61.4	15.5	2.8	100.0(662) 2.97(.76)
$\chi^2(df)/t$			15.11(4)**			2.17	
전체		5.7	26.7	53.4	11.1	3.1	100.0(1,215) 2.79(0.83)
아동 성별							
식사	남	5.6	24.0	53.4	13.0	4.0	100.0(631) 2.86(0.86)
속도	여	5.9	29.7	53.4	8.9	2.1	100.0(584) 2.71(0.79)
$\chi^2(df)/t$			9.00(4)			2.58*	

주: 편식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편식이 심함을 의미하며, 식사 속도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름을 의미함.

* $p < .05$, ** $p < .01$.

다) 식생활

아동이 평소 가족과 (아침)식사를 얼마나 함께 하는지 그리고 간식, 외식 및 배달음식 섭취 횟수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과의 식사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8회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으나 일주일에 매일 한 끼 미만의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응답(주 5회 이하)도 35.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어, 주 8회 이상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에서 더 많았다.

〈표 III-3-48〉 아동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5	11.4	22.2	28.6	36.4	100.0(1,614)	-
모 취업여부							
취업	0.9	10.2	26.0	30.6	32.3	100.0(700)	16.21(4)**
미취업	1.9	12.3	19.7	26.7	39.4	100.0(896)	

** $p < .01$.

또한 이러한 양상은 아동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미취업모인 경우 아동이 집에서 거의 매일 아침을 먹는다는 응답이 취업모에 비해 많았다.

〈표 III-3-49〉 아동의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 먹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거의 매일 먹음	계(수)	$\chi^2(df)$
전체	3.1	8.7	14.6	12.6	61.1	100.0(1,614)	-
모 취업여부							
취업	2.9	10.7	17.0	11.9	57.5	100.0(700)	12.54(4)*
미취업	3.3	7.4	13.0	13.3	62.9	100.0(896)	

* $p < .05$.

다음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간식을 먹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일 1~2회인 경우가 87.5%로 다수에 해당하였다.

〈표 III-3-50〉 아동의 가정에서의 간식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2.0	46.6	40.9	7.2	3.3	100.0(1,614)	-
모 취업여부							
취업	3.1	47.8	38.4	7.4	3.3	100.0(700)	9.50(4)
미취업	1.3	45.5	43.1	7.0	3.1	100.0(896)	

그리고 아동이 외식을 하거나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는 주 1~2회 정도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으며, 28.3%는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51〉 아동의 외식 또는 배달음식 섭취 횟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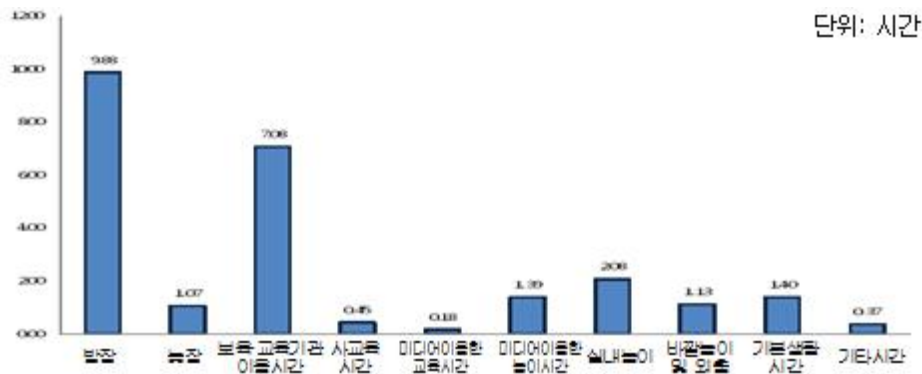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전체	28.3	66.2	5.0	0.2	0.2	100.0(1,614)
모 취업여부						
취업	27.3	67.4	5.1	0.2	0.0	100.0(700)
미취업	29.0	65.7	4.7	0.3	0.3	100.0(89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

2) 생활시간

아동이 일상적인 평일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 수면시간, 보육·교육시간,

놀이시간, 기본생활 시간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III-3-2]와 같다. 하루 중 가장 긴 활동은 밤잠이었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내놀이, TV시청 등 미디어를 사용한 놀이, 기본생활, 바깥놀이 및 외출, 가정에서 낮잠, 사교육 활동, 기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활동 순으로 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림 III-3-2] 아동의 생활시간

가) 수면 시간

밤과 낮의 수면시간과 기관에서의 낮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아동의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조사하여 총 수면 시간을 알아본 결과, 아동은 하루 평균 9.88시간(SD=0.74)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 비해서는 여아가 평균 16분 정도 수면시간이 길었으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인 경우 평균 27분 정도 수면을 길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2〉 아동의 수면 시간

구분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총 수면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1:43	0:52	(1,662)	7:36	0:39	(1,662)	9:88	0:74	(1,662)
아동 성별									
남	21:46	0:43	(856)	7:34	0:39	(856)	9:80	0:74	(856)
여	21:40	1:00	(806)	7:39	0:38	(806)	9:96	0:74	(806)
t		1.91			-2.69**			-3.86***	

(표 III-3-52 계속)

구분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총 수면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21:48	1:03	(720)	7:33	0:39	(720)	9.72	0.74	(720)
미취업	21:39	0:43	(918)	7:39	0:39	(918)	9.99	0.72	(918)
<i>t</i>		3.12**			-2.83**			-7.24***	

** $p < .01$, *** $p < .001$.

아동의 숙면 여부에 대해서 87.9%는 숙면을 취한다(밤에 깨지 않음), 12.1%는 밤에 자다가 깬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는 92.0%, 미취업모는 85.2%가 자녀가 숙면을 취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II-3-53〉 아동의 숙면 여부

구분				단위: %(명)
	예(깨지 않음)	아니요(깬)	계(수)	$\chi^2(df)$
전체	87.9	12.1	100.0(1,662)	-
모 취업여부				
취업	92.0	8.0	100.0(720)	11.10(1)**
미취업	85.2	14.8	100.0(918)	

** $p < .01$.

가정과 기관에서 낮잠을 자는지 여부와 시간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낮잠을 잔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인 95.9%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경우에는 평균 64.22분(SD=36.77)을 잔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54〉 아동의 가정에서의 낮잠

낮잠을 잠	낮잠을 자지 않음	계(수)	단위: %(명), 분		
			평균	표준편차	(수)
4.1	95.9	100.0(1,662)	64.22	36.77	(73)

기관에서는 낮잠시간이 없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육아지원 기관 유형 및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잔다고 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미취업모에 비해 취업모 가정의 아동이 기관에

서 낮잠을 잔다고 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낮잠 시간과도 연관되어서, 유치원에서는 낮잠을 자는 경우 평균 시간이 35.92분(SD=16.89)이었으나 어린이집은 50.36분(SD=50.36)이었으며, 취업모 가정의 아동은 기관에서 평균 51.69분(SD=23.26), 미취업모 가정의 아동은 43.81분(SD=16.54)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고, 취업모의 자녀가 좀 더 긴 운영시간의 육아지원 기관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표 III-3-55〉 아동의 기관에서의 낮잠

단위: %(명), 분

구분	낮잠시간 없음	낮잠을 자지 않음	낮잠을 잠	불규칙 적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8.4	36.7	9.4	5.4	1000(1212)	48.11	21.02	(185)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64.0	32.2	1.9	1.8	1000(65)	35.92	16.89	(28)
어린이집	24.2	43.4	21.1	11.4	1000(465)	50.36	20.96	(156)
반일제 이상	59.9	36.5	3.6	0.0	1000(52)	-	-	-
$\chi^2(df)/t$	260.34(6)***						-3.09**	
모 취업여부								
취업	45.0	34.2	13.3	7.5	1000(534)	51.69	23.26	(106)
미취업	51.1	38.7	6.5	3.7	1000(660)	43.81	16.54	(74)
$\chi^2(df)/t$	18.22(3)**						2.28*	

주: 기관에서의 낮잠은 '기타(휴식을 취함)'을 제외하고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사교육 시간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7.08시간(SD=1.46)이었으며, 기관 유형, 어머니 취업여부, 학력 및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읍면지역일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개인·그룹지도 및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은 평균 0.45시간(SD=0.52)이며, 출생 순위가 첫째일수록,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교육시간에 할애하고 있었다.

〈표 III-3-56〉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및 사교육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개인, 그룹,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08	1.46	(1,662)	0.45	0.52	(1,662)
아동 출생순위						
첫째	7.02	1.51	(772)	0.48 ^a	0.53	(772)
둘째	7.14	1.36	(697)	0.44 ^{ab}	0.52	(697)
셋째 이상	7.18	1.53	(193)	0.35 ^b	0.49	(193)
<i>F</i>		0.56			6.03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7.00 ^a	1.38	(956)	0.48 ^a	0.55	(956)
어린이집	7.37 ^b	1.32	(634)	0.41 ^b	0.48	(634)
반일제 이상	6.43 ^c	1.16	(64)	0.49 ^{ab}	0.50	(64)
<i>F</i>		25.35 ^{***}			5.72 ^{**}	
모 취업여부						
취업	7.66	1.45	(720)	0.44	0.53	(720)
미취업	6.68	1.34	(918)	0.45	0.50	(918)
<i>t</i>		14.51 ^{***}			-0.08	
모 학력						
고졸이하	7.26 ^a	1.40	(487)	0.41	0.49	(487)
전문대졸	7.18 ^a	1.42	(439)	0.44	0.48	(439)
대졸이상	6.92 ^b	1.50	(716)	0.48	0.56	(716)
<i>F</i>		6.59 ^{**}			1.88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02	1.37	(535)	0.38 ^a	0.44	(535)
301~499만원	7.04	1.50	(535)	0.45 ^a	0.49	(535)
500만원 이상	7.17	1.50	(583)	0.53 ^b	0.60	(583)
<i>F</i>		1.85			1.09 ^{***}	
지역 규모						
대도시	6.91 ^a	1.47	(693)	0.44	0.53	(693)
중소도시	7.14 ^a	1.51	(673)	0.46	0.52	(673)
읍면지역	7.38 ^b	1.24	(296)	0.46	0.48	(296)
<i>F</i>		6.06 ^{**}			0.05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1$, *** $p < .001$.

다) 놀이 및 기본생활 시간

아동의 실내·외 놀이시간과 기본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이 장난감 놀이나 책보기 등의 실내놀이 활동에는 하루 평균 2.08시간(SD=1.08)을 보내고 있

으며, 바깥놀이 및 외출에는 하루 평균 1.13시간(SD=0.78)을 보내었다. 이러한 놀이시간은 모 취업,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아동이 실내·외 놀이 모두에 더 많은 시간 참여하였고, 가구소득이 301~499만원인 가정에서 실내놀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 아동은 도시지역 아동보다 일주일 총 실내·외 놀이시간(놀이 시간×주간 이용 일)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7〉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 및 주간 이용 일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			주간 이용 일			시간			주간 이용 일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08	1.08	(1,662)	6.65	4.44	(1,653)	1.13	0.78	(1,662)	7.00	4.00	(1,439)
유아기관 유형												
유치원	2.10	1.05	(956)	6.66	0.82	(951)	1.16 ^a	0.81	(956)	4.50	1.89	(839)
어린이집	1.96 ^a	1.04	(634)	6.64	0.96	(630)	1.06 ^b	0.73	(634)	4.38	1.89	(531)
반일제 이상	2.44 ^b	1.00	(64)	6.71	0.74	(64)	1.16	0.63	(64)	4.23	1.78	(62)
<i>F</i>		5.71 ^{**}			0.31			5.64 ^{**}			1.00	
모 취업여부												
취업	1.95	1.04	(720)	6.63	0.94	(717)	1.02	0.77	(720)	4.28	1.93	(593)
미취업	2.17	1.11	(918)	6.67	0.83	(912)	1.21	0.78	(918)	4.56	1.84	(824)
<i>t</i>		-4.23 ^{***}			0.42			-5.73 ^{***}			-2.96 ^{**}	
모 학력												
고졸이하	1.92 ^a	1.09	(487)	6.64	0.91	(482)	1.07 ^a	0.77	(487)	4.44	1.91	(411)
전문대졸	2.04	1.03	(439)	6.68	0.87	(436)	1.01 ^a	0.71	(439)	4.23	1.81	(370)
대졸이상	2.20 ^b	1.09	(716)	6.64	0.85	(715)	1.23 ^b	0.82	(716)	4.58	1.89	(640)
<i>F</i>		10.35 ^{***}			1.94			12.35 ^{***}			2.3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99 ^a	1.08	(535)	6.68	0.82	(530)	1.11	0.78	(535)	4.57	1.8	(460)
301~499만원	2.17 ^b	1.09	(535)	6.65	0.87	(534)	1.16	0.79	(535)	4.32	1.89	(463)
500만원 이상	2.08 ^{ab}	1.08	(583)	6.63	0.92	(580)	1.11	0.77	(583)	4.41	1.91	(508)
<i>F</i>		3.18 [*]			0.35			0.31			1.58	
지역 규모												
대도시	2.10 ^{ab}	1.06	(693)	6.75 ^a	0.78	(691)	1.12 ^a	0.72	(693)	4.21 ^a	1.83	(605)
중소도시	2.13 ^a	1.14	(673)	6.57 ^{ab}	0.95	(668)	1.15 ^a	0.86	(673)	4.59 ^b	1.89	(572)
읍면지역	1.93 ^b	0.99	(296)	6.63 ^b	0.88	(294)	1.08 ^a	0.70	(296)	4.65 ^b	1.95	(262)
<i>F</i>		3.88 [*]			3.46 [*]			3.03 [*]			8.90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이 하루 중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1.13시간($SD=0.78$)이며, 미취업 가정인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기본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또한 아동은 0.37시간($SD=0.65$)을 기타 시간에 활용하였으며, 도시지역일수록 기타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표 III-3-58〉 아동의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기본생활			기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40	0.59	(1,662)	0.37	0.65	(1,662)
모 취업여부						
취업	1.32	0.54	(720)	0.36	0.64	(720)
미취업	1.45	0.62	(918)	0.39	0.65	(918)
<i>t</i>		-3.62 ^{***}			-1.81	
지역 규모						
대도시	1.51 ^a	0.55	(693)	0.46 ^a	0.71	(693)
중소도시	1.34 ^b	0.63	(673)	0.33 ^{ab}	0.63	(673)
읍면지역	1.27 ^b	0.55	(296)	0.27 ^b	0.48	(296)
<i>F</i>		45.29 ^{**}			5.08 ^{**}	

** $p < .01$, *** $p < .001$.

라)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

만 5세 아동이 시청각 기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0.18시간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 시청 및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 활동에 대해서는 평균 1.39시간 참여하였으며, 남아가, 미취업모의 가정에서, 모 학력/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한편 일주일 동안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및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날은 며칠인지 조사한 결과, 평균 5.87일($SD=1.74$)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서 아동이 일주일 중 거의 매일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59〉 아동의 시청각 기기·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과
주간 이용 일

단위: 시간, 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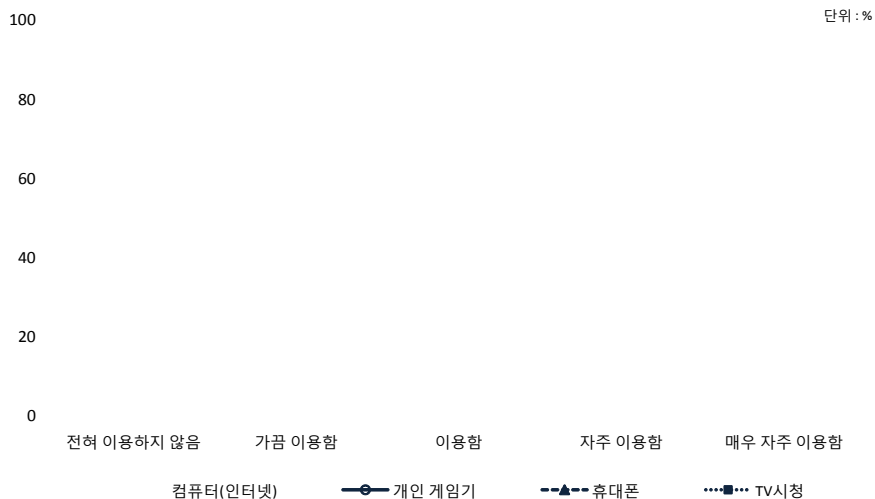
구분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주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 사용 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18	0.43	(1,662)	1.39	0.86	(1,662)	5.87	1.74	(1,541)
아동 성별									
남	0.17	0.43	(856)	1.44	0.89	(856)	5.88	1.76	(796)
여	0.20	0.42	(806)	1.33	0.83	(806)	5.87	1.72	(745)
<i>t</i>		-1.63			2.63**			0.2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18	0.42	(956)	1.36 ^a	0.88	(956)	5.81 ^a	1.77	(884)
어린이집	0.19	0.44	(634)	1.42 ^a	0.82	(634)	6.00 ^a	1.66	(595)
반일제 이상	0.13	0.30	(64)	1.13 ^b	0.80	(64)	5.45 ^b	2.04	(54)
<i>F</i>		0.99			6.35**			5.62**	
모 취업여부									
취업	0.17	0.42	(720)	1.32	0.84	(720)	5.85	1.77	(665)
미취업	0.19	0.43	(918)	1.42	0.88	(918)	5.90	1.72	(852)
<i>t</i>		-1.18			-2.16*			0.43	
모 학력									
고졸이하	0.17	0.44	(487)	1.56 ^a	0.86	(487)	6.18 ^a	1.52	(462)
전문대졸	0.14	0.36	(439)	1.40 ^b	0.92	(439)	5.98 ^a	1.68	(399)
대졸이상	0.20	0.45	(716)	1.26 ^c	0.81	(716)	5.60 ^b	1.88	(660)
<i>F</i>		2.41			17.76***			17.6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17	0.39	(535)	1.53 ^a	0.89	(535)	5.96	1.65	(506)
301~499만원	0.15	0.40	(535)	1.39 ^b	0.86	(535)	5.80	1.82	(498)
500만원 이상	0.22	0.48	(583)	1.25 ^c	0.82	(583)	5.88	1.75	(529)
<i>F</i>		1.64			16.33***			2.64	
지역 규모									
대도시	0.15	0.34	(693)	1.40 ^a	0.89	(693)	5.87	1.72	(643)
중소도시	0.21	0.47	(673)	1.31 ^a	0.84	(673)	5.84	1.78	(616)
읍면지역	0.18	0.49	(296)	1.50 ^b	0.85	(296)	5.96	1.72	(282)
<i>F</i>		2.78			4.66*			0.79	

* $p < .05$, ** $p < .01$, *** $p < .001$.

3) 미디어 이용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를 컴퓨터(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및 TV 시청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전혀 이용하지 않음부터 매우 자주 이용함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인터넷)의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음 58.6%, 가끔 이용함 31.1% 등의 응답을 보였다.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보다는 셋째 이상일 때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의 가정에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고졸이하의 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표 III-3-60〉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컴퓨터(인터넷)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6	31.1	6.0	3.2	1.1	1000(1,541)	1.57(0.83)
아동 출생순위							
첫째	64.0	25.7	7.0	2.3	1.0	100.0(716)	1.51(0.80) ^a
둘째	55.0	36.4	4.9	2.2	1.4	100.0(642)	1.59(0.80) ^a
셋째 이상	47.1	36.7	5.0	10.5	0.6	100.0(183)	1.81(0.98) ^b
$\chi^2(df)/F$			55.06(8) ^{***}				11.60 ^{***}
모 학력							
고졸이하	51.0	38.5	5.5	4.0	0.9	100.0(462)	1.65(0.83)
전문대졸	65.1	24.8	6.3	2.7	1.0	100.0(399)	1.50(0.81)
대졸이상	59.8	29.7	6.2	2.9	1.3	100.0(660)	1.56(0.84)
$\chi^2(df)/F$			22.79(8) ^{**}				2.82

** $p < .01$, *** $p < .001$.

개인 게임기의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음 88.2%, 가끔 이용함 9.0% 등의 응답을 보여서 상당수의 아동이 개인 게임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었다.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그리고 출생순위가 첫째보다는 둘째나 셋째 이상일 때 더 자주 게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나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인 가정에서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1〉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개인 게임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8.2	9.0	1.9	0.6	0.3	100.0(1,541)	1.16(0.49)
아동 성별							
남	86.8	9.2	2.6	1.1	0.4	100.0(796)	1.19(0.56)
여	89.7	8.8	1.1	0.2	0.1	100.0(745)	1.12(0.40)
$\chi^2(df)/t$	7.55(4)						2.27*
아동 출생순위							
첫째	93.5	5.1	1.1	0.0	0.3	100.0(716)	1.08(0.36) ^a
둘째	84.3	11.6	2.7	1.1	0.2	100.0(642)	1.21(0.56) ^b
셋째 이상	78.2	17.5	2.3	1.8	0.3	100.0(183)	1.29(0.62) ^b
$\chi^2(df)/F$	-						21.67***
모 취업여부							
취업	86.7	9.8	1.9	1.2	0.4	100.0(665)	1.19(0.55)
미취업	89.8	8.1	1.6	0.2	0.2	100.0(852)	1.13(0.43)
$\chi^2(df)/t$	6.41(4)						1.98*
모 학력							
고졸이하	83.9	12.6	2.6	0.8	0.1	100.0(462)	1.21(0.53) ^a
전문대졸	90.6	7.9	0.9	0.2	0.4	100.0(399)	1.12(0.42) ^b
대졸이상	89.5	7.3	2.0	0.9	0.3	100.0(660)	1.15(0.50) ^{ab}
$\chi^2(df)/F$	-						3.40*

* $p < .05$, *** $p < .001$.

휴대폰의 경우 가끔 이용함 46.5%, 이용함 16.0%로 높은 이용률을 보여서 컴퓨터나 게임기와는 다른 이용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보다는 셋째 이상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자주 이용하였다.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인 가정에서 그리고 대도시에서 비교적 아동의 휴대폰 이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3-62〉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휴대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3	46.5	16.0	8.4	1.8	100.0(1,541)	2.11(0.96)
아동 성별							
남	25.7	46.5	16.1	9.9	1.8	100.0(796)	2.16(0.98)
여	29.1	46.4	15.9	6.8	1.7	100.0(745)	2.06(0.93)
$\chi^2(df)/t$			8.13(4)				2.65**
아동 출생순위							
첫째	29.0	45.1	16.0	8.1	1.8	100.0(716)	2.09(0.96) ^{ab}
둘째	27.3	48.3	14.6	8.4	1.4	100.0(642)	2.08(0.94) ^a
셋째 이상	20.2	46.1	21.0	10.0	2.7	100.0(183)	2.29(0.98) ^b
$\chi^2(df)/F$			8.57(8)				3.76*
모 학력							
고졸이하	22.4	46.8	18.6	9.8	2.4	100.0(462)	2.23(0.98) ^a
전문대졸	27.2	47.9	14.8	8.6	1.6	100.0(399)	2.09(0.95) ^{ab}
대졸이상	31.1	44.9	15.5	7.2	1.4	100.0(660)	2.03(0.94) ^b
$\chi^2(df)/F$			12.62(8)				4.1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9.4	43.2	18.4	7.8	1.2	100.0(506)	2.08(0.94)
301~499만원	26.3	50.5	14.3	7.9	1.0	100.0(498)	2.07(0.90)
500만원 이상	26.5	45.5	15.3	9.6	3.1	100.0(529)	2.17(1.02)
$\chi^2(df)/F$			11.16(8)				0.53
지역 규모							
대도시	29.8	51.7	11.2	6.4	0.9	100.0(643)	1.97(0.86) ^a
중소도시	26.7	42.5	18.7	9.9	2.2	100.0(616)	2.18(1.01) ^b
읍면지역	23.1	42.7	21.4	9.9	2.9	100.0(282)	2.27(1.01) ^b
$\chi^2(df)/F$			48.18(8) ^{***}				14.72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TV 시청의 경우 자주 이용함 36.0%, 이용함 26.1%, 매우 자주 이용함 20.9%, 가끔 이용함 15.7% 등의 순으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여, 미디어 중에서 아동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가 TV임을 알 수 있다. 남아가 더 자주 시청하였고, 모 학력/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TV 시청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63〉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 TV 시청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	15.7	26.1	36.0	20.9	100.0(1,541)	3.59(1.03)
아동 성별							
남	0.9	14.3	23.5	37.9	23.5	100.0(796)	3.69(1.01)
여	1.9	17.2	28.8	34.0	18.2	100.0(745)	3.49(1.03)
$\chi^2(df)/t$			8.57(4)				2.79*
모 학력							
고졸이하	0.6	11.5	23.1	37.5	27.3	100.0(462)	3.79(0.99) ^a
전문대졸	1.7	15.6	24.8	37.2	20.7	100.0(399)	3.59(1.03) ^b
대졸이상	1.7	18.8	28.8	33.9	16.7	100.0(660)	3.45(1.03) ^b
$\chi^2(df)/F$			30.90(8) ^{***}				15.22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5	13.9	21.7	39.6	23.2	100.0(506)	3.69(1.02) ^a
301~499만원	1.8	14.9	28.3	33.1	21.8	100.0(498)	3.58(1.04) ^{ab}
500만원 이상	0.8	18.3	27.8	34.9	18.1	100.0(529)	3.51(1.01) ^b
$\chi^2(df)/F$			16.54(8) [*]				4.19 [*]
지역 규모							
대도시	0.1	14.7	26.3	35.2	23.6	100.0(643)	3.67(1.00) ^a
중소도시	1.6	17.6	26.6	36.8	17.3	100.0(616)	3.51(1.02) ^b
읍면지역	3.6	13.7	24.2	36.1	22.3	100.0(282)	3.60(1.09) ^{ab}
$\chi^2(df)/F$			17.88(8) [*]				4.10 [*]

* $p < .05$, ** $p < .01$, *** $p < .001$.

아. 소결

패널 아동의 건강, 신체, 인지, 언어 및 사회·정서 발달 측면과 일과 및 생활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아동의 건강에 있어 조사 시점 당시 지난 한 달 간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이 절반 가량이었고, 생후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아동이 전체 아동 중 1/3 이상이며,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받은 아동은 1/5 이상이었다. 생애 초기 만 5세 아동의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건강 및 질병 관련 육아정책의 접근과 예방,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소근육 발달에 있어 만 5세 아동의 소근육 운동 발달이 대근육 운동 발달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성별과 같은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규모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발 자전거 타기 외에도 대근육 운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겠으나, 이를 통해 한국의 취학 전 아동이 다양한 신체운동 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대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언어 및 인지, 사회정서의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전체 평균점수에 의하면, 만 5세 패넬아동이 평균을 다소 웃도는 양호한 수준의 발달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발달영역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여아는 남아보다 동작성 및 언어성 지능 점수가 높고,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남아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차에 대해 남아와 여아의 기질적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이나 상호작용 경험 등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이 아닌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양육 및 보육·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차가 나타나는 영역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에서도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남아와 여아의 선천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사회화에 의한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사회화 즉, 학습에 의한 결과라면 여전히 우리사회에 남아와 여아에게 서로 다른 행동과 태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사가 남아와 여아에게 제공하거나 놀이영역에 배치하는 교재교구가 이미 남아와 여아의 선택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교사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넷째, 식생활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매일 한 끼 미만으로 식사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 중 1/3 가량이었다. 즉, 1/3정도의 아동에게는 가족과 한 끼도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날이 일주일 중에 최소 1~2일은 있다는 것이다. 만 5세 아동에게 가족이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 아동의 이러한 일과시간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다 깊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히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만 5세 영유아가구의 일과 생활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미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모 가정의

아동은 미취업모 가정에 비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비교적 적고,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실내·외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도 짧았으며, 기관 이용시간은 더 길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건강 질병 특성에 있어서도 취업모 자녀의 아동의 질환 발생과 진단율이 미취업모 아동에 비해 낮았다. 상대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을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미취업모 자녀의 질환 발생과 진단율이 높을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자녀의 건강과 질환을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육과정의 차이는 아동의 식사습관 및 자립도(혼자 식사함)와도 관련이 있었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양자의 양육의 어려움이 다르므로, 이를 모두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취업모에게 자녀양육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근제 등의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종일제 기관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와 육아 인프라를 통해 미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지나치게 긴 기관이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7.08시간으로 밤에 잠을 자는 시간 다음으로 긴 시간이었다.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미취업모 보다는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시간이 더 길었으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즉, 읍면지역에서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개인·그룹지도 및 학습지 등 개인적인 교육시간은 하루 평균 0.45시간이며,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개인 교육시간에 할애하였다.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개인 교육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취학 전 영유아기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매체 이용에 있어서 TV 시청과 휴대폰 사용이 컴퓨터/게임기의 이용률 상승과 함께 아동의 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TV는 대다수의 아동이 시청하고 있으며, TV 시청을 포함한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39시간, 일주일 동안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및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날은 5.87일 정도이므로 아동이 TV에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청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성인의 관심이 필수적이며, TV 시청 및 휴대폰, 그 밖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아동발달의 저해를 막고 다양한 놀이 신체활동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첫째인 아동 보다는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순위 형제자매가 매체를 이용할 때 함께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매체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비록 현 연구결과만으로 매체에 대한 노출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첫째 자녀가 아닌 경우 그들에게 노출되는 매체나 환경이 그들의 연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부모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즉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와 부모 양육과정의 차이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천적인 특성의 차이가 발현된 결과인지 혹은 첫째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정의 차이 및 첫째아 양육의 어려움과 노력을 반영한 결과인지, 첫째아 비중이 높은 본 연구 설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그 기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아홉째, 전반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생활 특성에 미치는 주요 변수로 모 학력과 가구소득의 변인이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만 5세 아동의 기관 이용 유형에 따른 차이와도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취학 전 생애초기부터 아동의 특성 전반에 걸쳐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가 이후 성장 발달에 사회경제적 격차로 누적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보육교육 정책과 육아지원의 설계가 필요하다.

4. 부모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부모 연령과 학력, 결혼상태 및 기간, 동거상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해에 진행된 본 조사에서 어머니 평균 연령은 36.09세, 아버지 38.56세이며 부모 모두 80%이상이 30대에 속해 있으며, 40대는 어머니의 16%, 아버지의 15.8%가 해당된다. 20대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2.8%, 2.3% 포

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38.4%, 고졸 29.2%, 전문대졸 26.7%이며, 대학원 이상 졸업자 5.2%가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는 대졸 42.8%, 고졸 26.6%, 전문대졸 19.6%, 대학원졸 10.5%로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조금 더 높다.

〈표 III-4-1〉 부모의 연령 및 학력

연령	어머니		학력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29세	2.8	2.3	무학	0.1	0.0
30~39세	81.1	81.7	중학교	0.4	0.5
40~49세	16.0	15.8	고등학교	29.2	26.6
50세 이상	0.1	0.2	전문대	26.7	19.6
계(수)	100.0(1,649)	100.0(1,636)	대학교	38.4	42.8
평균	36.09	38.56	대학원	5.2	10.5
표준편차	3.56	3.88	계(수)	100.0(1,642)	100.0(1,636)

결혼 상태와 기간을 보면, 초혼이 어머니 98.1%, 아버지 98.8%로 대다수가 유배우 초혼 상태이다. 재혼은 부모 각각 0.8%이고, 이혼은 어머니 0.6%, 아버지 0.3%이다. 소수이지만, 사별과 별거, 미혼도 일부 존재한다. 평균결혼기간은 105.6개월로 약 8.8년 정도이다.

〈표 III-4-2〉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구분	결혼상태							결혼기간	
	미혼	유배우-초혼	유배우-재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0.2	98.1	0.8	0.2	0.6	0.1	100.0 (1,649)	105.60	36.28
아버지	0.0	98.8	0.8	0.1	0.3	0.0	100.0 (1,636)		

어머니의 0.2%가 타지역 근무 또는 학업의 이유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아버지는 3.7%가 타지역 근무(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로 비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 지역 근무(학업)	군복무	기타	계(수)
어머니	99.8	0.2	100.0(1,649)	100.0	0.0	0.0	100.0(5)
아버지	96.3	3.7	100.0(1,636)	93.9	3.6	2.6	100.0(57)

나. 건강 특성

부모의 1, 2급 이상 중증도 장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0.1%, 아버지의 0.7%가 해당되었다.

〈표 III-4-4〉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1	99.9	100.0(1,649)
아버지	0.7	99.3	100.0(1,636)

부모의 음주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음주 횟수는 어머니는 월 1회 이하가 34.4%로 가장 많고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과 월 2~4회가 각각 27.6%로 응답되었다. 음주량도 1~2잔 정도가 60.7%로 가장 많고, 3~4잔이 23.9%이며, 과음 횟수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1.7%, 한 달에 1번 미만 30.0%, 한 달에 1번 정도가 19.3%로 어머니의 음주 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주 4회 이상 마시거나, 음주 시 10잔 이상을 마시거나, 거의 매일 과음을 한다는 응답도 일부 존재한다.

아버지의 음주 실태는 어머니에 비해 더 자주, 많이 마시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음주 횟수에 대해서는 월 2~4회가 34.9%로 가장 많고, 음주량도 5~6잔이 24.0%, 7~9잔이 21.7%로 어머니에 비해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비율이 더 높다. 과음 횟수 역시 전혀 없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하고, 월 1회 정도가 31.0%, 주 1회 정도 29.6%로 과음 횟수가 어머니에 비해 많은 편이다.

〈표 III-4-5〉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명)

음주 횟수	어머니	아버지	음주량	어머니	아버지	과음 횟수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마십	27.6	9.7	1~2잔	60.7	16.7	전혀 없음	41.7	14.3
월1회 이하	34.4	17.0	3~4잔	23.9	19.3	월1회 미만	30.0	19.0
월2~4회	27.6	34.9	5~6잔	10.0	24.0	월1회 정도	19.3	31.0
주2~3회	9.0	27.9	7~9잔	2.8	21.7	주1회 정도	8.5	29.6
주4회 이상	1.4	10.5	10잔 이상	2.5	18.4	거의 매일	0.6	6.1
계(수)	100.0 (1,614)	100.0 (1,542)	계(수)	100.0 (1,179)	100.0 (1,390)	계(수)	100.0 (1,174)	100.0 (1,391)

흡연은 어머니의 98.8%가 비흡연자로 대부분이고 아버지는 52.3%가 비흡연으로 흡연자보다 많다.

〈표 III-4-6〉 흡연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2	98.8	100.0(1,650)
아버지	47.7	52.3	100.0(1,543)

다. 직업 특성

부모의 직업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와 직업변동 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전체의 58%가 미취업 또는 미학업 상태로 가장 많고, 취업 중인 경우는 38.7%이다. 취업 어머니 중 4.3%는 휴직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어머니 중 42.1%는 취업 중이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은 각각 37.0%, 34.5%가 어머니 취업 중이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의 취업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학력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모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아버지는 전체의 93.1%가 취업 중이고, 미취업/미학업 상태는 4.5%,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2.2%이며 학업 중인 아버지가 0.3%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학업 상태					취업 상태		
	취업 중	학업 중	취업/ 학업 중	미취업/ 미학업	계(수)	재직 중	휴직 중	계(수)
어머니 전체	38.7	0.6	2.7	58.0	100.0(1,638)	95.7	4.3	100.0(711)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37.0	0.7	2.0	60.3	100.0(947)	95.5	4.5	100.0(947)
어린이집	42.1	0.6	3.3	54.0	100.0(619)	96.5	3.5	100.0(619)
반일제 이상	34.5	0.0	5.9	59.6	100.0(64)	93.3	6.7	100.0(64)
$\chi^2(df)$			-					0.97(2)
모 학력								
고졸이하	32.1	0.1	1.5	66.3	100.0(484)	97.5	2.5	100.0(176)
전문대졸	39.8	0.5	2.3	57.4	100.0(436)	97.3	2.7	100.0(185)
대졸이상	42.3	1.0	3.6	53.0	100.0(711)	94.0	6.0	100.0(348)
$\chi^2(df)$			-					5.53(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1.7	0.4	1.3	76.6	100.0(528)	96.5	3.5	100.0(134)
301~499만원	34.7	0.6	2.1	62.6	100.0(526)	95.2	4.8	100.0(210)
500만원 이상	58.0	0.9	4.4	36.7	100.0(577)	95.7	4.3	100.0(363)
$\chi^2(df)$			-					0.24(2)
지역 규모								
대도시	38.4	0.8	2.8	57.9	100.0(683)	95.1	4.9	100.0(303)
중소도시	40.6	0.7	2.1	56.6	100.0(665)	96.4	3.6	100.0(291)
읍면지역	35.1	0.0	3.5	61.4	100.0(290)	95.4	4.6	100.0(117)
$\chi^2(df)$			-					0.80(2)
아버지 전체	93.1	0.3	2.2	4.5	100.0(1,540)	-	-	-

부모의 직장 변동 여부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직장이 바뀌었다는 응답은 15.1%, 동일하다는 응답은 84.9%이다. 어머니는 89.9%가 변동되었으며 9.3%는 직장이 바뀌고, 직위가 바뀌었다는 비율은 0.8%이다.

〈표 III-4-8〉 부모의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어머니				아버지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계(수)	직장이 바뀜	직장이 동일함	계(수)
89.9	9.3	0.8	100.0(583)	15.1	84.9	100.0(1,428)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아버지는 상용직이 74.7%, 사업자가 19.2% (자영업자 10.3%, 고용주 8.9%), 임시직 2.9%, 일용직 2.5%이며, 무급가족종사자는 0.7%이다. 어머니는 65.6%가 상용직이고, 사업자가 18.8%(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8%, 종업원을 둔 고용주 6%), 임시직 11.2%, 무급가족종사자가 3.3%, 일용직 1.1%로 응답되어 어머니에게서 임시직의 비율이 높다.

〈표 III-4-9〉 부모의 종사상 지위

구분	단위: %(명)						계(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어머니	65.6	11.2	1.1	6.0	12.8	3.3	100.0(711)
아버지	74.7	2.9	2.5	8.9	10.3	0.7	100.0(1,330)

직업군은 아버지는 사무종사자가 2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43.1%, 사무종사자가 27.1%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전문직 비율이 높다. 그 밖에 직업군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판매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많이 응답된 반면 아버지는 장치기계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판매종사자가 10~11%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 III-4-10〉 부모의 직업군

												단위: %(명)	
구분	미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수)	
어머니	0.1	1.5	43.1	27.1	7.1	11.9	0.8	1.0	3.8	3.3	0.2	100.0 (706)	
아버지	2.7	3.8	23.8	25.5	4.6	10.2	1.5	11.3	13.6	2.4	0.6	100.0 (1,458)	

취업 중인 어머니의 평일 근무일은 평일 4.82일, 주말 0.29일이며 평일과 주말을 합쳐 주간 근무일이 5.1일이다.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 7.81시간, 주말 1.76시간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11〉 취업모 평균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분(명)

구분	평일			주말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근무일 수	4.82	0.60	(681)	0.29	0.54	(681)	5.10	0.77	(681)
평균 근로시간	7.81	2.07	(681)	1.76	3.38	(681)	4.79	2.21	(681)
출퇴근 소요시간	0.78	0.59	(681)	0.17	0.41	(681)	0.48	0.39	(681)

취업 중인 어머니의 근무시간은 주중 평균 7.81시간, 표준편차 2.07시간으로 편차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근로시간보다 길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1주일 내 어머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5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집단 취업모는 주중 평일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III-4-12〉 어머니 1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주중			주말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81	2.07	(681)	1.76	3.38	(681)	4.79	2.21	(681)
기관 유형									
유치원	7.89 ^a	1.95	(372)	1.64	3.27	(372)	4.76	2.10	(372)
어린이집	7.88 ^a	2.13	(285)	1.90	3.49	(285)	4.89	2.31	(285)
반일제 이상	5.98 ^b	2.24	(24)	2.09	3.50	(24)	4.04	2.44	(24)
<i>F</i>		6.66 ^{**}			0.84			1.77	
모 학력									
고졸이하	8.04	1.92	(172)	3.29 ^a	4.17	(172)	5.66 ^a	2.70	(172)
전문대졸	7.78	2.10	(180)	1.75 ^b	3.33	(180)	4.77 ^b	2.24	(180)
대졸이상	7.73	2.13	(327)	1.05 ^c	2.66	(327)	4.39 ^b	1.77	(327)
<i>F</i>		1.36			21.97 ^{***}			16.71 ^{***}	
가구 소득									
30만원 이하	7.70	2.22	(129)	3.05 ^a	4.08	(129)	5.38 ^b	2.73	(129)
301~499만원	7.48 ^a	2.07	(200)	1.02 ^b	2.42	(200)	4.25 ^a	1.72	(200)
500만원 이상	8.03 ^b	2.00	(348)	1.74 ^b	3.43	(348)	4.89 ^b	2.19	(348)
<i>F</i>		7.43 ^{**}			11.98 ^{***}			10.02 ^{***}	
지역 규모									
대도시	7.67	2.08	(289)	1.70	3.24	(289)	4.68	2.12	(289)
중소도시	7.89	2.12	(281)	1.57	3.26	(281)	4.73	2.17	(281)
읍면지역	7.99	1.92	(111)	2.43	3.88	(111)	5.21	2.49	(111)
<i>F</i>		2.24			2.25			3.18 [*]	

* $p < .05$, ** $p < .01$, *** $p < .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취업모의 1주 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로형태에 따라 1주 근로일수와 주중과 주말 근로시간이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취업모 지원의 육아지원정책에서 보육교육 시간의 설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라. 개인 특성

부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우울

부모의 우울 정도는 총 6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평균 우울 점수는 1.94점, 아버지는 1.84점으로 어머니의 우울점수가 더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별로 우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미취업모의 우울이 취업모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우울이 유의하게 적었다. 아버지 우울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과 지역규모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아버지 우울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부모 우울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과 가구소득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I-4-13〉 부모의 우울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4	0.74	(1,614)	1.84	0.66	(1,541)
모 취업여부						
취업	1.88	0.67	(700)	1.79	0.62	(650)
미취업	1.99	0.78	(896)	1.86	0.67	(870)
<i>t</i>		1.83			-0.98	

단위: 점(명)

(표 III-4-13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학력						
고졸이하	2.00	0.83	(471)	1.92 ^a	0.69	(458)
전문대졸	1.90	0.66	(430)	1.75 ^b	0.60	(404)
대졸이상	1.91	0.70	(699)	1.82 ^b	0.65	(662)
<i>F</i>		3.41 [*]			7.30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4 ^a	0.79	(520)	1.87	0.70	(501)
301~499만원	1.93	0.73	(521)	1.83	0.61	(493)
500만원 이상	1.85 ^b	0.67	(565)	1.81	0.66	(538)
<i>F</i>		5.86 ^{**}			2.43	
지역 규모						
대도시	1.94	0.76	(662)	1.86	0.67	(638)
중소도시	1.90	0.70	(660)	1.78 ^a	0.63	(622)
읍면지역	2.00	0.78	(292)	1.91 ^b	0.69	(281)
<i>F</i>		1.14			4.56 [*]	

* $p < .05$, ** $p < .01$.

부모의 우울수준을 K6 기준에 따라 정상, 경도·중증도, 중도 우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 어머니의 72.5%는 정상, 경도·중증도 우울 20.5%, 중도 우울 7.0% 수준이다. 아버지는 정상 80.0%, 경도·중증도 16.0%, 중도 4.0%로 어머니에게서 우울한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영유아부모가 어머니 27.5%, 아버지 20.0%로 적지 않다.

취업 여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규모별로 어머니 우울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정상 비율(76.9%)이 미취업모 정상 비율(69.2%)보다 높았으며, 경도·중증도 우울, 중도 우울 수준을 보인 어머니가 미취업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정도와 우울증상 응답률이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 취업유무에 따른 우울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우울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학력자에게서 정상 비율이 84.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80.3%, 고졸 이하 7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도·중증도, 중도 우울 모두 전문대졸 학력자에게서 가장 낮고, 대졸 이상, 고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고졸이하 학력집단의 아버지 우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정도에 따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상 비율이 높았으며, 중도

우울에서는 300만원 이하 집단이 5.1%로 가장 높고 500만원 이상(3.9%), 301~499만원 집단(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부모의 우울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중증도	중도	(수)	정상	경도/중증도	중도	(수)
전체	72.5	20.5	7.0	(1,672)	80.0	16.0	4.0	(1,608)
모 취업여부								
취업	76.9	18.5	4.6	(670)	82.2	14.8	3.0	(634)
미취업	69.2	22.2	8.6	(883)	78.9	17.2	3.9	(856)
$\chi^2(df)$	6.06(2)*				1.41(2)			
모 학력								
고졸이하	69.0	20.2	10.8	(458)	76.3	18.3	5.4	(439)
전문대졸	71.9	24.5	3.6	(423)	84.7	13.5	1.8	(407)
대졸이상	75.4	18.5	6.1	(676)	80.3	16.0	3.7	(649)
$\chi^2(df)$	16.41(4)**				12.09(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7.0	22.0	11.0	(508)	77.8	17.1	5.1	(491)
301~499만원	73.2	21.8	5.0	(512)	80.0	17.4	2.6	(486)
500만원 이상	77.1	18.1	4.7	(546)	82.1	14.0	3.9	(526)
$\chi^2(df)$	15.90(4)**				11.36(4)*			

* $p < .05$, ** $p < .01$.

2) 자아존중감

부모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 10개 문항으로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를 보면 어머니 3.67점, 아버지 3.82점으로 아버지가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자아존중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자존감은 모 취업,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3.79점)가 미취업모(3.59점)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고, 어머니의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부·모 모두 중소도시 지역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존감도 어머니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5〉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7	0.58	(1,605)	3.82	0.53	(1,530)
모 취업여부						
취업	3.79	0.56	(697)	3.81	0.55	(647)
미취업	3.59	0.58	(890)	3.83	0.51	(862)
<i>t</i>		-6.83**			-1.09	
모 학력						
고졸이하	3.51 ^a	0.59	(469)	3.73 ^a	0.52	(454)
전문대졸	3.69 ^b	0.55	(429)	3.80 ^b	0.52	(404)
대졸이상	3.77 ^b	0.56	(693)	3.89 ^c	0.54	(655)
<i>F</i>		32.83**			19.2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56 ^a	0.60	(517)	3.75 ^a	0.51	(500)
301~499만원	3.65 ^b	0.56	(518)	3.81	0.51	(488)
500만원 이상	3.80 ^c	0.55	(562)	3.88 ^b	0.55	(533)
<i>F</i>		30.48**			10.29**	
지역 규모						
대도시	3.66	0.57	(658)	3.80 ^a	0.53	(637)
중소도시	3.73 ^b	0.59	(657)	3.87 ^b	0.52	(614)
읍면지역	3.60 ^a	0.57	(290)	3.74 ^a	0.53	(279)
<i>F</i>		4.15*			6.51**	

* $p < .05$, ** $p < .01$, *** $p < .001$.

마. 부모됨

부모됨에 대해 후속출산 의향, 이상 자녀수, 기대성별, 자녀 가치, 장래 기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1) 후속출산

후속출산 계획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사하였다. 대상 아동이 만 5세가 된 현 시점 기준, 낳지 않겠다 82.8%, 9.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3%를 포함하여 향후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후속출산 계획은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현재 아동이 첫째인 경우 임신 중을 포함한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1.8%, 둘째는 4.9%, 셋째 이상은 1.5%이며,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첫째 74.2% 둘째 90.1%, 셋째 85.9%로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I-4-16〉 후속출산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임신중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3.0	4.9	82.8	9.2	100.0(1,610)	-
아동 출생순위						
첫째	4.3	7.5	74.2	14.1	100.0(745)	84.55(6)***
둘째	1.9	3.0	90.1	5.0	100.0(678)	
셋째 이상	1.2	0.3	95.9	2.6	100.0(187)	

*** $p < .001$.

후속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응답된 이유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로 33.4%, “자녀 교육비용 때문”은 23.3%,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3.9%이다. 패널 아동의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이유가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비 부담이 31.5%로 가장 많이 응답된 반면, 전문대 졸업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구소득 역시 300만원 이하 집단은 고졸 이하 학력 어머니들과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여 교육비 부담으로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비용 부담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2순위에 있어서는 취업모는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낳지 않겠다는 의견이 20.4% 응답된 반면, 미취업모는 교육비용 부담이 27.3%로 2순위로 응답되었다.

〈표 III-4-17〉 후속출산 비계획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전체	6.3	23.3	9.3	3.5	33.4	7.7	13.9	1.0	1.6	1000(1477)	-
아동 출생순위											
첫째	7.3	23.1	11.2	4.0	27.5	7.8	15.8	1.9	1.6	100.0(649)	
둘째	6.4	26.2	8.5	3.9	32.1	7.7	13.5	0.2	1.5	100.0(643)	99.03(16)***
셋째 이상	2.1	13.9	4.6	0.0	60.9	7.9	8.3	0.0	2.2	100.0(185)	
모 취업여부											
취업	5.5	18.0	20.4	2.6	31.4	8.5	10.1	1.4	2.2	100.0(643)	
미취업	7.0	27.3	1.2	4.2	34.9	7.1	16.4	0.7	1.3	100.0(819)	148.18(8)***
모 학력											
고졸이하	9.4	31.5	6.0	2.7	28.1	9.0	11.0	0.9	1.5	100.0(431)	
전문대졸	6.7	28.9	8.2	3.3	30.1	4.8	14.2	1.9	1.9	100.0(396)	79.72(16)***
대졸이상	4.3	14.6	12.1	4.2	38.7	8.7	15.4	0.5	1.6	100.0(639)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8	28.9	3.5	5.1	28.8	7.0	14.3	1.3	2.4	100.0(468)	
301~499만원	6.2	27.6	7.0	2.6	32.5	7.0	14.9	0.5	1.7	100.0(481)	99.98(16)***
500만원 이상	4.1	14.1	16.6	2.9	38.6	9.1	12.5	1.1	0.9	100.0(521)	

주: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 $p < .001$.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된 자녀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1명이 94.2%, 2명 3.5%, 3명 1.8%, 4명 이상도 0.5% 응답되었다. 후속출산 시기는 1년 이내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응답자가 47.3%, 1~2년 이내가 25.1%, 미정 17.3%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18〉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단위: %(명)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후속출산 계획 시기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1년 이내 또는 현재 임신 중	1~2년 이내	2~3년 이내	3년 이후	미정 계(수)
94.2	3.5	1.8	0.5	100.0 (115)	47.3	25.1	7.0	3.3	17.3 100.0 (11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

2) 이상 자녀수와 기대성별

이상적인 자녀수는 전체적으로 2명이 가장 많고, 3명, 4명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2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출생순위 셋째 이상인 경우 3명 또는 3명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선택하는 응답 비율이 부모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표 III-4-19〉 이상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잘 모름	계(수)
어머니	0.0	2.2	61.3	26.4	7.7	0.2	2.2	100.0(1,610)
아버지	0.3	3.4	59.6	28.8	5.1	1.2	1.6	100.0(1,543)
아동 출생순위(모 응답)								
첫째	0.0	2.5	67.5	22.3	5.2	0.1	2.5	100.0(745)
둘째	0.1	1.7	59.7	29.1	7.8	0.0	1.5	100.0(678)
셋째 이상	0.0	2.4	38.7	35.7	18.6	1.4	3.3	100.0(1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

이상적인 자녀 기대성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딸, 아들 구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어머니 66.2%, 아버지 61.5%로 높다. 딸, 아들 구분해서 라는 응답은 어머니 30.3%, 아버지 35.8%로 아버지의 성별 선호 성향이 좀 더 높다. 부모의 자녀 기대성별은 현재 만 5세 아동의 성별과 관련이 있어, 현재 남아를 둔 경우 여아 부모에 비해 자녀성별 선호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고 지역규모에서 (대) 도시지역일수록 구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

〈표 III-4-20〉 자녀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딸·아들 구분 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어머니	66.2	30.3	2.5	0.9	100.0(1,575)	-
아버지	61.5	35.8	2.1	0.7	100.0(1,515)	-
어머니						
아동 성별						
남	64.8	32.4	1.9	0.9	100.0(810)	4.814(3)
여	67.7	28.1	3.2	1.0	100.0(765)	

(표 III-4-20 계속)

구분	딸·아들 구분 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55.0	41.6	2.2	1.1	100.0(460)	
전문대졸	68.6	28.2	2.8	0.4	100.0(421)	44.896(6)***
대졸이상	71.8	24.5	2.6	1.2	100.0(682)	
지역규모						
대도시	69.1	28.5	1.7	0.7	100.0(640)	
중소도시	64.7	31.5	3.2	0.6	100.0(647)	16.569(6)*
읍면지역	63.1	31.8	2.7	2.4	100.0(288)	
아버지						
아동 성별						
남	56.7	41.6	1.0	0.6	100.0(779)	22.869(3)***
여	66.5	29.6	3.2	0.8	100.0(736)	
모 학력						
고졸이하	56.7	41.2	1.4	0.7	100.0(446)	
전문대졸	63.2	34.1	2.0	0.6	100.0(404)	13.190(6)*
대졸이상	63.1	33.6	2.6	0.8	100.0(648)	
지역 규모						
대도시	62.4	34.8	2.0	0.8	100.0(625)	
중소도시	61.1	36.8	1.6	0.5	100.0(612)	-
읍면지역	60.0	35.7	3.4	0.9	100.0(278)	

* $p < .05$, *** $p < .001$.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제자매 구성은 어머니의 경우 1남 1녀(34.8%), 2남 1녀(33.1%), 2남 2녀(22.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는 1남 1녀가 51.4%로 가장 많고, 2남 1녀(20.5%), 1남 2녀(13.6%), 2남 2녀(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1〉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구성

구분	1녀	2녀	3녀	1남	1남 1녀	1남 2녀	2남	2남 1녀	2남 2녀	3남	3남 2녀	계(수)
어머니	0.3	-	-	0.1	34.8	7.5	0.5	33.1	22.7	0.7	0.3	100.0(497)
아버지	0.5	1.4	0.1	0.4	51.4	13.6	0.2	20.5	11.3	0.0	0.4	100.0(550)

3) 자녀 가치 및 기대

부모됨의 동기 및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녀 가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녀 가치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정서적 가치는 3개 문항, 도구적 가치는 5개 문항으

로 구성된다.

우선 정서적 가치는 어머니 4.38점, 아버지 4.48점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좀 더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 부모 모두 자녀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즉 자녀수가 많고 셋째아로 갈수록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지역규모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읍면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표 III-4-22〉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38	0.54	(1,538)	4.48	0.53	(1,61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34 ^a	0.58	(748)	4.45 ^a	0.55	(718)
둘째	4.40 ^{ab}	0.51	(678)	4.51 ^a	0.50	(642)
셋째 이상	4.46 ^b	0.52	(187)	4.51 ^a	0.54	(178)
<i>F</i>		4.70 ^{**}			3.57 [*]	
모 취업여부						
취업	4.41	0.53	(699)	4.49	0.54	(648)
미취업	4.34	0.55	(896)	4.48	0.53	(869)
<i>t</i>		2.37 [*]			0.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34	0.56	(520)	4.44 ^a	0.55	(501)
301~499만원	4.37	0.54	(521)	4.49 ^{ab}	0.56	(491)
500만원 이상	4.41	0.53	(564)	4.51 ^b	0.49	(538)
<i>F</i>		2.43			3.47 [*]	

* $p < .05$, ** $p < .01$.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머니 2.89점, 아버지 3.2점으로(정서적 가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구적 가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첫째와 둘째보다 셋째인 경우 도구적 가치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별, 모 취업, 가구 소득에 따른 도구적 가치의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점수를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는 4.38

점, 도구적 가치는 2.89점,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는 4.48점, 도구적 가치 3.2점으로 부모 모두 전반적으로 정서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 가치가 어머니에 비해 높다.

〈표 III-4-23〉 부모의 도구적 자녀가치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9	0.77	(1,613)	3.20	0.80	(1,541)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1 ^a	0.77	(749)	3.12 ^a	0.78	(719)
둘째	2.90 ^a	0.76	(678)	3.23 ^a	0.80	(643)
셋째 이상	3.21 ^b	0.73	(186)	3.46 ^b	0.80	(179)
<i>F</i>		21.71 ^{***}			14.07 ^{***}	
모 취업여부						
취업	2.89	0.78	(699)	3.17	0.81	(650)
미취업	2.89	0.77	(896)	3.23	0.79	(870)
<i>t</i>		0.04			-0.7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90	0.82	(519)	3.18	0.80	(501)
301~499만원	2.89	0.71	(521)	3.21	0.78	(492)
500만원 이상	2.89	0.78	(565)	3.22	0.80	(539)
<i>F</i>		0.07			0.12	

*** $p < .001$.

자녀의 장래에 대해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대해, 돈을 잘 벌거나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지는 것,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하는 삶 각각에 대해 얼마나 원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어머니 3.84점, 아버지 3.83점) 가장 높고 2, 3순위는 부모 모두 이타심과 금전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는 취미나 여가를,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III-4-24〉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미래기대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금전	3.17	0.57	(1,614)	3.12	0.62	(1,543)
명성	2.76	0.72	(1,614)	2.84	0.74	(1,543)
사회적 지위	2.79	0.71	(1,614)	2.82	3.00	(1,543)
이타심	3.23	0.61	(1,614)	3.29	0.62	(1,542)
행복한 가정	3.84	0.38	(1,609)	3.83	0.40	(1,543)
취미나 여가	2.75	0.68	(1,613)	2.92	0.74	(1,542)

아버지 응답을 기준으로 하위특성별로 자녀에 대한 미래 기대가 다른지 차이 분석한 결과, 아버지 조사에서는 자녀 성별에 따라 금전, 사회적 지위, 출생순위에 따라서 이타심, 가구소득에 따라 금전과 사회적 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남아에게 돈을 잘 벌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여아에 비해 높고,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이타심에 대해 첫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둘째, 셋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보다 낮았다. 모학력이 높을수록 금전과 명성,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금전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 301~499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고 300만원 이하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표 III-4-25〉 자녀의 미래기대: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17	0.62	2.87	0.75	2.89	0.76	3.32	0.61	3.85	0.37	2.89	0.75
여	3.06	0.62	2.82	0.72	2.75	0.73	3.26	0.63	3.82	0.43	2.94	0.72
<i>t</i>	3.77***		1.73		3.91***		1.59		1.71		-1.26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2	0.61	2.79	0.75	2.78	0.76	3.23 ^a	0.65	3.83	0.41	2.93	0.73
둘째	3.10	0.63	2.89	0.73	2.86	0.75	3.33 ^b	0.58	3.83	0.39	2.89	0.76
셋째 이상	3.15	0.63	2.94	0.69	2.89	0.66	3.42 ^b	0.60	3.85	0.38	2.96	0.66
<i>F</i>	0.22		3.57*		2.00		7.80***		0.52		1.25	

(표 III-4-25 계속)

구분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3.20 ^a	0.61	2.97 ^a	0.71	2.90 ^a	0.76	3.28	0.64	3.86	0.37	2.92	0.72
전문대졸	3.11	0.61	2.81 ^b	0.70	2.81	0.72	3.25	0.61	3.82	0.41	2.86	0.74
대졸이상	3.05 ^b	0.63	2.79 ^b	0.76	2.78 ^b	0.76	3.32	0.61	3.83	0.41	2.95	0.74
<i>F</i>	7.96 ^{***}		10.17 ^{***}		4.11 [*]		1.51		0.29		1.9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04 ^a	0.63	2.79	0.72	2.76 ^a	0.74	3.27	0.64	3.81	0.41	2.92	0.72
301~499만원	3.20 ^b	0.58	2.88	0.74	2.90 ^b	0.74	3.28	0.60	3.85	0.38	2.91	0.72
500만원 이상	3.11 ^a	0.63	2.86	0.75	2.81	0.77	3.32	0.62	3.84	0.41	2.94	0.76
<i>F</i>	6.89 ^{**}		2.83		4.28 [*]		0.28		0.98		0.33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조사에서는 자녀 성별에 따라 취미나 여가를 중시하는 삶, 출생순위에 따라서 명성, 어머니 학력에 따라 금전과 이타심, 지역규모에 따라 금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자녀 성별에 따라서 취미나 여가를 중시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았으며,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명성에 대한 첫째에게 갖는 기대가 둘째, 셋째에게 갖는 기대보다 낮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금전과 이타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고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고,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과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는 이타심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돈을 잘 버는 것(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랐는데 대도시에 사는 어머니가 중소도시에 사는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표 III-4-26〉 자녀의 미래기대: 아버지

구분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	3.19	0.58	2.76	0.74	2.78	0.72	3.24	0.62	3.85	0.39	2.67	0.69
여	3.15	0.57	2.77	0.69	2.79	0.70	3.22	0.61	3.84	0.38	2.84	0.66
<i>t</i>	1.59		-0.11		0.14		0.40		0.06		-4.61 ^{***}	

단위: 점(명)

(표 III-4-26 계속)

구분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3	0.58	2.68 ^a	0.71	2.75	0.71	3.18	0.61	3.83	0.40	2.73	0.67
둘째	3.20	0.57	2.84 ^b	0.72	2.81	0.72	3.27	0.60	3.86	0.36	2.77	0.69
셋째 이상	3.24	0.56	2.86 ^b	0.71	2.86	0.71	3.29	0.64	3.84	0.38	2.78	0.71
<i>F</i>	2.49		7.52 ^{**}		3.05 [*]		1.61		0.04		0.42	
모 학력												
고졸이하	3.26 ^a	0.61	2.82	0.75	2.79	0.74	3.20 ^a	0.64	3.82	0.42	2.75	0.70
전문대졸	3.19	0.58	2.77	0.69	2.78	0.70	3.17 ^a	0.64	3.86	0.37	2.73	0.70
대졸이상	3.11 ^b	0.54	2.72	0.71	2.78	0.70	3.28 ^b	0.58	3.85	0.37	2.77	0.67
<i>F</i>	5.70 ^{**}		2.00		0.78		6.32 ^{**}		1.58		0.6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5	0.63	2.68	0.72	2.70	0.73	3.18	0.64	3.83	0.41	2.74	0.69
301~499만원	3.19	0.54	2.82	0.71	2.81	0.71	3.23	0.61	3.85	0.38	2.73	0.68
500만원 이상	3.17	0.55	2.79	0.71	2.84	0.70	3.28	0.59	3.86	0.36	2.78	0.69
<i>F</i>	0.56		2.57		1.93		2.69		1.07		1.22	

* $p < .05$, ** $p < .01$, *** $p < .001$.

바. 양육 특성

1)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하위 변인을 나눌 수 있으며 5점 척도를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 3.69점, 아버지 3.63점, 통제적 양육행동은 각각 3.5점, 3.42점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통제적 양육행동 점수보다 높은 가운데, 대체로 온정성과 통제성 모두 어머니에게서 더 많았다.

우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모 취업, 모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온정성이 더 높고,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온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도 마찬가지로, 취업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온정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온정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지역, 읍면지역의 아버지 온정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4-27〉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9	0.54	(1,612)	3.63	0.62	(1,542)
모 취업여부						
취업	3.71	0.55	(700)	3.68	0.64	(650)
미취업	3.66	0.53	(894)	3.61	0.61	(871)
<i>t</i>		2.34*			1.25	
모 학력						
고졸이하	3.56 ^a	0.58	(471)	3.53 ^a	0.63	(457)
전문대졸	3.71 ^b	0.51	(430)	3.64 ^b	0.65	(406)
대졸이상	3.75 ^b	0.52	(697)	3.70 ^b	0.58	(662)
<i>F</i>		20.53***			13.1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63 ^a	0.55	(519)	3.56 ^a	0.65	(500)
301~499만원	3.65 ^a	0.53	(521)	3.63	0.61	(494)
500만원 이상	3.76 ^b	0.53	(564)	3.71 ^b	0.60	(539)
<i>F</i>		9.69***			5.38**	
지역 규모						
대도시	3.70	0.55	(662)	3.64	0.62	(639)
중소도시	3.70	0.53	(658)	3.68 ^a	0.60	(622)
읍면지역	3.60	0.54	(292)	3.52 ^b	0.67	(281)
<i>F</i>		2.44			4.44*	

* $p < .05$, ** $p < .01$, *** $p < .001$.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 성별에 따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어, 남아 부모의 통제성이 여아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모 취업, 모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28〉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2	0.59	(1,543)	3.50	0.50	(1,612)
아동 성별						
남	3.48	0.59	(793)	3.53	0.50	(828)
여	3.37	0.60	(750)	3.46	0.51	(784)
<i>t</i>		2.73**			2.83**	

** $p < .01$.

2)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기준에서 어머니 2.65점, 아버지 2.43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다.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즉 셋째 아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었으며,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았다.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고졸이하 학력과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집단에서 모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없고, 추가적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65	0.62	(1,610)	2.43	0.60	(1,537)
아동 출생순위						
첫째	2.68	0.64	(747)	2.44	0.61	(716)
둘째	2.67	0.59	(677)	2.43	0.60	(642)
셋째 이상	2.50	0.63	(186)	2.41	0.61	(179)
<i>F</i>		4.84**			0.57	
모 취업여부						
취업	2.58	0.61	(699)	2.42	0.61	(648)
미취업	2.72	0.62	(893)	2.44	0.60	(868)
<i>t</i>		-3.49***			0.11	
모 학력						
고졸이하	2.77 ^a	0.62	(468)	2.52 ^a	0.61	(456)
전문대졸	2.61 ^b	0.62	(429)	2.41 ^b	0.57	(404)
대졸이상	2.60 ^b	0.61	(699)	2.38 ^b	0.61	(660)
<i>F</i>		17.26***			11.1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73 ^a	0.65	(519)	2.52 ^a	0.59	(500)
301~499만원	2.70 ^a	0.60	(521)	2.43	0.57	(491)
500만원 이상	2.54 ^b	0.61	(562)	2.35 ^b	0.63	(537)
<i>F</i>		15.09***			10.49***	

단위: 점(명)

(표 III-4-29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대도시	2.68	0.64	(660)	2.46 ^a	0.60	(636)
중소도시	2.61	0.62	(659)	2.37 ^b	0.60	(620)
읍면지역	2.70	0.59	(291)	2.51 ^a	0.59	(281)
<i>F</i>		2.15			6.39 ^{**}	

** $p < .01$, *** $p < .001$.

3) 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빈도면에서 ‘이야기 해주기’와 ‘책 읽어주기’를 매일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가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상호작용으로,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갖고 놀기’, ‘자연·과학 놀이하기’, ‘함께 운동하기’, ‘퍼즐게임하기’ 순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도구적 활동과 신체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0〉 모-자녀 상호작용: 전체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4.8	40.0	33.8	21.3	100.0(1,613)
이야기 해주기	3.9	35.6	31.8	28.7	100.0(1,614)
함께 노래 부르기	7.9	44.9	32.6	14.6	100.0(1,614)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10.9	60.7	21.8	6.6	100.0(1,614)
집안일 함께하기	13.2	56.7	22.1	8.0	100.0(1,613)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15.7	61.8	19.3	3.1	100.0(1,613)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20.9	60.3	16.5	2.3	100.0(1,614)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25.7	54.7	15.4	4.2	100.0(1,614)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20.4	57.3	19.0	3.4	100.0(1,614)

자녀 출생순위별로 각 상호작용 활동 비율이 다른지 분석한 결과, 활동별로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시행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인 경우에 상호작용 활동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31〉 모-자녀 상호작용: 출생순위별

단위: 점(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chi^2(df)$
책 읽어주기						
첫째	4.2	33.6	34.5	27.7	100.0(749)	59.09(6) ^{***}
둘째	4.2	46.0	34.2	15.6	100.0(678)	
셋째 이상	9.6	48.0	29.8	12.6	100.0(187)	
이야기 해주기						
첫째	3.9	29.0	32.9	34.2	100.0(749)	38.86(6) ^{***}
둘째	4.0	40.4	31.2	24.3	100.0(676)	
셋째 이상	3.5	48.3	28.8	19.4	100.0(187)	
함께 노래 부르기						
첫째	4.6	36.5	38.2	20.7	100.0(749)	98.70(6) ^{***}
둘째	11.0	53.1	27.5	8.5	100.0(678)	
셋째 이상	12.0	53.7	25.2	9.1	100.0(187)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첫째	8.5	58.8	25.2	7.4	100.0(749)	25.65(6) ^{***}
둘째	12.9	63.5	18.6	5.0	100.0(678)	
셋째 이상	14.1	59.5	17.6	8.9	100.0(187)	
집안일 함께하기						
첫째	10.8	55.9	23.6	9.7	100.0(748)	12.74(6) [*]
둘째	15.8	57.3	20.1	6.8	100.0(678)	
셋째 이상	14.7	58.3	22.4	4.6	100.0(187)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첫째	12.1	60.0	23.4	4.4	100.0(748)	33.06(6) ^{**}
둘째	19.2	64.3	14.7	1.8	100.0(678)	
셋째 이상	19.5	61.0	17.4	2.1	100.0(187)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첫째	17.6	60.1	19.2	3.1	100.0(749)	17.23(6) ^{**}
둘째	24.2	60.7	13.6	1.4	100.0(678)	
셋째 이상	24.0	59.8	14.3	1.9	100.0(187)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첫째	20.2	56.8	17.7	5.4	100.0(749)	40.49(6) ^{***}
둘째	30.9	55.2	11.0	2.9	100.0(678)	
셋째 이상	32.7	43.3	20.6	3.5	100.0(187)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첫째	17.8	56.1	21.8	4.2	100.0(749)	29.99(6) ^{***}
둘째	20.4	62.0	15.2	2.4	100.0(678)	
셋째 이상	32.0	45.4	19.6	2.9	100.0(187)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취업에 따라 전반적으로 미취업모의 상호작용이 취업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 읽어주기와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활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에서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32〉 모-자녀 상호작용: 취업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chi^2(df)$
책 읽어주기						
취업	7.6	44.7	30.6	17.2	100.0(700)	24.27(3)***
미취업	2.9	36.8	36.2	24.2	100.0(896)	
이야기 해주기						
취업	3.8	39.2	30.7	26.3	100.0(700)	2.32(3)
미취업	4.1	33.2	32.1	30.5	100.0(894)	
함께 노래 부르기						
취업	9.7	46.2	31.4	12.7	100.0(700)	4.55(3)
미취업	6.8	44.4	32.8	16.0	100.0(896)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취업	13.9	59.8	19.2	7.2	100.0(700)	6.79(3)
미취업	8.7	61.6	23.5	6.1	100.0(896)	
집안일 함께하기						
취업	13.6	58.6	20.1	7.8	100.0(700)	1.55(3)
미취업	13.1	55.6	23.2	8.1	100.0(895)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취업	16.1	63.7	16.6	3.6	100.0(699)	0.06(3)
미취업	15.5	61.1	20.6	2.9	100.0(896)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취업	23.8	57.8	15.2	3.2	100.0(700)	3.04(3)
미취업	19.0	62.5	16.8	1.7	100.0(896)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취업	29.2	55.4	12.5	2.9	100.0(700)	13.87(3)**
미취업	23.2	54.8	17.1	4.9	100.0(896)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취업	22.1	56.2	18.0	3.6	100.0(700)	0.27(3)
미취업	19.0	58.6	19.1	3.3	100.0(896)	

^{**} $p < .01$, ^{***} $p < .001$.

어머니 학력별로는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와 퍼즐 및 게임하기, 조립용 완구 놀이하기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 빈도가 높다. 책 읽어주기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은 매일 한다는 비율이 12.8%에 불과한 반면 대졸이상 집단에서는 30.5%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III-4-33〉 모-자녀 상호작용: 학력별

단위: 점(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chi^2(df)$
책 읽어주기						
고졸이하	8.5	50.5	28.2	12.8	100.0(471)	99.34(6)***
전문대졸	4.2	44.4	36.3	15.1	100.0(430)	
대졸이상	2.9	31.1	35.5	30.5	100.0(699)	
이야기 해주기						
고졸이하	6.1	42.0	29.0	22.9	100.0(471)	44.76(6)***
전문대졸	3.2	42.1	30.3	24.4	100.0(430)	
대졸이상	3.1	28.1	33.9	35.0	100.0(697)	
함께 노래 부르기						
고졸이하	11.4	45.5	31.9	11.3	100.0(471)	13.81(6)*
전문대졸	7.9	45.3	31.9	14.8	100.0(430)	
대졸이상	5.9	44.9	32.6	16.6	100.0(699)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고졸이하	13.8	62.2	18.3	5.8	100.0(471)	9.25(6)
전문대졸	9.9	62.0	21.5	6.5	100.0(430)	
대졸이상	9.6	59.3	24.0	7.1	100.0(699)	
집안일 함께하기						
고졸이하	18.3	57.1	18.6	5.9	100.0(471)	19.42(6)**
전문대졸	8.9	59.5	23.0	8.6	100.0(429)	
대졸이상	12.7	55.4	23.3	8.5	100.0(699)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고졸이하	19.9	60.9	17.2	2.0	100.0(471)	12.33(6)
전문대졸	15.3	62.1	18.8	3.8	100.0(430)	
대졸이상	13.4	62.9	20.1	3.6	100.0(698)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고졸이하	23.6	63.5	11.6	1.3	100.0(471)	17.52(6)**
전문대졸	21.4	58.6	16.6	3.4	100.0(430)	
대졸이상	19.0	59.2	19.4	2.4	100.0(699)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고졸이하	29.8	53.1	14.0	3.1	100.0(471)	6.24(6)
전문대졸	24.6	54.7	15.9	4.9	100.0(430)	
대졸이상	23.9	55.8	15.7	4.6	100.0(699)	

(표 III-4-33 계속)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chi^2(df)$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고졸이하	28.5	54.2	14.0	3.2	100.0(471)	23.84(6)**
전문대졸	17.9	59.5	19.6	3.0	100.0(430)	
대졸이상	16.9	58.1	21.3	3.8	100.0(699)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분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모의 양육분담을 각각 응답하게 한 결과, 어머니 4.01 점, 아버지 2.19점으로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특성별로, 부모의 양육분담은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취업모 즉 맞벌이 부부인 경우 좀 더 양육에 관여하고 있다.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모 학력/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분담 수치가 더 높다. 그리고 여아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 양육분담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된 반면, 아버지의 경우 그러한 인식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첫째아인 경우보다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은 경우 즉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양육분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4〉 부모의 양육 분담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01	4.00	(1,612)	2.19	0.58	(1,540)
아동 성별						
남	3.97	0.53	(828)	2.22	0.59	(791)
여	4.04	0.54	(784)	2.17	0.57	(749)
t		-2.07*			1.36	
아동 출생순위						
첫째	3.97 ^a	0.55	(748)	2.18	0.57	(717)
둘째	4.05 ^a	0.52	(677)	2.20	0.58	(644)
셋째 이상	4.03 ^a	0.54	(187)	2.20	0.66	(179)
F		3.78*			0.05	

단위: 점(명)

(표 III-4-34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3.88	0.55	(698)	2.32	0.56	(650)
미취업	4.11	0.51	(896)	2.09	0.57	(871)
<i>t</i>		-7.81 ^{***}			7.09 ^{***}	
모 학력						
고졸이하	4.08 ^a	0.57	(470)	2.12 ^a	0.61	(457)
전문대졸	3.99 ^a	0.52	(429)	2.23 ^{ab}	0.56	(406)
대졸이상	3.97 ^a	0.53	(699)	2.21 ^b	0.56	(662)
<i>F</i>		5.02 ^{**}			3.23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11 ^a	0.55	(519)	2.15 ^a	0.65	(500)
301~499만원	3.98 ^a	0.49	(520)	2.17 ^b	0.52	(493)
500만원 이상	3.94 ^a	0.56	(565)	2.25 ^b	0.57	(539)
<i>F</i>		13.51 ^{***}			3.36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응답한 양육분담 정도는 어머니 응답과 일관되게 모 학력/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분담 수치가 더 높다.

사. 사회적 지원 특성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누구로부터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 지원 인원 및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자녀의 친가로부터는 평균 1.27명, 외가 2.13명, 친구 및 동료 2.29명, 이웃 1.68명의 지원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가보다는 외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지원은 가족보다는 '친구·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가와 외가의 가족지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아동이 첫째이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셋째아인 경우), 그리고 모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지원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지원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친구·동료 및 이웃의 경우,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웃은 자녀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미취업모일수록 지원 인력이 많아 전업주부 간 육아품앗이의 협업이 이웃 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취업모에 대한 지원인원이 대체로 미취업모에 많은 경향을 띠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아,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35〉 사회적 지원 인원

단위: 명

구분	○○(이)의 친가		○○(이)의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	1.57	2.13	1.92	2.29	2.23	1.68	2.13	(1,654)
아동 출생순위									
첫째	1.31	1.60	2.21	1.82	2.18	2.11	1.51 ^a	1.90	(766)
둘째	1.19	1.47	2.00	1.93	2.33	2.16	1.72 ^a	2.09	(695)
셋째 이상	1.38	1.77	2.23	2.21	2.61	2.86	2.27 ^b	2.95	(193)
<i>F</i>	1.02		1.00		2.73		9.34 ^{***}		
모 취업여부									
취업	1.23	1.37	2.22	1.92	2.40	2.40	1.37	2.05	(720)
미취업	1.29	1.70	2.10	1.91	2.23	2.10	1.92	2.16	(918)
<i>t</i>	-0.49		1.06		1.39		-5.48 ^{***}		
모 학력									
고졸이하	1.09	1.33	1.88 ^a	1.67	2.08 ^a	1.92	1.72	2.23	(487)
전문대졸	1.37	1.53	2.36 ^b	2.14	2.37	2.13	1.66	1.93	(439)
대졸이상	1.32	1.72	2.19	1.91	2.39 ^b	2.46	1.67	2.18	(716)
<i>F</i>	3.14 [*]		3.70 [*]		3.84 [*]		0.0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26	1.53	2.10	1.89	2.20 ^a	1.94	1.87	2.13	(534)
301~499만원	1.29	1.58	2.18	1.96	2.28	2.28	1.79	2.08	(532)
500만원 이상	1.24	1.57	2.11	1.85	2.37 ^b	2.40	1.41	2.15	(580)
<i>F</i>	0.86		0.91		3.41 [*]		2.98		
지역 규모									
대도시	1.33	1.69	2.13	1.90	2.29	2.28	1.52 ^a	2.05	(690)
중소도시	1.20	1.40	2.13	1.97	2.32	2.30	1.85 ^b	2.26	(671)
읍면지역	1.27	1.64	2.14	1.83	2.22	1.93	1.65	1.95	(293)
<i>F</i>	0.84		0.30		0.45		3.93 [*]		

* $p < .05$, *** $p < .001$.

사회적 지원 집단별로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외가에서 받는 지원의 점수가 지원 성격에 관계없이 4점 이상으로 가

장 높아 어머니의 원가족에게서 가장 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지원 집단별로는 친가에서는 도구적 지원과 사교적 지원이 3.84점, 3.8점으로 가장 높고, 친구 및 동료에서는 정서적 지원 3.98점, 정보적 지원이 3.84점으로 응답되었다. 이웃은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지원 정도가 낮은 편이나 정보적 지원이 3.71점으로 가장 높다.

〈표 III-4-36〉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수)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가	(944)	3.59	0.88	3.84	0.82	3.80	0.72	3.54	0.94
외가	(1,331)	4.35	0.60	4.26	0.64	4.20	0.61	4.07	0.74
친구 및 동료	(1,195)	3.98	0.57	3.47	0.77	3.59	0.64	3.84	0.64
이웃	(948)	3.55	0.80	3.28	0.79	3.34	0.80	3.71	0.70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을 대상으로 받는 사회적 지원 수준이 응답자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 수준의 평균을 산출하여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 중인 어머니의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가 3.74점으로 미취업 중인 어머니 3.71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과 가구소득별로 외가로부터 지원 받는 정도도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이하 학력의 어머니가 외가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는 4.1점으로 전문대졸 4.25점, 대졸이상 4.26점보다 낮았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하가 4.17점, 301~499만원 4.21점, 500만원 이상 4.26점으로 500만원 이상 집단과 300만원 이하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4-37〉 사회적 지원

단위: 점(명)

구분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9	0.74	(944)	4.22	0.55	(1,331)	3.72	0.55	(1,195)
모 취업여부									
취업	3.74	0.75	(432)	4.24	0.57	(597)	3.74	0.53	(513)
미취업	3.66	0.73	(503)	4.21	0.53	(727)	3.71	0.56	(674)
<i>t</i>	1.74		1.32		0.83		0.94 [*]		

(표 III-4-37 계속)

구분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3.69	0.71	(251) 4.10 ^a		0.60 (379)		3.73 0.57		(344)
전문대졸	3.72	0.76	(265) 4.25 ^b		0.53 (360)		3.71 0.51		(323)
대졸이상	3.68	0.74	(420) 4.26 ^b		0.53 (586)		3.72 0.55		(521)
<i>F</i>	1.19		12.93 ^{***}		0.19		1.1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67	0.74	(292) 4.17 ^a		0.57 (425)		3.73 0.58		(386)
301~499만원	3.70	0.68	(306) 4.21 ^{ab}		0.52 (424)		3.72 0.53		(375)
500만원 이상	3.71	0.79	(340) 4.26 ^b		0.56 (475)		3.72 0.53		(428)
<i>F</i>	0.08		5.53 ^{**}		0.07		0.99		
지역 규모									
대도시	3.64	0.76	(378) 4.24		0.53 (529)		3.72 0.53		(462)
중소도시	3.68	0.73	(399) 4.19		0.55 (557)		3.74 0.53		(506)
읍면지역	3.85	0.68	(167) 4.22		0.59 (245)		3.69 0.61		(227)
<i>F</i>	2.41		0.15		0.62		2.03		

* $p < .05$, ** $p < .01$, *** $p < .001$.

아.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특성

아동이 육아지원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 1,662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아동의 이용 실제, 학부모의 참여 특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1)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현황

지난 1년간 아동이 이용한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의 수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한 아동이 두 군데 이상의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가장 이용 수가 높게 나타난 기관은 유치원(0.58군데)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어린이집(0.42군데), 반일제 이상 학원(0.11곳)으로 나타났다. 기관 외에 육아지원서비스 개수를 살펴보면, 특별활동프로그램이 0.35개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대리양육자 0.01개, 일시보육은 0개로 나타났다.

〈표 III-4-38〉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수

단위: 개수(명)

구분	기관			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개인대리 양육자	특별활동 프로그램	일시 보육
평균	0.58	0.42	0.11	0.01	0.35	0.00
표준편차	0.5	0.50	0.33	0.08	0.89	0.06
(수)	(1,662)	(1,661)	(1,662)	(1,662)	(1,662)	(1,662)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이 36.2%로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이 가장 적은 3.6%를 차지했다.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5.7%였다. 기관 유형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4-39〉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중복이용	계(수)	$\chi^2(df)$
전체	36.2	54.5	3.6	5.7	100.0(1,654)	-
모 학력						
고졸이하	45.1	47.0	1.5	6.5	100.0(484)	40.74(6)***
전문대졸	35.8	57.2	2.8	4.2	100.0(438)	
대졸이상	31.5	57.2	5.3	6.0	100.0(71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2.1	51.5	1.8	4.7	100.0(532)	35.01(6)***
301~499만원	37.7	54.3	2.4	5.6	100.0(531)	
500만원 이상	31.0	56.3	6.1	6.5	100.0(582)	
지역 규모						
대도시	34.5	55.4	3.9	6.2	100.0(690)	29.78(6)***
중소도시	32.2	58.8	3.8	5.1	100.0(668)	
읍면지역	52.3	40.7	1.7	5.3	100.0(296)	

*** $p < .001$.

주: 통계값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중복 이용'으로 재코딩하여 분석함.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어머니들은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43.6%),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41.7%)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응답으로는 응답이 높은 순서대로 '어머니의 시간 활용을 위해서', '나이가 되어서', '아이가 원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보육·교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가 있었다.

〈표 III-4-40〉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시간 활용을 위해서	아이가 원해서	나이가 되어서	보육료/교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또래(친구) 와 어울릴 수 있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전체
43.6	5.0	2.1	4.6	1.0	41.7	2.0	100.0(1,654)

아동이 기관 외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277명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기관 외 특별활동(95.2%) 즉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시보육이 2.0%, 대리양육자와 특별활동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6%, 대리양육자 이용이 1.1% 순이었다.

〈표 III-4-4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단위: %(명)

구분	대리양육자	기관 외 특별활동	일시보육	대리양육자와 기관 외 특별활동	계(수)
전체	1.1	95.2	2.0	1.6	100.0(27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0	97.6	0.8	1.6	100.0(161)
어린이집	2.4	92.4	4.3	0.9	100.0(102)
반일제 이상	6.8	82.1	0.0	11.1	100.0(13)
모 취업여부					
취업	2.7	92.2	1.6	3.5	100.0(133)
미취업	0.0	97.7	2.1	0.3	100.0(137)

주: 빈도 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기관 외 육아지원 서비스 중 대리양육자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12명의 어머니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서’(66.4%), ‘개별적인 돌봄을 위해서’(18.0%),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15.6%) 등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66명의 어머니 응답자 중에서 53.74%가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이유로는 ‘아이가 원해서’가 22.2%, ‘안하면 뒤쳐질 것 같아서’가 12.4%가 있었다.

〈표 III-4-4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개인대리양육자		특별활동 프로그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0.0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2.2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15.6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2.2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0.0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0.5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0.0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53.7
돌봄 사람이 없어서	66.4	놀이 상대가 없어서	1.3
개별적인 돌봄을 위해서	18.0	아이가 재능을 보여서	3.8
기타	0.0	아이가 원해서	22.2
		안 하면 뒤통이 걸려서	12.4
		기타	1.7
계	100.0(12)	계	100.0(266)

어머니가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순위 사항으로는 거리의 근접성(28.0%)이, 2순위로는 프로그램 내용(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교사의 질, 물리적 환경, 주변의 평판 등이 있었다.

〈표 III-4-43〉육아지원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운영시간	거리의 근접성	이용 편리성	비용	교사의 질	프로그램 내용	물리적 환경	주변의 평판	기타	계
1순위	5.3	28.0	5.3	3.2	16.4	25.8	7.7	5.4	2.9	100.0
2순위	3.6	11.7	5.3	4.6	19.2	27.2	14.1	13.2	1.1	(1,654)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제

육아지원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60.0% 이상이 기관차량으로 등/하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도보와 자가용 이용도 있었다. 하원수단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아동은 하원 시 기관차량보다 도보나 자가용 등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표 III-4-44〉 육아지원 기관 등/하원수단

단위: %(명)

구분	도보	대중교통	기관차량	자가용	일정하지 않음	기타	계(수)
등원	23.0	0.9	60.0	12.6	2.5	0.9	100.0(1,215)
하원	21.3	1.1	63.8	9.2	3.5	1.0	
모 취업여부							
취업	23.1	1.2	56.7	14.0	3.4	1.6	100.0(535)
미취업	20.2	1.0	69.5	5.9	2.7	0.7	100.0(662)
$\chi^2(df)$	42.48(5)***						

*** $p < .001$.

육아지원기관 등원 시 동반하는 사람은 부모(83.1%)가 가장 많았고, 하원 시에는 부모가 69.9%였고, 교사가 12.9%로 나타났다.

〈표 III-4-45〉육아지원 기관 등/하원 시 동반자

단위: %(명)

구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형제 자매	가사 또는 양육 도우미	이웃	교사 (다른 기관 교사 포함)	일정하 지 않음	없음 (아이 혼자 등원)	기타	계(수)
등원	83.1	7.7	0.7	1.1	0.4	0.1	5.1	0.7	0.5	0.5	100.0(1,215)
하원	69.9	9.6	1.4	2.2	0.6	0.5	12.9	1.6	0.7	0.6	100.0(1,215)

아동의 등원시간은 오전 9~10시 사이가 50.8%, 오전 8~9시 사이가 26.0% 순으로 많았으며, 하원은 오후 3시 이후가 82.1%, 오후 2~3시 사이가 12.3%로 많았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4-46〉육아지원 기관 등/하원 시간

단위: %(명)

구분	8시이전	8시~9시	9시~10시	10시~11시	일정하지 않음	계(수)
등원	1.1	44.4	50.8	3.1	0.5	100.0(1,215)
모 취업여부						
취업	2.4	54.0	39.8	2.7	1.2	100.0(535)
미취업	0.2	38.0	58.6	3.2	0.0	100.0(662)
$\chi^2(df)$	59.34(4)***					

(표 III-4-46 계속)

구분	오후1시 -3시	오후3시 -5시	오후5시 -7시30분	7시 30분 이후	일정하지 않음	계(수)
하원	18.8	51.6	28.0	0.6	1.0	100.0(1,215)
모 취업여부						
취업	12.0	42.3	42.5	1.4	1.8	100.0(535)
미취업	24.2	57.5	17.8	0.0	0.5	100.0(662)
$\chi^2(df)$	124.12(4)***					

*** $p < .001$.

육아지원기관 유형별 월평균 비용은 반일제 이상 학원이 31.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이 19.54만원, 어린이집이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이용 비용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높았다. 어린이집 비용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은 대졸이상의 어머니일 경우,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일 경우 높은 비용으로 나타났다.

〈표 III-4-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54	15.48	(962)	12.00	11.57	(637)	31.70	33.83	(150)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94 ^a	17.44	(454)	12.87 ^a	10.26	(284)	37.36	35.20	(74)
둘째	18.28 ^b	12.82	(411)	10.39 ^b	6.63	(264)	26.32	32.01	(63)
셋째 이상	12.05 ^c	10.78	(97)	13.51 ^{ab}	21.86	(89)	24.10	26.99	(13)
F		15.98***			3.58*			1.74	
모 취업여부									
취업	19.87	14.60	(400)	12.19	8.84	(299)	27.72	28.98	(67)
미취업	19.20	15.94	(553)	12.00	13.62	(323)	34.70	36.78	(83)
t		1.77			1.07			-1.51	
모 학력									
고졸이하	17.04 ^a	12.81	(254)	10.85	7.20	(224)	14.96 ^a	13.08	(37)
전문대졸	17.93 ^{ab}	12.92	(261)	11.44	6.79	(168)	31.68 ^{ab}	35.16	(29)
대졸이상	21.60 ^b	17.52	(440)	13.53	16.37	(233)	39.35 ^b	37.01	(84)
F		8.64***			2.44			7.48**	

(표 III-4-47 계속)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0만원 이하	15.60 ^a	10.95	(293)	11.51	14.61	(230)	14.61 ^a	16.52	(31)
301~499만원	18.28 ^b	12.30	(309)	11.97	9.28	(211)	27.56 ^a	27.06	(42)
500만원 이상	23.49 ^c	19.37	(355)	12.75	9.45	(192)	42.46 ^b	39.31	(76)
<i>F</i>		23.23 ^{***}			1.96			7.89 ^{**}	
지역 규모									
대도시	22.46 ^a	16.53	(416)	12.56	15.47	(244)	32.02	34.21	(73)
중소도시	19.43 ^b	14.70	(410)	12.43	7.92	(237)	35.38	35.92	(57)
읍면지역	10.30 ^c	9.63	(136)	10.56	8.11	(156)	20.04	21.43	(20)
<i>F</i>		31.45 ^{***}			2.97			1.44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기관을 이용하는 비용 부담 정도는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일제 이상 학원이 3.47점, 유치원이 3.05점, 어린이집이 2.81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 대도시일 경우 부담도가 높았다. 어린이집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비용 부담도가 낮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읍면지역에서 부담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4-48〉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단위: 점(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5	1.17	(960)	2.81	1.01	(636)	3.47	0.99	(15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8 ^a	1.11	(453)	2.90	0.99	(283)	3.55	0.86	(76)
둘째	3.01 ^{ab}	1.19	(410)	2.74	1.01	(264)	3.41	1.12	(64)
셋째 이상	2.58 ^b	1.22	(97)	2.72	1.05	(89)	3.24	0.94	(13)
<i>F</i>		7.43 ^{**}			2.42			0.36	
모 취업여부									
취업	2.90	1.13	(398)	2.77	1.06	(300)	3.49	1.12	(68)
미취업	3.16	1.18	(553)	2.88	0.97	(321)	3.45	0.88	(85)
<i>t</i>		1.65			0.85			0.39	

(표 III-4-48 계속)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학력									
고졸이하	3.19 ^a	1.24	(254)	2.96 ^a	0.94	(224)	3.52	0.68	(37)
전문대졸	3.11 ^{ab}	1.18	(261)	2.93 ^a	1.13	(167)	3.57	1.09	(30)
대졸이상	2.95 ^b	1.10	(438)	2.60 ^b	0.97	(233)	3.41	1.06	(86)
<i>F</i>		3.62 [*]			11.02 ^{***}			0.52	
가구 소득									
30만원 이하	3.19	1.28	(293)	3.00 ^a	0.99	(230)	3.57	0.83	(31)
30~49만원	3.06	1.17	(309)	2.82 ^a	0.95	(210)	3.47	0.83	(43)
50만원 이상	2.93	1.05	(353)	2.58 ^b	1.05	(192)	3.41	1.13	(78)
<i>F</i>		2.77			9.18 ^{***}			2.13	
지역 규모									
대도시	3.29 ^a	1.08	(415)	2.80	1.02	(245)	3.57 ^a	0.87	(73)
중소도시	3.01 ^b	1.15	(409)	2.79	1.07	(236)	3.56 ^a	1.01	(59)
읍면지역	2.43 ^c	1.25	(136)	2.85	0.92	(155)	2.87 ^b	1.07	(21)
<i>F</i>		33.99 ^{**}			0.67			5.49 ^{**}	

* $p < .05$, ** $p < .01$, *** $p < .001$.

3) 육아지원기관 참여

육아지원기관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주로 어머니로부터 응답을 얻었으며, 일부 문항은 기관의 담당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들의 50.0%가 기관의 생활에 대하여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5점에 가까울 때 평균 3.99점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의 학원 교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관심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정도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이고,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4-49〉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 기관 생활 관심 정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전체	0.2	3.9	19.6	50.0	26.4	100.0(1,215)	3.99(0.79)

(표 III-4-49 계속)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0.0	1.5	12.8	51.3	34.4	100.0(562)	4.18 ^a 0.71
둘째	0.4	4.9	25.9	50.5	18.3	100.0(516)	3.81 ^b 0.80
셋째 이상	0.0	11.0	27.4	41.9	19.7	100.0(137)	3.70 ^b 0.91
$\chi^2(df)/F$			72.94(8) ^{***}				32.09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0	4.0	19.6	51.5	24.9	100.0(695)	3.97 ^a 0.78
어린이집	0.4	4.1	20.9	48.0	26.6	100.0(468)	3.96 ^a 0.82
반일제 이상	0.0	1.1	7.9	48.0	43.1	100.0(52)	4.33 ^b 0.66
$\chi^2(df)/F$			-				5.37 [*]
모 취업여부							
취업	0.4	5.8	24.5	46.7	22.6	100.0(535)	3.85 0.85
미취업	0.0	2.6	15.8	52.9	28.7	100.0(662)	4.08 0.74
$\chi^2(df)/t$			21.74(4) ^{***}				-4.29 ^{***}
모 학력							
고졸이하	0.0	5.5	22.5	53.2	18.8	100.0(340)	3.85 ^a 0.78
전문대졸	0.0	2.1	20.3	50.4	27.2	100.0(328)	4.03 ^b 0.75
대졸이상	0.4	4.1	17.2	47.9	30.5	100.0(535)	4.04 ^b 0.82
$\chi^2(df)/F$			16.51(8) [*]				4.27 [*]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보고한 기관에 방문하는 빈도는 6개월에 1-2회가 30.2%, 한달에 1회가 17.3%, 1년에 1-2회 12.9%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유형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방문 빈도가 달라졌다.

〈표 III-4-50〉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빈도

구분	단위: %(명)								계(수)
	일주일에 1회 정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달에 1회 정도	한달에 2-3회 정도	6개월에 1-2회 정도	6개월에 3-4회 정도	연간 1-2회 정도	거의 가지 않음	
전체	6.0	8.2	17.3	9.6	30.2	8.9	12.9	6.8	1000(1,606)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4.6	5.4	17.6	9.4	35.7	10.0	10.9	6.3	1000(922)
어린이집	7.1	11.5	16.3	10.1	23.8	7.3	16.4	7.5	1000(619)
반일제 이상	14.7	16.7	21.9	7.2	16.3	9.8	8.4	5.2	1000(63)
$\chi^2(df)$					65.27(14) ^{***}				

(표 III-4-50 계속)

구분	일주일에 1회 정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달에 1회 정도	한달에 2-3회 정도	6개월에 1-2회 정도	6개월에 3-4회 정도	연간 1-2회 정도	거의 가지 않음	계(수)
모 취업여부									
취업	5.7	7.9	16.3	7.1	30.8	7.7	16.4	8.2	100.0(697)
미취업	6.1	8.4	18.2	11.3	29.8	10.0	10.1	6.0	100.0(891)
$\chi^2(df)$	24.91(7)**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4	9.1	17.9	10.2	26.0	8.3	16.5	6.6	100.0(516)
301~499만원	7.5	5.8	16.5	10.9	31.7	10.4	8.9	8.3	100.0(517)
500만원 이상	5.0	9.8	17.3	7.9	33.1	8.3	12.9	5.7	100.0(566)
$\chi^2(df)$	24.91(14)*								

* $p < .05$, ** $p < .01$, *** $p < .001$.

1,607명 중 91.8%의 어머니가 육아지원기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여부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기관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4-51〉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율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계(수)	$\chi^2(df)$
전체	91.8	8.2	100.0(1,607)	-
아동 출생순위				
첫째	92.7	7.3	100.0(746)	6.95(2)*
둘째	93.0	7.0	100.0(677)	
셋째 이상	82.8	17.2	100.0(184)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3.6	6.4	100.0(922)	11.92(2)**
어린이집	89.1	10.9	100.0(620)	
반일제 이상	94.6	5.4	100.0(63)	
모 취업여부				
취업	90.6	9.4	100.0(697)	4.10*
미취업	92.5	7.5	100.0(892)	

* $p < .05$, ** $p < .01$.

어머니들이 기관에 참여하는 일은 아동행사가 2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 담임상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재정적 기여, 자원봉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52〉 어머니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오리엔 테이션	아동 행사	자원 봉사	부모 교육	담임 상담	가정 통신문	재정적 기여	계(수)
전체	22.7	25.6	2.6	11.9	22.4	11.5	3.4	100.0(4,751)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22.8	25.1	2.3	12.2	23.1	11.1	3.3	100.0(2,805)
어린이집	22.7	26.4	2.9	11.5	20.9	12.1	3.4	100.0(1,744)
반일제 이상	21.3	25.2	4.5	10.3	24.4	11.2	3.1	100.0(201)

교사의 응답에 따르면 부모들의 기관 참여는 담임 상담이 86.3%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답장, 오리엔테이션, 아동 행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재정적 기여, 자원봉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3〉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 겠음	행사 미개최	계(수)
오리엔테이션	79.6	9.9	5.8	4.7	100.0(1,214)
아동 행사	69.7	5.2	2.1	23.0	
자원봉사	15.4	14.9	3.6	66.1	
부모교육 프로그램	43.0	28.2	6.2	22.6	
담임 상담	86.3	7.2	1.4	5.1	
가정통신문에 대한 답장	82.1	11.4	3.1	3.4	
재정적 기여	24.0	15.9	6.2	53.8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8.8	43.7	9.1	38.4	

자.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패널 부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만 5세 유아의 부모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취업모 비율이 전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이용 욕구 및 기능이 다름을 시사한다.

취업 중인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에게서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임시직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직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직업군에 고루 펼쳐져 있는 것에 비해 어머니에게서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43.1%로 높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직이 유리한 동시에 상당수의 취업모가 종사상의 지위는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정신 건강을 알 수 있는 우울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은 낮으나, 어머니의 20.5%, 아버지의 16%가 경도·중증도 우울 증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중도 우울은 어머니의 7%, 아버지 4%가 해당되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남아에게 돈을 잘 벌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여아에 비해 높고, 여아에게는 취미나 여가를 중시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이타심과 사회적 명성에 대해 첫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둘째, 셋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도보다 낮다.

패널 가구에서는 패널 아동의 발달 및 또래와의 어울림을 위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지원 기관의 선택 기준은 거리의 근접성과 프로그램 내용 및 교사의 질을 중점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은 만 5세 시점 과반수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일 경우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1시간 가량 일찍 등원하여 2시간 가량 늦게 하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육아지원 기관은 평균 12만원에서 31.70만원까지 이용 기관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구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와 육아지원 기관 이용의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가구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 수를 알아본 결과, 대상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 평균은 4.23명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 본인을 제외하고 3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7.2%, 조부모, 부모, 자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원 구성이 1.4%, 부모, 자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가 0.6%, 나머지 기타가 0.4%로 나타났다.

〈표 III-5-1〉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단위: %(가구), 명

가구 구성						구성원 수	
부모+자녀	조부모 +부모+자녀	부모+자녀 +친척	조부모+부모 +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90.3	7.2	0.6	1.4	0.4	100.0(1,662)	4.23	0.85

나. 건강 특성

1) 3대 질환 가족력

각 가구의 건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의 3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을 알아본 결과 천식의 경우, 아버지의 진단받은 경우는 3.8%였으며, 어머니가 진단받은 경우는 4.6%,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한편, 알레르기성 비염은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진단율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율은 26.8%였으며, 어머니는 32.6%였고, 형제자매의 진단율은 32.0%로 3가지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버지의 경우 6.9%였으며, 어머니의 비율은 7.4%, 형제자매의 비율은 19.8%로 응답하였다.

〈표 III-5-2〉 3대 질환 가족력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진단	미진단	계(수)	진단	미진단	계(수)	진단	미진단	계(수)
천식	3.8	96.2	(1,492)	4.6	95.4	(1,502)	7.0	93.0	(1,392)
알레르기성 비염	26.8	73.2	(1,515)	32.6	67.4	(1,532)	32.0	68.0	(1,421)
아토피 피부염	6.9	93.1	(1,490)	7.4	92.6	(1,499)	19.8	80.2	(1,412)

2) 양육환경의 물리적 특성

패널 아동의 생애초기 양육환경에 대한 건강 관련 물리적 특성에 대해, 과거 생후 1년과 현재 두 시점을 기준으로, 집안 내 습기로 인한 얼룩, 곰팡이,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 애완동물, 흡연노출의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습기로 인한 얼룩

과거 임신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집안에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31.5%였으며,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시점 집안 내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다’ 28.8%, ‘없다’ 71.2%로 과거에 비해 습기 얼룩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집안 습기로 인한 얼룩 여부 - 생후 1년, 현재 시점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요	계(수)	$\chi^2(df)$
임신~생후 1년	31.5	68.5	100.0(1,58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7.3	62.7	100.0(515)	11.23(2)**
301~499만원	30.2	69.8	100.0(513)	
500만원 이상	27.1	72.9	100.0(552)	
현재	28.8	71.2	100.0(1,581)	-

** $p < .01$.

개별 공간별로 과거 임신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와 현재 두 시점에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얼룩이 ‘없었다/없다’는 응답이 침실 각각 79.5%, 80.6%, 주방 88.4%, 91.3%, 욕실 80.4%, 84.8%, 기타 공간(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지하실 등) 74.4%, 79.9%로, 과거에 비해 현재 다소 나아진 것으로 응답되었다. 공간별로 약 9~25%가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던/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는데, 주방에 얼룩이 가장 없고, 기타 공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5-4〉 공간별 습기로 인한 얼룩 - 생후 1년, 현재 시점

단위: %(명)

구분	임신~생후1년					현재				
	0%	5%미만	5-30%	30%이상	계(수)	0%	5%미만	5-30%	30%이상	계(수)
침실 및 거실	79.5	13.2	6.4	0.9	100.0 (1,571)	80.6	15.2	3.5	0.7	100.0 (1,563)
주방	88.4	8.7	2.6	0.3	100.0 (1,550)	91.3	6.9	1.4	0.3	100.0 (1,534)
욕실	80.4	13.6	4.9	1	100.0 (1,554)	84.8	11.3	3.1	0.7	100.0 (1,538)
기타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지하실 등)	74.4	13.8	8.6	3.2	100.0 (1,559)	79.9	12	6.2	1.9	100.0 (1,563)

나) 곰팡이

집안 내 곰팡이 발생 여부를 과거 임신~생후 1년과 현재 시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과거 34.8%, 현재 35.4%로 적지 않은 비율의 가정에서 곰팡이가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던/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거 생후1년 시기동안,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74.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는 비율은 4.4%로 응답되었다.

〈표 III-5-5〉 집안 내 곰팡이 - 생후 1년, 현재 시점

단위: %(명)

구분	곰팡이 여부			곰팡이 냄새				
	예	아니오	계(수)	나지 않음	났 다 안 함	심하 지 않 은 나 지 속 적 으 로 남	지 속 적 으 로 심 하 게 남	계(수)
임신~생후 1년	34.8	65.2	100.0(1,585)	74.8	20.7	4.1	0.3	100.0(1,574)
현재	35.4	64.6	100.0(1,577)			-		

다)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

임신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에 대한 여부에 '예' 15.1%, '아니오' 84.9%였다. 물이 새고나 젖어있던 상태에 대해서 '손으로 만져

서 축축한 정도'라는 응답이 47.6%, '물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라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표 III-5-6〉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 - 임신~생후1년 기간

단위: %(명)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 여부			물이 새거나 젖어있던 상태		
예	아니오	계(수)	손으로 만져 축축한 정도	물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	계(수)
15.1	84.9	100.0(1,588)	47.6	52.4	100.0(244)

라) 애완동물 키움

임신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애완견'을 키운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키운 적 '있다'가 4.1%였으며, '없다' 95.9%였다. 애완견 수에 대해 1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응답이 70.6%로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한 가운데, 2마리 이상이 29.3%로 나타났다. 위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른 애완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5-7〉 애완견 키우기 - 생후 1년, 현재 시점

단위: %(명)

구분	애완견 여부			애완견 수			
	예	아니오	계(수)	1마리	2마리	3마리	계(수)
임신~생후 1년	4.1	95.9	100.0(1,591)	70.6	26.0	3.3	100.0(7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0	96.0	100.0(516)	88.0	12.0	0.0	100.0(25)
301~499만원	3.2	96.8	100.0(513)	55.3	31.8	12.9	100.0(17)
500만원 이상	5.0	95.0	100.0(554)	67.5	32.5	0.0	100.0(28)
$\chi^2(df)$	2.43(2)			-			
지역 규모							
대도시	3.5	96.5	100.0(666)	69.4	28.4	2.2	100.0(26)
중소도시	3.9	96.1	100.0(653)	66.0	30.4	3.6	100.0(24)
읍면지역	5.9	94.1	100.0(272)	79.4	16.0	4.5	100.0(20)
$\chi^2(df)$	6.43(2)*			-			
현재	0.5	99.5	100.0(1,574)	61.8	19.7	18.4	100.0(9)

* $p < .05$.

임신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다’ 0.5%로 나타났으며, 1마리를 키우는 경우가 다수이나, 2마리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표 III-5-8〉 고양이 키우기 - 생후 1년

단위: %(명)

고양이 여부			고양이 수			
예	아니오	계(수)	1마리	2마리	3마리	계(수)
0.5	99.5	100.0(1,574)	61.8	19.7	18.4	100.0(9)

마) 흡연 노출

현재 시점 ‘아동’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49.4%였으며, ‘아니오’는 50.6%로 나타나, 절반의 아동이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 주당 노출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2회~3회가 44.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주당 1회는 26.6%, 4회 이상도 28.5%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하위변인별로, 미취업모가 취업모 가정에 비해, 모 학력/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아동이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더 많다.

〈표 III-5-9〉 아동의 흡연 노출 - 현재

단위: %(명)

구분	담배냄새 맡는 일			주당 노출 횟수				
	예	아니오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전체	49.4	50.6	100.0(1,589)	26.6	44.9	12.2	16.3	100.0(776)
모 취업여부								
취업	45.2	54.8	100.0(682)	27.5	44.2	12.4	16.0	100.0(311)
미취업	52.4	47.6	100.0(887)	26.5	44.8	12.2	16.5	100.0(455)
$\chi^2(df)$	5.94(1)*			0.39(3)				
모 학력								
고졸이하	62.6	37.4	100.0(468)	21.1	47.0	13.0	19.0	100.0(288)
전문대졸	47.6	52.4	100.0(421)	34.0	45.3	10.9	9.8	100.0(197)
대졸이상	41.9	58.1	100.0(683)	27.4	42.7	12.2	17.6	100.0(284)
$\chi^2(df)$	45.59(2)***			10.9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9.2	40.8	100.0(515)	22.9	46.2	14.0	16.9	100.0(298)
301~499만원	47.8	52.2	100.0(512)	27.4	45.4	10.3	16.9	100.0(248)
500만원 이상	42.0	58.0	100.0(554)	30.8	42.3	11.9	15.0	100.0(229)
$\chi^2(df)$	27.26(2)***			7.21(6)				

(표 III-5-9 계속)

구분	담배냄새 맡는 일			주당 노출 횟수				
	예	아니오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47.1	52.9	100.0(666)	29.2	41.3	12.6	17.0	100.0(306)
중소도시	47.4	52.6	100.0(652)	29.3	45.0	11.0	14.7	100.0(310)
읍면지역	59.5	40.5	100.0(271)	16.5	51.5	13.8	18.2	100.0(160)
$\chi^2(df)$	12.153(2)**			11.82(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이 과거 생후 12개월 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50.4%였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49.6%였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 주당 노출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2회~3회가 44.4%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주당 1회는 23.7%, 주당 6회~7회는 16.6%, 주당 4회~5회가 15.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10〉 아동의 흡연 노출 - 생후 12개월

단위: %(명)

구분	담배냄새 맡는 일			주당 노출 횟수				
	예	아니오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전체	50.4	49.6	100.0(1,143)	23.7	44.4	15.3	16.6	100.0(579)
모 학력								
고졸이하	60.0	40.0	100.0(374)	24.9	47.0	12.3	15.8	100.0(217)
전문대졸	48.8	51.2	100.0(304)	27.4	51.0	13.9	7.6	100.0(148)
대졸이상	43.6	56.4	100.0(452)	20.8	37.9	18.2	23.1	100.0(207)
$\chi^2(df)$	15.36(2)***			15.15(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2.6	47.4	100.0(394)	23.1	47.3	13.0	16.6	100.0(214)
301~499만원	53.9	46.1	100.0(373)	22.9	48.8	13.0	15.3	100.0(195)
500만원 이상	44.3	55.7	100.0(370)	25.5	36.1	19.8	18.6	100.0(168)
$\chi^2(df)$	6.27(2)*			9.60(6)				
지역 규모								
대도시	53.5	46.5	100.0(445)	24.6	41.7	13.1	20.7	100.0(234)
중소도시	45.5	54.5	100.0(479)	23.9	45.5	17.5	13.1	100.0(223)
읍면지역	54.6	45.4	100.0(219)	21.7	47.7	15.9	14.8	100.0(122)
$\chi^2(df)$	8.39(2)*			8.94(6)				

* $p < .05$, *** $p < .001$.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과거 아동이 담배냄새에 노출된 경험이 적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출정도에서 대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노출비율이 더 많았다(표 III-5-10 참조).

한편,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중 주변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61.2%였으며, '아니오' 38.8%로 나타나, 과반이상의 많은 임신부가 담배연기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흡연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1.1%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11〉 모의 흡연 노출 - 임신 중

단위: %(명)

구분	담배 연기에 노출 여부			어머니 흡연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61.2	38.8	100.0(922)	1.1	98.9	100.0(92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8.6	41.4	100.0(330)	2.0	98.0	100.0(328)
301~499만원	63.9	36.1	100.0(298)	0.6	99.4	100.0(300)
500만원 이상	61.2	38.8	100.0(290)	0.7	99.3	100.0(288)
$\chi^2(df)$	0.34(2)			-		
지역 규모						
대도시	58.6	41.4	100.0(362)	1.8	98.2	100.0(359)
중소도시	60.3	39.7	100.0(379)	0.2	99.8	100.0(382)
읍면지역	68.4	31.6	100.0(181)	1.7	98.3	100.0(179)
$\chi^2(df)$	1.78(2)			-		

다. 가계경제 요소

패널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가구 자산 및 부채여부, 가구부채 및 월상환금, 사회보장 지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은 432.77만원,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은 187.7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12〉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월평균 가구 소득	432.77	219.23	400	0	3,000	(1,653)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	187.79	126.51	170	0	1,000	(698)

월평균 지출은 가구지출, 소비성 지출, 비소비성 지출로 구분하여 각각 가구 전체와 전체 자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월평균 가구 지출을 살펴보면, 가구 전체 평균은 384.87만원, 전체 자녀항목 평균은 124.6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성 지출을 살펴보면, 가구 전체 평균은 222.73만원, 전체 자녀항목 평균은 91.41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중 가구 전체 평균은 162.10만원, 전체 자녀항목 평균은 33.1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13〉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가구)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월평균 가구 지출	384.87	177.49	350	30	2,000	124.67	70.81	110	2	1,100
월평균 소비성 지출	222.73	108.05	200	25	1,200	91.41	56.53	80	2	600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162.10	107.49	150	0	1,000	33.15	37.13	25	0	1,000

가구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부동산 평균은 29362.92만원, 금융 자산 평균은 5798.3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14〉 가구 자산

단위: 만원(가구)

부동산					금융 자산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29362.92	160979.21	15,000	0	3,000,000	5798.35	10636.79	3,000	0	300,000

부채여부는 전체 가구 중 60.4%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6%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15〉 부채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계(수)
60.4	39.6	100.0(1,660)

가구 부채의 평균은 8087.69만원, 월상환금 평균은 51.7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16〉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단위: 만원(가구)

부채					월상환금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8087.69	8846.82	5,000	100	120,000	51.76	58.97	37	0	700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여부를 패널 참여 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4%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3.8%가 차상위 계층이었으며, 95.8%는 해당 없음에 응답하였다.

〈표 III-5-17〉 사회보장 지원

단위: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계(수)
0.4	3.8	95.8	100.0(1,662)

라. 가정 환경

가정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HOME 조사와 가족 상호작용(FACES)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가정환경의 질(HOME)

EC-HOME의 8개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하위척도별 미국과 패널의 중위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HOME을 개발할 당시 사용한 표집에서도 하위척도의 점수와 총점이 왼쪽 편포를 보였으며(Caldwell & Bradley, 2003),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5-18〉 HOME: 가정환경 문항 수 및 중위수

구분	학습 자료	언어 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 자극	모방 학습	다양성	수용성	전체
문항 수	11	7	7	7	5	5	9	4	55
미국 중위수	8	6	6	6	4	3	8	4	40
패널 중위수	9	7	7	7	5	4	9	4	50

Caldwell과 Bradley(2003)은 하위척도의 점수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경우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고, 총점에서 7~8점 이상 낮은 경우는 의심스럽게(suspect)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해 각 집단별 총점과 하위척도의 중위수 및 중위수와의 편차를 제시하였다.

가정환경 척도 55개 문항 총점에서 평균 49.44점, 중위수 50점인 것은 패널 아동 가정이 대체로 균등하게 우수한 가정환경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개 하위영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반응성' 영역에서만 총점 상한선 대비 평균점수와 중위수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국 만 5세 패널아동의 가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반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정환경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중위수(6)를 보이는 수준이며, 미국 가정에 비해 한국의 만 5세 가정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편차가 3 이상인 양 극단치의 비율이 1.0~7.6%로 다양한 가운데, '반응성'과 '다양성' 영역에서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즉 평균 이상의 우수한 환경이 많은 것으로 짐작되며, '학습자료'와 '언어자극', '수용성'의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9〉 HOME: 영역별 비교

단위: 점, %(가구)

구분	총점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편차≤1	편차=2	편차≥3
학습자료	11	9	9.03	0.91	96.7	1.7	1.6
언어자극	7	7	6.79	0.60	96.4	2.0	1.6
물리적 환경	7	7	6.75	0.81	94.3	3.2	2.5
반응성	7	7	5.97↓	1.25	69.0	17.0	14.0
학습자극	5	5	4.79	0.83	94.9	1.6	3.5
모방학습	5	4	4.33↓	0.88	83.6	12.6	3.7
다양성	9	9	8.16	1.09	78.2	14.2	7.6
수용성	4	4	3.64	0.58	97.4	1.6	1.0
전체	55	50	49.44	4.10	계(수)	100.0(1,660)	

우선,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55점 만점에 49.44점이었고, 전체 가구의 91.3%가 가정환경검사 총점의 중위수에서 6점 이하의 편차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4.10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Caldwell과 Bradley(2003) 기준에 의해 총점에서 7~8점 이상 차이가 나는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월등히 좋거나 나쁜 양 극단을 취하겠으나,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

가정에서, 모학력/가구소득이 낮을수록(특히 고졸이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에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가정환경 의심군(suspect)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 독립변인별 가정환경 총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총점이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평균 48.6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 규모의 경우 대도시가 평균 49.91점으로 다소 높았다.

〈표 III-5-20〉 HOME: 가정환경 총점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6	편차=7	편차≥8
전체	49.44	4.10	100.0(1,660)	91.3	2.2	6.5
모 취업여부						
취업	49.69	4.03	100.0(719)	92.4	2.0	5.6
미취업	49.30	4.14	100.0(917)	90.6	2.4	6.9
$\chi^2(df)/t$		1.19			2.30(2)	
모 학력						
고졸이하	48.09 ^a	5.05	100.0(487)	84.8	4.2	11.0
전문대졸	49.47 ^b	4.00	100.0(439)	93.3	0.6	6.1
대졸이상	50.38 ^c	3.06	100.0(714)	94.9	1.8	3.3
$\chi^2(df)/F$		42.05 ^{***}			29.60(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8.62 ^a	4.99	100.0(535)	85.7	3.7	10.6
301~499만원	49.64 ^b	3.40	100.0(534)	94.4	1.3	4.4
500만원 이상	50.01 ^b	3.67	100.0(582)	93.5	1.7	4.7
$\chi^2(df)/F$		21.50 ^{***}			30.00(4) ^{***}	
지역 규모						
대도시	49.91 ^a	3.55	100.0(691)	94.6	1.9	3.4
중소도시	49.16 ^b	4.34	100.0(673)	89.1	2.3	8.6
읍면지역	48.98 ^b	4.63	100.0(296)	88.4	2.6	9.0
$\chi^2(df)/F$		11.56 ^{***}			15.89(4) ^{**}	

** $p < .01$, *** $p < .001$.

가정환경검사의 하위 척도 중 ‘학습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은 11점 만점 9.03점이었고 전체의 96.7%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습자료 점수가 높음을 나타낸다.

〈표 III-5-21〉 HOME: 학습자료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9.03	0.91	100.0(1,660)	96.7	1.7	1.6
모 취업여부						
취업	9.02	0.96	100.0(719)	96.2	1.9	1.9
미취업	9.04	0.88	100.0(917)	97.2	1.6	1.3
$\chi^2(df)/t$		-0.79			1.20(2)	
모 학력						
고졸이하	8.76 ^a	1.14	100.0(487)	92.6	3.7	3.7
전문대졸	9.00 ^b	0.77	100.0(439)	97.8	0.8	1.4
대졸이상	9.23 ^c	0.76	100.0(714)	99.1	0.6	0.2
$\chi^2(df)/F$		44.49 ^{***}			47.62(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84 ^a	1.11	100.0(535)	94.4	2.4	3.2
301~499만원	9.04 ^b	0.74	100.0(534)	97.1	1.9	1.0
500만원 이상	9.18 ^b	0.83	100.0(582)	98.5	0.9	0.6
$\chi^2(df)/F$		23.36 ^{***}			19.10(4) ^{**}	
지역 규모						
대도시	9.08	0.79	100.0(691)	97.8	1.4	0.8
중소도시	9.00	1.00	100.0(673)	96.1	1.8	2.1
읍면지역	8.98	0.98	100.0(296)	95.7	2.1	2.2
$\chi^2(df)/F$		2.35			3.62(4)	

** $p < .01$, *** $p < .001$.

‘언어자극’의 경우 전체 평균은 7점 만점 6.79점으로 전체 대상자의 96.4%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자극 점수는 모의 학력, 가구 소득 그리고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의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일 경우가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일 경우보다 언어 자극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 이하의 경우가 6.7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5-22〉 HOME: 언어자극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79	0.60	100.0(1,660)	96.4	2.0	1.6
모 취업여부						
취업	6.80	0.62	100.0(719)	96.6	1.6	1.8
미취업	6.78	0.59	100.0(917)	96.3	2.3	1.4
$\chi^2(df)/t$		-0.21			2.12(2)	

(표 III-5-2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모 학력						
고졸이하	6.67 ^a	0.79	100.0(487)	93.5	3.6	2.9
전문대졸	6.83 ^b	0.57	100.0(439)	97.3	1.1	1.6
대졸이상	6.85 ^b	0.46	100.0(714)	97.9	1.5	0.7
$\chi^2(df)/F$		12.10 ^{***}			12.48(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73 ^a	0.71	100.0(535)	95.1	2.7	2.1
301~499만원	6.84 ^b	0.49	100.0(534)	97.6	1.4	1.0
500만원 이상	6.80	0.59	100.0(582)	96.5	1.8	1.7
$\chi^2(df)/F$		4.94 ^{**}			6.67(4)	
지역 규모						
대도시	6.87 ^a	0.51	100.0(691)	98.6	0.5	1.0
중소도시	6.74 ^b	0.63	100.0(673)	95.1	3.1	1.8
읍면지역	6.72 ^b	0.70	100.0(296)	94.4	2.8	2.8
$\chi^2(df)/F$		10.22 ^{***}			16.03(4) ^{**}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언어 자극 점수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평균 6.87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III-5-22 참조).

‘물리적 환경’ 하위척도의 평균은 7점 만점 6.75점이었으며, 전체의 94.3%가 물리적 환경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모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모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의 평균이 6.53점으로, 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 평균이 6.57점으로 물리적 환경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5-23〉 HOME: 물리적 환경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75	0.81	100.0(1,660)	94.3	3.2	2.5
모 취업여부						
취업	6.76	0.75	100.0(719)	94.4	3.9	1.8
미취업	6.74	0.85	100.0(917)	94.3	2.7	3.0
$\chi^2(df)/t$		0.19			5.22(2)	
모 학력						
고졸이하	6.53 ^a	1.17	100.0(487)	89.6	4.4	6.0
전문대졸	6.79 ^b	0.67	100.0(439)	95.5	2.7	1.8
대졸이상	6.87 ^b	0.51	100.0(714)	96.9	2.4	0.7
$\chi^2(df)/F$		24.83 ^{***}			34.20(4) ^{***}	

(표 III-5-23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57 ^a	1.13	100.0(535)	89.3	5.3	5.3
301~499만원	6.80 ^b	0.63	100.0(534)	96.0	2.3	1.6
500만원 이상	6.86 ^b	0.55	100.0(582)	97.1	2.1	0.8
$\chi^2(df)/F$		20.55 ^{***}			35.40(4) ^{***}	
지역 규모						
대도시	6.81	0.65	100.0(691)	95.8	2.7	1.5
중소도시	6.73	0.86	100.0(673)	93.8	3.0	3.2
읍면지역	6.63	1.01	100.0(296)	91.7	4.8	3.5
$\chi^2(df)/F$		2.57			3.36(4)	

*** $p < .001$.

‘반응성’ 하위척도 평균의 경우 7점 만점 5.97점이었으며, 전체의 69.0%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해 반응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다. 이는 모 취업여부, 모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라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모가 취업한 상태일 때의 점수가 더 높았다. 모 학력의 경우 대출이상의 경우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대도시가 6.12점으로 반응성 하위척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II-5-24〉 HOME: 반응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5.97	1.25	100.0(1,660)	69.0	17.0	14.0
모 취업여부						
취업	6.11	1.19	100.0(719)	74.8	14.1	11.1
미취업	5.87	1.29	100.0(917)	65.0	19.0	16.1
$\chi^2(df)/t$		2.85 ^{**}			10.22(2) ^{**}	
모 학력						
고졸이하	5.73 ^a	1.41	100.0(487)	61.9	17.4	20.7
전문대졸	5.97	1.27	100.0(439)	67.6	20.4	12.0
대졸이상	6.13 ^b	1.11	100.0(714)	74.9	14.4	10.7
$\chi^2(df)/F$		8.97 ^{***}			23.24(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91	1.31	100.0(535)	66.5	18.1	15.4
301~499만원	5.91	1.28	100.0(534)	66.3	19.5	14.1
500만원 이상	6.07	1.18	100.0(582)	73.8	13.4	12.7
$\chi^2(df)/F$		3.11 [*]			9.41(4)	

(표 III-5-24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지역 규모						
대도시	6.12 ^a	1.12	100.0(691)	71.4	17.7	10.9
중소도시	5.80 ^b	1.34	100.0(673)	65.2	16.6	18.2
읍면지역	5.98 ^b	1.30	100.0(296)	71.8	16.4	11.7
$\chi^2(df)/F$		18.79 ^{***}			24.64(4) ^{***}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학습자극’ 하위척도의 평균은 5점 만점 4.79점이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94.9%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극 평균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 지역 규모가 대도시일 경우가 평균 4.89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5-25〉 HOME: 학습자극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79	0.83	100.0(1,660)	94.9	1.6	3.5
모 취업여부						
취업	4.77	0.88	100.0(719)	94.6	1.4	3.9
미취업	4.80	0.79	100.0(917)	95.0	1.7	3.2
$\chi^2(df)/t$		-1.23			1.07(2)	
모 학력						
고졸이하	4.74	0.91	100.0(487)	93.4	2.3	4.3
전문대졸	4.79	0.86	100.0(439)	95.4	0.8	3.8
대졸이상	4.82	0.76	100.0(714)	95.6	1.7	2.8
$\chi^2(df)/F$		1.15			5.41(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81	0.83	100.0(535)	95.7	1.0	3.3
301~499만원	4.80	0.77	100.0(534)	94.9	1.7	3.4
500만원 이상	4.75	0.90	100.0(582)	94.1	2.0	4.0
$\chi^2(df)/F$		0.35			1.98(4)	
지역 규모						
대도시	4.89 ^a	0.53	100.0(691)	97.8	0.8	1.4
중소도시	4.72 ^b	0.96	100.0(673)	92.6	2.7	4.7
읍면지역	4.71 ^b	1.05	100.0(296)	93.1	0.8	6.1
$\chi^2(df)/F$		10.02 ^{***}			23.59(4) ^{***}	

*** $p < .001$.

‘모방학습’ 하위척도의 평균은 5점 만점 4.3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의 83.6%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모방학습 평균은 모의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모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의 평균이 4.17점으로 전문대졸,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26〉 HOME: 모방학습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33	0.88	100.0(1,660)	83.6	12.6	3.7
아동 성별						
남	4.26	0.96	100.0(855)	80.4	14.6	5.0
여	4.41	0.78	100.0(805)	87.1	10.5	2.4
$t/x^2(df)$		-2.67**			4.45(2)	
모 취업여부						
취업	4.37	0.84	100.0(719)	86.4	10.3	3.3
미취업	4.32	0.90	100.0(917)	82.2	14.0	3.9
$x^2(df)/t$		1.72			5.10(2)	
모 학력						
고졸이하	4.17 ^a	1.00	100.0(487)	77.5	16.8	5.7
전문대졸	4.34 ^b	0.89	100.0(439)	84.8	11.0	4.3
대졸이상	4.44 ^b	0.77	100.0(714)	87.1	10.9	2.0
$x^2(df)/F$		11.87***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26 ^a	0.95	100.0(535)	81.1	13.4	5.5
301~499만원	4.36	0.86	100.0(534)	83.4	13.4	3.2
500만원 이상	4.37 ^b	0.83	100.0(582)	86.1	11.1	2.7
$x^2(df)/F$		4.15*			-	

* $p < .05$, ** $p < .01$, *** $p < .001$.

‘다양성’ 하위척도의 평균은 9점 만점 8.16점이며, 조사 대상자의 78.2%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즉, 21.8%는 편차 2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성’ 요소에서도 상대적으로 편차가 큰데, 만점 9점에 가까운 우수한 환경이 많은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척도 평균은, 육아모의 학력 그리고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가 평균 8.33점으로 고졸 이하 혹은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다양성 하위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평균 7.9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 규모의 경우 대도시의 점수가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표 III-5-27〉 HOME: 다양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8.16	1.09	100.0(1,660)	78.2	14.2	7.6
모 취업여부						
취업	8.18	1.08	100.0(719)	78.9	13.7	7.4
미취업	8.15	1.09	100.0(917)	78.2	14.5	7.3
$\chi^2(df)/t$		-0.25			0.21(2)	
모 학력						
고졸이하	7.95 ^a	1.23	100.0(487)	71.4	18.1	10.5
전문대졸	8.13 ^a	1.13	100.0(439)	75.6	16.3	8.1
대졸이상	8.33 ^b	0.93	100.0(714)	85.0	10.1	4.9
$\chi^2(df)/F$		16.64 ^{***}			30.03(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93 ^a	1.34	100.0(535)	72.7	14.1	13.2
301~499만원	8.25 ^b	0.94	100.0(534)	80.4	14.6	5.1
500만원 이상	8.28 ^b	0.94	100.0(582)	81.4	13.7	4.8
$\chi^2(df)/F$		16.48 ^{***}			29.05(4) ^{***}	
지역 규모						
대도시	8.18 ^a	1.07	100.0(691)	78.1	15.1	6.8
중소도시	8.18	1.10	100.0(673)	79.7	13.0	7.3
읍면지역	8.06 ^b	1.14	100.0(296)	75.1	14.7	10.2
$\chi^2(df)/F$		3.86 [*]			8.01(4)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하위척도 중 '수용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4점 만점 3.64점이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97.4%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평균은 모 취업여부와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일 경우 수용성의 평균이 3.69점으로 미취업모인 경우보다 높았다. 모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일 때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수용성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28〉 HOME: 수용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3.64	0.58	100.0(1,660)	97.4	1.6	1.0

(표 III-5-28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편차≤1	편차=2	편차≥3
모 취업여부						
취업	3.69	0.51	100.0(719)	98.4	1.3	0.3
미취업	3.59	0.63	100.0(917)	96.6	1.9	1.5
$\chi^2(df)/t$		3.16**			6.98(2)*	
모 학력						
고졸이하	3.54 ^a	0.62	100.0(487)	95.8	3.2	1.0
전문대졸	3.61	0.63	100.0(439)	97.8	0.6	1.7
대졸이상	3.71 ^b	0.52	100.0(714)	98.1	1.3	0.5
$\chi^2(df)/F$		11.45***			16.86(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57 ^a	0.58	100.0(535)	97.4	1.9	0.8
301~499만원	3.63	0.61	100.0(534)	97.6	1.4	1.1
500만원 이상	3.70 ^b	0.55	100.0(582)	97.3	1.7	1.1
$\chi^2(df)/F$		6.69**			1.41(4)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 상호작용

패널 가정환경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Olson(2010)의 FACES(IV)를 토대로 아동의 가족 상호작용을 하위척도인 ‘응집성’과 ‘유연성’을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평균은 3.96점, 유연성 평균은 3.60점으로 보고되었다.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은 응집성 4.04점, 유연성은 3.72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가족의 상호작용을 좀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유연성에 비해 응집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의 ‘응집성’의 평균은 모 학력과, 가구소득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가 전문대졸 그리고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낮았고, 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평균 3.91점으로 그 이상인 경우보다 낮았다. 마지막으로, 중소도시의 거주하는 경우의 가족 응집성 점수가 읍면지역의 경우보다 높았다.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 상호작용 하위척도 중, ‘유연성’의 경우 모의 취업,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취업모의 유연성 평균이 미취업모에 비해 높았으며, 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전문대졸인 경우가 각각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평균 3.67점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고,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일 경우

평균이 3.65점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족 유연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II-5-29〉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응집성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6	0.58	(1,608)	3.60	0.59	(1,608)
모 취업여부						
취업	3.97	0.58	(697)	3.66	0.58	(696)
미취업	3.96	0.58	(893)	3.55	0.59	(894)
<i>t</i>		0.09			2.81**	
모 학력						
고졸이하	3.90 ^a	0.58	(471)	3.50 ^a	0.62	(470)
전문대졸	3.98 ^b	0.58	(430)	3.63 ^b	0.57	(428)
대졸이상	4.01 ^b	0.56	(695)	3.65 ^b	0.56	(696)
<i>F</i>		6.74*			8.3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1 ^a	0.62	(519)	3.53 ^a	0.60	(517)
301~499만원	3.99 ^b	0.53	(517)	3.59	0.56	(520)
500만원 이상	4.00 ^b	0.57	(564)	3.67 ^b	0.59	(563)
<i>F</i>		5.39**			7.19**	
지역 규모						
대도시	3.95	0.57	(659)	3.60	0.56	(658)
중소도시	4.03 ^a	0.57	(658)	3.65 ^a	0.60	(660)
읍면지역	3.86 ^b	0.60	(291)	3.49 ^b	0.61	(290)
<i>F</i>		7.63**			5.77**	

* $p < .05$, ** $p < .01$.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의 평균은 4.04점, 유연성의 평균은 3.72점으로 아버지 또한 가족의 응집성을 유연성에 비해 더 높게 지각했다.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은 모 학력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모 학력 고졸이하인 경우의 응집성 평균이 3.96점으로 전문대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낮았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평균 4.10점으로 가족 응집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의 경우, 모 취업과 모 학력,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취업한 경우 아버지가 지각한 가족 유연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모 학력 고졸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유연

성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았으며, 거주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일 때 평균 3.77점으로 읍면지역인 경우보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족 유연성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II-5-30〉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응집성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04	0.52	(1,540)	3.72	0.54	(1,541)
모 취업여부						
취업	4.05	0.52	(648)	3.78	0.54	(650)
미취업	4.03	0.52	(871)	3.68	0.53	(871)
<i>t</i>		-0.15			2.79**	
모 학력						
고졸이하	3.96 ^a	0.52	(457)	3.63 ^a	0.57	(458)
전문대졸	4.05 ^b	0.50	(405)	3.71 ^b	0.51	(406)
대졸이상	4.10 ^b	0.51	(661)	3.79 ^b	0.51	(661)
<i>F</i>		10.95*			11.3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9 ^a	0.55	(499)	3.64 ^a	0.56	(500)
301~499만원	4.04	0.48	(493)	3.73 ^b	0.50	(494)
500만원 이상	4.08 ^b	0.52	(539)	3.77 ^b	0.53	(539)
<i>F</i>		4.44			6.79**	
지역 규모						
대도시	4.01 ^a	0.52	(639)	3.71	0.53	(638)
중소도시	4.10 ^b	0.49	(621)	3.77 ^a	0.52	(622)
읍면지역	3.95 ^a	0.55	(280)	3.61 ^b	0.57	(281)
<i>F</i>		8.17***			6.50**	

* $p < .05$, ** $p < .01$, *** $p < .001$.

마. 소결

패널 가구의 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구소득의 1/3가량을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정환경은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지만 모방학습과 반응성에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응성과 다양성에서 편차가 컸다. 학습자료, 학습자극, 다양성의 가정환경 요소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의 응집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부모는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가족 상

호작용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가족 간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안전성이 가족 간 결합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물질적 풍요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인식이 서로 차이를 보인 점과 가정환경에서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 상호작용이 쌍방향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구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6.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설문조사는 웹사이트와 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가 기관 설문에 동의하여 교사들로부터 회수된 응답은 총 1,654부였다.

가. 기관 특성

조사된 1,654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은 유치원 57.1%, 어린이집 38.9%, 반일제 이상의 학원 4.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유형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 가구의 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계(수)	$\chi^2(df)$
전체	57.1	38.9	4.0	100.0(1,654)	-
아동 출생순위					
첫째	58.4	37.3	4.3	100.0(768)	7.76(4)
둘째	57.1	38.6	4.3	100.0(696)	
셋째 이상	51.3	47.2	1.5	100.0(190)	
모 취업여부					
취업	54.1	41.9	3.9	100.0(719)	7.70(2)*
미취업	59.9	35.9	4.2	100.0(911)	

(표 III-6-1 계속)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51.4	47.2	1.5	100.0(484)	41.50(4)***
전문대졸	58.8	38.4	2.8	100.0(438)	
대졸이상	60.1	33.4	6.5	100.0(71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3.4	44.8	1.8	100.0(532)	35.27(4)***
301~499만원	57.4	39.8	2.8	100.0(531)	
500만원 이상	60.2	32.6	7.2	100.0(582)	
지역 규모					
대도시	58.7	36.3	5.0	100.0(690)	33.02(4)***
중소도시	61.9	34.1	4.0	100.0(668)	
읍면지역	42.6	55.7	1.7	100.0(296)	

* $p < .05$, *** $p < .001$.

교사 응답을 토대로 기관별 시설유형을 조사한 결과 695곳의 유치원 중에서 사립개인이 70.6%, 사립법인이 11.6%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립(병설) 15.5%, 공립(단설) 2.0%, 국립 0.3% 순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468곳 중 민간이 58.7%, 국공립 20.2%, 법인 15.6%, 가정 4.9%, 직장 및 부모협동이 각각 0.3% 순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52군데 중에는 영어 학원(39.6%), 기타 (26.4%), 놀이학교 (21.8%), 태권도, 음악 등의 각종학원(9.3%), 미술학원(2.9%)가 있었다. 기타 학원에는 영재학교, 선교원, 아카데미, 숲 유치원 등의 응답이 다양하게 있었다.

〈표 III-6-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단위: %(명)					
유치원	비율	어린이집	비율	반일제 이상 학원	비율
국립 유치원	0.3	국공립 어린이집	20.2	영어 학원	39.6
공립(병설) 유치원	15.5	법인 어린이집	15.6	놀이학교	21.8
공립(단설) 유치원	2.0	가정 어린이집	4.9	미술 학원	2.9
사립 법인 유치원	11.6	민간 어린이집	58.7	태권도, 음악 등의 각종학원	9.3
사립 개인 유치원	70.6	직장 어린이집	0.3	기타 학원	26.4
		부모협동 어린이집	0.3		
계(수)	100.0(695)	계(수)	100.0(468)	계(수)	100.0(52)

기관의 평가 및 인증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평가받은 기관이 59.6%, 평가받을 예정인 기관이 38.1%이었으며, 평가계획

이 없는 기관(2.2%)도 있었다. 어린이집은 재인증 받은 기관이 56.6%, 신규인증을 받은 기관이 21.9%였으며, 심사 중인 기관(7.9%)과 미인증 기관(13.6%)도 있었다.

〈표 III-6-3〉 기관 평가 여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받은	평가 받을 예정	평가 계획 없음	계(수)	재인증 받은	신규인증 받은	심사 중	인증받지 않음
전체	59.6	38.1	2.2	(695)	56.6	21.9	7.9	13.6
지역 규모								
대도시	67.2	30.9	2.0	(313)	56.8	24.0	7.1	12.1
중소도시	54.8	42.6	2.6	(286)	53.8	21.7	8.1	16.4
읍면지역	48.7	49.2	2.1	(96)	60.6	18.6	8.9	12.0
$\chi^2(df)$	17.03(4)**				5.31(6)			

** $p < .01$.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의 전체 학급 수는 평균 6.97개였으며, 기관의 전체 인원은 평균 130.37명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의 학급 수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 인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또 도시 규모 면에서 중소도시에 있는 기관이 대도시나 읍면에 있는 기관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육아지원기관의 규모

단위: 학급, 명(명)

구분	전체 학급 수			기관 현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97	3.54	(1,215)	130.37	85.35	(1,215)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6.66 ^a	3.65	(695)	153.17 ^a	96.21	(695)
어린이집	7.49 ^b	3.19	(468)	105.23 ^b	55.86	(468)
반일제 이상	6.28 ^{ab}	4.41	(52)	63.28 ^c	45.78	(52)
F	7.67**			62.1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46 ^a	3.37	(376)	112.04 ^a	74.43	(376)
301~499만원	7.15 ^b	3.63	(401)	138.62 ^b	85.74	(401)
500만원 이상	7.23 ^b	3.58	(431)	138.57 ^b	91.62	(431)
F	5.61**			11.39***		

(표 III-6-4 계속)

구분	전체 학급 수			기관 현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대도시	6.65 ^a	3.15	(528)	124.78 ^a	77.07	(528)
중소도시	7.41 ^b	3.70	(479)	144.66 ^b	93.58	(479)
읍면지역	6.76 ^a	3.99	(208)	111.48 ^a	79.96	(208)
<i>F</i>		8.70 [*]			13.21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학급 특성

아동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구성은 단일연령이 87.5%, 혼합연령이 12.5%로 나타났다으며, 유치원의 경우 단일연령 학급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혼합연령인 학급은 4~5세 연령이 대부분이었다.

〈표 III-6-5〉 육아지원기관의 연령 구성

구분	구성 형태			혼합 연령 범위			
	단일연령	혼합연령	계(수)	3세~4세	3세~5세	4세~5세	계(수)
전체	87.5	12.5	100.0(1,215)	1.2	0.5	98.3	100.0(161)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2.7	7.3	100.0(695)	1.3	1.5	97.2	100.0(62)
어린이집	80.2	19.8	100.0(468)	1.3	0.0	98.7	100.0(93)
반일제 이상	85.7	14.3	100.0(52)	0.0	0.0	100.0	100.0(6)
$\chi^2(df)$		29.32(2) ^{***}				-	
지역 규모							
대도시	87.2	12.8	100.0(528)	1.0	0.0	99.0	100.0(74)
중소도시	92.0	8.0	100.0(479)	0.0	0.0	100.0	100.0(40)
읍면지역	78.1	21.9	100.0(208)	2.6	1.7	95.7	100.0(47)
$\chi^2(df)$		26.08(2) ^{***}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

*** $p < .001$.

한 학급당 아동은 평균 20.84명이었고, 교사는 평균 1.58명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기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치원 17.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14.93명, 반일제 이상 학원 8.70명 순이었다.

〈표 III-6-6〉 학급 규모

구분	아동 수			교사 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84	5.95	(1,215)	1.58	1.20	(1,215)	16.18	6.51	(1,215)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23.27 ^a	5.10	(695)	1.64 ^a	1.26	(695)	17.66 ^a	6.69	(695)
어린이집	18.33 ^b	4.91	(468)	1.49 ^b	1.13	(468)	14.93 ^b	5.45	(468)
반일제 이상	12.18 ^c	6.56	(52)	1.61 ^{ab}	0.78	(52)	8.70 ^c	4.84	(52)
<i>F</i>	207.06***			3.25*			62.2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03 ^a	5.12	(376)	1.48	1.07	(376)	16.40	6.28	(376)
301~499만원	21.31 ^b	5.94	(401)	1.50	1.08	(401)	16.97 ^a	6.50	(401)
500만원 이상	21.12	6.54	(431)	1.74	1.38	(431)	15.25 ^b	6.60	(431)
<i>F</i>	5.08**			2.20			5.97**		
지역 규모									
대도시	21.31 ^a	6.49	(528)	1.59	1.07	(528)	16.02	6.52	(528)
중소도시	21.28 ^a	5.39	(479)	1.61	1.27	(479)	16.56	6.55	(479)
읍면지역	18.60 ^b	5.18	(208)	1.50	1.33	(208)	15.73	6.32	(208)
<i>F</i>	19.77***			2.15			2.13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학급 규모에 대하여 교사들은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이 평균 16.15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유치원의 경우 17.65명, 어린이집은 14.70명으로 실제 아동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사들은 실제 비율보다 다소 많은 10.06명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급 아동 수에 대한 적절성은 3점에 가까울수록 아동이 '적당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사들은 2.08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표 III-6-7〉 학급 규모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구분	학급 아동 수 적절성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67	0.58	(1,215)	16.15	4.56	(1,215)

단위: 점(명), 명

(표 III-6-7 계속)

구분	학급 아동 수 적절성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62 ^a	0.55	(695)	17.65 ^a	4.40	(695)
어린이집	1.69 ^a	0.60	(468)	14.70 ^b	3.74	(468)
반일제 이상	2.08 ^b	0.56	(52)	10.06 ^c	3.61	(52)
<i>F</i>	14.14 ^{***}			125.60 ^{***}		
지역 규모						
대도시	1.68	0.60	(528)	16.18	4.94	(528)
중소도시	1.63	0.55	(479)	16.31	4.26	(479)
읍면지역	1.73	0.60	(208)	15.72	4.17	(208)
<i>F</i>	2.07			1.08		

*** $p < .001$.

교실 내 아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는지에 대해 78.4%의 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외 놀이 공간은 92.7%,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은 89.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교실 내 휴식 공간이나 실외 놀이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대도시 유치원의 경우 실외 놀이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III-6-8〉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특성

단위: %(명)

구분	교실 내 아동 휴식 공간			실외 놀이 공간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없다	있다	계(수)	없다	있다	계(수)	없다	있다	계(수)
전체	21.6	78.4	1000(1215)	7.3	92.7	1000(1215)	10.7	89.3	1000(1215)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29.3	70.7	1000(695)	3.1	96.9	1000(695)	9.2	90.8	1000(695)
어린이집	6.6	93.4	1000(468)	7.6	92.4	1000(468)	13.3	86.7	1000(468)
반일제 이상	54.4	45.6	1000(52)	55.9	44.1	1000(52)	6.1	93.9	1000(52)
$\chi^2(df)$	117.72(2) ^{***}			221.45(2) ^{***}			3.82(2)		
지역 규모									
대도시	23.6	76.4	1000(528)	11.4	88.6	1000(528)	12.4	87.6	1000(528)
중소도시	22.1	77.9	1000(479)	5.2	94.8	1000(479)	9.3	90.7	1000(479)
읍면지역	15.5	84.5	1000(208)	1.9	98.1	1000(208)	9.3	90.7	1000(208)
$\chi^2(df)$	1.67(2)			23.77(2) ^{***}			6.82(2) [*]		

* $p < .05$, *** $p < .001$.

기관의 공간 크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크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교실과 교실 외 공간(화장실, 복도, 유희실 등)에 대해서는 4점 정도로 대체로 크기가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크기 적절성

단위: 점(명)

구분	교실 크기			교실 외 기타 공간 크기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01	1.03	(1,215)	4.04	0.91	(1,215)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4.02	0.98	(695)	3.97	0.95	(695)
어린이집	3.99	1.09	(468)	4.13	0.86	(468)
반일제 이상	4.06	1.06	(52)	4.07	0.87	(52)
<i>F</i>		0.84			1.81	
지역 규모						
대도시	4.01	1.06	(528)	3.96	0.96	(528)
중소도시	3.99	1.01	(479)	4.07	0.86	(479)
읍면지역	4.06	0.97	(208)	4.15	0.90	(208)
<i>F</i>		0.50			1.86	

다. 교사 특성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의 담당교사에게 개인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59.7%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연령대 분포는 기관 유형과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III-6-10〉 교사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				
	여	남	계(수)	20대	30대	40대	50대	계(수)
전체	99.7	0.3	1000(1,214)	59.7	28.4	10.5	1.4	1000(1,214)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00.0	0.0	1000(695)	72.2	18.2	8.2	1.4	1000(695)
어린이집	99.5	0.5	1000(467)	43.9	42.7	12.2	1.2	1000(467)
반일제 이상	98.5	1.5	1000(52)	39.3	33.0	24.6	3.0	1000(52)
$\chi^2(df)$	-			104.06(6)***				

(표 III-6-10 계속)

구분	성별			연령				
	여	남	계(수)	20대	30대	40대	50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99.5	0.5	100(528)	63.5	27.7	8.1	0.7	100(528)
중소도시	100.0	0.0	100(478)	61.4	25.6	10.6	2.4	100(478)
읍면지역	99.6	0.4	100(208)	46.1	36.6	16.4	1.0	100(208)
$\chi^2(df)$	-			35.13(6)***				

*** $p < .001$.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중에는 육아지원기관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다는 응답이 0.8%가 있었고, 그 외에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가 48.5%,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가 49.7%, 초중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1.0%로 나타났다. 교사로서의 총 경력은 평균 80.53개월이었다. 아동의 담임을 맡아서 교사로 근무한 총 기간은 평균 51.22개월이었다.

〈표 III-6-11〉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및 경력

단위: %, 개월(명)

구분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교사의 경력		아동의 담임기간	
	없음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초중등 교사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8	48.5	49.7	1.0	100(1,872)	80.53	67.40 (1,192)	51.22	14.04 (1,185)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2	60.3	38.8	0.7	100(1,137)	78.96	77.05 (681)	50.19 ^a	15.25 (679)
어린이집	-	29.9	68.9	1.2	100(665)	82.57	53.15 (459)	52.18 ^{ab}	12.53 (457)
반일제 이상	17.5	39.4	40.2	3.0	100(70)	82.26	45.19 (52)	55.84 ^b	7.47 (49)
$\chi^2(df)/F$	-					0.54		4.47 [*]	
지역 규모									
대도시	1.2	48.9	48.8	1.1	100(830)	71.41 ^a	50.17 (522)	50.60	14.68 (511)
중소도시	0.6	50.1	48.7	0.5	100(734)	84.39 ^b	77.13 (465)	51.06	14.54 (467)
읍면지역	0.1	43.7	54.4	1.7	100(308)	95.05 ^c	77.92 (205)	53.11	10.67 (207)
$\chi^2(df)/F$	-					15.40***		1.71	

* $p < .05$, *** $p < .001$.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46.0%, 대학 졸업자가 37.7%이었으며, 그 외에 대학원 졸업자, 대학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 고졸, 대학원 재학생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12〉 교사의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계(수)
전체	2.9	3.4	46.0	3.6	37.7	2.0	4.3	100.0(1,214)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0	1.5	47.7	3.6	38.0	2.8	6.5	100.0(695)
어린이집	7.0	6.2	44.4	3.4	36.9	1.1	1.0	100.0(467)
반일제 이상	3.6	3.9	38.4	6.3	41.9	0.0	5.9	100.0(52)
$\chi^2(df)$	-							
지역 규모								
대도시	2.5	3.3	43.8	4.6	40.7	1.8	3.3	100.0(528)
중소도시	2.5	3.6	51.3	2.3	34.7	1.2	4.3	100.0(478)
읍면지역	5.0	3.3	39.1	4.2	37.2	4.5	6.7	100.0(208)
$\chi^2(df)$	26747.58(12)***							

*** $p < .001$.

최종학력이 전문대 재학 이상인 교사 응답자 중에서 유아교육 전공생이 7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학 6.6%, 사회복지학 4.6%, 보육학 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13〉 교사의 전공

단위: %(명)

구분	유아 교육	보육학	아동학	가정학	간호학	사회 복지학	교육학	예체능 계열	기타	계(수)
전체	77.3	4.3	6.6	0.8	0.1	4.6	1.2	1.8	3.5	100.0(1,186)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7.0	0.5	1.9	0.0	0.1	0.0	0.0	0.1	0.3	100.0(695)
어린이집	50.2	9.8	13.8	1.7	0.0	12.1	2.0	4.4	6.0	100.0(440)
반일제 이상	47.5	6.3	7.8	2.4	0.0	1.8	9.3	1.6	23.3	100.0(51)
지역 규모										
대도시	77.2	4.0	6.3	0.2	0.0	4.3	0.8	2.1	4.9	100.0(519)
중소도시	79.8	4.3	5.9	1.3	0.2	3.7	1.1	1.4	2.3	100.0(467)
읍면지역	71.7	4.9	8.9	0.8	0.0	7.4	2.1	1.8	2.5	100.0(200)

교사들은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14시간이었으며, 유치원 교사가 10.42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교사가 9.86시간, 반일제 이상 학원 교사는 8.73시간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주말 평균 1.00일을 근무하며, 주말에는 평균 5.65시간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말

근무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대도시 유치원의 주말 근무일이 많았다.

〈표 III-6-14〉 교사 근무시간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주말 근무일			주말 1일 평균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0.14	1.49	(1,214)	1.00	1.27	(1,214)	5.65	1.86	(726)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0.42 ^a	1.59	(695)	1.06 ^a	1.17	(695)	5.68	1.98	(440)
어린이집	9.86 ^b	1.26	(467)	0.96 ^{ab}	1.38	(467)	5.59	1.66	(273)
반일제 이상	8.73 ^c	1.35	(52)	0.59 ^b	1.33	(52)	5.85	2.06	(13)
<i>F</i>	40.74 ^{***}			5.89 ^{**}			1.11		
지역 규모									
대도시	10.19	1.42	(528)	1.13 ^a	1.37	(528)	5.65	1.69	(353)
중소도시	10.15	1.63	(478)	0.90 ^b	1.14	(478)	5.79	2.11	(266)
읍면지역	9.99	1.84	(208)	0.91 ^b	1.27	(208)	5.31	1.70	(107)
<i>F</i>	2.14			7.91 ^{***}			0.53		

** $p < .01$, *** $p < .001$.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정도를 질문하기 위해 5점 척도의 7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교수 효능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5점 척도의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아동과 상호작용 정도가 평균 4.25점으로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6-15〉 교사의 교수 특성

단위: 개월, 점(명)

구분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4	0.46	(1,214)	4.25	0.47	(1,214)
아동 출생순위						
첫째	3.86	0.48	(561)	4.24	0.48	(561)
둘째	3.81	0.45	(516)	4.23	0.47	(516)
셋째 이상	3.90	0.43	(137)	4.33	0.45	(137)
<i>F</i>	3.31 [*]			3.09 [*]		

(표 III-6-15 계속)

구분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3.83	0.47	(695)	4.28 ^a	0.46	(695)
어린이집	3.85	0.46	(467)	4.20 ^b	0.48	(467)
반일제 이상	3.94	0.41	(52)	4.21 ^{ab}	0.43	(52)
<i>F</i>		1.02			3.35 [*]	
지역 규모						
대도시	3.84	0.44	(528)	4.25	0.45	(528)
중소도시	3.85	0.49	(478)	4.25	0.50	(478)
읍면지역	3.84	0.46	(208)	4.22	0.46	(208)
<i>F</i>		0.08			0.32	

* $p < .05$.

라. 특별활동 특성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과 기관 외 특별활동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관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기관의 담당교사 1,215명으로부터, 육아지원기관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활동은 어머니 271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어 조사하였다.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은 87.5%의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여부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여부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계(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계(수)
전체	12.5	87.5	(1,215)	1.5	98.5	(271)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7.6	82.4	(695)	2.09	98.0	(162)
어린이집	5.2	94.8	(468)	0.7	99.3	(96)
반일제 이상	12.2	87.8	(52)	0.0	100.0	(12)
$\chi^2(df)$		29.94(2) ^{***}			-	
지역 규모						
대도시	14.4	85.6	(528)	2.0	98.0	(115)
중소도시	12.3	87.7	(479)	1.6	98.4	(105)
읍면지역	8.3	91.7	(208)	0.0	100.0	(51)
$\chi^2(df)$		3.01(2)			-	

*** $p < .001$.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94.8%가 특별활동을 이용하였고,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는 87.8%, 유치원에서는 82.4% 순이었다. 기관 외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98.5%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II-6-16 참조).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교구관련, 과학, 국어, 수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외에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국어, 미술, 수학, 체육, 영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기관 내	기관 외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10.9	16.5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11.6	4.2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18.7	14.5
과학	7.9	2.1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5.5	15.8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6.6	23.2
컴퓨터	0.2	-
교구 이용 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8.7	4.6
한자	2.0	3.5
영어	19.4	10.9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1.7	0.4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2.8	3.6
통합프로그램	4.2	0.6
계(수)	100.0(1,076)	100.0(267)

교사들은 아동이 일주일간 평균 7.66회, 198.57분 동안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들은 아동이 기관 외에서 평균 2.92회, 42.73분 동안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기관 내 이용시간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가장 길었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표 III-6-17〉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및 시간

구분	단위: 회, 분(명)					
	기관 내 특별활동			기관 외 특별활동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횟수(회)	7.66	6.13	(1,076)	2.92	1.85	(267)

(표 III-6-17 계속)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기관 외 특별활동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7.86	5.87	(588)	2.81	1.84	(159)
어린이집	7.28	6.17	(444)	3.01	1.86	(95)
반일제 이상	8.81	8.25	(44)	4.02	1.38	(12)
<i>F</i>		2.92			1.43	
시간(분)	198.57	168.80	(1,076)	42.73	20.48	(26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214.62 ^a	182.02	(588)	43.92 ^{ab}	22.46	(159)
어린이집	166.62 ^b	117.63	(444)	39.12 ^a	14.97	(95)
반일제 이상	305.54 ^c	291.87	(44)	57.15 ^b	22.49	(12)
<i>F</i>		22.260 ^{***}			4.675 [*]	

* $p < .05$, *** $p < .001$.

어머니들은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평균 103.89천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18〉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i>t/F</i>
전체	103.89	93.80	100.0(267)	-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9.93	104.62	100.0(153)	1.08
둘째	98.68	71.54	100.0(94)	
셋째 이상	78.71	78.08	100.0(20)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11.93	99.21	100.0(159)	2.42
어린이집	87.47	79.04	100.0(95)	
반일제 이상	127.42	113.47	100.0(12)	
모 취업여부				
취업	106.90	96.71	100.0(126)	0.24
미취업	104.48	93.14	100.0(135)	
모 학력				
고졸이하	101.13	80.28	100.0(53)	0.90
전문대졸	107.57	90.89	100.0(84)	
대졸이상	104.02	100.91	100.0(126)	

(표 III-6-18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t/F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99.92	81.00	100.0(65)	1.53
301~499만원	100.37	92.88	100.0(88)	
500만원 이상	111.43	102.77	100.0(110)	
지역 규모				
대도시	94.21	95.70	100.0(113)	1.21
중소도시	115.23	87.79	100.0(103)	
읍면지역	106.31	97.02	100.0(51)	

마. 소결

만 5세 시점에서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이 절반 이상 이었고, 어린이집도 38.9%, 반일제 이상의 학원은 4.0%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중 국공립 기관의 비율은 20.0% 내외였으며, 기관 평가·인증 여부는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관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16.18명이었으며, 교사들은 학급아동 수나 기관 내 공간크기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담당교사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치원은 20대 연령이, 어린이집이나 학원은 20~30대 교사가 많았다. 교사들은 대부분 보육·교육 전공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교사들의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내외였으며, 월 평균 1일, 5.65시간 정도 주말근무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근무시간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기관 내·외 특별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은 기관 외에 특별활동에 비해 주당 이용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평균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 5세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고,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아동, 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7. 지역사회 특성

가. 거주 유형

패널 가정의 거주 지역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지역 거주 비율이 7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택 거주 비율이 21.0%로 높았다. 거주 지역에 대한 각 독립변인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미취업모일수록, 모학력/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아파트 거주율이 높았다.

〈표 III-7-1〉 거주 유형

단위: %(명)						
구분	주택	아파트	상가·회사	공장(단)	농산·어촌	기타
전체	21.0	72.0	2.3	0.5	3.8	0.4
모 취업여부						
취업	23.9	69.3	2.6	0.3	4.0	0.0
미취업	18.5	74.3	2.1	0.7	3.6	0.8
모 학력						
고졸이하	29.3	60.3	2.8	0.8	6.4	0.4
전문대졸	20.2	73.5	2.1	0.5	3.3	0.5
대졸이상	15.5	79.5	2.0	0.3	2.3	0.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6.5	62.9	2.3	1.2	6.3	0.8
301~499만원	19.8	74.7	1.7	0.0	3.6	0.2
500만원 이상	17.2	78.1	2.7	0.4	1.4	0.4
지역 규모						
대도시	27.9	68.3	2.0	0.6	1.1	0.2
중소도시	17.1	78.9	2.7	0.6	0.2	0.5
읍면지역	14.0	64.7	2.1	0.0	18.2	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패널 아동의 출산 후 이사 횟수를 살펴보면, 출산 후 이사를 한 번 한 경우가 38.0%로 가장 많았다.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의 26.8%였으며, 두 번 한 경우가 23.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24회 이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2〉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단위: %(명), 번

0	1	2	3	4	5	6	8	10	계(수)	평균
26.8	38.0	23.2	9.2	2.4	0.2	0.1	0.0	0.0	100.0(1,662)	1.24

나. 육아 인프라

지역사회의 육아 인프라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1) 보육·교육 기관(3개), (2) 공공여가 시설(3개), (3) 문화시설(6개)의 충분성과 실제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1) 보육·교육기관 충분성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기관의 충분성에 대해 3개 기관 인프라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충분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국공립기관 20.0%, 민간기관 33.2%, 사교육기관 26.0%로 나타났다. 국공립기관이 불충분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육기관을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민간 보·교육기관에 대한 불충분 의견은 적었다.

〈표 III-7-3〉 보육·교육 기관 충분성(전체)

단위: %(명), 번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육아지원기관	14.5	30.9	34.5	16.1	3.9	100.0(1,610)	2.64	1.04
민간 육아지원기관	6.7	17.7	42.5	27.6	5.6	100.0(1,610)	3.08	0.97
사교육기관	12.8	25.7	35.5	20.6	5.4	100.0(1,610)	2.80	1.07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불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30.9%로 그 다음이었다.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는 답은 20.0%로, 상대적으로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많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달랐는데 취업모인 경우가 미취업보다, 중소도시인 경우 읍면지역보다 국공립 보·교육 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4〉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5	30.9	34.5	16.1	3.9	100.0(1,610)	2.64	1.04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1.7	32.2	33.4	17.7	5.1	100.0(921)	2.72 ^a	1.05
어린이집	18.3	30.4	35.1	14.2	2.1	100.0(619)	2.51 ^b	1.01
반일제 이상	16.7	18.4	46.0	13.1	5.7	100.0(63)	2.73	1.07
$\chi^2(df)/F$	23.19(8) ^{**}						5.60 ^{**}	
모 취업여부								
취업	11.8	28.7	38.1	17.1	4.3	100.0(698)	2.73	1.01
미취업	16.7	31.9	32.5	15.4	3.5	100.0(894)	2.57	1.05
$\chi^2(df)/t$	6.31(4)						2.08 [*]	
모 학력								
고졸이하	20.4	26.7	35.4	14.4	3.1	100.0(468)	2.53	1.06
전문대졸	16.1	31.1	31.7	17.8	3.4	100.0(430)	2.61	1.06
대졸이상	10.1	32.6	36.0	16.4	4.8	100.0(698)	2.73	1.01
$\chi^2(df)/F$	18.06(8) [*]						2.9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5	31.3	34.3	15.2	2.7	100.0(519)	2.56	1.02
301~499만원	16.2	31.9	33.7	13.9	4.3	100.0(520)	2.58	1.05
500만원 이상	11.3	29.6	35.5	18.9	4.7	100.0(563)	2.76	1.03
$\chi^2(df)/F$	7.22(8)						2.77	
지역 규모								
대도시	17.1	33.0	31.2	14.0	4.7	100.0(661)	2.56	1.07
중소도시	10.3	28.7	39.0	18.3	3.7	100.0(659)	2.76 ^a	0.99
읍면지역	18.2	31.3	32.1	15.7	2.6	100.0(290)	2.53 ^b	1.04
$\chi^2(df)/F$	19.64(8) [*]						5.19 ^{***}	

* $p < .05$, ** $p < .01$, *** $p < .001$.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민간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는 긍정응답은 33.2%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2.5%로 가장 많았다.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에 대한 평균이 3.13으로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인 경우 민간 육아지원기관이 가장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5〉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7.7	42.5	27.6	5.6	100.0(1,610)	3.08	0.9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5.3	18.2	41.3	28.3	6.9	100.0(922)	3.13 ^a	0.97
어린이집	8.7	17.2	43.3	27.4	3.4	100.0(618)	3.00 ^b	0.96
반일제 이상	5.2	14.8	51.5	20.3	8.2	100.0(63)	3.11	0.93
$\chi^2(df)/F$	17.38(8) [*]						3.34 [*]	
모 취업여부								
취업	6.1	17.5	41.5	29.9	5.0	100.0(698)	3.10	0.95
미취업	7.2	17.7	43.2	25.9	6.0	100.0(894)	3.06	0.98
$\chi^2(df)/t$	1.98(4)						0.67	
모 학력								
고졸이하	9.0	16.1	45.7	25.1	4.1	100.0(469)	2.99 ^a	0.97
전문대졸	7.0	19.3	35.9	32.7	5.1	100.0(430)	3.10	1.00
대졸이상	5.1	17.3	44.0	26.6	6.9	100.0(697)	3.13 ^b	0.95
$\chi^2(df)/F$	17.53(8) [*]						4.16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0	17.1	43.5	26.4	4.9	100.0(518)	3.03	0.98
301~499만원	5.7	20.6	43.5	24.7	5.4	100.0(520)	3.04	0.95
500만원 이상	6.4	15.3	40.5	31.4	6.4	100.0(564)	3.16	0.98
$\chi^2(df)/F$	9.55(8)						1.42	
지역 규모								
대도시	8.5	17.0	43.9	24.7	5.8	100.0(660)	3.02 ^a	1.00
중소도시	3.4	14.6	43.6	32.6	5.8	100.0(659)	3.23 ^b	0.89
읍면지역	9.9	26.2	36.6	22.7	4.6	100.0(291)	2.86 ^c	1.02
$\chi^2(df)/F$	43.30(8) ^{***}						16.34 ^{***}	

* $p < .05$, *** $p < .001$.

지역 내 사교육기관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5.5%, 충분하다 26.0%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 차이분석 실시 결과, 취업모의 경우 평균 2.86점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사교육기관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좀 더 많았으며,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서는 중소도시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표 III-7-6〉 사교육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교육기관	12.8	25.7	35.5	20.6	5.4	100.0(1,610)	2.80	1.0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0.6	23.4	36.8	22.5	6.7	100.0(921)	2.91 ^a	1.07
어린이집	16.4	30.3	33.1	17.3	2.9	100.0(619)	2.60 ^b	1.04
반일제 이상	6.7	15.4	38.7	26.9	12.2	100.0(63)	3.22 ^c	1.06
$\chi^2(df)/F$				37.86(8) ^{***}			18.10 ^{***}	
모 취업여부								
취업	11.1	25.8	34.9	22.7	5.6	100.0(698)	2.86	1.06
미취업	14.1	25.7	35.9	19.0	5.3	100.0(894)	2.76	1.08
$\chi^2(df)/t$				6.62(4)			2.48 [*]	
모 학력								
고졸이하	19.0	29.1	34.3	14.5	3.2	100.0(468)	2.54 ^a	1.05
전문대졸	12.7	25.4	33.5	24.2	4.2	100.0(430)	2.82 ^b	1.07
대졸이상	8.8	23.7	37.1	22.7	7.7	100.0(698)	2.97 ^c	1.06
$\chi^2(df)/F$				51.53(8) ^{***}			22.52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6	28.2	36.0	15.9	3.3	100.0(519)	2.61 ^a	1.04
301~499만원	12.0	27.9	35.5	20.0	4.6	100.0(520)	2.77 ^a	1.04
500만원 이상	10.0	21.2	35.1	25.4	8.2	100.0(563)	3.01 ^b	1.09
$\chi^2(df)/F$				33.84(8) ^{***}			14.76 ^{***}	
지역 규모								
대도시	11.0	26.5	36.0	19.9	6.6	100.0(661)	2.85 ^a	1.07
중소도시	8.9	19.3	40.4	25.8	5.6	100.0(659)	3.00 ^a	1.01
읍면지역	25.6	38.4	23.0	10.7	2.3	100.0(290)	2.26 ^b	1.03
$\chi^2(df)/F$				119.17(8) ^{***}			49.14 ^{***}	

* $p < .05$, *** $p < .001$.

2)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거주 동네의 공공 ‘여가’ 공간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모두 ‘편리하다’는 긍정응답이 39.2%~47.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용편리성이 평균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특성 상, ‘놀이터’ 이용에 대한 편리성 인식과 실제 이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7-7〉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놀이터	10.3	14.6	27.1	34.0	13.9	1000(1,613)	3.27	1.18	10.10
공원	13.3	20.7	26.8	28.8	10.4	1000(1,612)	3.02	1.20	3.87
산책로	12.4	19.5	28.0	30.2	9.9	1000(1,612)	3.06	1.18	3.67

놀이터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7.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놀이터 편리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월 평균 놀이터 이용 일수는 10.10일로, 미취업모인 경우,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301~499만원일수록, 도시지역일수록 놀이터 이용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8〉 놀이터 이용 편리성 및 평균 이용 일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놀이터	10.3	14.6	27.1	34.0	13.9	1000(1,613)	3.27	1.18	10.10
모 취업여부									
취업	10.5	15.1	26.6	35.6	12.1	100.0(699)	3.24	1.17	9.18
미취업	10.2	14.3	26.7	33.2	15.5	100.0(896)	3.29	1.19	10.82
$\chi^2(df)/t$				4.52(4)				-0.45	-3.30**
모 학력									
고졸이하	16.2	18.1	28.5	26.1	11.1	100.0(470)	2.98 ^a	1.24	8.97 ^a
전문대졸	11.2	17.7	24.5	34.9	11.7	100.0(430)	3.18 ^b	1.19	9.68 ^a
대졸이상	5.5	10.7	27.8	38.7	17.3	100.0(699)	3.51 ^c	1.07	11.13 ^b
$\chi^2(df)/F$				70.51(8)***				34.53***	10.1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6	28.2	36.0	15.9	3.3	100.0(520)	3.10 ^a	1.21	9.99
301~499만원	12.0	27.9	35.5	20.0	4.6	100.0(520)	3.25 ^b	1.20	10.26
500만원 이상	10.0	21.2	35.1	25.4	8.2	100.0(565)	3.43 ^b	1.10	10.03
$\chi^2(df)/F$				29.36(8)***				11.46***	0.69
지역 규모									
대도시	10.7	15.9	26.9	34.2	12.3	100.0(661)	3.21 ^a	1.17	10.41 ^a
중소도시	6.1	11.9	26.8	38.3	16.9	100.0(660)	3.48 ^b	1.09	10.42 ^a
읍면지역	18.6	17.8	28.5	24.0	11.1	100.0(292)	2.91 ^c	1.26	8.69 ^b
$\chi^2(df)/F$				59.60(8)***				24.58***	7.76***

** $p < .01$, *** $p < .001$.

모 학력 고졸 이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놀이터 이용일이 적었다(표 III-7-8 참조).

공원 이용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6.8%로 뒤를 이었다. 평균을 기준으로, 공원 이용의 편리성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 평균 공원 이용 일수는 3.87일로, 모 학력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공원 이용 일수가 많았으며, 지역규모 기준으로는 중소도시 가구의 공원 이용일이 4.33일로 가장 많았다.

〈표 III-7-9〉 공원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공원	13.3	20.7	26.8	28.8	10.4	100.0(1,612)	3.02	1.20	3.87
모 취업여부									
취업	12.6	18.1	28.7	31.3	9.3	100.0(699)	3.07	1.17	3.71
미취업	14.1	22.3	25.1	27.0	11.4	100.0(895)	2.99	1.23	4.04
$\chi^2(df)/t$			5.73(4)					1.55	-0.38
모 학력*									
고졸이하	20.1	23.5	29.0	20.3	7.1	100.0(470)	2.71 ^a	1.20	3.09 ^a
전문대졸	16.7	22.8	26.4	26.9	7.2	100.0(429)	2.71 ^a	1.20	3.81 ^a
대졸이상	6.6	17.7	25.7	35.6	14.4	100.0(699)	2.71 ^b	1.20	4.42 ^b
$\chi^2(df)/F$			81.96(8) ^{***}					40.83 ^{***}	11.9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7.4	22.0	29.3	22.1	9.3	100.0(520)	2.84 ^a	1.22	4.01
301~499만원	14.0	22.3	24.9	30.3	8.6	100.0(519)	2.97 ^a	1.19	3.95
500만원 이상	9.1	17.8	26.3	33.6	13.3	100.0(565)	3.24 ^b	1.16	3.66
$\chi^2(df)/F$			41.77(8) ^{***}					17.96 ^{***}	0.09
지역 규모									
대도시	14.4	20.8	28.2	27.5	9.1	100.0(661)	2.96 ^a	1.19	3.72 ^a
중소도시	8.0	17.0	27.9	34.7	12.4	100.0(659)	3.26 ^b	1.12	4.33 ^b
읍면지역	22.5	28.9	21.1	18.5	9.0	100.0(292)	2.63 ^c	1.26	3.20 ^a
$\chi^2(df)/F$			60.47(8) ^{***}					26.40 ^{***}	8.10 ^{***}

*** $p < .001$.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산책로 이용 편리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 30.2%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8.0%로 그 다음이다. 차이검증 결과,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책로 이용의 편리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 거주자가 산책로 이용의 편리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산책로 월 평균 이용 일수는 전체 3.67일로 나타났으며,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평균 4.41일로 가장 많았다.

〈표 III-7-10〉 산책로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산책로	12.4	19.5	28.0	30.2	9.9	100.0(1,612)	3.06	1.18	3.67
모 취업여부									
취업	10.2	17.5	30.9	31.6	9.8	100.0(699)	3.14	1.13	3.41
미취업	14.2	20.6	26.0	29.1	10.1	100.0(895)	3.00	1.21	3.91
$\chi^2(df)/t$	6.79(4)						1.92		-1.12
모 학력									
고졸이하	18.2	24.0	31.0	20.0	6.7	100.0(470)	2.73 ^a	1.17	2.74 ^a
전문대졸	16.1	20.0	28.0	28.7	7.2	100.0(429)	2.91 ^a	1.19	3.46 ^a
대졸이상	6.4	16.1	26.3	37.5	13.6	100.0(699)	3.36 ^b	1.10	4.41 ^b
$\chi^2(df)/F$	83.75(8) ^{***}						38.61 ^{***}		13.86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7.0	24.6	28.3	22.8	7.3	100.0(520)	2.79 ^a	1.18	3.38
301~499만원	13.5	19.2	24.7	33.9	8.7	100.0(519)	3.05 ^b	1.19	3.85
500만원 이상	7.3	14.7	31.0	33.6	13.3	100.0(565)	3.31 ^c	1.10	3.74
$\chi^2(df)/F$	67.11(8) ^{***}						29.81 ^{***}		1.92
지역 규모									
대도시	13.7	19.0	30.0	29.4	7.9	100.0(661)	2.99 ^a	1.16	3.40
중소도시	7.0	18.9	27.1	35.3	11.7	100.0(659)	3.26 ^b	1.11	3.86
읍면지역	21.6	22.0	25.6	20.5	10.4	100.0(292)	2.76 ^c	1.28	3.86
$\chi^2(df)/F$	51.60(8) ^{***}						15.86 ^{***}		0.49

*** $p < .001$.

3)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유아가구의 이용이 편리한지 조사하였다. 영유아 관련 문화시설 인프라 6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60.0% 이상으로 높았다. 도서관

이용 편리성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관, 가장 낮은 것은 미술관과 공연시설로 응답되었다. 월 평균 이용일을 조사한 결과, 편리성이 높게 평가된 도서관 이용일이 월 1.7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문화시설의 경우 월 평균 이용일이 하루 미만으로 적었다.

〈표 I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전체)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 이용일
박물관 이용	32.7	30.8	23.4	10.9	2.1	100.0(1,612)	2.19	1.07	0.29
미술관 이용	37.0	31.6	21.7	7.5	2.2	100.0(1,613)	2.06	1.04	0.15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29.0	28.3	27.6	12.6	2.5	100.0(1,613)	2.31	1.09	0.38
영화관 이용	18.2	16.7	28.1	29.5	7.5	100.0(1,612)	2.91	1.22	0.56
장난감대여센터	32.0	32.2	24.9	9.4	1.5	100.0(1,611)	2.16	1.03	0.10
도서관이용 편리성	11.3	18.2	32.1	27.4	11.0	100.0(1,612)	3.09	1.16	1.69

박물관 이용 편리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30.8%로, 불편하다는 의견(63.5%)이 과반을 넘는다. 취업모가 박물관 이용의 편리성을 평균 2.29점으로 더 높게 지각했다.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박물관 이용 편리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가구의 박물관 이용 편리성이 가장 낮았다. 실제 박물관을 다녀오는 월 평균 이용 일을 살펴본 결과, 한 달에 평균 0.29일 박물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 대졸 이상, 대도시지역에서 박물관 이용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7-12〉 박물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박물관 이용	32.7	30.8	23.4	10.9	2.1	100.0(1,612)	2.19	1.07	0.29
모 취업여부									
취업	28.2	32.1	24.6	12.9	2.2	100.0(699)	2.29	1.08	0.27
미취업	36.1	29.8	22.8	9.2	2.0	100.0(895)	2.11	1.06	0.31
$\chi^2(df)/t$			19.11(4) ^{**}				3.54 ^{***}		-0.98

(표 III-7-12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모 학력									
고졸이하	43.0	29.9	19.8	6.0	1.3	100.0(470)	1.93 ^a	0.99	0.17 ^a
전문대졸	38.2	32.7	19.8	8.3	1.0	100.0(429)	2.01 ^a	1.00	0.31
대졸이상	22.6	30.4	28.1	15.7	3.3	100.0(699)	2.47 ^b	1.10	0.36 ^b
$\chi^2(df)/F$			76.40(8) ^{***}				38.18 ^{***}		8.4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5	31.3	21.3	6.3	1.6	100.0(520)	1.99 ^a	1.00	0.30
301~499만원	33.0	31.9	24.5	8.9	1.7	100.0(519)	2.14 ^b	1.03	0.30
500만원 이상	26.0	29.2	24.6	17.1	3.0	100.0(565)	2.42 ^c	1.13	0.28
$\chi^2(df)/F$			44.69(8) ^{***}				18.55 ^{***}		0.08
지역 규모									
대도시	30.9	31.4	25.4	9.7	2.7	100.0(660)	2.22 ^a	1.07	0.33 ^a
중소도시	25.7	32.0	25.6	14.4	2.2	100.0(660)	2.36 ^a	1.08	0.31
읍면지역	52.4	27.2	13.9	6.0	0.5	100.0(292)	1.75 ^b	0.94	0.17 ^b
$\chi^2(df)/F$			65.45(8) ^{***}				28.22 ^{***}		3.50 [*]

* $p < .05$, ** $p < .01$, *** $p < .001$.

미술관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도 이용이 불편하다(매우+불편한 편)는 응답이 68.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모 취업과 모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취업모가 미술과 이용의 편리성을 미취업모에 비해 평균 2.12점으로 높게 지각했고,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지역에서 미술관 이용 편리성을 높게 지각했다. 읍면지역에서 평균 1.57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월 평균 미술관 이용 일수는 전체 0.15일로, 이는 모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평균 0.20일로 미술관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3〉 미술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미술관 이용	37.0	31.6	21.7	7.5	2.2	100.0(1,613)	2.06	1.04	0.15
모 취업여부									
취업	33.9	32.7	23.7	7.3	2.5	100.0(699)	2.12	1.04	0.13
미취업	39.3	30.8	20.4	7.5	2.0	100.0(896)	2.02	1.04	0.16
$\chi^2(df)/t$			9.07(4)				2.17 [*]		-0.33

(표 III-7-13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일
모 학력									
고졸이하	45.8	31.6	18.9	3.2	0.5	100.0(470)	1.81 ^a	0.89	0.10 ^a
전문대졸	43.4	32.6	17.3	5.4	1.2	100.0(430)	1.88 ^a	0.96	0.11 ^a
대졸이상	27.2	31.2	26.2	11.6	3.8	100.0(699)	2.34 ^b	1.11	0.20 ^b
$\chi^2(df)/F$			74.195(8) ^{***}				37.79 ^{***}		11.19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4.0	33.7	16.5	4.6	1.1	100.0(520)	1.85 ^a	0.93	0.12
301~499만원	38.0	32.3	22.4	5.6	1.7	100.0(520)	2.01 ^a	0.99	0.15
500만원 이상	29.4	28.8	26.1	12.1	3.6	100.0(565)	2.32 ^b	1.12	0.17
$\chi^2(df)/F$			46.32(8) ^{***}				20.17 ^{***}		0.94
지역 규모									
대도시	34.1	32.2	24.1	7.0	2.6	100.0(661)	2.12 ^a	1.04	0.16
중소도시	29.6	32.7	24.9	10.6	2.1	100.0(660)	2.23 ^a	1.05	0.15
읍면지역	59.7	27.8	9.3	2.0	1.1	100.0(292)	1.57 ^b	0.83	0.11
$\chi^2(df)/F$			96.94(8) ^{***}				43.81 ^{***}		2.29

* $p < .05$, *** $p < .001$.

세 번째,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연 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28.3%로 대체로 공연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57.3%)이 과반 이상으로 많이 나타났다. 취업모가, 모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연시설 편리성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모 학력 기준 대졸이상인 경우와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 편리성을 가장 높게 지각했다. 읍면 지역에서 공연시설 이용 편리성 평균 점수(1.73점)가 가장 낮았다. 월 평균 공연시설 이용 일수는 0.38일이었고, 모 학력 대졸 이상과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표 III-7-14〉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일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29.0	28.3	27.6	12.6	2.5	100.0(1,613)	2.31	1.09	0.38
모 취업여부									
취업	24.9	30.3	29.3	12.9	2.7	100.0(699)	2.38	1.07	0.35
미취업	31.7	26.9	27.0	12.1	2.3	100.0(896)	2.26	1.10	0.40
$\chi^2(df)/t$			9.64(4) [*]				2.50 [*]		-1.12

(표 III-7-14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함	보통임	편리한 편함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일
모 학력									
고졸이하	36.3	30.2	25.4	6.6	1.4	100.0(470)	2.06 ^a	1.00	0.24 ^a
전문대졸	33.0	29.8	28.4	8.1	0.6	100.0(430)	2.13 ^a	0.99	0.35 ^a
대졸이상	21.6	26.1	28.9	19.2	4.2	100.0(699)	2.58 ^b	1.14	0.49 ^b
$\chi^2(df)/F$	81.44(8) ^{***}						37.16 ^{***}		14.3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6.4	29.4	23.0	9.3	1.9	100.0(520)	2.11 ^a	1.06	0.31
301~499만원	30.1	29.5	29.2	9.8	1.4	100.0(520)	2.23 ^a	1.03	0.38
500만원 이상	20.8	26.1	30.6	18.5	3.9	100.0(565)	2.59 ^b	1.12	0.44
$\chi^2(df)/F$	47.27(8) ^{***}						21.37 ^{***}		3.31 [*]
지역 규모									
대도시	26.3	27.6	30.1	13.7	2.4	100.0(661)	2.38 ^a	1.09	0.42
중소도시	22.3	28.4	29.6	16.1	3.6	100.0(660)	2.50 ^a	1.11	0.39
읍면지역	49.9	29.7	17.7	2.4	0.2	100.0(292)	1.73 ^b	0.85	0.26
$\chi^2(df)/F$	92.96(8) ^{***}						45.79 ^{***}		1.73

* $p < .05$, *** $p < .001$.

영화관 이용 편리성의 경우 ‘편리하다’ 37.0%, ‘불편하다’ 34.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인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영화관 이용의 편리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이용 편리성을 높게 지각했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에서 평균 2.06점으로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월 평균 영화관 이용일은 전체 평균이 0.56일로, 모 학력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표 III-7-15〉 영화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함	보통임	편리한 편함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일
영화관 이용	18.2	16.7	28.1	29.5	7.5	100.0(1,612)	2.91	1.22	0.56
모 취업여부									
취업	15.0	16.2	28.2	32.7	7.9	100.0(699)	3.02	1.19	0.57
미취업	20.8	17.3	27.8	26.7	7.4	100.0(895)	2.83	1.24	0.55
$\chi^2(df)/t$	19.66(4) ^{**}						4.02 ^{***}		0.24

(표 III-7-15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모 학력									
고졸이하	26.7	19.5	29.7	20.1	4.0	100.0(470)	2.55 ^a	1.19	0.48 ^a
전문대졸	19.4	18.3	28.6	29.7	4.0	100.0(430)	2.81 ^b	1.17	0.55
대졸이상	11.9	14.1	26.5	35.7	11.8	100.0(698)	3.21 ^c	1.18	0.62 ^b
$\chi^2(df)/F$	101.89(8) ^{***}						48.98 ^{***}		6.9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5.2	21.9	27.1	21.2	4.6	100.0(520)	2.58 ^a	1.20	0.43 ^a
301~499만원	17.8	16.3	29.4	30.5	6.1	100.0(519)	2.91 ^b	1.19	0.62 ^b
500만원 이상	12.2	12.2	27.7	36.4	11.4	100.0(565)	3.23 ^c	1.17	0.62 ^b
$\chi^2(df)/F$	81.32(8) ^{***}						39.46 ^{***}		7.39 ^{**}
지역 규모									
대도시	13.4	15.2	33.2	30.3	7.9	100.0(660)	3.04 ^a	1.14	0.57 ^a
중소도시	12.0	14.8	27.3	35.9	9.9	100.0(660)	3.17 ^a	1.16	0.62 ^a
읍면지역	42.7	24.4	18.5	13.1	1.2	100.0(292)	2.06 ^b	1.11	0.39 ^b
$\chi^2(df)/F$	184.70(8) ^{***}						93.86 ^{***}		9.71 ^{***}

** $p < .01$, *** $p < .001$.

장난감 대여센터의 이용 편리성의 경우, ‘불편하다’ 응답이 64.2%로 대체로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은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독립변인 별 차이검증 결과,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은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평균 2.38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 편리성을 높게 인식했고, 지역규모로는 읍면지역에서 센터 이용 편리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표 III-7-16〉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장난감대여센터	32.0	32.2	24.9	9.4	1.5	100.0(1,611)	2.16	1.03	0.10
모 취업여부									
취업	30.9	31.9	26.5	8.9	1.8	100.0(699)	2.19	1.03	0.08
미취업	33.1	32.4	24.1	9.1	1.3	100.0(894)	2.13	1.02	0.12
$\chi^2(df)/t$	4.08(4)						1.93		-0.22
모 학력									
고졸이하	38.5	32.0	23.3	5.1	1.1	100.0(470)	1.98 ^a	0.96	0.11
전문대졸	37.7	33.1	22.2	6.7	0.2	100.0(430)	1.99 ^a	0.94	0.08
대졸이상	24.5	32.0	27.4	13.5	2.6	100.0(697)	2.38 ^b	1.07	0.11
$\chi^2(df)/F$	51.87(8) ^{***}						24.67 ^{***}		0.47

(표 III-7-16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8.5	33.2	21.7	6.0	0.5	100.0(520)	1.97 ^a	0.94	0.11
301~499만원	30.4	33.5	24.2	10.6	1.2	100.0(518)	2.19 ^b	1.02	0.08
500만원 이상	27.4	29.9	28.4	11.5	2.7	100.0(565)	2.32 ^c	1.08	0.11
$\chi^2(df)/F$				38.00(8) ^{***}			16.59 ^{***}		0.50
지역 규모									
대도시	25.8	31.9	27.2	13.2	1.9	100.0(660)	2.33 ^a	1.06	0.11
중소도시	25.8	36.1	27.6	8.9	1.6	100.0(659)	2.24 ^a	0.99	0.11
읍면지역	59.8	24.1	13.7	1.9	0.5	100.0(292)	1.59 ^b	0.83	0.04
$\chi^2(df)/F$				139.87(8) ^{***}			53.43 ^{***}		1.81

*** $p < .001$.

도서관 이용의 경우, 이용의 편리성 정도가 편리하다 38.4%, 불편하다 29.5%, 보통 32.1%로 나타나, 편리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 편리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중소도시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월 평균 도서관 이용 일수는 1.69일로, 모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라 달랐는데, 모가 미취업인 경우 월 평균 방문일이 1.93일로 취업모인 경우보다 많았고, 모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1.95일로 가장 많았다.

〈표 III-7-17〉 도서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도서관이용 편리성	11.3	18.2	32.1	27.4	11.0	100.0(1,612)	3.09	1.16	1.69
모 취업여부									
취업	10.5	15.8	33.2	29.5	11.0	100.0(699)	3.15	1.14	1.37
미취업	12.0	19.8	31.6	25.4	11.2	100.0(895)	3.04	1.17	1.93
$\chi^2(df)/t$				4.58(4)			1.44		-3.66 ^{***}
모 학력									
고졸이하	18.6	21.8	34.4	18.8	6.5	100.0(470)	2.73 ^a	1.15	1.24 ^a
전문대졸	10.0	19.7	35.3	25.5	9.5	100.0(430)	3.05 ^b	1.11	1.77
대졸이상	7.6	15.1	28.7	33.6	15.0	100.0(698)	3.33 ^c	1.13	1.95 ^b
$\chi^2(df)/F$				79.84(8) ^{***}			35.43 ^{***}		7.14 ^{**}

(표 III-7-17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5.5	22.2	34.3	19.0	8.9	100.0(520)	2.84 ^a	1.17	1.60
301~499만원	10.1	16.2	32.4	29.5	11.8	100.0(519)	3.17 ^b	1.14	1.94
500만원 이상	8.5	16.3	29.7	33.2	12.2	100.0(565)	3.24 ^b	1.13	1.55
$\chi^2(df)/F$			37.10(8) ^{***}				15.11 ^{***}		0.75
지역 규모									
대도시	11.6	21.0	30.7	25.2	11.5	100.0(660)	3.04 ^a	1.18	1.64
중소도시	6.9	16.3	32.4	32.2	12.2	100.0(660)	3.27 ^b	1.09	1.81
읍면지역	20.1	16.2	34.7	21.8	7.2	100.0(292)	2.80 ^c	1.20	1.56
$\chi^2(df)/F$			58.20(8) ^{***}				21.37 ^{***}		1.01

** $p < .01$, *** $p < .001$.

4) 지역사회 안전성

지역사회 안전성에 대하여 ‘치안’과 ‘안전사고’의 두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치안 안전성 평균 3.33점, 안전사고 안전성 평균 3.16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치안’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안 안전성의 경우, 응답자의 43.4%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12.6%가 비교적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치안 안전성이 미취업모보다 높았다. 모 학력/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치안 안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 기준으로 중소도시 거주자가 지각하는 치안 안전성 평균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사고 측면에 대한 안정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36.6%로 그 뒤를 이었다. 독립변인별 평균 차이 검증 실시 결과, 취업모의 평균이 3.24점으로 미취업모의 경우보다 안전사고 측면의 안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과 가구소득은 모두 높아질수록 안전사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규모 기준으로 중소도시의 평균이 3.29점으로 안전사고 측면의 안전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표 III-7-18〉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 - 치안, 안전사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위험	비교적 위험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치안 안전성	2.0	12.6	38.7	43.4	3.3	100.0(1,613)	3.33	0.81
모 취업								
취업	1.1	11.9	36.6	46.6	3.8	100.0(699)	3.40	0.79
미취업	2.8	13.4	40.0	40.9	2.9	100.0(896)	3.28	0.83
$\chi^2(df)/t$	10.35(4)*						2.51*	
모 학력								
고졸이하	4.6	15.5	48.1	30.6	1.2	100.0(470)	3.08 ^a	0.83
전문대졸	0.9	16.1	41.2	39.6	2.3	100.0(430)	3.26 ^b	0.78
대졸이상	0.8	8.5	31.4	54.0	5.2	100.0(699)	3.54 ^c	0.76
$\chi^2(df)/F$	101.69(8)***						47.1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2	17.4	43.8	33.5	2.1	100.0(520)	3.14 ^a	0.84
301~499만원	2.1	12.1	36.9	46.4	2.5	100.0(520)	3.35 ^b	0.80
500만원 이상	0.9	8.6	35.7	49.9	4.9	100.0(565)	3.49 ^c	0.76
$\chi^2(df)/F$	45.29(8)***						21.41***	
지역규모								
대도시	2.4	14.3	41.6	37.3	4.4	100.0(661)	3.27 ^a	0.85
중소도시	1.0	10.0	34.3	51.6	3.2	100.0(660)	3.46 ^b	0.76
읍면지역	3.6	14.5	42.4	38.7	0.9	100.0(292)	3.19 ^a	0.82
$\chi^2(df)/F$	25.03(8)**						8.85***	
안전사고 안전성	3.2	17.7	40.9	36.6	1.6	100.0(1,613)	3.16	0.84

* $p < .05$, ** $p < .01$, *** $p < .001$.

다. 소결

지역사회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거주율이 72.0%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 인프라의 경우, 만 5세아 가정에서 민간 보·교육기관에 비해 국공립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 여가시설은 보통 수준의 편리성을 보인 반면, 문화시설은 불편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도서관 이용을 제외하고는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불편도가 높다. 이러한 편리성 인식은 실제 이용일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인프라 충분성의 인식과 이용일수는 모 학력/가구소득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지역규모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영유아기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환경의 조성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즉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확충과 더불어 영유아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8. 육아 정책 특성

가. 국가 지원

1) 육아지원정책 수혜율

만 5세 패널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수혜율을 조사한 결과, ‘누리과정’ 수혜율이 전체 9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수예방접종’(87.2%)과 ‘영유아건강검진’(86.2%)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서비스(10.3%)와 ‘양육수당’(7.3%)의 수혜가 응답되었다. 소득수준과 아동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 설계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그 밖에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은 낮은 수혜율을 보였다. 취약계층 대상 차등지원 설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지원의 수혜율이 11.1%로 높은 편에 속한다.

첫째,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을 지원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93.6%였으며, 하위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경우가 26.7%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일부 사례수가 적어 차이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모 학력/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둘째, ‘양육수당’의 경우 수혜율은 7.3%로 나타났으며, 첫째아일수록,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미취업모 집단에서, 모 학력 전문대졸 이상에서, 대도시지역에서 수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셋째, 만 0~5세를 대상으로 기준시간 이상에 대한 초과 보육료 지원여부를 의미하는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수혜를 조사한 결과 10.3%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간연장 보육료’ 수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셋째아일수록), 취업모인 경우가 미취업모인 경우보다, 고졸/전문대졸 가구에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많았다. 반면 모 학력 대졸이상과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 대도시지역에서의 시간연장 보육료 수혜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실제 응답에서 유치원 시간연장비용 수혜율이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른 용어와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혼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전체 1.4%가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혜는 전체 비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특이할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모 학력 대졸이상 가구와,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상에서 수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86.2%가 지원받고 있으며,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87.2%가 지원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첫째아일수록(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을수록, 대도시인 경우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인 경우보다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8-1〉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1

단위: %						
구분	누리과정	양육수당	시간연장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전체	93.6	7.3	10.3	1.4	86.2	87.2
아동 출생순위						
첫째	93.6	9.5	9.9	1.7	88.8	88.9
둘째	93.5	4.6	10.1	1.0	84.6	86.3
셋째 이상	94.0	7.3	12.5	1.4	80.4	83.1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6.4	4.6	13.1	1.1	84.7	86.6
어린이집	97.5	5.8	7.3	1.8	88.9	88.5
반일제 이상	26.7	49.4	0.0	1.1	81.1	84.8
모 취업						
취업	94.4	6.6	12.5	1.4	85.6	86.3
미취업	93.1	7.5	8.5	1.3	86.6	87.8

(표 III-8-1 계속)

구분	누리과정	양육수당	시간연장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모 학력						
고졸이하	95.6	5.0	11.6	0.5	84.6	86.4
전문대졸	93.7	8.8	11.7	0.3	90.1	87.5
대졸이상	92.7	7.2	8.7	2.6	84.9	87.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5.7	7.5	12.9	1.9	88.6	87.9
301~499만원	94.5	7.4	11.1	0.7	86.7	89.0
500만원 이상	91.2	6.8	7.2	1.6	83.4	84.8
지역규모						
대도시	93.4	8.5	8.0	1.6	89.1	92.4
중소도시	93.3	6.0	11.5	1.1	83.5	82.5
읍면지역	94.8	7.5	12.8	1.6	85.6	85.6

여섯째, 취약계층 대상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경우 11.1%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아동이 첫째아이거나 셋째아인 경우, 여아보다 남아에게, 미취업모 자녀에게,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과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받는 경우는 1.5%였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여아보다 남아, 미취업모 자녀, 모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가 읍면 지역에 거주할 경우보다 수혜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여덟째,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0.6%였다. 여아보다 남아, 첫째아의 경우, 미취업모 자녀, 어린이집 이용 가구, 모 학력 대졸이상, 가구소득 중산층(301~499만원), 읍면지역에서, 낮은 비율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이용하고 있었다. 만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0.1%가 지원받는다고 답했다. 각 독립변인별 차이검정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에 대한 수혜 여부를 살펴본 결과 0.1%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혜여부에 대한 각 독립변인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8-2〉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2

단위: %

구분	인지능력 향상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치유
전체	11.1	1.5	0.6	0.1	0.1
아동 성별					
남	12.1	2.1	0.8	0.1	0.1
여	10.1	1.0	0.3	0.1	0.0
아동 출생순위					
첫째	11.4	1.6	0.7	0.1	0.1
둘째	9.4	1.8	0.4	0.0	0.0
셋째 이상	16.2	0.5	0.3	0.3	0.0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1.7	1.7	0.4	0.1	0.1
어린이집	11.4	1.5	0.9	0.1	0.0
반일제 이상	2.9	0.0	0.0	0.0	0.0
모 취업여부					
취업	9.3	0.9	0.0	0.1	0.0
미취업	12.4	2.0	1.0	0.1	0.1
모 학력					
고졸이하	11.4	2.7	0.2	0.1	0.0
전문대졸	13.7	1.4	0.2	0.2	0.2
대졸이상	9.2	0.8	1.0	0.0	0.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4	1.7	0.5	0.0	0.0
301~499만원	12.0	2.1	0.9	0.2	0.2
500만원 이상	5.3	0.9	0.3	0.1	0.0
지역 규모					
대도시	12.1	1.6	0.8	0.1	0.0
중소도시	8.9	1.6	0.1	0.1	0.1
읍면지역	13.9	1.1	1.1	0.0	0.0

이어서, 육아지원제도 지원 내역에 대해 전액 지원, 일부 지원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및 장애아 보육·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80~90%대로 높았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및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는 일부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79.4%로 가장 많았으며,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6%로 나타났다.

〈표 III-8-3〉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해당없음	계(수)
영유아 건강검진	96.6	3.4	-	100.0(1,438)
필수예방접종	84.3	15.7	-	100.0(1,453)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20.6	79.4	-	100.0(184)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32.1	67.9	-	100.0(22)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83.4	16.6	-	100.0(7)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37.3	62.7	-	100.0(2)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0	100.0	-	100.0(1)

2) 육아지원제도 도움 정도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도에서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해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률이 각각 55.0%, 57.1%로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지원체계를 갖는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의 도움 정도도 5점 평균 4.1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그 밖에 선별적 차등지원 설계를 아이돌봄 서비스(4.54)와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4.46),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4.21)의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률도 상당히 높다.

〈표 III-8-4〉 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구분						단위: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0.2	2.2	10.8	53.5	33.2	100.0 (1,558)	4.17 (0.72)
가정양육수당 지원	4.7	5.7	33.0	45.3	11.3	100.0 (106)	3.60 (0.9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6	1.2	9.6	49.4	39.2	100.0 (166)	4.21 (0.72)
아이돌봄 서비스	0.0	5.0	10.0	30.0	55.0	100.0 (20)	4.54 (0.77)
영유아 건강검진	3.5	12.7	21.8	43.3	18.6	100.0 (1,438)	3.59 (1.05)

(표 III-8-4 계속)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표준편차)
필수예방접종	0.4	2.5	17.2	56.7	23.1	100.0 (1,453)	4.01 (0.72)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6	2.2	18.5	61.4	16.3	100.0 (184)	3.92 (0.73)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4.5	0.0	9.1	45.5	40.9	100.0 (22)	4.00 (0.85)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14.3	0.0	0.0	28.6	57.1	100.0 (7)	4.46 (1.2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50.0	0.0	50.0	0.0	0.0	100.0 (2)	1.75 (0.97)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100.0	0.0	0.0	0.0	0.0	100.0 (1)	1.00 (0.00)

3) 육아지원제도 개선 방안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한 결과, 모든 제도에서 지원비 증액 혹은 확대,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 연장형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경우 지원비 증액이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및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의 경우, 개선 방안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개선방안으로 지원확대의 응답이 3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육아지원제도 지원 정책 개선방안

구분	지원비 증액	지원 축소	지원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적극적 홍보	기타	단위: %(명)	
							계(수)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45.2	6.4	16.2	27.9	3.3	1.0	100.0 (1,558)	2.41 (1.42)
가정양육수당 지원	59.4	9.6	14.5	10.5	4.4	1.6	100.0 (106)	1.96 (1.35)

(표 III-8-5 계속)

구분	지원비 증액	지원 축소	지원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적극적 홍보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42.1	4.6	9.9	40.1	3.4	0.0	100.0 (166)	2.58 (1.45)
아이돌봄 서비스	18.0	2.8	39.0	27.0	13.3	0.0	100.0 (20)	3.15 (1.24)
영유아 건강검진	7.9	1.1	8.6	76.4	5.4	0.6	100.0 (1,438)	3.72 (0.92)
필수예방접종	27.4	1.5	19.2	43.6	7.8	0.6	100.0 (1,453)	3.05 (1.38)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35.9	1.1	27.9	30.3	4.6	0.2	100.0 (184)	2.67 (1.36)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29.0	0.0	23.0	38.6	9.4	0.0	100.0 (22)	2.99 (1.39)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51.0	0.0	7.6	21.0	20.4	0.0	100.0 (7)	2.60 (1.7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0.0	0.0	0.0	62.7	37.3	0.0	100.0 (2)	4.37 (0.48)
인터넷 과몰입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0.0	0.0	0.0	100.0	0.0	0.0	100.0 (1)	4.00 (0.00)

나. 직장에서의 지원

1)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의 필요성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성의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82.9%가 여성의 출산휴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5.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76.3%가 여성의 출산휴가가 매우 필요하고, 20.4%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어머니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아버지의 경우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남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표 III-8-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	(수)	평균
어머니								
여성의 출산휴가	0.3	0.0	1.8	15.1	82.9	100.0	(1,610)	4.80
여성의 육아휴직	0.3	0.0	2.2	17.2	80.3	100.0	(1,610)	4.77
남성의 출산휴가	0.3	1.0	10.7	29.8	58.2	100.0	(1,609)	4.40
남성의 육아휴직	0.6	2.2	16.7	32.4	48.0	100.0	(1,610)	4.24
직장 어린이집	0.5	0.7	8.4	24.9	65.4	100.0	(1,610)	4.54
보육비 지원	0.5	0.6	3.4	16.3	79.3	100.0	(1,611)	4.74
수유실 설치	0.3	1.2	10.3	32.2	56.0	100.0	(1,609)	4.43
유급 수유시간	0.5	2.2	13.3	34.7	49.4	100.0	(1,608)	4.31
시차 출근제	0.4	1.2	11.8	31.7	54.9	100.0	(1,608)	4.40
대체인력풀 운영	0.5	1.5	12.2	34.0	51.8	100.0	(1,609)	4.37
근로시간 단축	0.4	1.5	9.3	30.7	58.1	100.0	(1,609)	4.45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0.4	0.2	2.6	20.4	76.3	100.0	(1,538)	4.72
여성의 육아휴직	0.4	0.3	3.5	25.7	70.1	100.0	(1,538)	4.64
남성의 출산휴가	0.8	2.9	15.1	32.6	48.8	100.0	(1,537)	4.24
남성의 육아휴직	1.4	4.4	21.8	35.6	36.8	100.0	(1,538)	4.01
직장 어린이집	0.5	0.9	13.4	31.2	54.0	100.0	(1,537)	4.37
보육비 지원	0.9	0.2	4.1	19.3	75.5	100.0	(1,536)	4.69
수유실 설치	0.8	0.8	14.0	33.7	50.7	100.0	(1,538)	4.32
유급 수유시간	0.7	1.9	17.8	34.6	44.9	100.0	(1,537)	4.20
시차 출근제	0.7	2.5	20.0	34.7	42.1	100.0	(1,540)	4.14
대체인력풀 운영	0.7	2.4	20.7	35.0	41.3	100.0	(1,538)	4.12
근로시간 단축	0.6	2.0	15.7	37.4	44.4	100.0	(1,539)	4.22

2) 가장 필요한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1~3순위)

직장 내 다양한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의 필요 정도를 세 가지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순위로 '여성의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택하였다. 이어서 어머니의 12.5%가 여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1순위로, 11.7%가 보육비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15.9%가 보육비 지원을 1순위로, 10.5%가 여성의 육아휴직을 1순위로 택하였다. 2순위로는, 부모 모두 각각 39.6%와 45.4%로 여성의 육아휴직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했을 때, 직장 내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보육비 지원'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62.8	57.8	9.0	11.3	3.2	3.8
여성의 육아휴직	12.5	10.5	45.4	39.6	12.1	11.7
남성의 출산휴가	1.8	4.7	9.2	10.4	10.9	12.6
남성의 육아휴직	0.5	1.8	4.2	4.0	5.2	5.8
직장 어린이집	3.0	4.1	5.9	8.0	12.0	9.0
보육비 지원	11.7	15.9	11.0	13.8	23.6	21.8
수유실 설치	0.5	0.2	0.6	0.4	1.2	1.3
유급 수유시간	0.1	0.1	0.4	0.9	1.1	1.5
시차 출근제	3.6	1.7	6.2	6.2	11.0	12.1
대체인력풀 운영	0.9	1.1	2.6	1.6	3.3	5.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	2.1	5.5	3.8	16.4	14.6
계(수)	100.0 (1,612)	100.0 (1,541)	100.0 (1,610)	100.0 (1,540)	100.0 (1,608)	100.0 (1,536)

다. 보육·교육 정책

1)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보육·교육 정책 3개에 대한 부모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모두 90%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상기한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어머니 인지도를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만 3~4세 누리과정의 경우 모 취업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대도시일수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만 5세 누리과정 또한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정책 인지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는, 만 3~4세와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인식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III-8-8〉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만0-5세 양육수당			만3-4세 누리과정			만5세 누리과정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어머니									
전체	98.7	1.3	100.0(1,608)	98.6	1.4	100.0(1,605)	98.9	1.1	100.0(1,603)
모 취업여부									
취업	98.7	1.3	100.0(697)	97.7	2.3	100.0(696)	98.5	1.5	100.0(694)
미취업	98.7	1.3	100.0(895)	99.2	0.8	100.0(893)	99.1	0.9	100.0(893)
$\chi^2(df)$	0.70(1)			7.53(1)**			3.89(1)*		
지역 규모									
대도시	99.2	0.8	100.0(660)	99.2	0.8	100.0(659)	99.3	0.7	100.0(659)
중소도시	98.2	1.8	100.0(658)	98.8	1.2	100.0(656)	99.1	0.9	100.0(655)
읍면지역	98.9	1.1	100.0(290)	96.8	3.2	100.0(290)	97.3	2.7	100.0(289)
$\chi^2(df)$	2.43(2)			7.92(2)*			5.42(2)		
아버지									
전체	93.4	6.6	100.0(1,543)	91.4	8.6	100.0(1,543)	92.1	7.9	100.0(1,542)
모 취업여부									
취업	94.1	5.9	100.0(650)	90.8	9.2	100.0(650)	92.3	7.7	100.0(650)
미취업	92.9	7.1	100.0(872)	91.7	8.3	100.0(872)	92.0	8.0	100.0(871)
$\chi^2(df)$	0.04(1)			0.14(1)			0.46(1)		
지역 규모									
대도시	94.5	5.5	100.0(639)	92.1	7.9	100.0(639)	93.2	6.8	100.0(638)
중소도시	93.4	6.6	100.0(623)	93.2	6.8	100.0(623)	93.5	6.5	100.0(623)
읍면지역	90.7	9.3	100.0(281)	85.9	14.1	100.0(281)	86.6	13.4	100.0(281)
$\chi^2(df)$	4.05(2)			12.03(2)**			9.43(2)**		

* $p < .05$, ** $p < .01$.

2) 보육·교육 정책의 필요성

상기한 3개 보육·교육 정책에 대해 부·모의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어머니의 경우 양육수당 81.5%, 3-5세 누리과정 89.5%, 5세 누리과정 91.2%로 응답되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각각 85.2%, 90.8%, 91.2%로 나타났다. 부모는 양육수당보다 누리과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더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보육·교육 정책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표 III-8-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표준편차)
<u>어머니</u>							
만 0~5세 양육수당	3.8	4.4	10.3	17.4	64.1	100.0(1,603)	4.34(1.07)
만 3~4세 누리과정	3.3	1.3	5.9	16.2	73.3	100.0(1,599)	4.55(0.92)
만 5세 누리과정	3.2	0.9	4.7	14.5	76.7	100.0(1,598)	4.61(0.88)
<u>아버지</u>							
만 0~5세 양육수당	2.3	3.2	9.3	19.3	65.9	100.0(1,535)	4.43(0.95)
만 3~4세 누리과정	2.2	1.5	5.5	19.9	70.9	100.0(1,535)	4.56(0.84)
만 5세 누리과정	2.3	1.1	4.5	18.8	73.4	100.0(1,534)	4.60(0.82)

소득별로 어머니가 응답한 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양육수당'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인 집단(4.49)에서 가정 내 양육수당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만 3~4세 누리과정'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만 3~4세 누리과정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셋째,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했다.

어머니에 이어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수당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3~4세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평균 4.44점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셋째, 아버지가 인식한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5세 누리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누리과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소득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만 0-5세 양육수당							
300만원 이하	2.7	2.5	9.1	15.0	70.7	100.0(516)	4.49(0.95) ^a
301~499만원	3.5	4.6	11.3	16.9	63.6	100.0(518)	4.33(1.07) ^b
500만원 이상	5.0	6.1	10.5	20.1	58.3	100.0(561)	4.20(1.16) ^b
$\chi^2(df)/F$			25.14(8) ^{**}				9.53 ^{**}
만 3-4세 누리과정							
300만원 이하	2.5	2.0	4.0	12.5	78.9	100.0(516)	4.63(0.86) ^a
301~499만원	2.1	0.1	6.6	15.6	75.7	100.0(516)	4.63(0.79) ^a
500만원 이상	5.3	1.8	7.1	20.2	65.7	100.0(559)	4.39(1.06) ^b
$\chi^2(df)/F$			38.38(8) ^{***}				11.53 ^{***}
만 5세 누리과정							
300만원 이하	2.0	1.3	3.4	11.9	81.4	100.0(515)	4.69(0.78) ^a
301~499만원	2.3	0.0	5.1	13.7	79.0	100.0(516)	4.67(0.77) ^a
500만원 이상	5.0	1.4	5.6	17.8	70.1	100.0(559)	4.46(1.03) ^b
$\chi^2(df)/F$			30.99(8) ^{***}				10.96 ^{***}
아버지							
만 0-5세 양육수당							
300만원 이하	2.4	2.7	7.5	18.0	69.4	100.0(499)	4.49(0.92)
301~499만원	2.3	3.3	9.0	17.9	67.4	100.0(491)	4.45(0.95)
500만원 이상	2.3	3.7	11.2	21.6	61.2	100.0(536)	4.36(0.98)
$\chi^2(df)/F$			14.28(8)				3.44 [*]
만 3-4세 누리과정							
300만원 이하	1.7	0.7	3.3	17.4	76.9	100.0(499)	4.67(0.73) ^a
301~499만원	1.9	1.8	6.1	17.9	72.3	100.0(491)	4.57(0.84) ^a
500만원 이상	3.0	2.1	7.1	23.6	64.2	100.0(536)	4.44(0.93) ^b
$\chi^2(df)/F$			25.16(8) ^{**}				9.10 ^{**}
만 5세 누리과정							
300만원 이하	2.1	0.3	2.2	16.5	78.9	100.0(498)	4.70(0.72) ^a
301~499만원	1.8	1.1	4.5	18.0	74.7	100.0(491)	4.63(0.78) ^a
500만원 이상	3.0	1.7	6.8	21.3	67.2	100.0(536)	4.48(0.92) ^b
$\chi^2(df)/F$			26.34(8) ^{**}				8.89 ^{**}

* $p < .05$, ** $p < .01$, *** $p < .001$.

3)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보육·교육 정책이 어머니의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수당과 만 3~4세, 5세 누리과정 공통적으로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어머니, 아버지 의견 모두 취업모 보다는 미취업모, 모 학력 고졸이하,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긍정 응답이 많았다.

〈표 III-8-10〉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구분	만0-5세 양육수당			만3-4세 누리과정			만5세 누리과정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단위: %(명)									
어머니									
전체	51.0	49.0	100.0(1,599)	54.6	45.4	100.0(1,593)	55.1	44.9	100.0(1,592)
모 취업여부									
취업	49.1	50.9	100.0(693)	51.6	48.4	100.0(689)	52.2	47.8	100.0(689)
미취업	51.8	48.2	100.0(890)	56.4	43.6	100.0(888)	56.7	43.3	100.0(887)
$\chi^2(df)$	1.26(1)			3.89(2)*			3.31(1)*		
모 학력									
고졸이하	57.8	42.2	100.0(465)	64.0	36.0	100.0(463)	62.6	37.4	100.0(463)
전문대졸	52.5	47.5	100.0(427)	56.8	43.2	100.0(427)	58.2	41.8	100.0(427)
대졸이상	45.6	54.4	100.0(695)	47.2	52.8	100.0(691)	48.2	51.8	100.0(690)
$\chi^2(df)$	22.49(2)***			29.14(2)***			25.56(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4.9	45.1	100.0(514)	59.1	40.9	100.0(514)	58.9	41.1	100.0(514)
301~499만원	54.3	45.7	100.0(517)	58.8	41.2	100.0(514)	59.7	40.3	100.0(513)
500만원 이상	44.0	56.0	100.0(560)	46.5	53.5	100.0(557)	47.0	53.0	100.0(557)
$\chi^2(df)$	22.62(2)***			27.28(2)***			28.68(2)***		
아버지									
전체	57.5	42.5	100.0(1,530)	58.8	41.2	100.0(1,530)	59.3	40.7	100.0(1,529)
모 취업여부									
취업	57.0	43.0	100.0(645)	58.2	41.8	100.0(645)	58.8	41.2	100.0(645)
미취업	57.8	42.2	100.0(864)	59.1	40.9	100.0(864)	59.6	40.4	100.0(863)
$\chi^2(df)$	0.36(1)			0.55(1)			0.54(1)		

(표 III-8-10 계속)

구분	만0-5세 양육수당			만3-4세 누리과정			만5세 누리과정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모 학력									
고졸이하	63.3	36.7	100.0(454)	65.4	34.6	100.0(455)	65.1	34.9	100.0(455)
전문대졸	59.5	40.5	100.0(404)	60.7	39.3	100.0(404)	61.1	38.9	100.0(404)
대졸이상	51.9	48.1	100.0(655)	52.7	47.3	100.0(654)	53.8	46.2	100.0(653)
$\chi^2(df)$	19.64(2)***			19.94(2)***			16.38(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2.5	37.5	100.0(498)	63.6	36.4	100.0(498)	63.7	36.3	100.0(498)
301~499만원	59.9	40.1	100.0(490)	62.3	37.7	100.0(491)	63.2	36.8	100.0(491)
500만원 이상	50.3	49.7	100.0(533)	50.5	49.5	100.0(532)	51.2	48.8	100.0(531)
$\chi^2(df)$	27.45(2)***			32.68(2)***			33.25(2)***		

* $p < .05$, *** $p < .001$.

라. 소결

육아지원제도 중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은 85%이상의 가구에서 수혜를 받았으며, 정책적 수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또한 수혜를 받았던 경우 추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비 증액'과 '서비스 질 향상'을 선택하였다. 다만 수혜 인원이 적었던 정책의 경우 정책의 도움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도하는 것과 더불어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패널 부모는 보육·교육 정책에 대해 대다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후속출산 의향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지원으로 '여성의 출산휴가'와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와 보육·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양육환경 구성을 위한 세분화된 공사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1~6차년도 주요 데이터 추이 분석

본 장에서는 주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1~6차년도까지 패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년도의 횡단 가중치가 적용된 빈도 및 기술통계 자료와 가중치가 미적용된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1. 가정환경(HOME)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을 측정한 2011~2013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에 의하면, 패널 아동의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55점 총점에 평균 48~49점 이상으로 양호한 가정환경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완만하지만 향상되는 상승세를 보이며, 가구 간의 편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유아가 가정에서 받는 환경적 자극의 질은 최고점에 근접한 평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패널 아동의 가정환경 질이 일정수준 상향평준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미적이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발달적으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부모가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개입하는 시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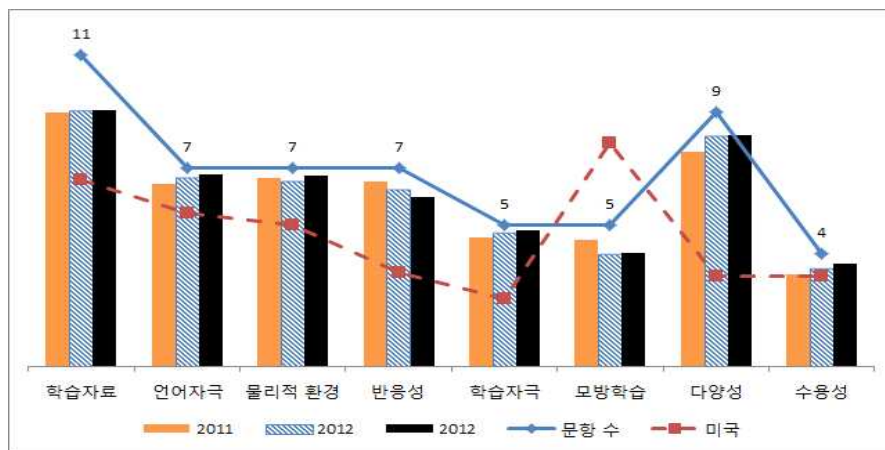
〈표 IV-1-1〉 가정환경의 질

단위: 점

구분	문항	미국	2011년 (3세, 4차년도)	2012년 (4세, 5차년도)	2013년 (5세, 6차년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점	55	37.5(10.4)	48.35(4.85)	48.94(4.48)	49.12(4.08)
학습자료	11	6.6(3.5)	8.96(1.22)	9.02(1.08)	9.03(.91)
언어자극	7	6.0(1.4)	6.42(.88)	6.67(.75)	6.79(.60)
물리적 환경	7	5.4(2.1)	6.63(.71)	6.57(1.12)	6.75(.82)
반응성	7	5.0(1.9)	6.54(.99)	6.28(1.21)	5.97(1.25)
학습자극	5	3.3(1.3)	4.56(.92)	4.73(.75)	4.79(.83)
모방학습	5	2.4(1.3)	4.45(.81)	4.00(.84)	4.01(.88)
다양성	9	7.9(2.0)	7.56(1.33)	8.17(1.15)	8.16(1.09)
수용성	4	3.2(1.0)	3.24(.82)	3.50(.70)	3.64(.58)

자료: 미국 평균 출처 - Caldwell. B. M., & Bradley. P.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Wisconsin: Minuteman Press.

다만 하위 영역별 특성 중 ‘반응성’과 ‘모방학습’에서만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바람직한 행동의 본을 보이거나 아이와의 스킨십 및 아이의 요구 및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1] 가정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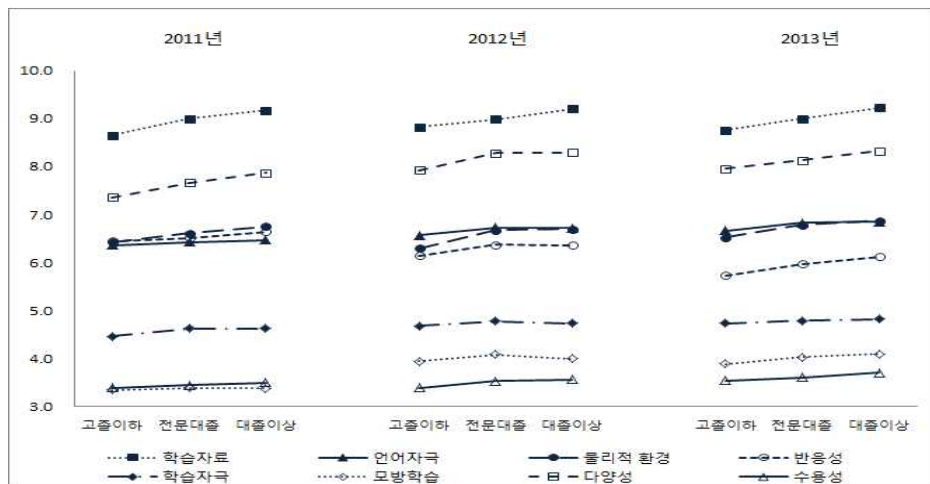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어머니의 최종 학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질에 대한 총점은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대졸 이상의 경우가 3개 년도에서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가정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8개 항목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기 가정환경에 중요한 요인으로써,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 더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2011년 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모방학습의 경우, 후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2013년 조사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학습자극에 대한 부분은 2011년 조사에서는 유의미하게 고졸 이하의 어머니 집단이 낮은 환경 자극을 제시하는 반면, 2012년부터 이러한 집단 간의 편차가 여전히 낮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어머니 최종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

단위: 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F
총점	41.99 ^a (4.86)	43.05 ^b (3.80)	43.79 ^c (3.14)	22.96***	47.78 ^a (5.17)	49.45 ^b (3.68)	49.58 ^b (3.47)	27.29***	47.81 ^a (5.00)	49.15 ^b (3.98)	50.03 ^c (3.10)	44.49***
학습자료	8.65 ^a (1.49)	9.00 ^b (1.09)	9.17 ^c (.93)	26.58***	8.82 ^a (1.27)	8.99 ^b (.88)	9.21 ^c (.90)	19.13***	8.76 ^a (1.14)	9.00 ^b (.77)	9.23 ^c (.76)	12.10***
언어자극	6.36 ^a (1.04)	6.43 ^{ab} (.85)	6.47 ^b (.72)	4.08*	6.57 ^a (.81)	6.73 ^b (.58)	6.72 ^b (.63)	8.61***	6.67 ^a (.79)	6.83 ^b (.57)	6.85 ^b (.46)	24.83***
물리적 환경	6.43 ^a (1.14)	6.61 ^b (.94)	6.75 ^b (.72)	17.74***	6.30 ^a (1.46)	6.68 ^b (.92)	6.70 ^b (.86)	20.21***	6.53 ^a (1.17)	6.79 ^b (.67)	6.87 ^b (.51)	8.97***
반응성	6.45 ^a (1.04)	6.52 ^{ab} (1.02)	6.65 ^b (.79)	4.47*	6.15 ^a (1.38)	6.37 ^a (1.11)	6.36 ^b (1.07)	3.99*	5.73 ^a (1.41)	5.97 ^{ab} (1.27)	6.13 ^b (1.11)	1.15***
학습자극	4.47 ^a (1.03)	4.63 ^{ab} (.80)	4.63 ^b (.80)	4.18*	4.68 (.84)	4.78 (.67)	4.74 (.69)	2.02	4.74 (.91)	4.79 (.86)	4.82 (.76)	11.87
모방학습	3.35 (.74)	3.39 (.74)	3.38 (.71)	.30	3.94 (.91)	4.09 (.78)	4.00 (.81)	2.26	3.89 ^a (.94)	4.03 ^b (.88)	4.10 ^b (.82)	16.64***
다양성	7.36 ^a (1.55)	7.66 ^{ab} (1.30)	7.87 ^b (1.17)	13.93***	7.92 ^a (1.30)	8.28 ^b (1.03)	8.29 ^b (.98)	18.75***	7.96 ^a (1.23)	8.13 ^a (1.13)	8.33 ^b (.93)	11.45***
수용성	3.39 ^a (.70)	3.45 ^{ab} (.71)	3.50 ^b (.63)	3.74*	3.39 ^a (.80)	3.53 ^b (.68)	3.56 ^b (.63)	9.30*	3.54 ^a (.62)	3.61 ^b (.63)	3.71 ^b (.52)	42.05***

* $p < .05$, *** $p < .001$.

[그림 IV-1-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

2. 아동의 언어발달: 어휘력 검사(REVT) 결과

4차 조사인 2011년과 6차 조사인 2013년에 실시된 아동의 어휘 발달 정상성 정도를 표현 어휘력과 수용 어휘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휘력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REVT 검사는 피검사자의 생활연령에 따라 검사의 시작문항 및 기준 연령이 다르다(김영태 외, 2009). 2011년 조사에서는 35~42개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 조사에서는 59~66개월 시점에 수용 어휘력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2차 심층조사 대상자를 선발하여 62~67개월 시점에 표현 어휘력 검사가 시행되었다.

〈표 IV-2-1〉 표현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단위: %

구분	2011년					2013년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지체	계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지체	계(수)
전체	36.6	34.3	19.1	10.1	100.0	-	-	-	-	-
2차 심층	36.7	33.8	19.1	10.4	100.0	63.9	24.4	7.4	4.3	100.0
아동 성별										
남	33.9	26.8	24.3	15.0	100.0	58.3	28.3	9.0	4.4	100.0
여	40.1	42.4	12.7	4.8	100.0	70.7	19.7	5.4	4.3	100.0
	$\chi^2(df)$ 13.82(3)**					5.03(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6.1	27.7	15.6	10.6	100.0	70.1	21.1	5.4	3.4	100.0
둘째	29.2	42.1	22.1	6.5	100.0	57.7	28.9	11.0	2.5	100.0
셋째 이상	18.8	30.5	24.9	25.8	100.0	52.6	25.6	3.7	18.1	100.0
	$\chi^2(df)$ 14.54(6)*					15.29(6)*				
모 취업여부										
취업	36.4	36.0	21.4	6.2	100.0	64.4	21.6	9.6	4.3	100.0
미취업	36.9	32.2	17.5	13.4	100.0	63.1	26.5	6.0	4.4	100.0
	$\chi^2(df)$ 5.00(3)					4.38(3)				
모 학력										
고졸이하	26.8	42.2	22.2	8.9	100.0	53.8	37.0	7.0	2.2	100.0
전문대졸	34.0	31.9	15.5	18.6	100.0	59.4	26.9	5.9	7.7	100.0
대졸이상	42.4	31.1	19.6	6.9	100.0	69.5	18.5	8.3	3.6	100.0
	$\chi^2(df)$ 12.89(6)*					15.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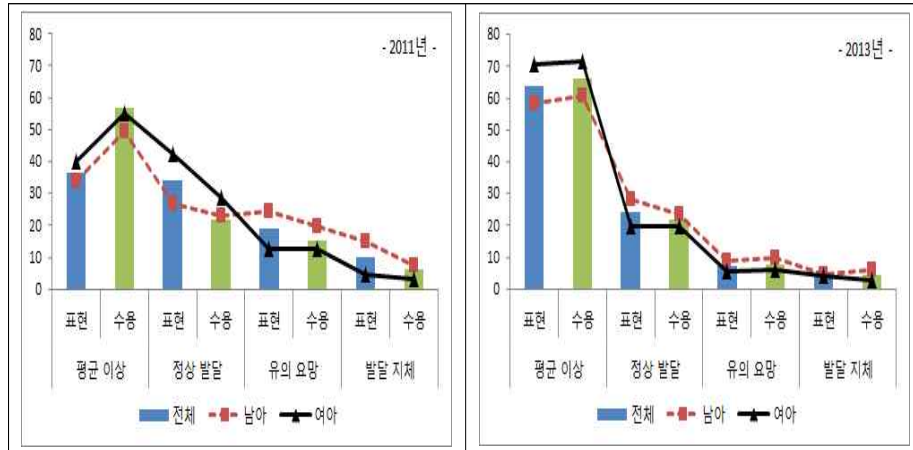
주: 해당 생활연령대의 평균 이상일 경우를 '평균 이상', 평균 점수로부터 -1 표준편차 내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정상발달', -1 표준편차와 -2 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의 요망', -2 표준편차를 넘어선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어휘능력 발달지체'로 분류함.

* $p < .05$, ** $p < .01$.

<표 IV-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1년 조사에서 표현 어휘력의 경우 전체 패널 아동의 71%가 정상발달을 보였으며, 19.1%가 세심한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유의 요망으로 분류되었고, 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동은 전체의 10.1%였다. 유아의 표현 어휘력은 여아일수록,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고학력군에 속할수록 정상발달 기준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2013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차 심층조사로 이루어진 2013년 표현 어휘력 검사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88.3%가 정상발달을 보였으며, 7.4%가 유의 요망, 4.3%가 발달 지체로 분류되었다.

<표 IV-2-2>에서와 같이 수용 어휘력의 경우 2011년 조사에서 전체 패널 아동의 78.5%가 정상발달을 보였으며, 15.4%가 세심한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유의 요망으로 분류되었고, 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동은 전체의 6.1%였다. 2년 뒤에 실시된 2013년 수용 어휘력 검사에서는 전체 아동의 87.8%가 정상발달을 보였으며, 7.8%가 유의 요망, 4.4%가 발달 지체로 분류되었다. [그림 IV-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1년 조사에 비하여 2013년 조사에서 표현/수용 어휘력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된 점수 분포를 보였다.



[그림 IV-2-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휘력 발달

유아의 수용 어휘력은 표현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여아일수록,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고학력군에 속할수록 정상발달 기준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2-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패널 아동의 수용 어휘력은

표현 어휘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로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 수용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3년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
전체	56.7	21.8	15.4	6.1	100.0	66.1	21.7	7.8	4.4	100.0
2차 심층	52.0	25.8	16.6	5.6	100.0	61.9	24.5	8.8	4.8	100.0
아동 성별										
남	49.4	23.2	19.9	7.5	100.0	60.9	23.5	9.6	5.9	100.0
여	55.3	28.9	12.6	3.1	100.0	71.6	19.7	5.9	2.7	100.0
$\chi^2(df)$	10.18(3)*					23.88(3)***				
아동 출생순위										
첫째	60.9	21.5	12.9	4.7	100.0	68.5	20.5	6.7	4.3	100.0
둘째	43.8	30.9	19.7	5.6	100.0	66.0	21.4	8.9	3.7	100.0
셋째 이상	39.9	26.7	23.4	10.0	100.0	56.0	28.3	8.9	6.8	100.0
$\chi^2(df)$	9.45(6)					13.51(6)*				
모 취업여부										
취업	51.6	29.3	14.2	4.9	100.0	69.0	20.2	6.8	4.0	100.0
미취업	52.3	23.3	18.3	6.1	100.0	64.1	22.5	8.7	4.8	100.0
$\chi^2(df)$	3.88(3)					3.87(3)				
모 학력										
고졸이하	39.8	32.5	16.7	11.0	100.0	57.5	25.9	10.0	6.6	100.0
전문대졸	54.5	16.5	23.2	5.8	100.0	65.0	22.0	8.6	4.3	100.0
대졸이상	56.0	27.6	13.2	3.1	100.0	71.9	19.0	6.0	3.1	100.0
$\chi^2(df)$	14.55(6)*					26.31(6)***				

주: REVT 지침서에 의거하여 해당 생활연령대의 평균 이상일 경우를 '평균 이상', 평균 점수로부터 -1 표준편차 내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정상발달', -1 표준편차와 -2 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의 요망', -2 표준편차를 넘어선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어휘능력 발달의심'로 분류함.

* $p < .05$, *** $p < .001$.

3. 부모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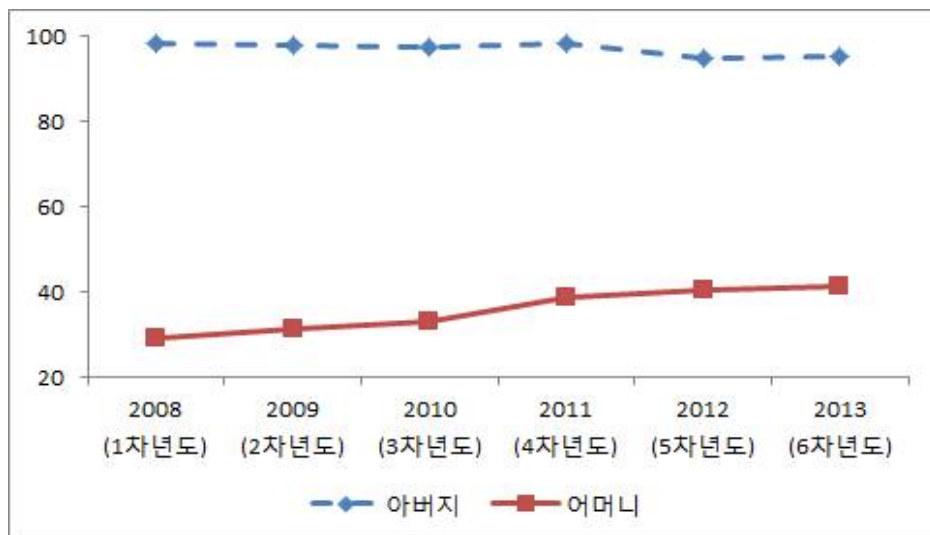
어머니의 과반 수 이상은 미취학/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정 외 경제활동은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90%이상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IV-3-1〉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

구분	부				모			
	취업중	학업중	미취학/ 미취업	계	취업중	학업중	미취학/ 미취업	계
2008(1차년도)	98.5	0.4	1.1	100.0	29.2	0.8	70.0	100.0
2009(2차년도)	98.1	0.3	1.6	100.0	31.3	0.2	68.4	100.0
2010(3차년도)	97.5	0.3	2.1	100.0	32.9	0.2	66.9	100.0
2011(4차년도)	98.3	0.1	1.6	100.0	38.5	0.6	60.9	100.0
2012(5차년도)	94.7	-	5.3	100.0	40.3	0.5	59.2	100.0
2013(6차년도)	95.3	0.3	4.5	100.0	41.4	0.6	58.0	100.0

주: 5차년도의 아버지 취업은 소득활동 여부로만, 6차년도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는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를 함께 묻는 질문으로 진행됨. 6차년도에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취업중'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그림 IV-3-1] 부모의 취업률

어머니의 우울은 매년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패널 아동이 영아기에 해당하는 만 0~2세 시기에는 미취학/미취업 상태일 때 어머니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패널 아동이 유아기에 진입하는 만 3세시기부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우울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어머니의 우울

단위: 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1.94(.71)	1.90(.69)	1.96(.70)	1.99(.76)	1.94(.75)	1.94(.74)
모 취업여부						
취업	1.89(.70)	1.84(.67)	1.88(.70)	1.95(.75)	1.92(.74)	1.88(.67)
미취업	1.95(.72)	1.93(.70)	2.00(.70)	2.01(.76)	1.96(.75)	1.99(.78)
<i>t</i>	-2.35*	-2.30*	-2.06*	-1.08	.11	-1.8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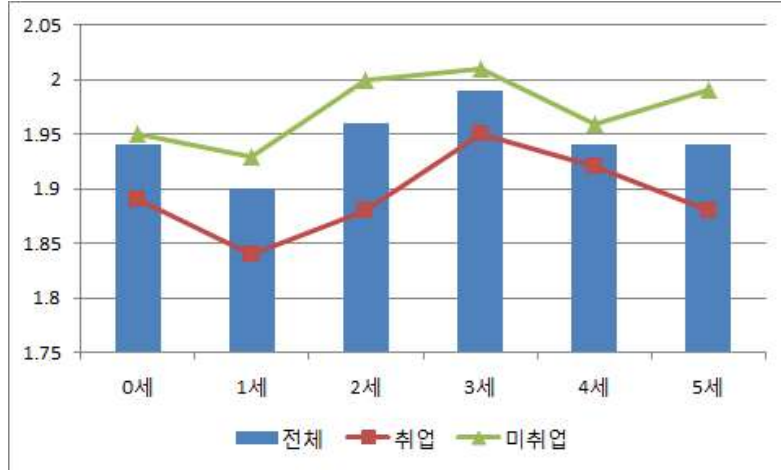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매년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패널 아동이 만 0세와 만 3세 시기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2.52(.20)	2.52(.21)	2.52(.20)	2.99(.62)	2.98(.31)	3.00(.28)
모 취업여부						
취업	2.53(.19)	2.54(.20)	2.54(.20)	2.99(.35)	3.00(.30)	3.04(.30)
미취업	2.53(.21)	2.52(.21)	2.51(.19)	2.99(.29)	2.96(.31)	2.98(.30)
<i>t</i>	.68	2.40*	2.67**	1.65	2.40*	4.3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모두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울감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격차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3-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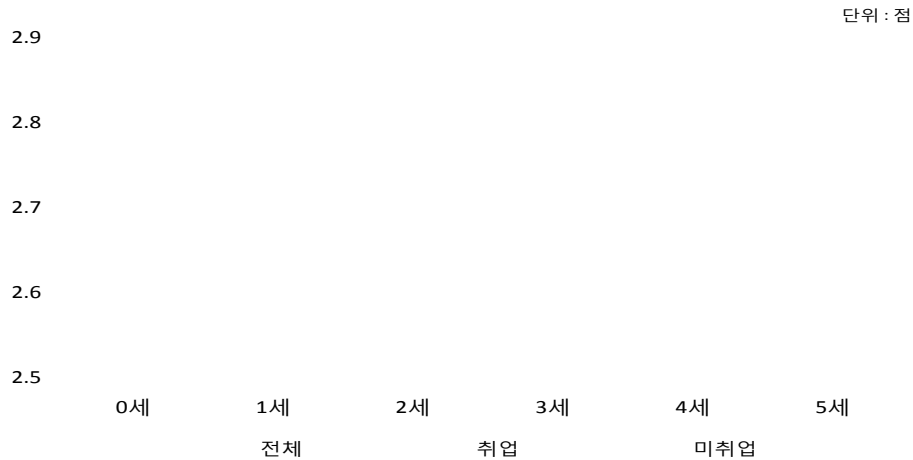
[그림 IV-3-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보통 수준을 다소 밑도는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2011년 조사부터 조사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미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3-4〉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부			모					
	3세	4세	5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2.45 (.60)	2.40 (.60)	2.43 (.60)	2.75 (.62)	2.73 (.64)	2.79 (.63)	2.80 (.65)	2.73 (.66)	2.65 (.62)
모 취업여부									
취업	2.46 (.60)	2.41 (.61)	2.42 (.61)	2.70 (.64)	2.65 (.61)	2.68 (.61)	2.75 (.64)	2.67 (.65)	2.58 (.61)
미취업	2.47 (.59)	2.38 (.59)	2.44 (.60)	2.78 (.61)	2.76 (.65)	2.84 (.64)	2.83 (.66)	2.76 (.65)	2.72 (.61)
<i>t</i>	-.38	1.30	.11	-2.78**	-4.00***	-4.29***	-2.61***	-2.02*	-3.4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4〕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4. 영유아가구 양육비 지출

영유아기에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 관련 지출은 0세에 가장 많았다가 1, 2세에 줄어들었으며, 다시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자녀 관련 지출비용은 늘어났다. 패널 아동이 영아기에 해당하는 1차~3차년도 조사 시점에는 전체 가구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이

25%를 밑도는 반면, 유아기로 진입하는 4차~6차년도에는 가구 지출의 30% 이상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및 자녀에 대한 지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차년도 (2008)	2차년도 (2009)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1)	5차년도 (2012)	6차년도 (2013)
단위: 만원						
가구 총 지출						
평균	243.60	274.78	288.86	306.39	346.47	384.87
표준편차	122.55	259.73	243.81	144.00	191.83	177.49
중위값	220	230	250	280	300	350
최소값	6	44	40	50	0	30
최대값	1,200	4,200	3,600	1,800	3,000	2,000
자녀에 대한 총 지출						
평균	61.12	49.58	48.74	106.76	121.30	124.67
표준편차	68.54	69.22	56.81	65.65	73.60	70.81
중위값	40	35	35	90	110	110
최소값	0	1	3	7	0	2
최대값	720	1,805	2,010	740	1,050	1,100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및 자녀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의 편차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지출은 물론 가구의 전반적인 지출 금액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IV-4-2〉 출생순위에 따른 월평균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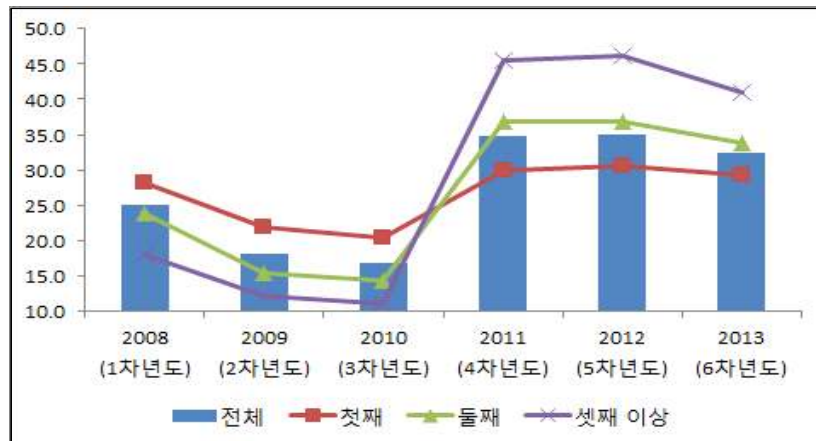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차년도 (2008)	2차년도 (2009)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1)	5차년도 (2012)	6차년도 (2013)
단위: 만원						
가구 총 지출						
첫째	230.04 ^a (113.11)	270.86 (308.42)	282.27 ^a (275.99)	290.19 ^a (141.30)	331.87 ^a (187.59)	371.55 ^a (180.63)
둘째	252.23 ^b (132.49)	274.09 (215.64)	294.78 ^b (222.22)	313.07 ^b (140.91)	353.23 ^{ab} (176.77)	396.34 ^{ab} (170.87)
셋째 이상	268.54 ^b (118.00)	294.22 (162.70)	296.00 ^{ab} (147.81)	348.78 ^c (155.09)	385.58 ^b (247.22)	404.37 ^b (181.49)
F	17.08 ^{***}	0.07	3.62 [*]	17.11 ^{***}	7.47 ^{**}	4.69 ^{**}

(표 IV-4-2 계속)

구분	0세 1차년도 (2008)	1세 2차년도 (2009)	2세 3차년도 (2010)	3세 4차년도 (2011)	4세 5차년도 (2012)	5세 6차년도 (2013)
자녀에 대한 총 지출						
첫째	64.88 (69.82)	59.31 ^a (91.97)	57.80 ^a (61.96)	86.78 ^a (59.20)	101.10 ^a (55.25)	108.38 ^a (66.22)
둘째	60.15 (67.30)	42.20 ^b (37.67)	42.24 ^b (54.54)	115.30 ^b (60.66)	130.00 ^b (65.39)	133.83 ^b (67.73)
셋째 이상	48.24 (65.67)	35.49 ^b (29.12)	32.62 ^b (25.00)	158.68 ^c (73.07)	177.72 ^c (120.43)	165.48 ^c (78.76)
<i>F</i>	2.14	18.15 ^{***}	13.91 ^{**}	123.79 ^{***}	106.94 ^{***}	66.05 ^{***}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그림 IV-4-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아기에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 비하여 둘째 혹은 셋째일 경우 지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기의 경우 자녀의 출생 순위 즉 자녀의 수에 따른 지출 비용의 편차가 한명 한명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4-1]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전체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비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구 총 지출과 자녀에 대한 지출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가구의 전체적인 지출이 평균적으로 대략 65만원에서 95만원 가량 많았으며, 자녀에 대한 지출에서는 16만원에서 28만원 가

량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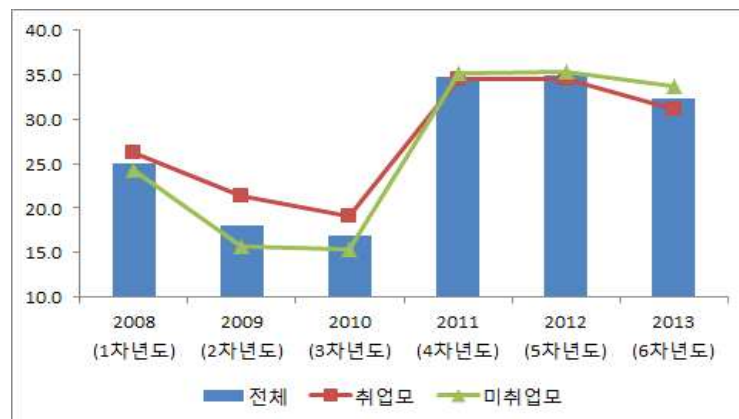
〈표 IV-4-3〉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지출

단위: 만원

구분	0세 1차년도	1세 2차년도	2세 3차년도	3세 4차년도	4세 5차년도	5세 6차년도
가구 총 지출						
취업	302.83 (144.58)	322.07 (260.46)	352.48 (296.17)	346.66 (152.84)	390.74 (213.77)	432.28 (172.46)
미취업	216.68 (81.83)	257.87 (86.75)	257.46 (206.16)	281.07 (131.84)	315.87 (168.10)	350.61 (173.33)
<i>t</i>	13.98***	5.75***	7.66***	10.03***	7.47***	8.81***
자녀에 대한 총 지출						
취업	79.68 (81.83)	68.96 (86.75)	67.55 (59.87)	119.41 (67.34)	135.18 (88.28)	134.65 (66.44)
미취업	52.64 (59.64)	40.46 (57.21)	39.46 (52.82)	98.80 (63.25)	111.64 (59.24)	117.96 (73.26)
<i>t</i>	6.85***	7.18***	9.59***	743***	6.01***	4.46***

*** $p < .001$.

가구 총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은 [그림 IV-4-2]와 같이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영아기에는 취업모 집단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유아기에는 미취업모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전체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5.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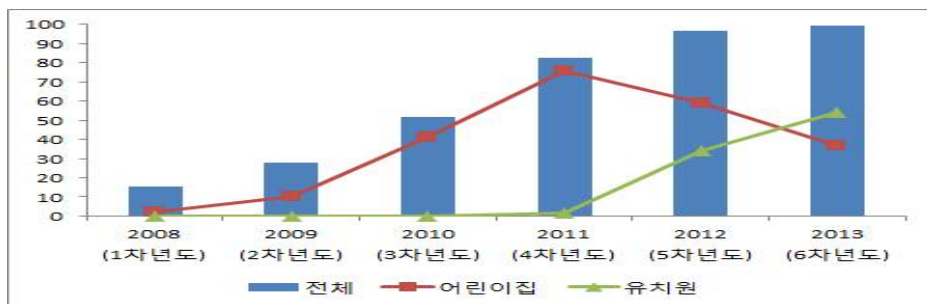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만 2세와 만 3세 시기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에서도 생애 초기에는 주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반면, 만 2세부터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러한 추세는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2012년 조사 시점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2013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V-5-1〉 주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차년도 (2008)	2차년도 (2009)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1)	5차년도 (2012)	6차년도 (2013)
전체	15.6	27.8	51.7	82.8	96.6	99.5
개인대리양육자	13.5	16.8	9.5	1.4	0.1	-
어린이집	2.0	10.1	41.2	75.6	59.1	36.8
유치원	-	-	-	1.5	34.0	54.1
반일제 이상 학원	-	-	0.2	1.2	5.1	3.5
기타기관 (선교원 등)	-	-	0.2	0.2	-	-
개인대리양육자+어린이집 병행	0.1	0.9	0.6	2.6	1.3	-
개인대리양육자+유치원 병행	-	-	-	0.2	0.3	-
개인대리양육자+반일제 학원 병행	-	-	-	0.1	0.2	-
어린이집+기타기관 병행	-	-	-	0.1	-	5.6

주: 3세에 유치원, 개인대리양육자와 반일제 이상 학원, 개인대리양육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 어린이집과 기타기관 보기를 추가함.



[그림 IV-5-1]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소수의 생애 초기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할 경우 12.44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24시간 어린이집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기관 이용자로 조사되었다.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보육 이용률이 증가하는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용 시간이 급감하였으며,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이용시간은 연차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2〉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					
	0세 1차년도 (2008)	1세 2차년도 (2009)	2세 3차년도 (2010)	3세 4차년도 (2011)	4세 5차년도 (2012)	5세 6차년도 (2013)
평균	12.44	8.76	7.79	7.39	7.02	7.12
표준편차	3.25	2.08	1.86	1.55	1.41	1.37
중위값	13.50	9.00	8.00	7.00	7.00	7.00
최소값	2.00	3.00	1.10	2.50	3.5	3.00
최대값	16.83	13.98	15.50	13.00	13.0	12.00

이와 같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간은 전 조사 시점에서 어머니가 취업모일 경우 미취업모에 비하여 대략적으로 1시간 전후로 더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					
	0세 1차년도 (2008)	1세 2차년도 (2009)	2세 3차년도 (2010)	3세 4차년도 (2011)	4세 5차년도 (2012)	5세 6차년도 (2013)
취업	8.13(1.64)	9.10(1.90)	8.68(1.76)	8.12(1.61)	7.73	7.67(1.42)
미취업	6.81(1.21)	7.08(2.12)	6.98(1.55)	6.78(1.20)	6.50	6.73(1.19)
<i>t</i>	17.30***	6.13***	14.66***	17.78***	19.88***	14.65***

*** $p < .001$.

6. 소결 및 정책 제언

한국아동패널의 1~6차년도 추적 자료 중 주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HOME 검사를 중심으로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을 살펴본 결과, 패널 가구의 가정환경의 질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전 조사 시점에서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미시적 생활환경 구성의 전반적인 질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며,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검토를 넘어 가구 간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유아가 동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가정환경의 질 균등화를 위한 가정 내 양육환경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상향세를 보이는 가정환경의 질 중 '반응성'과 '모방학습'에서만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패널 가구가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대인관계 요소 중 후자 즉 사회·정서적 측면의 자극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낸다. 가정 내 환경의 질 정비에 있어서 물리적 요소와 더불어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방문 양육 가이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살펴본 유아기 어휘력 발달은 수용 어휘력이 표현 어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학력군에 속할수록, 유아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유아의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살펴 본 가정환경의 질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차이를 가름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과 영유아를 대하는 성인의 모델링 및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부모의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에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은 미취학/미취업 상태로 응답되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소폭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중요한 키워드로 지목받는 변인으로, 패널 가구를 통해 살펴본 취업모는 전반적으로 미취업모에 비하여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영아기 동안에 낮은 우울 성향,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취업은 사회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경쟁력 확보의 측면은 물론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 양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다수의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가구 지출은 출생 초기 지출 비용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지출은 패널 아동이 유아기 연령이 됨에 따라 가구 지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는 점, 특히 유아기 자녀 한 명에 따른 지출 비용의 차이가 뚜렷한 점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부담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교육적 기회 균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교육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생애 초기에는 1:1 양육 지원의 개인대리양육이 선호되었으나 점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 균등화를 위한 누리과정 등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상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 가능한 시기부터 점차 유치원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대략 7시간 정도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기관 이용 시간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맞벌이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유형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용 가구의 특색에 맞는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3년 패널 아동 만 5세 시기의 데이터(3장)와 주요 변인에 대한 연간 추이(4장)의 연구결과 중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과 육아환경 전반은 어떠한지, 육아지원정책의 시행은 어떠한지,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설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만 5세 한국아동의 성장발달 현황

아동의 건강 특성 분석을 통해, 만 5세 아동이 지난 1년 병원치료를 받은 비율이 16.2%로 평균 1.4회를 치료받았으며, 그 중 입원치료는 9.1%로 조사되었다. 만 5세 아동의 1/4~1/5이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갖고 있어(진단을 26.5%, 초진 생후 12개월 이전 48.5%, 최근 1년 내 치료받은 적 있음 11.4%)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및 진단율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만 5세 아동의 대근육 발달보다 소근육 발달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발달은 교사 평정 105.0점, 웨슬러 지능검사 결과는 평균 107.9점으로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동작성 지능(55.6점)이 언어성 지능(5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은 교사 평정 100.0점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수용어휘력 점수는 58.6점이었다. 이는 정상발달 87.8%, 유의요망 7.8%, 발달의심 4.4%로 분포된다. 수용어휘력은 성별, 어머니 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현어휘력은 가구소득이 301~499만원인 집단에서, 수용어휘력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평균점수에 기초하여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교사 평정 놀이상호작용(3.1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이며, 놀이방해(1.9점)와 놀이단절(1.6점)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평정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 총점 22.4점, 내재화 문제행동 7.5점, 외현화 문제행동 6.5점으로 만 5세 아동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좀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임상판단 기준(총점: 44점, 내재화: 15점, 외현화: 15

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양호한 수준이다.

종합해 볼 때, 만 5세 한국아동패널의 대상 아동은 전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양호한 발달 수준을 보이거나, 발달의심 혹은 유의 요망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의 생리학적 건강영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만 5세 한국아동의 양육환경 진단

만 5세 자녀를 둔 영유아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는 평균 4.23명이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유형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족과의 식사 횟수를 살펴본 결과, 일주일에 매일 한 끼 미만의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 하루 중 가장 긴 활동은 밤잠(9.9시간)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 이용(7.1시간), 실내놀이(2.1시간), TV시청 등 미디어를 사용한 놀이(1.4시간), 기본생활(1.1시간), 바깥놀이 및 외출(1.1시간), 가정에서 낮잠, 사교육 활동(개인·그룹지도 및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 평균 0.45시간), 기타 및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활동(0.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낮잠을 잔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인 95.9%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관에서는 낮잠시간이 없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개인 게임기의 경우 가끔 이용함 9.0%, 휴대폰 이용률 62.5%, TV 시청의 경우 거의 매일 자주 이용한다는 비율이 59.0%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남아가 더 자주 시청하였고, 모 학력/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TV 시청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어머니 우울 평균 1.9점, 아버지 1.8점으로 어머니의 우울점수가 더 높은 가운데, 평균점수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별로 우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 분포로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는 정상 72.5%, 경도·중증도 우울 20.5%, 중도 우울 7.0%, 아버지는 정상 80.0%, 경도·중증도 16.0%, 중도 4.0%로 어머니에게서 우울한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영유아 부모가 어머니 27.5%, 아버지 20.0%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부모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 어머니 3.67점, 아버

지 3.82점으로 아버지가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자아 존중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기준에서 어머니 2.65점, 아버지 2.43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성의 경우 어머니 3.69점, 아버지 3.63점, 통제성 각 3.5점, 3.4점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통제적 양육행동 점수보다 높은 가운데, 대체로 온정성과 통제성 모두 어머니에게서 더 많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가치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4.4점, 도구적 가치 2.9점,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 4.5점, 도구적 가치 3.2점으로 부모 모두 전반적으로 정서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어머니에 비해 높다.

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빈도면에서 '이야기해주기'와 '책 읽어주기'를 매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어머니와 자녀가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상호작용으로,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갖고 놀기', '자연·과학 놀이하기', '함께 운동하기', '퍼즐게임하기'로 나타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도구적 활동과 신체 체험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생애초기 양육환경에 대한 건강 관련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집안에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다' 31.5%, 현재 '있다' 28.8%, 집안 내 곰팡이 발생 과거 생후 1년 34.8%, 현재 35.4%,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이 있었다 15.1%, 애완전 키운 경험 과거 4.1%로 물리적 환경의 건강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49.4%의 아동이 성인의 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 4회 이상 담배연기를 맡는 경우가 28.5%로 적지 않다. 과거 생후 12개월 내 아동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50.4%,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중 주변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61.2%로 담배연기 노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가정환경 척도에 의하면, 패널 아동 가정이 대체로 균등하게 우수한 가정환경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방학습' 영역에서만 총점 상한선 대비 평균점수와 중위수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미국 가정과 비교하여, 한국의 만 5세 가정은 '학습자료'와 '학습자극', '다양성'의 가정환경 요소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가족 상호작용을 '응집성'과 '유연성'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지각

한 가족의 응집성 4.0점, 유연성 3.6점, 아버지 각 4.0점, 3.7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가족의 상호작용을 좀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유연성에 비해 응집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육아인프라는 민간 보·교육기관에 비해 국공립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 여가시설은 보통 수준의 편리성을 보인 반면, 문화시설은 불편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도서관 이용을 제외하고는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불편도가 높다.

지역사회 안전성에 대하여 치안 안전성 3.3점, 안전사고 안전성 3.2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3. 육아지원정책 설계에 주는 시사점

만 5세 아동의 데이터 기초분석 결과가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형성에 반영되고 구체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장발달 전반에 걸쳐 남아와 여아 간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여아의 발달수준이 남아에 비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별 격차가 생애초기부터 지속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아의 장점, 즉 여성의 우수한 인적역량이 생애주기적으로 지속되어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가정양립과 노동시장 고용률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숙제가 남는다. 또한 남아 고유의 특징점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보육교육 환경에서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남아의 역량을 발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활동적·도구적인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남성 교사의 우선 채용, 아버지 양육참여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둘째, 아동패널 기초분석 연구 전반에 걸쳐 모 학력과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우위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가구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양육과정과 자원의 차이가 영유아의 양육환경 전반과 아동의 성장발달 곡선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다. 이는 신체발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지·지능·사회정서·자아존중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양질의 양육환경과 보·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중산층 이상의 질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이러한 사회경제적 자원과 자녀양육에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이후 생애성장의 누적된 격차로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육아지원 설계와 인프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지속적이다.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미취업모에 비해 좋고 일부 발달영역에서 취업모 자녀의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으나,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횟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과 투자, 구체적 양육과정의 차이가 이후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유의한 차이를 낳고 있으므로, 취업모와 미취업모 양자의 어려움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두 트랙의 육아지원설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즉 취업모의 돌봄 및 보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우선순위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취업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고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확충 및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부모 교육 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규모 또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육아 인프라와 부모의 양육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체로 대도시지역의 아동 발달과 성장이 읍면지역에 비해 좋았으나, 교사가 평정한 언어발달 점수의 경우 대도시지역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정된 바 있다.

다섯째, 아동의 출생순위 효과도 아동의 성장발달에 유의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아동의 출생순위에 의한 선천적인 효과인지, 혹은 자녀의 출생순위 또는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양육과정과 비용 투자 효과의 차이가 낳은 결과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여섯째, 만 5세 아동의 1/4~1/5이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갖고 있어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및 진단율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이와 관련한 영유아가구의 양육의 어려움과 의료비 지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환경의 물리적 특성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에서부터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영향인자를 찾고 최소화하는 융합 연구의 수행과 이에 근거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곱째,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현재 임신 중인

3%를 포함하여 향후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은 7.9%) 이미 자녀를 낳은 영유아부모의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지 않다. 그러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도에서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움 수혜가 자녀양육과 후속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하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보편적 지원체계를 갖는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의 도움 정도도 5점 평균 4.1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그 밖에 선별적 차등지원 설계를 갖는 아이돌봄서비스(4.54)와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4.46),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4.21)의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률도 높다. 만 5세 패널아동 가구 평가에 의한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편적 지원 속에서 차등지원의 설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유형 변화, 취약요인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가구의 특색에 맞는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수진·유하진(2014). 5,6세 아동을 위한 따라말하기 선별검사의 개발. **2014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기초과학에서 의사소통장애 임상까지: 뇌과학과 언어치료”**, 43-46, 9월 20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중강당.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설·도남희(2012).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6(-), 73-88.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정영혜(2012).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김은설(편).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 분석 연구**(pp. 83-10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미·신희선(2006). **K-CDI 아동발달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혜금(2012).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지역사회 육아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5-24.
- 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엄지민(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수연(2013). **영아와 부모의 특성 및 육아유형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아·신유림·이미라(2013).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생후 초기 발달 고위험군 영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31-46.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서유정(2008.10.17). “아침 안먹는 우리 아이 비만될 확률 ↑”. 국민일보. <http://m.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3>에서 2014년 6월 21일 인출.

서주현·김진경(2011).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1(-), 171-172.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송요현(2012).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탐색: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 김은설(편).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 분석 연구**(pp. 26-6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송정현(2011.05.12.). “4개월 이상 모유 먹으면 행동장애 예방”. 메디칼트리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lid=1305208274&cp=nv>에서 2014년 6월 21일 인출.

신나리(2011). 산전 후 우울 변화-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단기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59-72.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 매뉴얼**. 서울: (주)휴노컨설팅.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재석·이완정(2012). 한국아동패널(PSKC)조사에 나타난 출산 전·후 및 영아기 양육지원정책의 내용과 경향. **아동과 권리**, 16(1), 51-72.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

- 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 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곽영숙·유영의·최일선·유홍옥(2008).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교사 지침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 이희정(2012). 어머니 우울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30-258.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광호(2008). **생애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단연구 모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29-57.
- 최효식·연은모·윤영·홍윤정(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 환경 변인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 83(-), 51-75.
- 한유진, 최민실, 김수진(2014). 따라말하기 선별검사를 통한 일반아동과 말소리 장애아동의 언어능력 차이. **2014 한국음성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23-124. 11월 21일-22일. 서울: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for hu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dwell. B. M., & Bradley. P.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Wisconsin: Minuteman Press.

-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www.adls.ac.uk/find-administrative-data/linked-administrative-data/effective-pre-school-primary-and-secondary-education>
- Elder, G. H. Jr. (1998).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25th anniversary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_____.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 Growing Up in New Zealand.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www.growingup.co.nz/index.shtml>.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 Joseph, J. (1979). *JOSEPH Pre-school &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Test*. Illinois: Stoelting Co.
- _____. (1992). *Instruction manual for the 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test*. Chicago, IL: Stoelting Co.
- Kirby, J. R., Parilla, R. K., & Pfeiffer, S. L. (2003). Naming speed and phonological awareness as predictors of reading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3), 453-464.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illennium Cohort Study. (2010). *Millennimu Cohort Study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Surveys: A Guide to the datasets (5th ed)*. K. Hansen (ED.),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survey.net.ac.uk/index/_search1099%5cMcs%5c6411_2008_guide.pdf.
- Millennium Cohort Study.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851&sitesectiontitle=Welcome+to+the+Millennium+Cohort+Study>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NICH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Pages/seccyd.aspx>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Inc. www.facesiv.com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4

Choi, Yoon Kyung Bae, Yunjin Song, Shinyeong

Lim, Junbum Yi, YeJin Kim, Soa Kim, Sinkyung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race of children's life after birth, performance of parents' role and influence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on futur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PSKC 2014 investigated pre-elementary children's growth, development and childcare environment through appropriate research for 6 year olds. The following are key outcomes of the report on PSKC 2014 which was conducted in 2013 among 1,662 families.

First, 5 year old panels were in a good condition over average across all aspects of language and cognition,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reas. There were differences in work and living hours depending on mother's working status. Occurrence and rate of diagnosis of allergic diseases were somewhat increased vs. previous research.

Second, employment rate of mothers in temporary job was higher than father's in the Panel parent's study, and parent's expectation on their child was different by child's gender or order of birth.

Third, Panel families were spending one third of family income for their children, and institutions used the most by Panel children were kindergarten, daycare, and private academy of half day program or longer, in the order of choice. Child-to-teacher ratio of the mainly used institution was 16.18 children, and special activities and non-curricular extra-programs were conducted 7.66 times per week, and special activities outside institution were 2.92 times.

Fourth, concerning the ECEC institution supply and childcare support infrastructure, there was a highest occupancy ratio of apartment; regarding sufficiency of childcare/education institution at local community, parents felt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s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as insufficient. Among childcare support systems, Nuri Curriculum, childcare/education expenses support, children health check-up, and mandatory vaccination had high reception rates, receiving opinions that they were helpful overall. As for necessary childcare support systems at workplace, women's maternity leave, childcare expense support, and childcare leave showed highest demands.

To summariz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s growth and development, and parent's childcare environment according to child's gender, mother's education and family income, mother's working status, size of region, and the order of child birth. A childcare support policy customized by recipient is required so that these differences do not lead to cumulated gap in their developmental course. Also,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ypes of childcare support services fit to characteristics of target families, considering changes in household types due to nuclearization, and families with vulnerable elements and socioeconomic deprivation.

Keyword: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chil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alysis on childcare support policy

부록

부록 1. 가중치 작성 및 추정

부록 2. 6차년도(2013) 질문지

부록 3. 7차년도(2014) 조사 안내문

부록 1. 가중치 작성¹⁸⁾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은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이다. 이와 같은 표본 자료의 적절한 통계 분석은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 적용을 통한 추정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③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아동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조사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2차), 2010년도(3차), 2011년도(4차), 2012년도(5차), 2013년도(6차)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매년 무응답 및 사후층화 조정 과정을 통해 작성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제공해 왔다.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년 수행됨에 따라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8) 가중치 부여방법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대해 조사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시 설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 2009)를 참고할 것.

나. 6차년도 가중치 보정

1) 아동패널 응답패턴 분석

패널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고자 한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구체적인 패널가구 응답 패턴 및 표본마모 현황은 ‘한국아동패널 2013 사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년) 조사결과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분포는 <부록 표 1>과 같다. 우선 1차년도 원 패널 2,078가구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차~6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1,463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유지율은 70.4%이고, 2차 및 3차조사에 신규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 2,1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패널유지율은 68.0%이다.

한편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488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 패널 가구 중 1차, 2차, 3차, 4차 및 5차년도 조사에 계속 참여하였으나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73가구, 5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0가구, 4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3가구, 3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01가구, 1차년도에만 참여를 하고 2차년도 이후 조사에는 계속 참여하지 않은 143가구였으며, 그 밖에 단조절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에 해당하지 않는 6차년도 무응답 가구가 68가구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널(2,150가구)을 기준으로 보면 6차년도 패널 응답률은 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1〉 연도별 아동패널 응답가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여부						%(가구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패널; 조사 성공	○	○	○	○	○	○	68.0(1,463)
원패널; 6차년도 탈락	○	○	○	○	○	X	3.4(73)
원패널; 5차년도 이후 탈락	○	○	○	○	X	X	2.3(50)
원패널; 4차년도 이후 탈락	○	○	○	X	X	X	2.5(53)
원패널; 3차년도 이후 탈락	○	○	X	X	X	X	4.7(101)
원패널; 2차년도 이후 탈락	○	X	X	X	X	X	6.7(143)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1.2(26)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0.5(11)
기타 - 6차년도 성공	*	*	*	*	*	○	7.5(162)
기타 - 6차년도 탈락	*	*	*	*	*	X	3.2(68)
합 계	-	-	-				100.0(2,150)

주: 6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는 1,662가구임.

한편,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로 52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추가로 참여하였고, 이들 가구 중 26가구는 6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참여하였다. 또한,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차년도에 20가구가 새로 참여하였으며 이 중 11가구가 6차년도 조사에도 참여하여, 6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662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고로, 2차와 3차년도 조사까지는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에서 1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표본 패널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4차년도 조사부터는 3차년도 조사에서 최종으로 구축된(예비표본 중 최소한 1차, 2차, 3차 조사 중 한번 이상 참여한 가구) 2,150 가구 외에 더 이상 표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차, 2차, 3차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차년 이후에 대한 자료의 구축만으로는 원래 패널조사의 목적에 따른 종단적 연구의 의미가 없고, 이미 3차년도 조사까지 참여하지 않은 패널의 참여를 유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더불어서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신규패널로 인해 매해 다소 다른 기준의 패널 수(예, 1차년도 2,078, 2차년도 2,130, 3차년도 2,150)를 갖게 되고, 또한 설계가중치 산출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3차년도 이후부터는 2,150가구가 설계가중치 산출 시 기준 패널 가구 수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2)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작성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며 또한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기존의 5차년도까지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응답을 보정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5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3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참고로 2013년도 6차년도 아동패널 가중치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은 6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1,662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최종 가중치는 전체 패널 중 6차년도 무응답 488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 보정 후, 통계청의 2013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우선 1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위해,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해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 변수들 중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업여부, 아동출생순위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모형을 적합시켰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연도별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되는 패널의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가장 최근의 패널정보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마찬가지로 2차와 3차년도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는 신규 참여 연도에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패널정보로 업데이트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결과와 <부록 표 2>와 같다. 5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권역(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등 6개 권역), 어머니 취업여부(2개 범주)의 두 가지 변수가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6차년도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value)이 크지 않고 동일한 변수들을 무응답 조정 계급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무응답 가중치

보정 과정이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권역) 변수를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계급을 구성하였다.

〈부록 표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변수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p-value)
취업여부	1	4.2658	0.0389
출생순위	1	1.8214	0.1771
지역(권역)	5	12.4570	0.0290

따라서 무응답 조정 계급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한국아동패널의 최종 가중치는 통계청의 2013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16개 시도별로 만 5세 남녀 아동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2013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사후층화과정에서는 일부 극단적으로 값이 크게 산출된 가중치는 적정 수준에서 절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단(outlier) 가중치를 포함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를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3년 한국아동패널 횡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표 3>과 같다. 최종 2013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81.55, 중위수는 230.32, 표준편차는 161.70, 최소값은 35.90, 최대값은 84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3〉 6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3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레수	최소값	최대값
사레별 가중치	281.55	230.32	161.70	1,662	35.90	841.61

3)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작성

2010년도 3차년도 아동패널까지는 3개 년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아동패널 자료 이용자가 본격적인 종단면 자료 분석을 할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단면 가중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 패널조사는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을 위한 횡단면 분석과 함께 동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패널의 경우에도 4차년도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우선 원 표본 가구로부터 6차년도 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해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설정하였다. 6차 년도의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횡단면 가중치 산출과정과 유사한 무응답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2008년부터 6개 년 모두 응답한 가구의 자료에만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응답률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아동패널의 무응답이 단조결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및 종단면 가중치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대상가구에 대해서도 횡단면자료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응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고, 5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생순서, 거주지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5차년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도 횡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과정에서도 1차년도(2008년) 이후 발생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형식의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종단면 가중치도 무응답에 따른 종단면 가중치 조정 후, 통계청의 2013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시도별로 만 5세 남녀 아동수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과정에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극단(outlier) 가중치를 절사 처리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3년 한국아동패널 종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표 4>와 같다. 최종 2013년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319.85, 중위수는 262.08, 표준편차는 182.19, 최소값은 43.76, 최대값은 854.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4〉 6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3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319.85	262.08	182.19	1,463	43.76	854.28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여기서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조사 자료와 함께 제공하였지만, 2011년 4차년도 자료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자료에 대한 횡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 반드시 적용해 분석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차년도에 걸쳐 계속 조사된 **1,463**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제공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부록 표 5〉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수 및 가중치 적용

구분	연도	분석대상 패널 가구수	적용 대상 가중치
횡단면 분석	2008년 (1차조사)	2,078	2008년 횡단면 가중치
	2009년 (2차조사)	1,904	2009년 횡단면 가중치
	2010년 (3차조사)	1,802	2010년 횡단면 가중치
	2011년 (4차조사)	1,754	2011년 횡단면 가중치
	2012년 (5차조사)	1,703	2012년 횡단면 가중치
	2013년 (6차조사)	1,662	2013년 횡단면 가중치
종단면 분석	2013년 (1~6차조사)	1,463	2013년 종단면 가중치

가. 면접조사용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01. 조사 날짜	()월 ()일 ▶ 범위(scroll bar): (6~10)월, (1~31)일	SQ01-1. 면접원 성명	()
SQ02. 아동 이름	() ▶ 변동 없을 시, Go SQ03 ▶ 변동 시, Go SQ02-1 ★ 중단 1	SQ02-1. 아동 이름 변동 사유	① 개명함 ② 지난조사에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SQ03. 출생순위	()남 ()녀 중 ()째 ▶ ()째 변동 없을 시, Go SQ04 ▶ ()째 변동 시, Go SQ03-1 ▶ 범위(scroll bar): (0~5)남, (0~5)녀, (1~10)째 ▶ ○○이의 성별과 동일한 출생순위에 는 반드시 '1' 이상이 되어야 함. ★ 중단로직 중 성별로직 추가 ▶ ()남 ()녀에 동시 '0' 불가 ★ 중단 2	SQ03-1. 출생순위 변동 사유	① 순위형제 사망 ② 순위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변동 ④ 기타()
SQ04. 응답자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이)의 형제·자매 ④ ○○(이)의 조부모 ⑤ 기타 친인척		
SQ05. 응답자 연락처	집 전화: () 어머니 성명: () 어머니 휴대폰: () 아버지 휴대폰: () ▶ [집 전화] 또는 [어머니 휴대폰], [아버지 휴대폰] 중 1개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 중단 3		
SQ06. 현 주소	()시·도 ()군·구 ()동·읍·면 () ▶ 주소입력기 형식 ★ 중단 4		
SQ07. 이사 횟수	귀택은 ○○(이)가 태어난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이)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회 ▶ 범위(scroll bar): (0~10)회 ▶ SQ04에 ①로 응답 시, Go Q1-1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2-1 ▶ SQ04에 ③~⑤로 응답 시, Go Q5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이) 어머니의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⑧ 불일치

▶ [③, ⑤, ⑥, ⑦] 응답 시, Go Q1-3

▶ 중단 5와 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Go Q1-3 /

▶ 중단 5와 불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는 경우), Go Q1-2

▶ 중단 값이 ⑧ 불일치로 구현되는 패널은 반드시 값을 수정해야 넘어갈 수 있음

▶ 단 중단 7이 구현될 경우, Go Q1-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5

1-2. 어머니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 ()년 ()월에 (Q1-1 구현)함.

▶ Q1-1 응답값 구현

▶ 범위(scroll bar): (1970~2013)년, (1~12)월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6

1-3.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범위(scroll bar): (1950~1999)년, (1~12)월, (1~31)일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만 연령 생성(조사년월일 - 생년월일)

★ 중단 7

▶ 중단 7 미구현 시에만 질문

▶ Q1-2의 '년' 값 > Q1-3의 '년'값

1-4. 어머니의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졸업

★ 중단 8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5. 어머니의 1-2급 장애 유무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 중단 9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6. 어머니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 Q1-1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2-1 ▶ Q1-1에 [①,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①응답 시, Go Q3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4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1-7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7. 어머니와 ○○(이)의 비동거 이유

- ①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복무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④ 기타()

▶ Q1-1에 [①,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3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1-1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2-1

2-1. ○○(이) 아버지의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⑧ 불일치

- ▶ [③, ⑤, ⑥, ⑦] 응답 시, Go Q2-3
▶ 중단 10과 일치할 경우, Go Q2-3 / 단 중단 11이 구현될 경우, Go Q2-4
▶ 중단 10과 불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는 경우), Go Q2-2
▶ 중단 값이 ⑧ 불일치로 구현되는 패널은 반드시 값을 수정해야 넘어갈 수 있음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10

2-2. 아버지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 ()년 ()월에 (Q2-1 구현)함.

- ▶ Q2-1 응답값 구현
▶ 범위(scroll bar): (1970~2013)년, (1~12)월, (1~31)일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11

2-3.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 범위(scroll bar): (1950~1999)년, (1~12)월, (1~31)일
✧ 만 연령 생성(조사년월일 - 생년월일)
★ 중단 12
▶ 중단 12 미구현 시에만 질문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2-2의 '년' 값 > Q2-3의 '년'값

2-4. 아버지의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졸업

- ★ 중단 13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 아버지의 1·2급 장애 유무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 ★ 중단 1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6. 아버지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 Q2-1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Go Q1-3 / 단 중단 7이 구현될 경우, Go Q1-4 ▶ Q2-1에 [①,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Go Q4 ▶ SQ04에 ① 응답 시, Go Q3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2-7번 문항으로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7. 아버지와 ○○(이)의 비동거 이유

- ①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복무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④ 기타()

- ▶ Q2-1에 [②, ③, ④]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Go Q1-3 / 단 중단 7이 구현될 경우, Go Q1-4
▶ Q2-1에 [①, ⑤, ⑥, ⑦] 응답 시, SQ04에 ② 응답 시, Go Q4
▶ SQ04에 ①로 응답 시, Go Q3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단,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3-1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4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3-1번 문항으로

④ 미취업/미학업 ⇒ 4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1.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 중단 15: 미구현 적용

▶ 중단 데이터에 [② 학업중, ④ 미취업/미학업]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3-3

▶ 중단 데이터에 [① 취업중, 공란]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3-2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2.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 이후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습니까?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 지난 조사 시 응답 : 직장명(), 직위()

① 아니오(변동 없음) ⇒ 3-7번 문항으로

② 직장이 바뀐 ⇒ 3-3번 문항으로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직위가 바뀐(전근, 부서 변경 포함) ⇒ 3-6번 문항으로

④ 지난 조사시, 미취업/미학업 이었음 ⇒ 3-3번 문항으로

★ 중단 16: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16이 '공란'일 경우, Q3-2의 응답에 상관없이 Go Q3-3

3-3.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무응답 시, Go Q3-4

3-4. 귀하의 직장(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무응답 시, Go Q3-5

3-5.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양식조리·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

▶ 무응답 시, Go Q3-6

3-6.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무응답 시, Go Q3-7

3-7.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중업원을 둔 고용주

⑤ 중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3-1에 ② 응답 시, Go Q4

3-8. 귀하는 평소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세요.

(1) 근무 일수 : 주중(월~금) ()일 근무 주말(토, 일) ()일 근무

▶ 범위(scroll bar): (0~5)주중, (0~2)주말

▶ 주중, 주말에 모두 '0'이 나올 경우, Go Q3-8-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 근무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시간 근무 주말(토, 일) 1일 평균 ()시간 근무

▶ 범위(scroll bar): 0~20

▶ [근무 일수]에 1이상으로 응답된 경우, '0'불가

▶ Q3-7에 ①응답자가 [(주중 근무 일)×(주중 근무 시간)]+[(주말 근무 일)×(주말 근무 시간)]를 40시간 미만으로 응답 시, Go Q3-8-2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 왕복 출퇴근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왕복 ()분 소요 주말(토, 일) 1일 평균 왕복 ()분 소요

▶ 범위(scroll bar): 0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8-1. 귀하는 주중/주말 근무 일수를 모두 '0'일로 입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무 일수를 잘못 입력함 ➡ 3-8-(1)번 문항으로 커서이동
 ② 취업/학업상태를 잘못 입력함 ➡ 3번 문항으로
 ③ 휴직/재직상태를 잘못 입력함 ➡ 3-1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8-2. 상용직 근로자인 귀하는 주당 총 '40시간 미만' 근무하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네, 상용직이며 주당 총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 4번 문항으로
 ② 상용직 아님 ➡ 3-7번 문항으로
 ③ 근무시간 잘못 입력 ➡ 3-8-(2)번 문항으로 커서이동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귀댁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세요.

☑ '도움'이란 도구적, 정서적, 여가적, 정보적 지원을 의미함.

▶ '도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Q4-0)에서만 구현

문항	○○(이)의 친가 식구	○○(이)의 외가 식구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응답자의 이웃
0)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수	()명	()명	()명	()명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 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 려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큰 일(잔치, 긴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이)의 친가 식구	○○(이)의 외가 식구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응답자의 이웃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집안 김홍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Q4-0) 범위 : 0~20

▶ Q4-0)에 '0'로 응답될 경우, Q4-1) ~ Q4-12) 응답칸 비활성화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패널아동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이)는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나

▶ 범위(scroll bar): (19~04)시 (00, 30) ~ (04~12)시 (00, 30)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분)을 제외하고는 '0' 불가

▶ 취침시간 '04' 입력하고 기상시간 '04'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고창 뜸

▶ '일어난 시간'이 '잠든 시간'보다 빠를 경우, 경고창 뜸

◎ "○○(이)의 일어나는 시간과 잠든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평균 수면 시간 생성 후 경고창에 구현 : 소수점 환산값(30분=0.5)

◎ "○○(이)의 밤잠 시간을 (평균 수면 시간 구현)시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③ 확인 ⇒ 6번 문항으로 ② 취소 ⇒ 5번 문항으로

6. ○○(이)는 대체로 밤에 깨지 않고 잡니까?

① 예(밤잠 자다 깨지 않음) ② 아니오(밤잠 자다가 깸)

▶ 무응답 시, Go Q7

7. ○○(이)가 평일 하루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나요? 귀하가 생각하는 ○○(이)의 가장 일상적인 날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활동 내용	하루 활동 시간
현재까지 응답한 시간의 합 ▶ Q7-1) ~ 10) 응답값의 합산 생성 후 구현	() / 24시간
1) 밤잠 시간 ▶ Q5의 [평균 수면 시간] 구현 ▶ 수정 불가 → '문항 이동'으로 수정	()시간
2)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간 ▶ '0.0' 가능 ▶ 범위: 3.0 이상 가능, 0.5~2.5 불가 ▶ 3.0 이상 응답 시, Go Q8 ▶ 0.0 응답 시, Go Q13	()시간
3) 개인, 그룹 지도,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 ▶ '0.0' 가능	()시간
4)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 '0.0' 가능	()시간
5)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 0.5 이상 응답 시, Go Q7-1 ▶ '0.0' 가능	()시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 '0.0' 가능 ▶ 0.5 이상 응답 시, Go Q7-3	()시간
7) 바깥놀이 및 외출 ▶ 0.5 이상 응답 시, Go Q7-4	()시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0.0 불가	()시간
9) 집에서 자는 낮잠 시간 ▶ '0.0' 가능	()시간
10) 기타 시간 ▶ 범위 : 0.0~3.0	()시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하위 항목 간의 로직이 충돌되는 경우 앞번호 문항을 우선으로 함.

예) 7번의 2)에서 3.5 응답, 5)에서 1 응답시, 2)의 Go Q8 로직과 5)의 Go Q7-1 로직이 충돌하는데 이때 Q7-1로 이동함

예) 5), 6), 7)에서 0.0 응답하고, 2)에 3.0 이상 응답시 Go Q8.

단, 5), 6), 7) 모두 0.0 응답하고, 2)에 0.0으로 응답시 Go Q13

▶ 범위 : 30분 단위(0.5)로 응답

▶ Q7의 5)에 0.0 응답 시, Q7-1, Q7-2 미구현

- ▶ Q7의 6)에 0.0 응답 시, Q7-3 미구현
- ▶ Q7의 7)에 0.0 응답 시, Q7-4 미구현
- ▶ Q7-1) ~ 10) 응답값의 합이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으로 이동
- ▶ 하위 항목 로직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o Q8

7-1. ○○(이)는 지난 1주일 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를 며칠 하였습니까?

1주일 간 총 ()일

- ▶ '0' 불가
- ▶ 범위(scroll bar): 1~7
- ▶ 무응답 시, Q7-6)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3
- ▶ 무응답 시, Q7-7)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4
- ▶ 무응답 시, Q7-6)과 Q7-7)에 0.0 응답, Q7-2)에 3.0 이상 응답 시, Go Q8
- ▶ 무응답 시, Q7-6)과 Q7-7)에 0.0 응답, Q7-2)에 0.0 응답 시, Go Q13

7-2. ○○(이)가 지난 1주일 간 아래의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였습니까?

종류	전혀 이용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1) 컴퓨터(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게임기(닌텐도 등)	①	②	③	④	⑤
3) 휴대폰 등(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4) TV 시청	①	②	③	④	⑤

- ▶ Q7-2-1)~4)에 모두 ① 불가
- ▶ Q7-6)에 0.0 응답하고, Q7-7)에 0.5 이상 응답시, Go Q7-4
- ▶ 무응답 시, Q7-6)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3
- ▶ 무응답 시, Q7-7)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4
- ▶ 무응답 시, Q7-6)과 Q7-7)에 0.0 응답, Q7-2)에 3.0 이상 응답 시, Go Q8
- ▶ 무응답 시, Q7-6)과 Q7-7)에 0.0 응답, Q7-2)에 0.0 응답 시, Go Q13

7-3. ○○(이)는 지난 1주일 간 장난감놀이, 책 보기 등의 실내놀이를 며칠 하였습니까?

1주일 간 총 ()일

- ▶ '0' 불가
- ▶ 범위(scroll bar): 1~7
- ▶ Q7-7)에 0.0 응답 시, Q7-2)에 3.0 이상 응답 시 Go Q8
- ▶ Q7-7)에 0.0 응답 시, Q7-2)에 0.0 응답 시 Go Q13
- ▶ 무응답 시, Q7-7)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4

7-4. ○○(이)는 지난 1주일 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을 며칠 하였습니까?

1주일 간 총 ()일

- ▶ '0' 불가
- ▶ 범위(scroll bar): 1~7
- ▶ 무응답 시, Q7-2)에 3.0 이상 응답 시, Go Q8
- ▶ 무응답 시, Q7-2)에 0.0 응답 시, Go Q13

11. ○○(이)가 다니는 다음 보육·교육 기관의 비용과 이에 따른 부모님의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보육·교육 기관 명	11-1. 월 평균 실제 지불(자부담) 비용	11-2. 월 평균 지불 비용 부담 정도
① 어린이집	월 평균 ()만원 지불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② 유치원	월 평균 ()만원 지불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③ 반일제 이상 학원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월 평균 ()만원 지불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 Q11-1에 '0' 가능

▶ Q11-1 범위 : 0 ~ 500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 sum(Q11-1-①~Q11-1-③)

12. ○○(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운영시간 ② 거리의 근접성 ③ 형제와 함께 이용하는 등의 편리성
④ 비용 ⑤ 교사의 질 ⑥ 프로그램 내용
⑦ 물리적 환경(시설 및 설비) ⑧ 주변의 평판 ⑨ 기타()

▶ 무응답 시, Go Q13

13. ○○(이)가 지난 1년간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현재 이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두 응답해 주세요.

서비스 종류	이용 수	13-1. 현재 이용 여부
① 어린이집	()기관	☐
② 유치원	()기관	☐
③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
④ 비용을 지불하는 대리 양육자(양육 도우미)	()명	☒ (현재 달) 이용함
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	☒ (현재 달) 이용함
⑥ 일시 보육	()기관	☒ (현재 달) 이용함

▶ 범위: 0~30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9-1에 ①로 응답된 경우, Q13에 '1', 그 외의 응답내용은 '0'으로 Default

면접원전달사항) 값을 확인 후 수정 가능

▶ 표가 ④~⑥까지 한번에 보여주므로, 전체를 모두 응답 후 Q13-1로 넘어갈때 3이상 값이 있으면 번호 순서대로 경고창->Q13->경고창->Q13의 형태로 구현

▶ Q13에 ①≥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13예 ② ≥ 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유치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13예 ③ ≥ 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13예 ④ ≥ 3
- ○○(이)가 지난 1년간 3명 이상의 대리 양육자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13-1번 문항으로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13예 ⑤ ≥ 5
- ○○(이)가 지난 1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13-1번 문항으로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13예 ⑥ ≥ 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13-1번 문항으로
- ② 취소 ⇒ 13번 문항으로
- ▶ Q7-2) '3'이상 응답자가 Q13-1에 ④ 응답 시, Go Q14-1
- ▶ Q7-2) '0.0' 응답자가 Q13-1에 ④ 응답 시, Go 17
- ▶ Q7-2) '3'이상 응답자가 Q13-1에 ⑤ 응답 시, Go Q14-2
- ▶ Q7-2) '0.0' 응답자가 Q13-1에 ⑤ 응답 시, Go 15
- ▶ Q7-2) '3'이상 응답자가 Q13-1에 ⑥ 응답 시, Go Q16
- ▶ Q7-2) '0.0' 응답자가 Q13-1에 ⑥ 응답 시, Go 16
- ▶ 이 외의 경우, Go Q17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 Q13-1의 ④를 응답하지 않을시 Q14-1 미구현
- ▶ Q13-1의 ⑤를 응답하지 않을시 Q14-2, Q15, Q15-1, Q15-2 미구현
- ▶ Q13-1의 ⑥을 응답하지 않을시 Q16 미구현

다음은 패널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4-1. 기관 이외에 개인 양육지원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②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 ③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④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 ⑤ 돌봄 사람이 없어서 ⑥ 개별적인 돌봄을 위해서
- ⑦ 기타()
- ▶ Q13-1에 ⑤ 미선택, ⑥ 선택시, Go Q16
- ▶ Q13-1에 ⑤ 미선택, ⑥ 미선택시, Go Q17
- ▶ 무응답 시, Q13-1에 ⑤ 선택 시 Go Q14-2
- ▶ 무응답 시, Q13-1에 ⑤ 선택하지 않고, ⑥ 선택 시 Go Q16
- ▶ 무응답 시, Q13-1에 ⑤ and ⑥ 미선택 시 Go Q17

14-2.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외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 ②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 ③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 ④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 ⑤ 놀이 상대가 없어서
- ⑥ 아이가 재능을 보여서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안 하면 뒤쳐질 것 같아서
- ⑨ 기타()

▶ 무응답 시, Q13-1에 ⑥ 선택 시 Go Q16

▶ 무응답 시, Q13-1에 ⑥ 미선택 시 Go Q17

15.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원 외의 특별활동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1회 평균 ()분씩 / 1주 총 ()회 이용한

▶ 범위(scroll bar): (20~120) / 10분 간격)분, (1~21)회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0' 불가

15-1. ○○(이)의 월 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외의 특별활동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천원 지불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범위: 0~1000

15-2. 지난 1년간 ○○(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외에 이용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 ②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 ③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 ④ 과학
- ⑤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 ⑥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 ⑦ 컴퓨터
-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 ⑨ 한자
- ⑩ 영어
- ⑪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 ⑫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 ⑬ 통합프로그램
- ⑭ 기타 ()

▶ Q13-1에 ⑤ 미선택 시, Go Q17

▶ 무응답 시, Q13-1에 ⑥ 선택 시 Go Q16

▶ 무응답 시, Q13-1에 ⑥ 미선택 시 Go Q17

16. ○○(이)는 일시보육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1일 평균 () / 월 평균 ()회 이용

▶ '0' 불가

▶ 범위(scroll bar):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 범위(scroll bar): 1~7회

▶ 무응답 시, Go Q17

다음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귀 댁은 지난 1년 간 국가로부터 ○○(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명	지원에 대한 설명	17-1. 지원 여부	17-2. 지원 내역	17-3. 도움 정도	17-4. 앞으로의 개선방안
1) 누리과정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3~5세 아동에게 공통의 보육·교육비용(월 220,000원 지원), 교육과정 제공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2) 다문화가정 보육·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3)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전 계층에게 월 120,000원 지급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4)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 0~5세를 대상으로 기존시간 초과 보육료 지원. - 시간당 2,700원씩 60시간에 한함(장 애아동은 3,700원씩 한도 162,000원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월,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지원명	지원에 대한 설명	17-1. 지원 여부	17-2. 지원 내역	17-3. 도움 정도	17-4. 앞으로의 개선방안
5)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6)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7) 필수예방접종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 백신비와 시행비용 일부 지원 - 관할 보건소 이용 시 무료,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5,000원 이하(지역에 따라 무료접종 가능)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8)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만 2~6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파견 - 방문 1회당 20분 이상, 신청 후 10개월 간 월 15,000원 바우처로 지급 (1등급은 25,000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지원명	지원에 대한 설명	17-1. 지원 여부	17-2. 지원 내역	17-3. 도움 정도	17-4. 앞으로의 개선방안
9)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 만 0~6세 영유아 중 발달 평가 결과 에서 '경사 필요' 등급을 받거나, 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유아에게 월 140,000~160,000원 지급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10)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교육·보육비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1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만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월 160,000 원 서비스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지 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12)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 만 18세 미만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 월 200,000원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지원비 증액 ② 지원 축소(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③ 지원 확대(대상, 시간, 연령, 소득 등) ④ 서비스 질 향상 ⑤ 적극적 홍보 ⑥ 기타

▲ Q17-1의 ① 응답자만 Q17-2, -3, -4 구원
 ▲ [지원에 대한 설명]은 Q17-1에서만 보여줌
 ▲ 무응답, 모를 불가 문항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주세요.

월 평균 가구소득 ()만원

☑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주민세·재산세·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 '0'가능

▶ Q18 범위 : 0 ~ 9000

▶ SQ04에 ②~⑤로 응답 시, Go Q19

▶ SQ04 ① 응답자 중 Q3 ②, ④는 Go Q19

▶ Q18=0 응답시

◎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9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8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19

▶ 무응답 시, SQ04에 ①응답자 중, Q3에 ①, ③으로 응답된 경우 Go Q18-1

18-1.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주세요.

월 평균 어머니의 근로소득 ()만원

▶ Q18-1 범위 : 0 ~ 9000

▶ SQ04의 ① 응답자 중, Q3에 ①, ③으로 응답된 경우만 질문 구현

▶ Q3-1의 ② 응답자, '0'원 가능

▶ Q3-7에 ④, ⑤, ⑥로 응답된 경우만 '0'원 가능

◎ "○○(이)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0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9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8-1번 문항으로

▶ Q18 = Q18-1, Go Q18-1-1

▶ 무응답 시, Go Q19

▶ Q18-1 ≥ 1,000

◎ "○○(이)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1,0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9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8-1번 문항으로

18-1-1. ○○(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① 네, ○○(이) 어머니의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입니다. ⇒ 19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가구 총 소득을 잘못 응답하였습니다. ⇒ 18번 문항으로

③ 아니요,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잘못 응답하였습니다. ⇒ 18-1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19

19.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비소비성 지출

☒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를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소비성 지출

☒ 식비, 주거비, 보육교육비(특별활동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

구분	종류	월 평균 비용
비소비성 지출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만원
	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만원
소비성 지출	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만원
	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만원

▶ Q19-1), Q19-2), Q19-4) 범위 : 0 ~ 9000

▶ Q19-3) 범위 : 1 ~ 9000, '0' 불가

▶ 총 가구지출 = sum[Q19-1), Q19-3)] 계산

▶ Q19-1)가 '0'일 경우, 그대로 sum[Q19-1), Q19-3)] 계산

▶ Q19-1) or Q19-3)에 무응답이 있을 경우, sum[Q19-1), Q19-3)] 계산 안함

▶ Q19-1) ≥ Q19-2)

▶ Q19-1) = Q19-2) : (단, 값이 0이 아닐 경우만)

◎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20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9번 문항으로

▶ Q19-3) ≥ Q19-4)

▶ Q19-3) = Q19-4)

◎ "가구 총 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20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9번 문항으로

▶ Q19-3) < 12

◎ 귀댁은 한달 평균 12만원 미만으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쓴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20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9번 문항으로

▶ Q19-4) < Sum(Q11-1 ①~③, Q15-1) 이면 Go Q19-1-1

- Sum 계산을 위해 Q15-1의 '천'단위는 '만'단위로 환산하고 소수점 1자리로 표시

▶ Q19-4) ≥ Sum(Q11-1 ①~③, Q15-1)이면 Go Q20 (단, sum[Q19-1), Q19-3)] > Q18은 Go 19-1우선)

19-1-1. ○○(이)를 위하여 [SumQ11-1 ①~③ Q15-1]만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소비성 지출에는 '보육·교육비 및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

① 확인 ⇨ 20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1-1-1번 문항으로

▶ sum[Q19-1), Q19-3)] > Q18, Go Q19-1

▶ Q18, Q19-1), Q19-3), 중 한가지라도 '모름, 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 Q19-1 미구현, Go 20

▶ Q19-4)에 '모름, 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 Q11-1-1 미구현

▶ 무응답 시, Go Q20

11-1-1. ○○(이)가 이용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육아지원 서비스 명	월 평균 이용 비용
① 어린이집	월 평균 (Q11-1 구현)만원 지불
② 유치원	월 평균 (Q11-1 구현)만원 지불
③ 반일제 이상 학원	월 평균 (Q11-1 구현)만원 지불
④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Q15-1 구현)만원 지불

- ▶ Q11-1 값을 Default 된 상태에서 확인 후 다르면 수정하거나 맞으면 확인하여 넘어가게 구현
- ▶ Q11-1-1 범위 : 0~1000
- ▶ 단, ①~③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할 경우, 경고창 구현
- ◎ 귀댁은 ○○(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으로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확인 ⇨ 20번 문항으로
- ② 취소 ⇨ 11-1-1번 문항으로
- ▶ ①~③은 Q9에 '0'으로 응답시 미구현함
- ▶ ④는 Q15-1이 구현된 경우만 소수점으로 환산하여 구현
- ▶ Q11-1, Q15-1 값구현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9-1. 귀 댁의 총 지출이 가구 총 소득보다 크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못 입력 ⇨ 18번 문항으로
- ② 마이너스 통장, 카드 이용
- ③ 친정 혹은 시댁의 원조
- ④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씀
- ⑤ 기타()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0. 귀 댁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세요.

- 시가 ()만원
- ▶ '0' 가능
- ▶ Q20 범위 : 0 ~ 9999999
- ▶ 무응답 시, Go Q21

21. 귀 댁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 총()만원
- ▶ '0' 가능
- ▶ Q21 범위 : 0 ~ 9999999
- ▶ 무응답 시, Go Q22

22. 귀 댁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빌려준 집의 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 ① 부채 있음 ⇨ 22-1번 문항으로
- ② 부채 없음 ⇨ 23번 문항으로
- ▶ 무응답 시, Go Q23

22-1. 귀댁의 갚아야 할 부채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 부채 :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빌려준 집의 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총 부채 ()만원 / 월 상환금 총 ()만원

- ▶ 부채 '0' 불가 / 월 상환금 '0' 가능
- ▶ 부채 범위 : 10 ~ 999999
- ▶ 월상환금 범위 : 0 ~ 999999
- ▶ 둘 중 하나라도 무응답 시, Go Q23
- ▶ 월 상환금 ≤ Q19-1)

23. 현재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 ▶ SQ04에 ①, ②로 응답한 경우 Go Q25
- ▶ SQ04에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Go Q24
- ▶ 무응답 시, SQ4에 ①, ②로 응답한 경우 Go Q25
- ▶ 무응답 시, SQ4에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Go Q24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③ 엄마와만 함께 살고 있음 ④爸爸와만 함께 살고 있음

- ▶ SQ4에 ③, ④, ⑤로 응답된 경우만 구현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 귀댁에서 ○○(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가구원	수
전체 가구원 수 ▶ Sum(25-1)~25-7) 구현	()명
1) ○○	(1)명
2) ○○(이)의 부모 ▶ Q1-1 또는 Q2-1에 ①, ⑤, ⑥, ⑦ 응답시 '1'구현 ▶ Q24에 ②로 응답된 경우, '0'구현 ▶ Q24에 ③, ④로 응답된 경우, '1'구현	(2)명
3)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명
4) ○○(이)의 동생	()명
5) ○○(이)의 할아버지·할머니	()명
6) ○○(이)의 친인척	()명
7) 기타	()명

- ▶ Q25 범위 : 응답범주 각각 0~9
- ▶ SQ3에 아이가 외동이 아닌 경우, SUM(Q25-3), Q25-4))은 0 불가
- ▶ Q25-3에 1 이상으로 응답하고, SQ3에 ○○이가 첫째(외동 포함)로 응답된 경우, Go Q25-3)-1
- ▶ Q25-4에 1 이상으로 응답하고, SQ3에 외동으로 응답된 경우, Go Q25-4)-1
- ▶ SQ3에 아이가 외동이고, Q25-3)=0 AND Q25-4)=0은 Go Q26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3)-1.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이)에게는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가 있음 ⇒ 25-3)-2번 문항으로

② ○○(이)에게는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가 없음 ⇒ 25-3)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4)-1. ○○(이)의 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이)에게는 동생이 있음 ⇒ 25-3)-2번 문항으로

② ○○(이)에게는 동생이 없음 ⇒ 25-4)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3)-2. ○○(이)의 출생순위는?

☑ 이전 응답값 : [SQ03] 구현

() 남 () 녀 중 () 째

▶ 범위(scroll bar): (0~5)남, (0~5)녀, (1~10)째

▶ ○○이의 성별과 동일한 출생순위에는 반드시 '1이상'이 되어야 함.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SQ03 구현

다음은 패혈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이)는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 경험 있음 ⇒ 26-1번 문항으로 ② 치료 경험 없음 ⇒ 27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27

26-1. ○○(이)가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치료 받은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번 치료받았음

▶ '0' 불가

▶ Q26-1 범위 : 1 ~ 20

▶ 11회 이상일 경우, Go Q26-1-1

▶ 무응답 시, Go Q27

26-1-1. ○○(이)가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11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① 아니요, 잘못 입력함 ⇒ 26-1번 문항으로

② 네, 맞습니다. 이유 () ⇒ 27번 문항으로

▶ 무응답 불가

27. ○○(이)는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입원한 적 있음 ⇒ 27-1번 문항으로 ② 입원한 적 없음 ⇒ 28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28

27-1. ○○(이)가 지난 1년 간 입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번 입원

▶ '0' 불가

▶ Q27-1 범위 : 1 ~ 20

▶ 무응답 시, Go Q27-2

27-2. ○○(이)의 지난 1년 간 입원일은 며칠 입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총 입원일을 응답해 주세요.

☑ 1개월 = 30일

지난 1년 간 총 ()개월 ()일 입원

▶ 범위(scroll bar): (0~11)개월, (0~29)일

▶ 개월 & 일에 동시에 '0' 불가

▶ 무응답 시, Go Q27-3

27-3. ○○(이)의 입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① 폐렴 ② 골절 ③ 장염 ④ 수술 (수술명:) ⑤ 기타

▶ 무응답 시, Go Q28

28. ○○(이)는 최근 한 달 간 병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통원 치료 경험 있음 (번) ② 통원 치료 경험 없음

▶ '0' 불가

▶ Q28 범위 : 1 ~ 30

▶ 무응답 시, Go Q29

29. ○○(이)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장애아는 장애 급수를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9-1. 장애명	29-2. 판정 받은 급수
① 지체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② 뇌병변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시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④ 청각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⑤ 언어장애	③ 3급 ④ 4급
⑥ 안면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⑦ 신장장애	② 2급 ⑤ 5급
⑧ 심장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⑨ 간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⑩ 호흡기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⑪ 장루, 요루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⑫ 간질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⑬ 지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⑭ 정신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⑮ 자폐성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⑯ 없음 ➡ 30번 문항으로	

▶ Q29-1에 응답된 장애에만 Q29-2 개별 구현

▶ 무응답 시, Go Q30

▶ ①~⑮까지와 ⑯은 중복응답 불가

30. ○○(이)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단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주세요.

30-1. 의사 진단 여부	30-2. 의사 진단 시기
① 선천성 심장질환	()년 ()월
② 간질	()년 ()월
③ 당뇨	()년 ()월
④ 천식	()년 ()월
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년 ()월
⑥ 아토피 피부염	()년 ()월
⑦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년 ()월
⑧ 만성 중이염	()년 ()월
⑨ 만성 요로감염	()년 ()월
⑩ 없음 ➡ Q31번 문항으로	

- ▶ Q30-1에 응답된 질환만 Q30-2 개별 구현
- ▶ 범위(scroll bar): (2012, 2013)년, (1~12)월
- ▶ 무응답 시, Go Q31
- ▶ ①~⑨까지와 ⑩은 중복응답 불가

31. ○○(이)는 다음의 경우에 주로 어느 손을 사용합니까?

문항내용	① 오른손	② 왼손	③ 양손
1) 크레파스 또는 연필을 어느 손으로 잡습니까?			
2) 밥을 어느 손으로 먹습니까?			
3) 물건을 어느 손으로 집습니까?			

- ▶ 무응답 시, Go Q32

32. ○○(이)는 안경을 낄니까?

- ① 예, 안경을 낄니다 ➡ 3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 33번 문항으로

- ▶ 무응답 시, Go Q33

32-1. ○○(이)는 언제부터 안경을 썼습니까?

만 ()세부터 안경을 낄

- ▶ 범위(scroll bar): 0~5
- ▶ 무응답 시, Go Q33

33. ○○(이)의 평상 모습을 토대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① 할 수 있다	② 할 수 없다
1)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2) 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 무응답 시, Go Q34

다음은 패널아동의 기관조사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관 조사는 ○○(이)의 담임선생님께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므로 선생님께서 편리한 시간에 진행
됩니다. 담임선생님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① 네, 동의합니다 ➡ 3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34-2번 문항으로

▶ Q9-1-1~3) 중에 하나라도 ① 응답이 있는 경우만 질문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9-1-1~3) 중 모두 ②로 응답한 경우 '③ 보육·교육기관 미이용'으로 응답값 채워넣기

34-1-1. ○○(이)는 다음 중 어디를 주로 다닙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9-2의 응답 내용 중,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 Q34-1-1 먼저 구현하여 해당 응답값을 구현

34-1. ○○(이)의 [육아지원기관 종류] 학급 이름과 담임선생님의 성함, 기관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1) ○○(이)의 소속 학급 명 ()

2) 담임교사 성명 ()

3) 기관 연락처 () ➡ HQ1번 문항으로

▶ [육아지원기관 종류]에 Q9-2 응답 내용 중, 가장 큰 값으로 응답된 범주 응답값 내용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단, [3] 기관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모름' 텍스트 입력은 가능

34-2.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관조사 미참여 이유 () ② 아니오, 참여하겠음 ➡ 34-1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나. 아동 대상 질문지

ID

--	--	--	--	--	--



2013 아동 대상 질문지

다음은 ○○(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

SQ1. ○○(아)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 준비된 체중계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Kg

★ 종단 17 : 미구현 적용

- ▶ 범위: 10.9~48.7 / [2007 표준성장도표 2.5~3세 여아 하위 3%W < 범위 < 10세 남아 상위 3% 참조]
- ▶ '측정안함' 버튼 구현 : 아동 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 '측정안함'일 때 Go SQ2
- ▶ SQ1 < 종단 17, Go SQ1-1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1-1. ○○(아)의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 ② 다이어트
- ③ 기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2. ○○(아)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Cm

★ 종단 18 : 미구현 적용

- ▶ 범위: 84.8~145.5 / [2007 표준성장도표 2.5~3세 여아 하위 3% < 범위 < 10세 남아 상위 3% 참조]
- ▶ '측정안함' 버튼 구현 : 아동 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 '측정안함'일 때 Go SQ3
- ▶ SQ2 < 종단 18, Go SQ2-1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2-1. ○○(아)의 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 ② 기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자아개념 조사	
※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과 조사를 진행	
구현 형태	문항 번호 옆의 카드 설명은 미구현(초록색 글씨는 조사원 교육 사항)
질문 문항	
응답 창	
그림	
▶ ☒ 그림 1. 크기 : 가로 800 픽셀 × 세로 270 픽셀 2. 그림 제시 : 그림과 그림사이 구분선으로 구분 3. 아동이 응답을 변경하였을 때는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4. 그림이 모두 구현된 이후에 문항 순차적으로 제시 ▶ Copyright © 1979 by Stoelting Co., 620 Wheat Lane, Wood Dale, IL 60191.	
▶ 무응답 불가 문항	
▶ ※ 문항번호에 붉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 응답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접원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임. 그림과 함께 구현되지 않는 경우 페이지에 따라서 다른 문항과 함께 한페이지로 구현 가능	
SQ3. 여기 아이 그림이 있어. (여아용 그림을 가리키며) 이 아이는 여자 아이니, 남자 아이니?	
☒ 그리기용 종이(남아용, 여아용)를 아이 앞에 제시한다. ① 같음 ② 다름	
SQ4. (남아용 그림을 가리키며) 이 아이는 여자 아이니, 남자 아이니?	
① 같음 ② 다름	
SQ5.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① 같은 성별 ② 다른 성별 ③ 모름	
SQ6.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 있는 아이의 비어있는 얼굴에 네 얼굴을 그려 넣어 보겠니?	
☒ 아동이 선택한 성별의 종지와 연필, 지우개를 아동에게 제시하여, 그리도록 한다. ☒ 아동이 본인과 다른 성별을 고른 경우, 선택한 성별의 그림을 그린 후 추가로 같은 성별을 그리도록 한다. ※ 조사 시작 전, 아동에게 제공될 등록하게 깎은 연필, 지우개, 종이(성별에 따라 각 1장)를 함께 준비함. ※ 색연필 등으로 그리기를 원하거나 추가로 더 그리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종료 후 진행하도록 유도 ※ 패널 아동의 형제자매가 함께 그리기를 원하는 경우 여분의 종이를 제공하여 옆마 옆에서 그리도록 제시함	
SQ6-1. 네 이름이 뭐니?	
SQ6-2. (아이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그래, 이것이 ○○(이)니? 자, 여기에 ○○(이)의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이)가 쓸래? 선생님이 도와줄까?	
⇒ 이름을 써넣음	
SQ6-3. ○○(이)는 네 이름이 좋니? 아니면 다른 이름이면 좋겠니?	
① 이름을 좋아한다 ② 좋아하지 않는다 ③ 둘 다 ④ 모름	
SQ6-4. 지금 ○○(이) 그림을 그렸지? ○○(이) 그림을 여기에 세워 놓자.	
※ 모니터 상단의 집게에 그림을 집어 놓기 ▶ 아이와 동일한 성별로 조사 진행(중단데이터_성별, 미구현 적용)	
SQ6-5. 이제부터 그림을 보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 아이가 그림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 “그럼, 이게 ○○(이)인 것처럼 하자.”라고 말한다.	

1. (깨끗한 아이 그림)과 (지저분한 아이 그림)

-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아주 깨끗하고, 다른 한 아이는 아주 지저분해. 누가 깨끗한 아이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 2) 지저분한 아이는 어떤 아이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자,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4) (선택한 그림을 가리키며) 그래, 너는 이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이의 말을 반복하며) 그래, 너는 [깨끗한 or 지저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① 깨끗한 아이 ② 지저분한 아이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 [⑤ 불일치]는 아이가 지정한 그림과 말이 다른 경우를 의미함
 ※ 아이의 대답을 확인하면서 기록. 이후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검사자의 확인에 대해 아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질문)

4-1) 그러면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① 깨끗한 아이 ② 지저분한 아이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2. (혼자 노는 그림)과 (친구와 노는 그림)

-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함께 노는 친구가 없고, 다른 한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어. 어떤 아이가 친구가 없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 2) 친구와 함께 노는 아이는 누구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아이가 이해하지 못 할 경우) ○○(이)는 혼자 노니, 친구들과 함께 노니?
 ① 친구 ② 혼자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3. (책상에 엎드려 있음)과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음)

-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싫어하고, 다른 한 아이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좋아하셔. 선생님이 싫어하는 아이는 누구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 2)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는 누구니?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이)를 좋아하니, 싫어하니?
 ① 좋아함 ② 싫어함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4. 여자 아이 그림과 남자 아이 그림

: 실질적인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아동의 인식에 따라 문항 진행

1) 형제가 있니? 동생이나 형 아니면 누나가 있니?

- ① 있음 → 1-1)번 문항으로 ② 없음 → 5번 문항으로

1-1) 이름이 뭐니? (한 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명의 이름을 말해 보겠니?

- ① 여자 자매 → 4-2)번부터 여자 아이 그림 구현

- ② 남자 형제 → 4-2)번부터 남자 아이 그림 구현

2) 이 그림에 있는 아이가 네 형(또는 동생) ☆☆(이)라고 생각하자. 엄마와 아빠는 ○○(이)와 ☆☆(이)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시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이) ② 형제자매 ③ 둘 다 ④ 때에 따라 다름 ⑤ 모름 ⑥ 불일치

▶ ③번이 선택된 경우, 3) 구현. 그 외의 경우, Go Q5

3) 만약 엄마, 아빠가 ○○(이)와 ☆☆(이) 둘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니?

- ① ○○(이) ② 형제자매 ③ 둘 다 ④ 때에 따라 다름 ⑤ 모름 ⑥ 불일치

5. (영덩이를 맞는 그림)과 (사탕을 받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엄마에게 매를 맞고 있고, 다른 한 아이는 엄마가 사탕을 주고 있어.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매를 맞고 있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엄마에게 사탕을 받고 있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사탕 ② 매 맞음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6. (장난감이 많은 그림)과 (혼자 앉아 있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고, 다른 한 아이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어. 어떤 아이가 장난감이 많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장난감이 없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장난감 있음 ② 장난감 없음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7. (말을 많이 하는 그림)과 (말을 적게 하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말을 많이 하고, 다른 한 아이는 말을 조금 해. 어떤 아이가 말을 많이 하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말을 조금 하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많이 함 ② 조금 함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8. (걸어가는 듯한 그림)과 (달리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달리기를 잘 못하고, 다른 한 아이는 달리기를 잘 해. 어떤 아이가 달리기를 못 하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달리기를 잘 하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잘 함 ② 못 함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9. (높이 점프하는 그림)과 (점프를 높게 하지 않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 한 아이는 높이뛰기를 아주 잘 하고, 다른 한 아이는 높이뛰기를 못해. 높이뛰기를 잘 하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높이뛰기를 잘 하지 못 하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잘 함 ② 못 함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0. (야구 게임을 하는 그림), (환호하는 그림)과 (축 쳐진 그림)

1)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

▶ 1) 문항 구현 후, 10LG 구현 전 삭제

2) 한 아이는 이기고 다른 한 아이는 졌어.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이겼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누가 졌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4)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이긴다 ② 진다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1-1. (주머니가 볼록한 그림)과 (주머니가 홀쭉한 그림)

1) 이 아이들은 할로윈 날에 사탕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 한 아이는 사탕을 많이 받았고, 다른 한 아이는 사탕을 조금 받았어. 어떤 아이가 사탕을 많이 받았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사탕을 조금 받은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많이 ② 조금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1-2. (세벳돈을 많이 받은 그림)과 (세벳돈을 적게 받은 그림)

1) 이 아이들은 설날에 세배를 하고 세벳돈을 받았어. 한 아이는 세벳돈을 많이 받았고, 다른 한 아이는 세벳돈을 조금 받았어. 어떤 아이가 세벳돈을 많이 받았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세벳돈을 조금 받은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많이 ② 조금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2. (벽에 낙서하는 그림)과 (밧자루질 하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나쁜 아이이고, 다른 한 아이는 좋은 아이야. 어떤 아이가 나쁜 아이이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좋은 아이 ② 나쁜 아이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3. (웃고 있는 그림)과 (울고 있는 그림)

1) 이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웃고 있고, 한 아이는 울고 있어. 어떤 아이가 웃고 있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2) 울고 있는 아이는 누구니?

- ① 구분 ② 구분 못함

3) ○○(이)는 누구와 비슷하니? ⇨ 아동의 응답내용 확인하면서 기록

- ① 웃는 아이 ② 우는 아이 ③ 둘 다 ④ 모름 ⑤ 불일치

14. 카드 필요 없음

1) ○○(이)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좋니?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니?

- ① 현재 사는 곳이 좋다 ② 다른 곳에 살고 싶다 ③ 때때로 ④ 모름

다. 어머니 대상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2013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대상 아이를 주로 돌보시는 주 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66,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귀하는 조사 대상 아이(이하 ○○)의 어머니입니까?

- ① 예 ➡ 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1번 문항으로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1-2. 귀하는 ○○(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아버지 ➡ 3번 문항으로
 ② 할아버지.할머니 ③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기타 친인척 ⑤ 기타 _____

➡ 5번 문항으로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2.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① 임신 중 ➡ 2-1번 문항으로
 ② 낳겠음 ➡ 2-1번 문항으로
 ③ 낳지 않겠음 ➡ 2-3번 문항으로
 ④ 잘 모르겠음 ➡ 2-3번 문항으로

2-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2-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_____

➡ 3번 문항으로

2-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_____

3.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 중인 보육·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구 분	3-1.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3-2.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 귀하의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들어본 적 있음)	아니오 (들어본 적 없음)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예 (영향을 미침)	아니오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만 0-5세 양육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만 3-4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라. 아버지 대상 질문지

ID

--	--	--	--	--	--



한국아동패널 2013 아버지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본 질문지 대신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66,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
 ⑥ 5명 이상 ⇨
 ⑦ 잘 모르겠음

- 1-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딸 _____ 명, 아들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2.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이)의 장래에 대해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소 원한다	매우 원한다
1) 돈을 잘 번다.	①	②	③	④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①	②	③	④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려도 임박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아이와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하면 됩니다.

문항내용	배우자가 함	대부분 배우자가 함	똑같이 함	대부분 내가 함	내가 함	해당 없음
1) 아이를 목욕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들봐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와의 일정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아이의 아침식사를 차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아이의 친구가 집에 와서 놀 때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아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얼마나 자주 _____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중중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취업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14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15번 문항으로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14번 문항으로
- ④ 아니요 ➡ 15번 문항으로

14. 귀하의 현재 직장, 직위는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 ① 예 ➡ 15번 문항으로
- ② 아니요 ➡ 14-1번 문항으로
- ③ 지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14-1번 문항으로

14-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
-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14-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14-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양식조리·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 주로 하는 일: ()

14-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 직장(사업체) 내 직위: ()

14-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가족 간에 상의나 질문 없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도, 가족 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6.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임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육아휴직)
-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 받는 것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마. 기관조사용 질문지



2013 기관용 질문지[Web]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아동 부모님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66,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94,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전 문항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기관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선생님께서 임용되신 기관으로 응답해 주세요.
 ① 유치원 ➡ 2-1번 문항으로
 ② 어린이집 ➡ 2-2번 문항으로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 2-4번 문항으로

- 2-1.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3-1번 문항으로
 ① 국립 ② 공립(병설) ③ 공립(단설) ④ 사립 법인 ⑤ 사립 개인

- 2-2.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2-3번 문항으로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직장 ④ 민간 ⑤ 가정 ⑥ 부모협동

- 2-3.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3-2번 문항으로
 ① 일반 ② 영아 전담 ③ 장애아 전담 ④ 장애아 통합 ⑤ 시간 연장
 ⑥ 24시간 ⑦ 휴일 ⑧ 방과 후

- 2-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4번 문항으로
 ① 영어 학원(영어 유치원) ② 놀이학교 ③ 미술학원 ④ 태권도 등의 체육 학원
 ⑤ 피아노 등의 음악 학원 ⑥ 기타 ()

- 3-1.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은 '2주기 유치원 평가(2011년-2013년)'를 받았습니까? ➡ 4번 문항으로
 ※ 평가 여부를 모르실 경우, 유치원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평가 받음 ② 평가 받을 예정 ③ 평가 계획 없음

- 3-2.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평가 여부를 모르실 경우, 어린이집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인증 받음 ② 신규인증 받음 (인증 시기 _____년)
 ③ 심사중(신청 상태) ④ 인증 받지 않음(인증 준비 중, 통과 유보 포함)
 ▶ ② 범위(scroll bar): 2003~2013

4.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총 학급(반) 수와 재원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1) 총 학급 수 ()개 2) 총 재원 아동 수 ()명
 ▶ 1) 범위: 1~50
 ▶ 2) 범위: 5~999

다음은 기관의 환경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선생님 학급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5-1. 연령	① 단일연령반 ② 혼합연령반(만 ____세부터 만 ____세까지) ▶ ② 범위(scroll bar): 0~5
5-2. 학급 아동 수	남아 ()명, 여아 ()명 ▶ 남, 여 각각 0~40 ▶ 남, 여 모두 0으로 응답될 수 없음
5-3. 학급 교사 수	① 주담임 ()명 ② 부담임 ()명 ③ 보조 교사 ()명 ▶ 범위: Q5-3-①: 1~5, Q5-3-②: 0~5, Q5-3-③: 0~5 ▶ 주담임에는 '1' 그 외는 '0' Default → 클릭 시, 0 사라지고 입력되도록 구성

6. 선생님 학급의 교실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 학급의 아동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많다고 생각한다 ②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적다고 생각한다

7-1.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떻습니까?

교사 1 : 아동 ()명

▶ 범위: 1~50

8. 현재 아동 수에 비해 선생님 교실의 크기(면적)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9. 선생님 교실에는 아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0. 현재 아동 수에 따라 기관의 화장실, 복도, 유희실 등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11. 근무하시는 기관에는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 근무하시는 기관에는 실내에 대근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3. 다음은 ○○(이)가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만 포함됨

☒ 실시하지 않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0'으로 입력해 주세요.

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없다 ➡ 14번 문항으로

②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 13-1번 문항으로

특별활동 내용	13-1.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13-2.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횟수	13-3.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간
1)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2)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3)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4) 과학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5)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6)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7) 컴퓨터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8)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9) 한자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0) 영어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1)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2) 통합프로그램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3) 기타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 Q13-1에 '1' 이상으로 응답된 경우만, Q13-2, Q13-3 구현

▶ Q13-1 범위(scroll): 0~7 / 전체 응답에 '0'이 될 수는 없음

▶ Q13-2 범위(scroll): 1~20 / '0' 불가

▶ Q13-3 범위(scroll): 10~300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등·하원합니까?

1) 등원 ()

2) 하원 ()

- ① 도보 ②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③ 기관 운영 차량(다른 기관 차량 포함)
④ 자가용 ⑤ 일정하지 않음 ⑥ 기타()

15. ○○(이)는 **주로** 누구와 함께 등·하원합니까?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까지 데려다 주고, 차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응답해 주세요.

1) 등원 시 동반자 ()

2) 하원 시 동반자 ()

- ① 부모 ② 할아버지/할머니 ③ 친인척
④ ○○(이)의 형제자매 ⑤ 가사 또는 양육 도우미 ⑥ 이웃
⑦ 교사(다른 기관 교사 포함) ⑧ 일정하지 않음
⑨ 없음(아이 혼자 등·하원) ⑩ 기타()

16. ○○(이)는 **주로** 몇 시에 등·하원합니까?

()에 등원하여, ()시에 하원함

▶ 등원(scroll bar): 오전 8시 이전, 오전 8시-9시, 오전 9시-10시, 오전 10시-11시, 오전 11시 이후, 일정하지 않은 시간

▶ 하원(scroll bar): 오후 1시 이전, 오후 1시-3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30분, 오후 7시 30분 이후, 일정하지 않은 시간

▶ 등원에 [오전 11시 이후], 하원에 [오후 1시 이전]으로 응답될 경우, 경고창

◎ ○○(이)가 오전 11시 이후에 등원하여, 오후 1시 이전에 하원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값을 확인해 주세요.

17. ○○(이)는 주로 어떤 영역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영역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언어 영역(도서영역, 휴식영역) ② 미술 영역(조형영역) ③ 쌓기 영역(블록영역)
④ 수/과학 영역(탐구영역) ⑤ 조작 영역
⑥ 역할놀이 영역(소꿉놀이, 일상영역) ⑦ 음률 영역
⑧ 컴퓨터 영역 ⑨ 기타() ⑩ 해당 없음(영역 구분 없음)

18. ○○(이)의 기관에서의 식습관은 또래들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문항 내용	보 기				
1) 먹는 양	① 매우 조금 먹는 편	② 조금 먹는 편	③ 보통	④ 많이 먹는 편	⑤ 매우 많이 먹는 편
2) 편식 정도	① 편식이 심함	② 편식하는 편	③ 보통	④ 골고루 먹는 편	⑤ 전혀 편식하지 않음
3) 먹는 속도	① 매우 느림	② 느림	③ 보통	④ 빠름	⑤ 매우 빠름

19. ○○(이)는 기관에서 낮잠을 잡니까?

① 낮잠시간 없음 ⇒ 20번 문항으로

② 낮잠을 잠 ⇒ 19-1번 문항으로

③ 낮잠을 자지 않음 ⇒ 20번 문항으로

④ 불규칙적임 ⇒ 19-1번 문항으로

⑤ 기타 () ⇒ 19-1번 문항으로

19-1. OO(이)가 기관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은 1회 평균 몇 분입니까?

1회 평균 ()분 낮잠을 잠

▶ 범위(20~150)

20. OO(이)는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 기관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21. OO(이)는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다음은 ○O(이)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_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이)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예	아니오
저작권 관련 비공개 문항		

다음은 ○○(이) 부모님의 기관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기관에서의 ○○(이)의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 ③ 보통
④ 관심을 가지는 편 ⑤ 매우 관심이 많음

25. ○○(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 항목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올 한 해 (2013년 1월~현재) 동안 참여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행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겠음	해당없음 (행사 미개최)
1) 오리엔테이션	①	②	▶원클릭	▶원클릭
2) 아동 행사 (운동회, 재롱잔치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3) 자원봉사 (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원클릭	▶원클릭
5) 담임 상담	①	②	▶원클릭	▶원클릭
6)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①	②	▶원클릭	▶원클릭
7) 재정적 기여 (전체간식제공, 바자회 지원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8) 운영위원회	①	②	▶원클릭	▶원클릭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선생님의 현재 생각과 교사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써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선생님이 처음 ○○(이)의 담임교사가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부터

▶ 범위(scroll bar): (2008~2013)년 (1~12)월

▶ 응답 시점보다 이후는 응답 불가

28.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을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28-1. 주중 근무시간	28-2. 주말 근무 일 수	28-3. 주말 근무시간
1일 주중 ()시간 ()분 ▶ (4~24)시간 (0~50/10간격)분	1개월 평균 ()일 ▶ 범위(scroll bar): 0~8 ▶ '0' 응답 시, Go Q29	1일 평균 ()시간 ()분 ▶ (4~24)시간 (0~50/10간격)분

29.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 ② 남

30.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세

▶ 범위: 18~65세

31.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기관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재직 경험 유무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 범위(scroll bar): (0~50)년 (0~11)개월

▶ [년], [개월]이 모두 '0' 불가

32.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 ① 교사 자격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④ 초·중등교사 자격증

▶ ①은 중복응답 불가

3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고등학교 졸업 ➡ **조사 종료**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⑥ 대학원 재학 ⑦ 대학원 졸업

34.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바. 건강 관련 질문지

ID 

2013 알레르기질환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아동들의 알레르기질환 등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의 알레르기질환은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국가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와 임신, 분만 및 신생아기, 가족력 및 사회경제상태, 영유아기 및 현재 환경 관련 요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66,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② 아버지
-------	--	---------	----------------

본 질문지의 응답 내용은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서울 아산병원에 위탁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업데이트 동의 확인 서명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 1-1. 있었다면 **지금까지 처음으로**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① 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7-12개월 ③ 생후 13-24개월
④ 생후 25-36개월 ⑤ 생후 37개월 이후

- 1-2. 출생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숨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6회 ⑤ 7회 이상

- 1-3. 그 중 한번이라도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다고 **의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4.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출생 이후 현재까지	생후 12개월 이내	최근 12개월 이내
응급실 방문 횟수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입원 횟수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① 없었다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 2-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6회 ⑤ 7회 이상

- 2-2. **최근 12개월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생후 12개월 이전 ② 생후 13~24개월 ③ 생후 25~36개월
④ 생후 37~48개월 ⑤ 생후 49개월~60개월 사이

3.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 3-1.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생후 12개월 이전 ② 생후 13~24개월
③ 생후 25~36개월 ④ 생후 37개월 이후

4.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 4-1.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약물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① 매일 사용한다 ② 1주일에 1회 이상 ③ 1개월에 1회 이상
 ④ 3개월에 1회 이상 ⑤ 3개월에 1회 미만
- 4-2. 사용한 천식약물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선택가능)
 ① 모른다 ② 기관지확장제 ③ 스테로이드제
 ④ 심골레어 또는 오논 ⑤ 기타 ()
5. ○○(이)는 **출생 후 24개월 내에 (만 2세 이전)** 의사로부터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 5-1. 모세기관지염을 **처음 앓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7~12개월 ③ 생후 13~18개월 ④ 생후 19~24개월
6.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진과 같은 가려운 피부발진(‘태열’ 또는 ‘아토피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얼굴, 귀, 목, 접히는 부위, 몸통 등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2번 문항으로

11-1. ○○(이)가 이러한 가려운 피부 발진이 **처음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7~12개월
③ 생후 13~24개월 ④ 생후 25~36개월 ⑤ 생후 37개월 이후

1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가려운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2-1. **최근 12개월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가려운 피부발진이 나타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생후 12개월 이전 ② 생후 13~24개월 ③ 생후 25~36개월
④ 생후 37~48개월 ⑤ 생후 49개월~60개월 사이

13.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태열" 또는 "습진" 이라고도 함)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13-1. 아토피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생후 12개월 이전 ② 생후 13~24개월 ③ 생후 25~36개월 ④ 생후 37개월 이후

14.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태열" 또는 "습진" 이라고도 함)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5.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결막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6.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7번 문항으로**

16-1. 의심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 ① 피부 증상 (두드러기, 피부발진, 습진, 입 주위 부종, 얼굴이 붓는다, 가려움증 등)
② 위장관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등)
③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쌉쌉거림, 호흡곤란, 청색증 등)
④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압저하, 의식저하, 저혈압 등)
⑤ 기타

16-2. **의심되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 ① 계란 ② 우유 ③ 콩 ④ 땅콩 ⑤ 밀
⑥ 메밀 ⑦ 소고기 ⑧ 닭고기 ⑨ 돼지고기 ⑩ 깨
⑪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등) ⑫ 갑각류 (새우, 게, 가재, 굴 등)
⑬ 과일 (복숭아, 메론, 수박, 키위, 사과,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⑭ 채소 (샐러리, 당근, 겨자, 마늘, 브로콜리, 감자, 양파, 후추, 토마토 등) ⑮ 기타

17.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부모님과 ○○(이)의 형제자매의 알레르기질환 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환 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분	○○이(의) 아버지	○○이(의) 어머니	○○이(의) 형제자매
천식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알레르기비염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아토피피부염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① 진단 받음 ② 진단 받지 않음

다음은 약제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이)는 **출생 후 12개월 내(돌 이전)에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2 회 ③ 3-4 회 ④ 5회 이상
20. ○○(이)는 **출생 후 12개월 내에 3일 이상 진통제/해열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를 복용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① 없음 ② 1-2 회 ③ 3-4 회 ④ 5회 이상

다음은 ○○(이)의 출생 이후 거주지의 주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소지 별 대기환경과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가능하면 번지까지**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였습니까? 살기 시작한 날짜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22. ○○(이)의 **출생 당시** 거주지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_____번지 _____
23. ○○(이)가 출생한 후 지금까지 이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5번 문항으로**
24.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후 12개월 이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 집 수리 등으로 잠시 동안 옮겨 지내던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_____번지 _____

다음은 습기, 곰팡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살았던 집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있었습니까?
① 예 ➡ **2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6번 문항으로**

25-1. 있었다면 **다음 각 공간의 벽이나 천장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없거나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이지 않았다 (0%)	5% 미만	5-30%	30% 이상
침실 및 거실	①	②	③	④
주방	①	②	③	④
욕실	①	②	③	④
기타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지하실 등)	①	②	③	④

26.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살았던 집에 **곰팡이가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7.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살았던 집에 **곰팡이 냄새**가 났었습니까?

- ① 나지 않았다 ② 났다 안 났다 했었다
③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났었다 ④ 지속적으로 심하게 났었다

28.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 살았던 집에 **물이 새거나 물이 젖어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2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9번 문항으로

28-1. **물이 새거나 물이 젖어있는** 곳이 있었다면, 그 상태는 어땠습니까?

- ① 손으로 만져서 축축한 정도 ② 물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

29.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있습니까?

- ① 예 ➡ 2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0번 문항으로

29-1. 있다면 **다음 각 공간의 벽이나 천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없거나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이지 않았다 (0%)	5% 미만	5-30%	30% 이상
침실 및 거실	①	②	③	④
주방	①	②	③	④
욕실	①	②	③	④
기타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지하실 등)	①	②	③	④

30.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애완동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3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2번 문항으로

31-1. 키운 개는 몇 마리였습니까?

- ① 1마리 ② 2마리 ③ 3마리 ④ 4마리 이상

32. ○○(이)의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3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3번 문항으로

32-1. 키운 고양이는 몇 마리였습니까?

- ① 1마리 ② 2마리 ③ 3마리 ④ 4마리 이상

다음은 흡연에의 노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33. ○○(이)는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습니까?

- ① 예 ➡ 3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4번 문항으로

33-1.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담배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7회

33-2. 어머니가 ○○(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담배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3-3. 어머니가 ○○(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직접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3-4. ○○(이)는 출생 후 12개월 내에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습니까?

- ① 예 ➡ 33-5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33-5. 있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담배냄새를 맡고 있었습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7회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7차년도(2014) 조사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2014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4년 7월부터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가 시작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는 귀 닥의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닥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는 미리 작성하셔서 면접원이 방문 할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올해 언어발달검사는 아동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인 수용어휘와 의사표현을 잘 하는지에 대한 표현어휘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교육·보육 기관의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올해는 조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조사 참여 사례금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 조사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동패널 핫라인(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7월 초부터 진행되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패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
 ※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아동패널 핫라인 010-9104-2704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33 한국빌딩 7층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398-7766, 7790 FAX) 02-730-3317	 조사수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3488-2783 핫라인) 010-9104-2704
---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육아정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의 수립과**
국내 연구 및 국제 연구 수행에도 활발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아동패널 관련기사**

육아맘 57% “양육비용 지원하면 자녀 낳겠다”

여성의 절반 이상은 국가가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기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 4세 자녀를 둔 여성 1,703명 가운데 57.0%가 국가가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용의 걱정 수준을 묻자 응답자의 35.5%는 '30만원~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20만원~30만원'(32.3%), '50만원 이상'(30.1%)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미취학 아동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 등 보육·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43.6%가 더 낳을 생각이 '조금 있다'고 답했고 '매우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8.5%였다. (중략) 응답자 3명 중 1명은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이 자녀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고, 무상보육의 경우 자녀 낳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좀 더 높았다.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53.1%, 46.1%로 조사됐고, 만 5세 누리과정도 69.6%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29.9%였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력은 더 높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만 3~4세 누리과정이 실시될 경우 출산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육아정책과 후속 출산의 연관성은 가구 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아동패널 및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성과: 기사 및 방송

2014-05-04	KBS	영·유아 주중 여가시간 3시간 10분...호주의 1/3에 불과
2014-03-26	굿모닝충청	아이 · 남편 · 직장은 잊어라!
2014-03-16	디트뉴스	3040 여성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2014-03-11	아시아경제	'맞벌이'는 있어도 '맞육아'는 없더라
2014-02-02	국민일보	아이 양육하는 여성 10명 중 8명은 “더이상 출산 계획 없다”
2014-01-20	한겨레뉴스	전업맘 양육 우울감 정규직 직장맘보다 커
2014-01-13	키즈맘	전업주부 우울증 탈출법 4가지
2013-11-05	키즈맘	유전자 탓은 이제 그만. 부모가 주목해야 할 '양육 환경'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ricce.re.kr>)에서 기사 원문 및 더 많은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7차년도(2014년) 경품 행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입니다.

이번 2014년 경품 행사는 패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에 보답하고자, 경품 당첨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본 경품추첨 행사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경품 대상 : 2014년 아동패널조사 참여자
- > 실시 일정 : 2014년 10월 중 실시
- > 실시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 > 결과 발표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공지(당첨자 개별 연락)
- > 관련 문의 :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핫라인(010-9104-2704)

패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 품 추 첨



1등: 로봇청소기 (2명)



2등: 세탁기 (4명)



3등: 에어워셔 (5명)



4등: LED 스탠드 (10명)



5등: 문화상품권 3만원 (40명)



6등: 동화책 (100명)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6차년도(2013년) 경품당첨자 명단

1등: 로봇청소기 2명



이○수(강원), 이○미(광주)

2등: 제습기 5명



오○화(서울), 서○경(대전), 서○옥(대구)
이○미(부산), 이○원(광주)

3등: 도형 테트리스 세트 5명



김○하(서울), 최○숙(대전), 문○미(대구)
박○선(부산), 조○아(광주)

4등: 음식물 처리기 7명



김○경(서울), 문○화(서울), 최○순(대전)
황○경(부산), 김○옥(대구), 박○주(광주)
박○경(광주)

5등: 맥포머스 자석블럭 10명



김○희(서울), 신○미(서울), 신○희(서울)
김○정(서울), 김○정(서울), 김○미(광주)
김○연(대구), 서○리(부산), 이○이(부산)
이○진(광주)

6등: 영어동화책 15명



나○희(서울), 주○경(서울), 경○정(서울)
조○은(광주), 박○자(대전), 양○주(대전)
정○희(대전), 김○경(대구), 이○자(대구)
조○희(대구), 임 ○ ○미(부산), 강○란(부산)
장○숙(대전), 최○영(광주), 고○숙(광주)

7등: 문화상품권(2만원) 50명



이○형(서울),	조○미(서울),	신○혜(서울),	심○은(서울),	한○희(서울),	신○애(서울),	최○은(서울),	이○영(서울)
박○자(광주),	조○원(서울),	이○하(서울),	윤○혜(서울),	윤○정(서울),	임○연(대전),	김○자(서울),	서○미(서울)
김○영(서울),	박○환(서울),	최○수(서울),	황○희(서울),	이○정(서울),	최○영(서울),	김○화(서울),	윤○정(서울)
설○영(서울),	최○영(서울),	이○영(서울),	배○경(서울),	신○경(서울),	유○은(대전),	나○선(서울),	이○경(대전)
이○주(대전),	이○경(서울),	양○옥(서울),	서○일(대구),	유○건(대구),	구○경(서울),	오○선(대구),	양○주(부산)
김○은(서울),	박○이(부산),	김○연(부산),	배○화(부산),	김○화(부산),	김○희(부산),	전○옥(부산),	전○희(부산)
김○희(부산),	박○제(대구)						

연구보고 2014-33

한국아동패널 2014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삼신인쇄 02) 2285-575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10-3 93330

